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플라톤 『소피스트』에서 부정서술과 비동일성

– 해석의 일관성과 확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 전공

변 지 윤

문학석사 학위논문

플라톤 『소피스트』에서 부정서술과 비동일성

– 해석의 일관성과 확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 전공

변 지 윤

초 록

본 논문은 플라톤의 대화편 『소피스트』의 주요 논의를 to on(being)과 to mē on(not being) 그리고 거짓말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고, 이에 대한 연구사를 검토하여 해당 대화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예비작업이자 안내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통적 해석'으로 분류되는 입장들이 to on 의 의미를 영어 be 동사와 같이 해석하여 존재사, 계사, 동일성 기호로 구분함으로써 대화편의 주요 내용들을 해석하려는 시도에 실패하였음을 보이고자 한다. 전통적 해석은 to on 의 용법과 의미를 구분함으로써 해석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특히 to mē on 을 비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거짓말에 대한 대화편 내의 설명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며 플라톤의 논증이 비약을 저지르도록 만든다. 프레데와 브라운 각각의 대안적 해석은 이 점을 잘 보여주며, to on 의 의미와 용법 구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소피스트』 해석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전통적 해석과 이 두 사람의 해석을 대비함으로써, 본 논문은 『소피스트』 연구에서 to on 과 to mē on 에 대한 일관된 해석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임을 주장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전통적 해석을 개선, 보완한 브라운의 온건한 해석에 비해 전통과 단절한 프레데의 해석이 『소피스트』에 대한 더 나은 설명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대화편 내 유들의 결합을 다루는 부분에서 to mē on 이 비동일성을 의미한다는 이해를 전통적 해석과 공유하는 브라운은 전통적 해석과 마찬가지로 대화편 내의 거짓말 논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에 봉착한다. 또한 그의 해석은 to on 과 to mē on 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 유들의 결합에 대한 논의가 대화편 내의 다른 내용들에 확장 적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게 된다. 반면 프레데는 to mē on 이 비동일성과 구분되는 일상적 부정 서술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거짓말 논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마련하고 일관되게 이해된 to mē on 을 『소피스트』 전체 내용에 대한 이해로 확장시킬 가능성을 확보한다. 두 사람에 대한 이와 같은 비교 평가를 통해 본 논문은 to on 과 to mē on 에 대한 일관된 이해가 더 나아가 해당 개념을 직접 고찰하지 않는 대화편 내의 다른 부분들을 해석하는 데에도 확장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결론으로서 『소피스트』에 대한 기존의 대다수 연구가 전제한, 영어 be 동사 이해가 적용된 to on 의 용법과 의미 구분은 재고 및 폐기되어야 한다. 오히려 to on 의 의미는 『소피스트』 전체에 걸쳐 일의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유들의 결합에서 to mē on 이 비동일성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구분되는 일상적 부정 서술 to mē on 해석은 일관성과 확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소피스트』에 대한 기존 해석의 지형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동일성과 구분되는 to on, 비동일성과 구분되는 to mē on 에 대한 일관된 해석이 필요하고 이러한 해석은 『소피스트』 전체, 나아가 플라톤의 철학 체계 전반으로 확장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확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에 기존 해석의 공통된 한계를 미연에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주요어: 플라톤, 소피스트, 부정 서술, 비동일성, to mē on.
학번: 2011-20059

목 차

서론 ····· 1

I. 『소피스트』 해석의 배경과 쟁점 ····· 8

1. 소피스트 정의에서 to mē on 의 문제로 ····· 9

1) 소피스트의 여러 모습들 ····· 10

2) To mē on, 모상, 거짓말 ····· 12

3) To on 과 늦게 배우는 자들 ····· 13

4) 유들의 결합 ····· 14

5) 말과 거짓말 ····· 16

2. 해석의 쟁점들 ····· 18

1) 없는 것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 ····· 20

2) X 는 Y 이고 Y 이지 않다 ····· 22

3) 거짓말에 필요한 to mē on ····· 24

II. 전통적 해석과 한계 ····· 30

1. 전통 1. Be 동사의 용법과 의미의 구분 ····· 33

1) 존재하지 않는 to mē on ····· 35

2) 계사와 동일성 기호 1. ····· 35

3) 계사의 부정과 거짓말 1. ····· 37

4) 하나의 to mē on 과 세 가지 의미 ····· 38

2. 전통 2. 불완전 용법과 축약 ····· 45

1) 아무것도 아닌 to mē on ····· 45

2) 계사와 동일성 기호 2. ····· 47

3) 계사의 부정과 거짓말 2. ····· 48

4) 보충어 없는 to on 과 등장하지 않는 to mē on ····· 48

3. 전통 3. 필요하지만 찾을 수 없는 구분 ····· 50

1) 존재사와 계사의 구분은 없다 51
2) 계사와 동일성 기호, 또는 형용사와 추상명사 51
3) Heteron 과 mē mega 53
4) 플라톤의 실패와 자비의 원리 56
4. 두 가지 간극들 58
1) 한 동사의 세 의미 58
2) 동일성 기호 부정과 계사 부정 59
III. Is 의 두 용법과 to mē on 63
1. To on 의 두 용법과 하나의 의미 68
1) To mē on 문제와 to on 문제 69
2) Ta onta auta kath' hauta(is1)와 ta onta pros alla(is2) 73
2. 유들의 결합과 다른 것의 부분 80
1) 유들의 결합(tōn genōn koinōneīn) 82
2) 세 가지 to mē on 과 hoion mē mega 89
3) Heteron 의 부분인 to mē on 96
3. 거짓말의 정의 100
1) Logos 분석과 진리치의 자리 102
2) 거짓말의 정의와 두 가지 보편양화 106
3) Heteron 과 to mē on 의 구분 111
IV. 온건한 비동일성 해석 114
1. Esti 완전 용법과 불완전 용법의 연속성 116
1) 새로운 is 완전 용법(C2 해석) 118
2) C2 와 불가능한 to mē on 121
3) C2 와 불완전 용법 사이의 연속성 121
2. 비동일성 to mē on 과 비동일성 문장 123
1) 늦게 배우는 자들의 문제와 문장유형의 구분 125
2) to mē on 이 아닌 비동일성 문장 128

3. 거짓말과 양립 불가능한 속성들의 영역 ····· 130
1) 거짓말의 정의와 다름의 의미 ····· 130
2) 양립 불가능성 영역 해석 ····· 132
3) 보편 양화사와 양립 불가능 영역 ····· 134
4. 재설정되는 해석의 쟁점 ····· 136
V. 온건한 해석과 확장 가능한 해석 ····· 142
1. esti 완전 용법과 ti esti ····· 145
1) Charles H. Kahn, The Verb ‘be’ in Ancient Greek(2003) ····· 146
2) metehcein tou ontos ····· 146
3) 255c-d, auta kath' hauta / pros alla ····· 150
2. 비동일성과 "is1 not" ····· 155
1) 추상명사와 형용사의 구분 ····· 157
2) to mē on 과 비동일성의 관계 ····· 161
3. 부정서술의 보편양화와 양립 불가능성 영역 ····· 163
1) Not big 과 small, equal ····· 164
2) 다름과 앎 ····· 170
3) 거짓말의 정의 ····· 172
4. 해석의 일관성과 확장 가능성 ····· 176
5. 확장 가능한 방향들 ····· 185

결론 ····· 190

참고문헌 ····· 199

Abstract ····· 202

서론

플라톤의 대화편 『소피스트』는 파르메니데스와 제논의 무리 중 하나인 엘레아 출신의 손님과, 인식에 대한 고찰을 담은 또 다른 대화편 『테아이테토스』의 주요 대화자인 테아이테토스를 중심으로 철학자, 정치가와 구분되지만 또한 이들과 혼동되기도 하는 소피스트라는 부류에 대해 그 정체를 정의(定義)해 보고자 하는 시도를 다룬 책이다. 『테아이테토스』의 마지막 장면에서 소크라테스와 후일의 대화를 기약하고 떠났던 테오도로스와 테아이테토스가 이 약속대로 소크라테스와 재회하면서 『소피스트』의 대화가 시작된다. 테오도로스는 엘레아 출신의 손님을 소크라테스에게 소개하면서 그를 신적인 자라 칭하고 자신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철학자들)을 그렇게 부른다고 첨언한다. 소크라테스는 이에 답하며 진정한 철학자가 다른 사람들의 무지로 인해 때로는 정치가로, 또 때로는 소피스트로 보이기도 하며 심지어 완전한 광인(狂人)이란 인상을 주기까지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는 손님에게 엘레아에서는 철학자, 정치가, 소피스트가 같은 것의 다른 이름들이라 생각하는지, 혹은 이름처럼 부류 또한 셋으로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테아이테토스』와 『소피스트』의 두 대화편 내의 사건들 사이에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향한 고발과 관련하여 바실레우스 관청에 방문하였고 『에우튀프론』은 이 때에 그가 에우튀프론과 만나 나눈 대화가 쓰여있다. 이 고발의 내용은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폴리스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는다." 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서술은 주로 당대에 소피스트를 묘사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는 이 죄목에 대한 항변이 전개되고, 이후 『크리톤』을 거쳐 『파이돈』에 이르러 소크라테스는 이 죄에 대한 형벌로서 사형에 처해진다. 과감하게 말하자면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로 평가받고 이 때문에 죽은 것이다.

진정한 철학자는 소피스트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철학자로 소개된 엘레아 손님도 소피스트로 보일 수 있고, 소크라테스는 실제로 소피스트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피스트로 여겨져 사형을 당한 소크라테스도, 철학자로 소개된 엘레아 손님도 그들이 정말로 소피스트인지 아닌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이 두 사람이 소피스트인지 그렇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피스트가 과연 무엇인지 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소피스트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 부류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소피스트』에서는 소피스트가 하는 일들과 관련하여 그가 "말로 이루어진 모상으로 거짓 믿음을 심어주는 자" 라는 묘사가 제시된다. 그리고 플라톤 당대에 그리스에서는 무언가 내용을 가진 것 그리고 있는 것을 믿거나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참에 대비되어, 거짓이란 아무것도 아니거나 어디에도 없는 것을 말하거나 믿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모상은 그것이 모방하는 그 무언가 있는 것과 대비되어 그 무엇이 아니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된다. 그런데 엘레아 손님이 속한 저 파르메니데스와 제논의 무리, 소위 "엘레아 학파"는 내용을 가진 것, 있는 것에 대비되는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들은 이 아무것도 아닌 없는 것으로부터 사유를 차단하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화편 내에서 가상의 소피스트는 바로 이 주장을 근거로 없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할 수 없고 그것이 포함된 모상과 거짓도 말할 수 없으며 그래서 소피스트가 말로 된 모상으로 거짓 믿음을 심는 자로 규정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자신을 정의하려는 시도로부터 달아날 것이라 이야기된다. 특히 엘레아 학파에서 중심 문제로 다뤄온 있는 것과 없는 것 혹은 어떤 무엇인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 흔히 "being"과 "not being," "존재"와 "비존재" 로 번역되어 온 이 말들에 대해서는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여러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어 왔으며 이로부터 존재, 인식, 언어와 관련한 철학사의 무수한 논쟁들이 촉발되어 왔다. 플라톤은 『파르메니데스』에 파르메니데스와 제논을 등장시켜 이 있는 무엇과 아무것도 아닌 없는 것에 관련된 여러 난점들을 보여준 바 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모상과 거짓을 다루는 소피스트를 정의하는 문제 안에서 재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대화편 속 가상의 소피스트가 제기하는 반론은 거짓말이 불가능하고, 모순이 불가능하며, 반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당대의 역설을 떠올리도록 만들기도 한다. 참말이란 무언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반하여, 거짓말은 이와 다른 것을 말하는 것, 즉 아무것도 아닌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거짓말은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에 아예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단지 또 다른 있는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른 무언가를 참으로 말하는 것일 뿐 같은 것에 대한 참말과 동시에 거짓을 말하는 또 다른

말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거짓말은 불가능하다. 또한 반박이란 같은 것을 두고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말이 어떤 것을 말할 때 또 다른 말이 바로 그 똑같은 것을 말한다면 두 말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다. 만일 둘 중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없는 것을 말한다면 이것은 아예 말이 아니며, 두 말이 서로 다른 것들을 말한다면 두 말은 상충되지 않기에 반박이 이뤄지지 않는다. 모순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무언가를 말하고 있거나 한쪽이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 두 말이 같은 것을 두고 모순된다고는 말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 이러한 문제들은 다시 『에우튀데모스』에서 다양한 형태의 논증으로 소개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소피스트』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그 한 가운데에서 본격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무엇이라는 것, 있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그리고 거짓과 모순과 반박이 불가능하다는 역설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 『자연학』, 『소피스트적 논박』 등 주요 저서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설명을 시도한다. 엘레아 학파를 포함한 다양한 자신 이전까지의 주요 학파들의 있는 무엇에 대한 입장들을 정리하여 소개하는가 하면, 이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해법으로 범주의 구분, 주어와 술어의 구분 등 그 자신의 여러 고유한 생각들을 제시하기도 한다.

당대와 그 이전의 있는 것과 없는 것 혹은 무언가인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에 관련한 여러 학설들에 대하여 『소피스트』는 플라톤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또한 대처하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화편이라는 점에서 주목되어야 한다. 또한 그의 이런 정리와 해결의 시도는 이후 적어도 근대 이전까지 매우 긴 시간 동안 형이상학, 논리학, 인식론에 있어 지배적인 영향을 미쳐 온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 형성된 배경과 과정을 추론할 하나의 중요한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기도 할 것이다. 플라톤의 『소피스트』를 통해 드러나는 존재와 논리에 대한 플라톤의 시각은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출발점이자 뿌리로서 해석되든, 대결과 극복의 대상으로 이해되든 이 일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길목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플라톤 자신이 존재와 언어와 진리에 관하여 진지하게 대면한 문제가 무엇이었으며 그에 대해 내놓은 자신만의 답변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소피스트』는 결정적인 대화편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피스트』는 개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난해한 여러 탐구 주제들을 소피스트를 정의한다는 하나의 주제 아래에서 포섭하여 다루고 있다. 소위 "분할의 방법"을 통해 낚시꾼 등의 기술자를 정의하는 방식을 통해 소피스트를 정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 없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이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거짓말도 모상도 또한 불가능하다는 역설이 어떻게 제기되고 묘사되는지를 검토하기도 한다. 있는 무엇이란 것이 몇 개이며 무엇인지를 말했던 과거의 학설들을 고찰하는 한편, 모든 것들을 모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기술로서 "변증술"에 대해 탐구하기도 한다. 말 혹은 진술이란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따져 묻기도 하고, 이 안에서 말의 참과 거짓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도 한다. 스테파누스 쪽수로 216-268 이라는 한정된 분량 안에서 이 모든 논의들을 지극히 압축적으로 전개되고 또한 마무리되며, 때문에 각각의 주제로 진행된 대화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견 서로 무관하고 각기 독립적인 탐구로도 보이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하나의 대화편 안에서 소피스트를 정의한다는 목표 아래에 모종의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로 펼쳐져 있다. 그럼에도 다뤄지는 문제들 각각의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과연 정말로 소피스트에 대한 정의가 이 대화편의 주제인지조차 의문시된다. 파르메니데스가 말한 아무것도 아닌 없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극복하는 것도, 유들을 대상으로 변증술의 구체적인 사용 방식을 고찰하는 것도, 거짓인 말이나 거짓인 믿음이 불가능하다는 일련의 역설들에 대항하는 것도 저마다 한 대화편의 주제로 전면에 내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소피스트』라는 대화편이 지니는 중요성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 대화편에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종의 진입장벽을 만들어낸다. 무턱대고 이러한 난점들을 간과한 채 직접 대화편의 서술들과 대면할 경우에는 그 안의 크고도 다양한 논의들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기 십상이다. 본 논문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바로 이러한 어려움에 맞서 『소피스트』에 이르기 위한, 그리고 그 안에서 방황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안내서를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고전의 반열에 오른 문헌에는 숱한 선행연구가 축적되어 있게 마련이다. 앞선 연구자들의 그러한 작업들을 길잡이로 삼아, 그들의 이해를 때로는 따르고 또 때로는 반대하면서 자신만의 이해를 도모하는 일은 그럴 듯하고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소피스트』에 한하여 말하자면 대화편 그 자체만큼이나 이에 대한 연구와 해석 역사 또한 상이한 여러 입장들의 난립으로 또 하나의 거대한 미로가 놓여 있는 형편이다. 연구자마다 대화편 내에서 주목하는 문제가 다른가 하면 같은 문제를 놓고서도 서로 다른 진단을 내놓기도 하기에 이들이 무슨 문제를 두고 어디에서 경쟁하거나 대립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하여 『소피스트』에 입문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 혹은 약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대화편에 이르러 또한 이 대화편을 거쳐 나아가고자 하였던 사람들의 발자취 또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복잡하고도 긴 여정의 어느 지점에서 만나고 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져 나아갔는지, 다양한 해석들은 어떤 식으로 동맹을 맺고 또 항쟁하면서 어디에 어떤 모양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지, 『소피스트』 연구사에 대한 지형도가 필요하다.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본 논문은 우선 대화편 자체에서 큰 이견 없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강의 줄거리를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그려진 얼개 속에서 대화편의 독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수많은 해석가들이 서로 입장을 달리 하게 만드는 주요 지점들, 해석의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짚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수 연구자들이 주목하여 천착하는 대화편의 특정 부분이 구분되는 바, 대화편의 다른 부분에 비하여 바로 이 부분이 왜 『소피스트』라는 대화편 전체의 이해에서 중심의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보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경쟁하는 해석들이 형성하는 전선이 『소피스트』의 전체 논의에서 어느 지점, 어느 대목에 자리하게 되는지를 또한 보이고자 한다. 간략히 말하자면 이 대화편은 결국 소피스트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정의를 찾는 것을 목표로 두고 그 안에서 to on 과 to mē on 이 각기 무엇이며 서로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있으며, to on 과 to mē on 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소피스트의 정의를 찾아내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선결작업이다. 이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소피스트』의 소위 "중간 부분"이고, 그 안에서 다시 대화편의 서술만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추가적인 해석을 요하는 부분들이 해석의 쟁점들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크게 보아 to mē on 의 불가능성 문제, 유들의 결합 논의, 거짓말의 정의라는 세 가지 표제 아래에서 논의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작업은 정리된 쟁점들을 둘러싸고 전개된 해석들을 정리하여 소개하는 일이다. 먼저 소개될 해석들은 Ackrill, Owen, Bostock 등으로 대표되는 소위 '전통적 해석'으로 분류되는 입장들이다. 그러나 전통적 해석으로 분류되는 입장들도 그 안에서 다시금 서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입장들을 소개하면서, 일련의 해석들이 특정한 입장을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 전제가 무엇인지를 밝혀 이들이 전통적 해석이라는 하나의 부류로 통칭될 수 있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 해석의 하위분류를 가능케 하는 차이들 또한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전통적 해석 일반이 함께 봉착하게 되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이러한 한계가 그들이 공유하는 전제로부터 기인하는 것임을 또한 논증하고자 한다. 전통적 해석으로 분류되는 입장들은 모두 그리스어 to on 을 영어 be 동사와 마찬가지로 의미와 용법에서 구분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특정한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영어 be 동사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된 to on 의 어떤 의미와 용법을 플라톤이 『소피스트』에서 문제 삼고 있는지, 어떤 구분을 이 문제의 해법으로 내놓는지, 혹은 이러한 문제의 진단과 해법 제시에 플라톤이 실패한 것은 아닌지 등에 관련하여 전통적 해석 내부에서의 입장들에 차이가 생긴다.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해석은 공히 to on 과 to mē on, being 과 not being 의 의미와 용법을 구분함으로써 각각의 의미와 관련된 대화편 내의 논의들 사이의 연결을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대화편 내에서 단일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서술되는 듯한 to on 의 의미들을 일관되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격하게 구분함으로써 문헌을 통해 뒷받침되기 어려운 해석을 내놓는 데에 그치게 된다. 이것이 전통적 해석이 함께 직면하게 되는 한계이다.

전통적 해석의 소개에 이어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해석들의 공통된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진단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입장으로서 Frede 와 Brwon 두 사람 각자의 해석을 소개할 것이다. 이 두 해석은 모두 전통적 해석이 해결하는 문제들에 못지 않은 해결력을 보여주는 대안적 해석을 제시한다. 이는 전통적 해석의 접근방식이 대체될 수 없는 불가결한 해석의 입장이 아님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전통적 해석들이 『소피스트』를 중심으로 형성하고 있는

논쟁의 지형도 자체를 재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또한 보여준다. 『소피스트』 해석의 핵심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 대화편에 대해 성공적인 해석을 판가름할 기준, 조건은 무엇인지를 전통적 해석과 이에 대립하는 대안적 해석 사이의 대비를 통해 제시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한 목표가 된다. 두 학자 모두 전통적 해석이 to on 을 다의적으로 이해하고 그 여러 의미들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구분해 놓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그리고 두 사람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이러한 간극을 극복하고 그 사이를 매개하는 해석을 제시한다. 전통적 해석에 대한 두 사람의 이러한 비판을 통해 『소피스트』 중간 부분 해석의 중요한 목표로 to on 과 to mē on 각각의 의미, 그리고 이와 관련한 세 가지 해석의 쟁점들에 대해 일관된 이해가 요청됨을 보일 것이다.

전통적 해석에 공통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프레데와 브라운의 대안적 해석은 서로간에도 경쟁하며 상호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거나 비판으로 기능할 수 있는 논증을 내놓는다. 이러한 두 해석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전통 해석과 대안 해석의 대비에서 해석 평가 기준에 대한 시사점을 읽어내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소피스트』 해석이 성공적이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또 다른 조건을 밝히는 일이 앞선 연구의 목표에 이어 본 논문이 추구하는 바이다. 중간 부분 해석의 일관성에 더하여 추가되어야 하는 기준은 중간 부분 해석이 대화편의 나머지 부분으로 확장 가능한지 여부라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끝으로 앞서의 과정을 거쳐 제시한 해석의 두 가지 목표를 기준으로 『소피스트』 연구에서 기대할 수 있는 지향점이 무엇이며, 이를 중심으로 연구의 남은 과제는 어떠한 것들이 될 수 이는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플라톤의 철학 체계 내에서, 또 당대와 이전까지의 철학사와의 연관 속에서,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철학사의 전개 과정에서 『소피스트』 해석이 어떤 식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가능한 방향들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이러한 향후 연구 과제들로 나아가기에 앞선 일종의 예비작업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 『소피스트』 해석의 배경과 쟁점

To on(τὸ ὄν)이란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 동사 eīnai 의 현재분사 중성 단수 형태이다. 이 동사는 라틴어 esse, 독일어 sein, 영어 to be 등으로 번역되며 우리말로는 "있다" 혹은 "~이다" 등으로 옮길 수 있다. 부정어 mē 나 ou 가 수식될 경우 이 동사는 "있지 않다" 또는 "~이지 않다", "없다"나 "~이 아니다" 따위로 번역될 수 있다. to mē on 으로부터 사유를 차단하라는 파르메니데스의 언명 이래 이 단어에 대한 이해나 해석은 존재론, 진리론, 인식론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어 왔다.

『소피스트』[1]는 그 제목대로 소피스트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는 대화편이다. 그러나 다수의 해석가들은 이 대화편에서 대화의 목표로 제시된 소피스트에 대한 정의 자체보다도 방금 설명한 to on 과 to mē on(덧붙이자면 거짓말, to pseudēs logos 까지)에 관한 서술에 담긴 플라톤의 생각을 이해하는 일에 더욱 골몰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대화편의 중간 부분(236d9-264b10)에서 다루어지는 반면, 그 앞(219a1-231e7)과 뒤(264b11-268d5)에 놓인 바깥 부분에서는 "형상에 따른 분할(kat' eidē diaireseōn, 264c1-2)"이라 명명된 작업을 통해 소피스트를 정의하는 과정이 전개되어 있다.[2] 그렇기 때문에 중간 부분과 바깥 부분 사이의 이러한 차이에 비추어 중간 부분에 한정된 기존의 연구들은, 설령 그 개념들 자체에 관련한 철학사적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대화편에 대한 단편적이고 편중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바깥 부분 논의로부터 중간 부분의 문제들이 다루어지기까지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정리하여, 일견 별개의 독립적인

---

[1] Plato, *Platonis Opera*, 1 Vols., Oxford, E.A. Duke, W. F. Hicken, W. S. M. Nicoll, D. B. Robinson, J. C. G. Strachan (eds.), Oxford, 1995. 이 판본을 기준으로 하여 직접 번역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번역을 인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이후 인용 표기는 스테파누스 표기에 따르며, 『소피스트』에 한정하여 대화편의 제목을 병기하지 않고 쪽수만을 표기하도록 한다.

[2] Noburu Notomi(1999) 27−30 쪽에서 제안된 중간 부분("the Middle Part")과 바깥 부분("the Outer Part")의 구분 참조.

문제들을 탐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깥 부분 논의와 중간 부분 논의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요약 정리를 통해 중간 부분에서 다뤄지는 주제가 『소피스트』라는 대화편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이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본 장은 to mē on 등을 문제 삼게 되는 사유의 한 경로에 대한 안내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중간 부분 고찰에 치중해 온 기존 연구들의 접근방식에 대한 부분적인 변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 이루어질 다른 하나의 작업은 위와 같이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간 부분에서 해석의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짚어 보는 것이다. 『소피스트』를 통해 플라톤은 소피스트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들을 제기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 역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와 해법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만으로 이 대화편에 대한 해석 작업은 완성되리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간 부분 문제들 각각에 관하여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해 여러 해석들이 경쟁한다. 플라톤이 문제를 제기하고 스스로 해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재해석된 플라톤의 문제는 재해석된 플라톤의 해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해법 역시 이 재해석된 문제에 적합하거나 유효하게끔 해석될 필요가 있다. 역으로 해결책에 대한 해석에 따라 이것이 해결해내는 문제 역시 이 해결책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해석들이 분기하는 지점들을 적시함으로써, 이 장은 다음 장에서 다루어질 기존 연구와 해석들에 대한 검토와 평가에 들어서기에 앞선 예비작업의 역할을 하게 된다.

1. 소피스트 정의에서 to mē on 의 문제로

우선 대화편의 서술 순서에 맞추어 중간 부분 문제에 이르기까지의 논의 과정을 요약 정리한다. 여기에서는 전체 줄거리의 약도를 파악하기 위한 주요한 길목들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소피스트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서 상과 거짓을 포함하는 소피스트 정의가 제시된다.

두 번째, 이 해법과 관련하여 to mē on 그 자체가 전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와 결부된 상(eidōlon)과 거짓(pseudēs)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소위 '중간 부분' 논의가 시작된다.

세 번째, to on 역시 to mē on 에 못지 않게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이 두 문제와 관련하여 각각의 것을 그 자체 하나로 보면서도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말할 수 없다는 문제가 확인된다.

네 번째, to mē on 과 to on 을 진술하거나 사유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고 각각을 하나로 보면서도 여럿으로 말할 수도 있게끔 해주는 방법으로 유들의 결합(symplokē eidōn) 논의가 제시된다.

다섯 번째, 거짓의 가능성이 말(logos)의 분석과 말의 구조 내에서 to mē on 의 결합 방식에 대한 설명을 통해 밝혀지고 거짓의 정의가 제시된다.

이로써 중간 부분 논의가 마무리되고 이를 바탕으로 소피스트에 대한 정의 작업이 재개되어 이 정의를 제시하는 것으로 대화편은 마무리된다. 대화의 출발점부터 중간 부분까지, 제기되는 문제들과 이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는 해결책들을 확인하여 to mē on 의 문제에 이르는 경로를 위의 주요 길목들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이를 바탕으로 이후 해석의 쟁점들과 경쟁하는 해석들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논의가 대화편의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맥락의 대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 소피스트의 여러 모습들

첫 장면에서 소크라테스는 테오도로스로부터 그와 동행한 엘레아 출신의 손님을 소개받는다. 테오도로스는 손님을 철학자라 말하고, 이에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철학자가 다른 사람들의 무지로 인해 소피스트, 정치가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이어서 소크라테스는 손님에게 엘레아에서 이 셋이 같은 것을 가리키는 여러 이름들이라 말하는지, 이름이 다르듯 가리키는 부류도 서로 다르다고

말하는지 묻는다. 손님은 그 셋을 서로 다르게 본다고 말하고, 각각을 정의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고 첨언한다.

손님은 철학자로 소개되었는데 정작 철학자가 소피스트, 정치가 등과 구분되지 않는다면 손님 자신도 소피스트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손님은 테아이테토스를 대화 상대로 삼아 소피스트를 먼저 정의해 보자고 제안한다. 이후로는 소피스트를 정의하기 위한 일련의 논의가 진행된다.

손님은 우선 소피스트를 정의하기 전의 예행연습을 제안한다. 연습대상은 낚시꾼으로, 이 사람을 "형상에 따른 분할"이란 방법을 통해 정의해 보기로 한다. 그가 기술을 가진 자인지, 그 기술이 제작하는 것인지 획득하는 것인지, 뭍에서 하는 일인지 물에서 하는 일인지 등을 나누어 보면서 낚시꾼이 어디에 속할지를 따져본 결과 그는 물 속에서 갈고리로 아래에서 위를 향해 물고기의 입을 낚아 채서 잡는 자로 정의된다.

그러나 낚시꾼을 정의했던 방식을 소피스트에 적용한 결과 소피스트에 대한 하나의 정의가 아니라 그의 여러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그는 젊은이를 사냥하고, 배움을 매매하며, 쟁론을 일삼고, 무지한 자의 잘못된 믿음을 영혼으로부터 정화해낸다. 소피스트는 소피스트라는 하나의 기술에 따라 명명된 부류일 것이기에, 다양한 기술들을 가진 서로 다른 여러 모습들로는 소피스트를 정의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손님은 소피스트가 주로 하는 일이 논박이라고 말하며 여기에서 분할을 재개해 볼 것을 제안한다. 그런데 소피스트는 자신이 모든 기술자 각각을 상대로 논박을 해낼 수 있으며 다른 자도 자신처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논박이란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상대로 상대의 무지를 드러내고 자신이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각 분야의 기술자는 해당 분야의 기술, 즉 앎을 가진 자이다. 소피스트가 모든 전문가를 논박해낸다는 것은 그가 그 모든 기술을 전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다. (한 기술은 하나의 일에 쓰이므로 소피스트술이 모든 기술 각각일 수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소피스트가 지혜롭다고 믿으며, 이러한 믿음은 소피스트가 모든 논박을 해낼 수 있는 자로 보일 때에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으로는 소꿉장난이 있다. 실제로 집을 지을 수는 없어도 작은 상자를 집으로 삼거나 바닥에 그린

그림을 집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장난에 쓰이는 기술로 상을 제작하는 기술이 있다. 어떤 것을 본떠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만드는 경우, 신이든 산이든 바다든 무엇이든 그리거나 조각할 수 있다. 이러한 만들어진 상들을 어리석은 자들이 원본과 혼동할 수도 있는 것이다. 소피스트도 이렇게 상을 만들되 그림이 아닌 말로 된 상을 만들어내고, 이 상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소피스트 자신이 실제로 모든 일에 지혜로운 자라는 거짓 믿음을 갖도록 기만하는 자일 수 있다.

2) To mē on, 모상, 거짓말.

소피스트가 상을 만들어 거짓 믿음을 심어주는 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이 무엇이고 또 거짓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러나 상은 원본과 다르다. 예를 들어 소와 소그림을 생각해 보자. 소는 진짜 소이고 정말로 있는 소이며 참된 소다. 반면 소그림은 소를 닮은 것이고 소 같은 것이지만 소와는 다른 것이고 소가 아닌 것이다. 소와 다르지만 또 소와 같은 것은 어쨌든 소가 아니고, 진짜 소가 소라면 소 그림은 그것을 무어라 말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참인 말은 무엇인 것, 있는 것을 말하는데 거짓 말은 거꾸로 아닌 것, 없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상과 말에는 to on 아닌 것, to mē on 이 얽혀 있다. 그러나 to mē on 은 to on 이 아니다. 수, 지시사, 이름, 그야말로 모든 것이 to on 이고 to mē on 은 to on 과 다르므로, to mē on 에는 수, 지시사, 이름 등 온갖 것이 적용될 수 없다. 역으로 to mē on 을 적용시키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to mē on 은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가리킬 수조차 없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것," "생각할 수 없는 것," "가리킬 수 없는 것"은 그러한 것들로서 명명되고 이야기되며 어떤 무엇으로서 있는 것들, to on 이다. 이제 to mē on 은 진술, 사유, 지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조차도 또한 불가능하다.

3) To on 과 늦게 배우는 자들

To mē on 이 불가능하다는 논의 과정에서 to on 은 반대로 분명하고 확실한 것처럼 취급되었다. 그러나 to on 을 설명하는 여러 입장을 검토한 결과 손님과 테아이테토스는 자신들이 to on 에 대해서도 to mē on 만큼이나 무지한 상태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To on 의 수를 논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라고도 여럿이라고도 말한다. 그런데 to on 과 하나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것들이다. 또한 오직 하나뿐이라면 그 하나를 가리키는 이름 "하나"를 말할 수 없다. 이름과 이름이 가리키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to on 이 둘 이상의 것일 경우, to on 이외의 둘도 서로 다르기에 구분됨으로써 하나가 아니라 둘일 것이다. 그러나 이 둘이 모두 to on 이라면 서로 다른 것이 같은 방식으로 to on 이라 불리게 된다. 이 경우 더 이상 둘이 아닌 하나만 남게 된다. to on 이외의 둘 중 하나를 to on 과 같은 것으로 본다면, 남은 쪽은 to on 과 다른 것으로서 to mē on 이 된다. 그러나 to mē on 은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to on 을 하나로 보는 꼴이 된다. to on 이 둘 이외의 제 3 의 것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 둘 모두가 to on 과 다르기에 to mē on 이 되어 버리고 to on 만 남게 된다. 결국 to on 을 하나라고도 둘 이상의 것들이라고도 말할 수 없게 된다.

To on 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에서는 그것이 운동하는 것이라는 입장과 정지해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 검토된다. to on 을 정지해 있는 것으로 보는 자들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앎을 통해 알려지기 전의 것은 알려진 것으로 변화, 운동한다. to on 이 알려지는 것이라면 운동하는 것이고, 운동하지 않는 것이라면 알려지지 않는다. 반면 to on 이 운동하는 것이라 보는 입장에서는 to on 을 가리킬 수조차 없다. 운동, 변화하는 것은 그것이 같은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가리키거나 생각하거나 말하는 그 순간 이미 그 대상은 다른 것이 되어 버린다. 결국 to on 은 운동하는 것이기만 해서도 안 되고 정지해 있기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to on 이 몇 개인지에 관련한 논의에서 보았듯, 운동과 정지가 모두 to on 이라고 말하는 일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to on 이 운동이라면 정지는 to mē on 이 되고, 정지가 to on 이라면 운동이 to mē on 이 된다. 운동과 정지는

서로 반대되는데, 이 둘 모두가 똑같이 to on 이라면 정반대의 것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꼴이 되어 버린다. to on 이 제 3 의 것이라면 운동과 정지 모두 to mē on 이 되어 버린다.

여기에 더해 "늦게 배우는 자들"의 입장이 소개된다. 그들은 사람은 사람이라고만 말해야 하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고만 말해야 하며, 사람을 좋은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to on 을 to on 으로만, 정지를 정지로, 운동을 운동으로만 말해야 하고 운동이 to on 이라거나 정지가 to on 이라고, 또는 to on 이 운동이나 정지라고 말할 수는 없었던 앞서의 상황과 유사하다.

이상의 문제들은 결국 서로 다른 것들 각각을 그 자체 하나로 간주하면서도, 또 동시에 그 하나를 여러 다른 것들로 말할 수 없다는 문제로 정리된다. 모든 것을 분리시킨다면 가리킬 이름도 덧붙일 말도 결합시킬 수 없고 단어들의 결합인 말 자체도 불가능하다. 반면 모든 것을 결합시켜 버린다면 서로 다른 것들을 같은 것으로 뭉뚱그려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은 일부는 결합하고 일부는 분리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각각을 하나로 분리해내 구분하면서도 다른 여러가지 것들과 결합하는 방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방법을 알게 된다면 to on 의 문제와 늦게 배우는 자들이 주장하는 역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4) 유들의 결합

손님과 테아이테토스는 to on 과 운동, 정지가 중요한 유들이라 보고, 이것들이 서로간에 맺는 관계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분리되거나 아무런 구분없이 완전히 하나로 결합하기만 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이 셋은 어떤 식으로는 결합하지만 또한 어떤 점에서는 분리되기도 할 것이다. 우선 to on 은 그 본성상 운동하지도 정지하지도 않기에 운동과도 다르고 정지와도 다르다. 같은 식으로 운동도 자신 이외의 둘과 다르고 정지도 나머지 둘과 다르다. 다른 한편 자신 이외의 둘과 다른 이 셋 각각은 저마다 자기 자신과 같다. 그리고 "같다는 것"과 "다르다는 것"도 이 셋과 함께 검토한 결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과는 같고 자신 이외의 것들과는 다른 것으로 밝혀진다. 이 다섯 가지 것들은 각기 고유한 본성을 지니고 여타의 것들과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구분되는 것들이 다시 결합되어 이야기되기도 한다. 운동, 정지, 같은 것, 다른 것은 모두 to on 이라 이야기되고, 운동, 정지, to on, 같은 것은 또 모두 자신 이외의 것들과 다른 것이라 불리며, 운동, 정지, to on, 다른 것은 모두 자기 자신과 같은 것이다. 지금 이 다섯 가지 유들 사이에서 그것들이 자신 이외의 것들로부터 구분되면서도 바로 그 자신 이외의 이름들로 이야기되는 일을 잘 검토하여 이것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또 어떤 식으로 분리되는지 그 방법을 알아낸다면 이를 통해 to on 에 관련한 여러 역설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운동, 정지, 같은 것, 다른 것이 모두 to on 과 구분되지만 이 to on 에 참여함으로써 to on 이라고 이야기된다. 그러나 이 넷은 to on 과 구분되고 다른 것이다. to on 이외의 것들은 to on 과의 다름(to on 과 다른 것)에 참여하여 to on 이지 않다고도 이야기된다. 즉 to mē on 이라고 이야기된다. 나아가 to on 자체도 자신 이외의 것들에 대한 다름에 참여하여 그것들 각각이지 않다고 이야기된다. 무엇이지 않다는 것, 무엇이 아니라는 것도 ouk/mē esti, 다시 말해 to mē on 이다.

참여와 다름에의 참여라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 각각의 형상을 하나로 간주하면서도 여타의 여러 형상들로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to on 이외의 것들은 to on 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 모두가 to on 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지만, 동시에 to on 과의 다름에 참여함으로써 to on 과 구분되고 to mē on 이라고도 이야기될 수 있다. to on 에 참여하는 모든 것은 또한 서로에게 참여하며 서로의 이름들로, to on ti(waht is something)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이와 동시에, 모든 것은 같음에 참여하여 자기 자신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되면서도, 자신 이외의 것들과의 다름들에도 참여하기에 그 여러가지 것들이 아닌 것, to mē on ti(what is not something)으로 이야기된다. 자신 이외의 것들과 구분되는 측면에서 각각은 여전히 자기 자신 그 한 가지 것으로 간주된다. to on 자신도 이런 식으로 자신 이외의 것들에 참여하여 그런 여러 이름들로 불리면서도, 이것들과의 다름에도 참여하여 이것들과 구분되는 to on 그 자신으로, 즉 하나로도 이야기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 이외의 것들에

대한 다름에 참여한 결과로서 to mē on 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to on 과 늦게 배우는 자들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 된다. 나아가 to on 이 여타의 것들과 구분되는 과정에서 to on 자체도 여러모로 to mē on 이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to on 과 to mē on 의 결합 역시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to on 과 to mē on 의 엮임으로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모상이나 거짓이 이 결합과 관련하여서는 불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다.

5) 말과 거짓말

말(진술)은 이름(onoma)과 동사(rhēma) 혹은 주어와 술어의 결합물이다. 말이 말이기 위해서는 주어를 통해 무언가를 지시하고 바로 이 지시된 주어에 관련하여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의 진술이다. 이렇게 구성된 말이란 것은 두 가지 성질을 지니는데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다. 거짓인 말은 주어에 관해 to on 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것, 주어에 관해 to mē on 을 말하는 것, to on 을 to mē on 으로 말하거나 to mē on 을 to on 으로 말하는 것, 같은 것을 다른 것으로 말하거나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말하는 것 등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아무것도 주어로 삼지 않거나 주어가 없는 경우 진술 자체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다. 그리고 to mē on 의 가능성은 이미 유들의 결합을 통해 밝혀졌다. 따라서 to mē on 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의된 거짓말이 불가능하다는 역설은 해결되었다. 우선 진술은 to on 을 명명한 이후에 이 명명된 to on 에 관련하여 진술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또한 유들의 결합에서 보았듯 to on 이외의 것들은 to on 에 참여하여 자신들도 to on 이라 이야기되고 동시에 to on 과의 다름에 참여하여 to on 이 아니라고, 즉 to mē on 이라고 이야기된다. 또한 모두가 to on 에 참여하는 서로 다른 것들은 서로에 대한 참여를 통해 to on ti 라고 이야기되면서도 서로에 대한 다름에 참여하여 그러한 것들이지 않다고, 또 역시 to mē on ti 라고도 이야기된다. 이렇듯 각각의 to on 에 관하여 ta onta 는 많고 ta mē onta 는 무수히 많기에(256e) 진술이 주어로 상정하는 to on 도 이에 관한 to mē on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to mē on 그 자체가 말할 수 있는 것임이 드러났으므로, to on 인 주어에 관하여 to mē on 인 술어를 말하는 일은 가능하다. 즉 주어에 관하여 to mē on 을 말하는 거짓말이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믿음은 진술에 대한 긍정과 부정으로 진술과 친족적인 것이고, 생각은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신과의 대화로서 이 역시 말과 같은 종류의 것이며, 인상은 믿음에 감각이 결합한 것으로서 이 네 가지 모두 동종의 것이다. 따라서 말, 생각, 믿음, 인상 모두 거짓일 수 있다.

대화편의 중간 부분에 전개된 논의의 대강은 이와 같다. 이를 통해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to mē on 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인지도 어떠한 것인지도 규정하기 어려웠던 to on 을 to on 이라는 그 이름으로도 다른 여러 이름으로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주어에 관하여 to mē on 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짓말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비로소 소피스트가 거짓말을 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졌다. 그러나 대화편에 명시되어 있는 주어진 서술들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to mē on 을 어떻게 이해할 때에 그것이 진술, 사유, 지시 불가능하며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서술하는 것조차 불가능한지, to mē on 의 구체적인 의미는 대화편 내에서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to mē on 이 부정하는 것으로서 to on 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 to on 이 무엇이며 어떠한 의미를 지니기에 그것을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말할 수 없고 정지한다고도 운동한다고도 말할 수 없는지,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하나이기도 여럿이기도 해야 하며 정지라고도 운동이라고도 말해야 하는지 단순히 주어진 묘사만으로 명확한 답을 내놓기는 어려워 보인다. to on 을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은 사람은 사람이라고만,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고만 말해야 하고 사람이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는 말해서는 안 된다는 소위 "늦게 배우는 자들"의 주장과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이 to on 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자체가 불확실하며, to on 의 이해와 관련된 문제라면 다시금 to on 을 무엇으로 이해할 때 일련의 문제가 위와 같이 제기되는 것인지도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유들의 결합 논의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논의가 해결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왜 문제인지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는 모든 것이 to on 에 참여하면서도 to on 과의 다름에도 참여한다고, 그래서 to on 이라고도 to mē on 이라고도 불린다고 이야기된다. 또한 to on 에 참여하는 모든 것들 사이에서 그것들이 서로에게 참여하기도 하고 서로에 대한 다름에 참여하기도 하기에, 그것들이 다시금 여러모로 to on 이라고도 to mē on 이라고도 이야기된다고 설명된다. 여기에서 참여를 통해 설명되는 to on 과 다름에의 참여를 통해 설명되는 to mē on 의 의미는 여전히 불명이다. 이 두 가지 참여를 통해 구분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러한 구분을 필요로 하는 혼동은 무엇인지, 어떠한 혼동이 to mē on 과 to on 에 관한 앞서의 여러 문제들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대화편에 주어진 내용만으로는 답을 내놓기 곤란한 것이다.

위의 논의 과정을 거쳐 손님과 테아이테토스는 거짓말을 설명해낸다. 거짓말은 주어에 관하여 to mē on 을 말하는 것이라는 식의 설명이 주어진다. 그러나 여전히 여기에서 to on 과 to mē on 의 의미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이것이 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to mē on, 그리고 유들의 결합에서 다름에의 참여를 통해 설명되는 to mē on 과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판단하기도 어렵고, 애초에 이 단어의 의미 자체가 확정되지 못하였기에 거짓말의 의미 역시 선명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결국 문제가 무엇이며 해법이 무엇인지 확답할 수 없으며 그리하여 이 기획 전체가 성공적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일 또한 곤란한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이 해석을 통해 중간 부분 내의 논의들이 논증의 형식으로 재구성되고, 또 그렇게 마련된 논증의 정당성이 평가되어야 비로소 『소피스트』 중간 부분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을 쟁점별로 정리하고 각 쟁점의 정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해석의 쟁점들

『소피스트』의 중간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헌 상에 주어진 내용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to on"이니 "to mē on"이니 하는

단어들을 사용할 때 플라톤이 전제하거나 가정하고 있을 어떤 생각들은 문헌상으로 드러나지 않고, 또한 매우 긴 시간이 독자와 대화편 혹은 대화편의 작가 플라톤 사이에 가로놓여 있다. 대화편 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는 오늘날의 언어와 통념을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문제를 겨냥하여 제안된 해법들 역시 단순히 고대 그리스어의 자구를 사전적으로 번역하는 것만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의 전모가 드러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부분 논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생략된 가정과 전제를 추정하여 보완하고 오늘날 우리의 말과 생각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문헌의 의미를 재구성해내는 작업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작업은 대화편을 단순히 문자 그대로 읽는 것만이 아니라 읽은 내용에 대한 해석을 가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해석이란 결국 주어진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요청되는 것이므로, 해석자의 입장에 따라서도 해석이 요청되는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찾는 방식에 따라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들은 서로 다른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기준도 제한도 없이 온갖 해석이 난립하게 되는 것도 아님은 물론이다. 대화편 중간 부분 논의 내에서 전체 맥락에 따라 설명되지 않고서는 내용의 이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까지 생각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고, 그 부분들이 어느 곳인지에 대한 학자들 사이의 대강의 합의도 있다. 이러한 지점들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들이 분기되어 나오고 바로 이러한 상이한 해석들이 『소피스트』 중간 부분 이해라는 목표를 두고 그 적합성을 경쟁하는 것이다.

대화편의 일관된 이해를 가로막고 해석을 다양하게 분기시키는 지점은 크게 보아 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쟁점은 to mē on 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이유와 관련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입장을 거칠게 둘로 나누어 보자면, to mē on 을 "없는 것"으로 해석하려는 입장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하려는 입장이 대립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쟁점은 to on 에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과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되는 유들의 결합 전체 걸친 문제이다. 여기에서 to on 이외의 유들은 to on 이라고도 to on 이 아니라고도 이야기된다. 또한 to on 자신은 같음이라고도 같음이지 않다고도 이야기되고, 운동은 다른 것과 다른 것이어서 다른 것이지 않다고 하면서도 또한 그렇기에 다른 것이기도 하다고까지 이야기된다.

일반화하여 말하자면 x is y 와 x is not y 가 동시에 참이 되는 것이다. 일견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이 두 문장이 동시에 참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해석의 문제로 대두된다. 즉 문제의 원인은 두 문장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것이고, 이 혼동 때문에 서로 다른 x 와 y 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x 에 대해 오직 x 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는 식의 문제들이 전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혼동이 정확히 어떤 애매성에 기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진단에 따라 해당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유들의 결합 논의 또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문제의 원인이 되는 애매성을 어떤 식으로든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유들의 결합을 해석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 해석 쟁점은 유들의 결합 논의와 거짓말에 대한 정의 사이에서 발생한다. 거짓말의 정의가 충분하다면 그 정의에는 긍정 서술인 거짓말과 부정 서술인 거짓말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거짓말을 정의하기에 앞서 손님은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서술된 to mē on 에 대한 설명을 재언급한다. 그리고 유들의 결합에서 to mē on 은 어떤 것이 자신 이외의 것과의 다름에 참여한 결과로 설명된다. 문제는 다름에 참여한 결과만이 아니라 어떤 것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to mē on 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소피스트』 내에서는 이러한 to mē on 이 따로 구분되어 직접 제시되는 일이 없다. 거짓말의 정의를 진술 일반에 관한 충분한 정의로 재구성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해석가들은 유들의 결합에서 참여를 부정하는 의미의 is not 을 찾으려 하거나, 다름의 의미를 재해석하거나, 혹은 거짓말을 정의한다는 기획이 대화편 내에서 실패로 끝났다고 결론 내리는 등의 다양한 입장을 취한다.

1) 없는 것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의 기술로 모든 전문가 각자를 논박하기란 불가능함에도 자신이 그러한 자라고 자부하고 또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도 하는 소피스트는,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서 그렇게 보이는 무언가를 내놓고 이로써 사람들이 사실과는 다른 믿음을 가지도록 만드는 자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소피스트는 말로 된

모상을 만들어내 사람들에게 거짓 믿음을 심어주는 자로 추정된다. 그런데 모상과 거짓에는 어떤 식으로 to on 과 to mē on 이 뒤섞여 있다고 이야기된다.

예를 들어 눈앞에 사과가 있다고 해 보자. 이 사과는 여기에 있고, 실제로 참된 사과이다. 반면 이 사과가 아니라 사과를 모방한 그림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여기에 사과는 없으며, 이것은 거짓, 가짜 사과이다. 또한 거짓 믿음은 진짜로 무언가인 것, 정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는 다른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믿는 것이고 그런 무언가로 있고 그러한 것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to on 으로 간주된다. 믿음이나 말, 생각의 대상이 되는 것, 나아가 "그것"이라고 지시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어떤 이름을 가진 무언가이고 그렇게 있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은 to on 이다. 모상은 이러한 to on 과 다른 무언가이고, 거짓 믿음도 이 to on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것이다. 이 to on 과 다르고 to on 아닌 것이 to mē on 이다.

그런데 수, 지시어, 관사 등은 모두 to on 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것들을 그런 이름으로 부를 수 있고 몇 개라거나 어느 것이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으며 그런 것들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그것들이 to on 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말하고 이름 부를 수 있다. 반면 to mē on 은 to on 과는 다르고 to on 이 아니기에, to on 으로 불리거나 이야기될 수 없다. 따라서 to mē on 은 to on 으로 간주된 저 수니 관사 같은 것들과 결합할 수도 없다. "to mē on"이라고 명명하는 순간, 그 붙여진 "이름"이란 것은 to mē on 이 아니고 to on 이기에 서로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게 되어 버린다. 또한 이렇게 말하면서 복수 표현 "ta mē onta"가 아니라 단수 "to mē on"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한 개로 간주하고 to mē on 에 to on 인 수를 덧붙이게 된다. "to"라는 관사도 또한 to on 에 포함되므로, to mē on 에는 이러한 관사를 붙여서도 안 된다. "그것"이라거나 "이것" 하는 식으로 to mē on 을 가리켜서도 안 된다. 지시되는 것이나 지시어도 모두 to on 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to mē on 은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나아가 사유, 진술, 지시 등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나 말도 to on 일 것이기에 to mē on 에 결합할 수 없다. 따라서 to mē on 은 불가능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to mē on 에 대한 해석은 거칠게 말하자면 두 방향으로 갈릴 수 있다. 한쪽은 to mē on 이 비-존재, 없는 것이라 해석하는 노선이고, 다른 쪽은 to mē

on 이 무규정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해석하는 노선이다. 그러나 이 두 의미 사이의 포함관계를 설정하는 해석이나 혹은 그 사이의 연속성을 설명하고자 시도하는 해석도 가능하다.

To mē on 을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그 해석은 대화편에서 to mē on 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서술들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두 방향 모두에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없는 것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이지도 여럿이지도 않고, 없는 것을 가리키거나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아무것도 아닌 것의 경우 그것은 수가 아니고 하나도 여럿도 아니며 생각되는 것도 이야기되는 것도 전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역시 그것이 수나 지시어, 관사와 결합할 수 없고 사유, 진술, 지시, 언표 불가능한 이유가 잘 설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To mē on 의 불가능성과 관련하여 해석의 결정은 결국 이후의 다른 논의들까지 고려하여 대화편 전체 해석의 정합성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to mē on 은 to on 의 부정이므로, to mē on 에 대한 해석에 따라 to on 을 존재로 혹은 규정으로 간주할 때에 이후의 논의가 얼마나 잘 설명될 수 있는지도 to mē on 해석의 방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2) X 는 Y 이고 Y 이지 않다.

To mē on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섞여 있는 모상과 거짓을 말할 수 없게 되었다는 난관에 봉착한 손님과 테아이테토스는 이와 대비하여 가능하고 또한 분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던 to on 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재검토해 보기로 한다. 그러나 검토의 결과 to on 은 to on 이외의 것들과 다르고 그것들이 아니기에 그것을 "하나"나 "여럿"으로 말할 수도 없고 그것을 "운동하는 것"이라고도 "정지해 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더 나아가 이와 동시에 to mē on 은 불가능하고 하나나 여럿, 운동이나 정지 모두가 to on 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것들을 "to on"이라고 말해야만 한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이 모든 것들은 to

on 이어야 하긴 하지만 어쨌든 to on 그 자체와는 다르기에, 여전히 이것들을 to on 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to on 도 그 외의 것들도 각각을 다른 것들과 구분하여 그것 자체로만 말할 수도 있어야 하고 또한 이것이 "단어"라거나 "자기 자신과 같은 것"이라거나 "자신 이외의 것들과 다른 것"이라는 식으로 여러 다른 이름들로 부를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가지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구분하여 하나로 간주하고 말하는 방식과 다른 것들에 결부시켜 말하는 방식을 일관되게 설명하기 힘들고 언뜻 이는 양립 불가능한 두 가지 상이한 방식들로 보이기도 한다. 대화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유들의 결합 논의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것들은 참여(participates, metechein)를 통해 결합하며 "x 는 y 이다(x is y)." 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반면, x 가 자신과 이외의 것 y 와의 그 다름(the different, heteron)에 참여하여 "x 는 y 이지 않다/y 아닌 것이다(x is not y, x is non-y)" 라고도 표현될 수 있다는 설명을 제시한다. 이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유들은 로마자화 단어의 첫 글자로 축약하기로 하자.)

a. 정지(S)와 운동(K) 1. (255e11-256a2)
   i. K 는 O 에 참여한다.
   ii. K 는 있다/~이다(K is).
   iii. K 는 S 와 다르다.
   iv. K 는 S 로 있지 않다/S 이지 않다(K is not S).
b. 같은 것(T)과 운동. (256a3-b5)
   i. K 는 T 에 참여한다.
   ii. K 는 T(자기 자신과)이다/T 로 있다.(K is T (with itself))
   iii. K 는 T 와의 다름(H)에 참여한다.
   iv. K 는 T 로 있지 않다/T 이지 않다.(K is not T)
c. 정지와 운동 2. (256b6-8)
   i. (만약) K 가 S 에 참여한다면
   ii. K 는 S 일 것이다.
d. 다른 것(H)과 운동. (256c4-8)

i. K 는 S, T, 등등과 다른 것이다.
ii. K 는 다른 것(H)이다.
iii. K 는 H 과의 다름(H)에 참여한다.(K is H from H)
iv. K 는 H 로 있지 않다/H 이지 않다.

e. To on(O)과 운동. (256c10-d10)
i. K 는 O 에 참여한다.
ii. K 는 O 로 있다/O 이다. (K is O)
iii. K 는 O 와의 다름에 참여한다.
iv. K 는 O 로 있지 않다/O 이지 않다.

문제는 유들의 결합에서 "x is y" 와 "x is not y" 라는 모순되어 보이는 두 명제가 어떻게 양쪽 모두 동시에 참이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에서 구분되고 있는 것이 계사 "is" 와 동일성기호 "is" 인지, 같은 표현 "y"의 상이한 의미인지, 혹은 또 다른 구분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것인지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해석상의 선택에 따라 유들의 결합이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문제의 종류 또한 달리 해석될 것이다. 동사의 의미 혼동을 통해서도, 술어의 품사 혼동으로 인해서도, 또 다른 방식으로도 to on 의 문제들과 늦게 배우는 자들의 입장이 설명될 수 있다. 동사 is 의 의미구분을 혼동하는 경우, 보어 y 의 품사를 혼동하는 경우(그리스어에서는 형용사와 추상명사를 같은 단어로 지시할 수 있다), 또는 이름과 말(혹은 명명과 진술)의 구분을 실패하는 경우 모두 x is y 와 x is not y 를 동시에 참이라 말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이 각각을 지지하는 서로 다른 해석들이 경쟁하고 있으며 저마다 나름의 문헌 근거와 논증형식으로 자신의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기도 하다.

3) 거짓말에 필요한 to mē on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설명된 to mē on 은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에 대한 다름에 참여할 때 이야기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운동이 정지와의 다름에 참여할 때, 이로 인해 운동은 "to mē on 정지," 즉 "정지이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된다. 그리고 이 때 정지는 "to mē on peri 운동," 즉 "운동에 관하여 있지 않은 것/~이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된다. 이를 일반화시켜 보자면 유들의 결합에서는 크게 보아 두 가지 to mē on 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x 가 y 와의 다름에 참여하면 x 는 to mē on y 라고 불리고 y 는 x 에 관한 to mē on 이라고 불린다. x 가 어떤 것과의 다름에 참여할 때 그 '어떤 것'은 x 에 관한 to mē on 이다. 그리고 x 는 자기 자신 이외의 모든 것 각각에 대해 그것과의 다름에 참여할 것이다.

To mē on 에 대한 이상의 설명을 제시한 이후, 손님은 거짓말을 분석하는 논의 과정에서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다." 라는 문장을 참인 말의 예시로,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다." 라는 문장을 거짓말의 예시로 든다. 그리고 참인 문장은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to on 을 테아이테토스에 관해 말하고 있다고, 반면 거짓인 문장은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to mē on 을 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유들의 결합을 통해 설명된 to mē on 은 이 각각이 왜 참이고 거짓인지 설명하기에도, 진술 일반의 참이나 거짓을 설명하기에도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난다.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다." 라는 문장은 거짓이다. 유들의 결합에서 유들이 서로 달랐듯, 테아이테토스와 날고 있음은 서로 다르므로 테아이테토스는 "to mē on 날고 있음"이라 말할 수 있고 날고 있음은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to mē on"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어와 술어 사이의 다름을 기준으로 삼아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다"라는 말이 거짓인 이유를 설명한다면,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다" 역시 마찬가지 이유에서 거짓이어야 할 것이다. 테아이테토스와 날고 있음이 서로 다르듯 테아이테토스와 앉아 있음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테아이테토스가 어떤 것과의 다름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야기되는 그런 to mē on 으로는 거짓말이 왜 거짓인지를 설명할 수 없다.

다음으로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to on 인 "앉아 있음"이 "날고 있음"과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어 설명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다"는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to on 인 "앉아 있음"과 다른 것을 테아이테토스에 관하여 말하기 때문에, 즉 그에 관한 to mē on 을 말하기 때문에 거짓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to on 인 "앉아 있음"과 다른 것은 무수히 많다. 예를 들어 "사람임"도 "앉아 있음"과 서로

다르다. 그러나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to on 인 "앉아 있음"과 다른 것을 말한다는 이유로 "테아이테토스는 사람이다"라는 문장을 거짓이라 하기는 어렵다. 테아이테토스와 그에 관한 to on 사이의 다름을 의미하는 to mē on 도,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to on 들 사이의 서로 다름을 의미하는 to mē on 도 거짓말이 거짓말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제시된 예문들의 역을 취하여,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지 않다"는 거짓말이고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지 않다"는 참말일 것이다. 그러나 주어와 술어 사이의 다름을 기준으로 보면 두 문장 모두 참이 된다. 같은 주어에 관한 술어들 사이의 다름을 기준으로 볼 경우에도 문제가 생긴다. "앉아 있지 않음"이 테아이테토스에 관하여 서술되면 참말이 되는 술어 "앉아 있음"과 다른 것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그에 관해 서술되면 거짓말을 만드는 술어라면, 이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앉아 있음"과 다른 술어인 "사람임" 역시 테아이테토스에 관해 서술되면 거짓말을 만들 것이다. "날고 있지 않음"이 "날고 있음"과 다르기에 참인 문장의 술어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일어서 있음"도 "날고 있음"과 다르기에 참인 문장의 술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다."

문제를 좀 더 일반화시켜 살펴보자.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는 "x is y"가 참일 때 "x is not y"도 동시에 참인 경우가 설명되었다. x 가 y 에 참여하기 때문에 "x is y"라고 이야기되는 동시에 x 가 y 와의 다름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x is not y"라고도 이야기된다. 이 다름에의 참여를 통해 x 는 to mē on y 로, y 는 x 에 관한 to mē on 으로 이야기된다. 그런데 거짓말 분석에서는 x 가 y 에 참여하기 때문에 "x is y"가 참일 때, 이 때에 "x is not y"는 거짓이 되는 경우가 설명되어야 한다. 이 참여에 대비된 어떤 관계에서 x 가 to mē on y 라고, y 가 x 에 관한 to mē on 이라고 이야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참여를 통해 설명된 is 의 부정으로서 is not, 참여로 설명되는 to on 에 연동되는 to mē on 은 언급된 바가 없다.

예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논해 보자. 테아이테토스를 주어로 하는 모든 참인 문장과 모든 거짓인 문장을 생각해 보자.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는 것이지 않다." 라는 문장은 양쪽 모두에 포함되어야 한다. 유들의 결합에 따르면 이 문장은 참이다.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짓말 정의에 따르면 이 문장은 거짓이다.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는 것이다." 가

참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서의 "~이지 않다," 즉 "to mē on"은 주어와 술어의 다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는 것이지 않다." 가 거짓일 때 "to mē on"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또한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거짓으로 정의되었으므로,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는 것이지 않다." 라는 문장은 참이어야 한다. 이 문장의 "to mē on" 역시 거짓인 문장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는 것이지 않다." 에서와 같은 "to mē on"이어야 한다.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는 것이다."와 같은 긍정문장에서의 to on 은 참여를 통해 설명되었고 같음을 통해 설명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부정 역시 같음의 부정으로서 다름이 아니라 참여에 대한 부정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말 일반을 논할 때에도 거짓말 일반을 논할 때에도 양쪽 모두에 설명되지 않은 to mē on 으로 구성된 부정문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문을 다름을 통해 설명된 to mē on 으로 구성된 부정문과 구분하지 못한다면 참과 거짓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구성할 수 없게 된다.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다" 라는 문장은 거짓이다. 그러나 유들의 결합 논의에 비추어 보자면 테아이테토스와 날고 있음은 서로 다르므로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다" 라는 문장은 참이라도 할 수 있다. 같은 문장이 참이면서 거짓일 수는 없다. 여기에서 이 문장이 참일 때의 의미와 거짓일 때의 의미를 구분해준다면 표현상 같은 문장이 의미에서 구분된다는 설명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다"라는 문장이 거짓일 때, 이에 대비되는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지 않다"라는 참인 문장 안에는 유들의 결합에서의 to mē on 이 아니라, "mē mega(not big)" 논의에서의 또 다른 to mē on 이 들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들의 결합 논의와 거짓말 분석 사이에 등장하는 "mē mega" 논의에서는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와 달리 mega 와 서로 다른 무언가가 특정되지 않고 이 표현 자체가 작은 것이나 같은 크기인 것을 의미한다고만 설명된다. 유들의 결합 논의에 비추어, x 가 "mē mega"라고 불리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즉 x 는 to mē on mega 이고, 이 경우 mega 가 x 에 관한 to mē on 이기도 할 것이다. 이 때의 x 는 mega 자신을 제외하고 무엇이든 올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저마다 mega 와의 다름에 참여하여 me mega 라고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화편에서 "mē mega"가 빨강을 의미한다거나 달리기를 의미한다는 언급은 없고, 이 "크지 않음"이 작음이나 같은 크기임을 의미한다고 서술되고 있다. 즉 유들의 결합에서 to mē on 과 "mē mega" 논의에서 to mē on 사이에 어떤 의미의 변화가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준다.

다수 연구자들이 이 "mē mega" 표현을 분석하는 부분에서 거짓말에 필요한 to mē on 을 읽어낼 수 있으리라 추정한다. 여기에서 손님은 to mē on 이 to on 의 반대가 아닌 단지 다름을 말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 뒤, "mē mega"가 작음만이 아니라 같은 크기임도 의미한다고 부연한다.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운동과 정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운동은 정지와 다르기 때문에 "mē 정지"라고 이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to on, 같음, 다름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mē 정지"라고 이야기될 수 있으며 정지 그 자체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말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관계들을 통해 "mē 정지"라 불리는 모든 것들 각각에 관해 정지는 to mē on 으로 이야기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mē mega"를 이해할 경우 그것이 작음이나 같은 크기임만을 가리킬 특별한 이유는 없다. 즉 여기에서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와는 무언가 다른 방식의 "mē on"이 설명되고 있을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문제는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mē mega" 논의로 이행하면서 to mē on 의 의미가 변화한다는 아무런 암시나 경고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욱 큰 난점은 거짓말을 논하는 263b11-12 에서 손님은 거짓말이 주어에 관해 다른 것들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256e6-7 의 "각각에 관해 to on 이 많고 to mē on 이 많다"라는 언급을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256e6-7 은 "mē mega" 논의가 시작되는 257b 보다 앞이다. 그리고 거짓말에 필요한 새로운 의미의 to mē on 을 이끌어내기 위해 유들의 결합 논의와 "mē mega" 논의에서 서로 다른 to mē on 이 이야기되고 있다고 가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to mē on 이 등장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은 거짓말 논의에서 재언급되지 않고,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처럼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 (이후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바로 이 문제를 "재언급 문제"로 지칭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석자들은 플라톤이 두 가지 상이한 의미의 to mē on 을 혼동하고 있다고 보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비약을 저질렀다고 보기도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유들의 결합에서 설명되는 to mē on 만으로 거짓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한다. 또는 이 재언급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mē mega" 논의 안에서 거짓말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들에 반대하며 "mē mega"에서 찾을 수 있는, 거짓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의미를 가진 to mē on 이 유들의 결합에서도 이미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러한 모든 해석들은 문헌 내에 제시된 거짓말이 거짓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문헌 내에 제시된 참말과 거짓말에 대한 정의가 참말과 거짓말 일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유들의 결합과 "mē mega" 논의 그리고 거짓말에 대한 분석 세 부분들 사이의 일종의 비약이나 불일치로 보이는 지점들을 가능한 한 일관된 방식으로, 혹은 문제의 정도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해석해내야 한다.

II. 전통적 해석과 한계

해석의 쟁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불가능한 to mē on 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둘째, to on 의 문제와 늦게 배우는 자들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유들의 결합은 일상적 계사 to on 과 동일성 기호 to on 의 구분에 대한 논의인가 혹은 또 다른 논의인가. 셋째, 거짓말에 대한 일반적 정의에 포함되어야 할 "참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to mē on 이 유들의 결합에서 등장하는가 등장하지 않는가. 20 세기의 다수 『소피스트』 해석가들은 이 세 쟁점 모두에 대해 to mē on 의 용법과 의미 구분이 중심문제라는 해석을 시도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to on 의 영어 번역어 being 의 용법과 의미 구분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왔다.

영어 be 동사는 구문론적으로 완전 용법과 불완전 용법을 구분할 수 있다. 완전 용법은 주어와 be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성되는 be 동사의 활용을, 불완전 용법은 문장이 완성되기 위해 주어와 be 동사 이외에 보충어(혹은 이에 상응하는 형용사나 부사 등) 따위가 추가로 필요한 문장에서의 be 동사 활용을 의미한다. 다시, 이러한 be 동사의 구문론적 구분에 대응되는 의미론적 구분이 존재한다. 완전 용법의 경우 그 의미는 주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존재사적 의미를 가지고, 불완전 용법의 경우에는 주어와 보충어를 동일한 것으로 연결하는 동일성 기호로서의 의미나 주어를 보충어로 서술해주는 서술적, 계사적 의미를 가진다는 구분이다. 전통적 해석은 바로 이러한 구분이 고대 그리스어 eīnai(to be), to on(being)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한다. To on 의 용법과 의미의 구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구분이 혼동될 경우 to mē on 의 불가능성, to on 의 모호성, 나아가 거짓말의 불가능성 등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이러한 문제들은 바로 to on 의 용법과 의미를 올바르게 구분함으로써 해소된다는 것이다.

『소피스트』의 소위 중간 부분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to mē on 이란 것이 왜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심지어 가리킬 수조차 없다고 생각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왜 각각을 하나로 보면서도 또한 여럿으로도 말하는 일이 어려운지, 이 어려움이 어떤 방식으로 극복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문제 극복의 방안으로 제시된 유들의 결합에서 어떻게 to mē on 이 말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끝으로 말할 수 있는 to mē on 을 어떤 식으로 말할 때에 그 말이 거짓말이라 정의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To on 과 to mē on 에 be 동사의 용법과 의미 구분을 적용하여 이해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입장은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대화편 내에서 저 구분된 용법과 의미들 중 무엇이 등장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에 차이를 보인다. 세 가지 핵심쟁점과 관련하여, 첫 번째 쟁점에서는 존재사 부정의 등장여부, 두 번째 쟁점에서는 계사와 동일성기호의 구분 여부, 마지막 쟁점에서는 일상적 계사 부정으로서 비동일성과 구분되는 부정서술(negative predication)의 등장여부를 기준으로 전통적 해석의 입장들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부분을 논외로 하고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3]

	의미	전통 1	전통 2	전통 3
to on/to mē on	존재/비존재	O	X	X
	동일성/비동일성	O	O	X
	계사/부정서술	O	O	X

전통1의 입장은 플라톤이 to on의 세 가지 의미와 이에 대응되는 to mē on의 세 의미 모두를 명확히 구분하여 의식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그는 이러한

[3] to on이 오직 완전용법 존재사로서만 등장하고 논의된다는 해석은 유들의 결합에서 논의되는 내용들과 지극히 불일치하기에 주장하기 어렵다. 형상들 사이의 대칭적 결합으로 『소피스트』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콘포드의 경우 해당 대화편에서 존재사의 등장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으나, 그가 논하는 결합이 to on의 동일성 기호 역할을 그리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러한 이유들에서 존재사만을 인정하는 입장과 존재사와 동일성 기호만이 등장한다고 보는 입장은 도표에서 배제하였다. 이후 자세히 다루게 되겠지만 Frede와 Brown은 대표적으로 그리스어 to on을 영어 be 동사와 마찬가지로 의미와 용법에 있어서 구분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학자들로서 또한 이 표에서 배제하였다. 존재사 to on이나 계사 to on을 부정하고 오직 동일성 기호 to on만을 인정하는 경우는 대화편 내에서 "늦게 배우는 자들"의 입장에 대한 가능한 하나의 해석일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 해석 중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 역시 도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의미들 사이의 혼동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소피스트』에서 소개하고 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to on 과 to mē on 각각의 상이한 의미들 사이의 구분 기준과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해석의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to mē on 은 존재사로 사용된 to on 을 부정한 것으로 이해되며, to mē on 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진술, 사유, 지시 등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불가능성이 서술될 수도 없다고 설명한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유들은 각기 자기 자신과만 동일하고 여타의 것들과는 비동일성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이를 동일성 기호로 사용된 to on(is)을 부정함으로써 표현한 반면 서로 다른 것들이 계사를 통해 주어에 관하여 술어가 서술되는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계사 to on 을 통해 설명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계사와 동일성 기호로 두 가지 to on 이 구분되므로, 동일성 기호가 포함된 "x is not y" 와 계사가 사용된 "x is y" 두 문장이 동시에 참이라 말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쟁점에 대해서 전통 1 은 이미 유들의 결합에서 동일성 기호 to on 과 계사 to on 이 구분되었고 전자의 부정문과 후자의 긍정문이 등장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여 계사 to on 의 부정을 동일성 기호 to on 의 부정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따로 유추해낼 수 있다고 해석한다.

전통 2 의 입장은 『소피스트』에서 문제 삼는 to on 의 의미 구분이 to on 불완전 용법에 한정하여 다뤄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이야기되는 to mē on 은 존재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술어로 한정되지 않은 모든 규정 일반에 대한 부정으로,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유들의 결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통 1 과 입장을 달리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성 기호 부정과 구분되는 일상적 계사 부정 to mē on 에 대해서도 전통 1 과 마찬가지로 유추 가능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전통 3 의 경우 『소피스트』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의 실질적인 원인이 to on 의 의미 혼동이라고 진단한다는 점에서는 앞서 두 입장과 같다. 그러나 전통 2 의 입장처럼 불가능한 to mē on 이 존재사 to on 의 부정이 아닐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첫 번째 쟁점에 관한 이러한 입장과 달리 두 번째 쟁점에 관련하여서는 전통 2 의 해석에 반대하고 나선다. 전통 2 의 입장에서 불완전 용법 to on 의 의미 구분이 대화편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문헌

내의 구절을 두고, 해당 부분을 오히려 to on 의 완전 용법과 불완전 용법의 구분으로 읽는 편이 더욱 자연스럽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 전통 3 은 대화편 내에서 존재사 to on 이 독립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해석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유들의 결합 논의에 대하여 전통 3 은 문제를 유발하는 애매성이 to on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보충어에서도 이야기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플라톤이 해당 부분에서 to on 불완전 용법의 동일성 기호로서의 쓰임과 계사로서의 쓰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 쟁점에 대해서는 비동일성을 의미하는 to mē on 과 구분되는 일상적 계사 부정, 일종의 부정 서술로서의 to mē on 을 대화편을 통해 읽어낼 수 없다고 해석한다. 이 입장은 플라톤이 제기하는 문제들의 원인은 실제로 to on 의 애매성이지만 플라톤이 이를 의식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스스로 제기한 문제에 대해 내놓는 해법 역시 to on 의 의미 구분이 아닌 다른 구분이고, 결론적으로 이 대화편에서 플라톤의 기획이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세 입장 각각이 구체적으로 어떤 해석을 내놓고 있는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입장의 차이를 보여주는지, 그러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 입장을 모두 "전통적 입장"으로 아울러 칭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를 이어지는 본 장 1 절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2 절에서는 이들이 공유하는 한계는 무엇이며 그러한 공통된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논해 볼 것이다.

1. 전통 1. Be 동사의 용법과 의미의 구분

전통 1 의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Ackrill 이다. 그는 자신의 해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첫 번째, 동사 μετέχειν 은 플라톤의 철학적 용어로서 일상언어의 계사 역할에 상응하는 역할을 가진다. 두 번째, 플라톤은 다양한 진술들을 분석하여 계사 (μετέχει(shares in) ...), 동일성 기호 (μετέχει

ταὐτοῦ(shares in sameness) ...), 존재사 ἔστιν (μετέχει τοῦ ὄντος(shares in being)) 사이의 차이를 드러낸다.[4]"

Be 동사 의미구분을 to on 에 적용하여 해석하려는 시도에서 개별 문제에 대해 가장 선명한 해법을 내놓는 것으로 보이는 입장이 이와 같은 입장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유들의 결합에서 귀결되는 문장들의 to on 은 세 가지 참여 관계를 통해 도출되는 세 종류의 동사로 나뉜다. 첫 번째는 서로 다른 것들 사이의 일반적인 참여 관계의 결과로 나오는 "x is y" 형식의 문장에서 드러난다. 이 경우 그 의미는 오늘날의 구분에 따르자면 주어가 지시하는 실체 x 에 보충어가 지시하는 속성 y 가 귀속된다는 것이며 여기에서 동사 "esti"는 일상적 계사로 사용된다. 두 번째로 같음(tauton)에 참여한 결과로서 "x esti x"가 가능하다. 이 때 이 문장의 의미는 'x 는 x 와 같다.' 이며 esti 는 동일성 기호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또 다른 to on 의 의미는 to on 을 참여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은 경우의 "x esti." 형식의 문장에서 나타난다. 여기에서 to on 은 보충어 없이 동사로서 홀로 사용되고(완전용법) 그 의미는 'x 가 존재한다.'로 이해된다. 이 경우 esti 는 존재사로 사용되고 있다.

아크릴이 대표하는 전통 1 의 입장은 유들의 결합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to mē on 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이유, 각각을 하나이면서 여럿이기도 하게 생각하고 말할 방법, 거짓말의 일반적인 정의에 필요한 to mē on 이라는 세 가지 해석 쟁점 각각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

[4] Ackrill (1957), 91-2 쪽. 편의상 일부 표현은 생략하였다.

1) 존재하지 않는 to mē on

아크릴은 불가능한 to mē on 이 to on 에 대한 직접 참여를 부정하는 것, 즉 존재사 부정으로서 비존재를 의미한다고 본다.[5] 지시하거나 진술하거나 사유할 대상이 to mē on, 그러니까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술, 사유, 지시 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1957, 81-2 쪽 참조).

단적으로 없다는 것은 그것이 감각이나 경험될 수 있는 영역에도, 나아가 사고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영역에도 '없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만일 '있지 않은 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을 말하거나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자연스럽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to on 이외의 유들이 to on 에 직접 참여한 결과들을 여타의 참여를 통한 결과들로부터 구분해 준다는 이점을 지닌다. to on 에 참여하는 운동, 정지 등이 "Motion is." 라고 또 "Rest is." 라고 서술될 때, 보충할 보충어가 마땅치 않고 따라서 일상적 계사를 통해서는 문장의 의미를 알 수 없기에, 그것의 부정이 비-존재를 뜻하는 표현을 존재사로 간주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2) 계사와 동일성기호 1

다음으로 아크릴은 유들의 결합 논의가 늦게 배우는 자들의 역설에 대한 반박으로서 제시되는 것이라 해석한다(1957, 84 쪽). 그리고 늦게 배우는 자들의 문제는 동일성 기호 esti 와 일상적 계사 esti 를 혼동함으로써 발생한다고 본다. 이 혼동에 대한 해법으로 아크릴은 프레게를 인용하여 불완전 용법 is 의 두 가지 의미를 구분한다(이하 83-4 쪽 참조). "샛별은 금성이다(the morning star is Venus)." 라는 문장은 샛별이 금성 외의 다른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샛별은 금성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the morning star is no other than

[5] Taylor, Cornford, Moravcsik, Crombie 등의 학자들도 플라톤이 『소피스트』에서 존재사 to on 을 구분해내고자 시도하였다는 해석을 취한다.

Venus).” 라는 앞문장과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 그럼에도 두 문장에서 is 의 역할은 다르다. 전자는 수학의 등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소위 말하는 일상적 계사로서 ‘no other than Venus’라는 개념을 주어 ‘the morning star’에 대해 서술되도록 연결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늦게 배우는 자들이 사람은 사람이라고만,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고만 말하려 하고 사람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the man is the good."과 "the man is the man." 두 문장에서 is 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모르기 때문이다. 앞문장에서 is 는 일상적 계사인 반면, 뒷문장에서 is 는 동일성기호이다. "The man is the man." 은 "the man is no other than the man." 과 의미상 동일하며 이 두 문장 중 앞문장에서 동사 "is"는 등호, 동일성 기호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The man"과 "the good"은 동일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둘을 동일성 기호를 통해 연결해서 안 된다는 주장은 가능하다. 그러나 "the man"에 "the good"이라는 개념이 서술되도록 연결해주는 is 는 동일성 기호가 아닌 일상적 계사이며, 이러한 연결은 주어와 술어의 동일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전히 서로 다른 주어와 술어를 is 로 연결하는 일이 가능하다.

이 차이를 모르고 is 를 동일성 기호로만 간주하면 늦게 배우는 자들처럼 뒷문장을 거짓이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운동은 운동이기만 하고 정지는 정지이기만 하며 운동이나 정지가 to on 일 수는 없다는 to on 에 관련한 역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늦게 배우는 자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유들의 결합은 동일성기호 to on 에 대한 부정을 "다름에 대한 참여"로 설명하고, 일상적 계사를 통한 결합은 "참여"로 설명한다. 서로 다른 것들은 같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동일성 기호로 연결되어서는 안 되지만, 참여 관계를 통해 일상적 계사로 연결될 수 있다. 여기에서 "다름에 대한 참여"의 결과인 to mē on 은 존재사 to on 이 아니라 동일성 기호 to on 을 부정한 것이므로 앞서의 불가능한 to mē on, 존재사를 부정하는 것과 달리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자면 to on 이 본성상 운동도 정지도 아니라는 말은 to on 이 운동이나 정지와 동일성 기호 is 를 통해 연결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마찬가지로 운동이나 정지는 to on 과 동일한 것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기에 역시 동일성 기호 is 로 연결될 수 없다. 이는 유들의 결합의 논의를 통해 설명하자면 to on 이 운동과의 다름, 그리고 정지와의 다름에 참여함으로써 이것들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to on is not 운동, to on is not 정지라고 이야기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때 is 는 동일성 기호이다. 그러나 운동 is to on, 정지 is to on 이라고 말하는 것도 참이며, 이는 운동과 정지가 각기 to on 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때의 is 는 일상적 계사로서 앞서 "운동 is not to on" 등에 등장하는 동일성 기호 is 와 구분되는 것이다.

3) 계사의 부정과 거짓말 1

전통 1 의 입장과 전통 2 의 입장이 구분되는 지점은 쟁점 1, to mē on 의 불가능성을 설명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한다. 전통 1 은 완전용법 존재사 to on 의 부정으로 to mē on 을 해석하는 반면 전통 2 의 경우 완전용법 존재사 to on 이 대화편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유들의 결합에서 참여관계를 통해 등장하는 to on 은 계사로, 여기에서 어떤 것과의 다름에 참여한 결과로 설명되는 to mē on 은 동일성기호 to on 의 부정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는 두 전통이 입장을 같이 한다. 이로부터 나아가 참인 말과 거짓말에 대한 일반화된 정의에 포함되어야 할 부정서술, 비동일성과 구분되는 부정서술을 어디에서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전통 1 과 전통 2 의 구분 기준이 되어주지 않는다. 쟁점 2 와 쟁점 3 에 관련한 논의는 불완전용법 to on 의 의미구분과 관련되며 이는 완전용법과 불완전용법의 구분, 보충어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는 구분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6]

---

[6] 다만 아크릴의 경우 주어에 관한 ta onta 를 주어가 참여하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주어에 대해 서술되는 술어 일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이러한 입장을 공유하는 해석 노선이 소위 Oxford 해석이라 불린다. 이렇게 이해된 '주어에 관한 ta onta'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곧 거짓말이 된다. 반면 주어가 참여를 통해 얻는 속성은 특정 속성들과 양립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to on 과 다른 것을 말한다는 것이 to on 과 양립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존재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주어에 관한 특정 to on, 예를 들어 '크다'와 같은 속성은 작다거나 같은 크기라거나 하는 등의 다른 속성들과 양립 불가능하며, 이러한

전통 1 의 입장에서 기억해야 할 지점은 to mē on 의 불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논의된 존재사 to on 에 대한 해석이 쟁점 2 와 3 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to mē on 은 어떤 것과의 다름에 대한 참여 결과로서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존재사 부정으로서 말할 수 없는 to mē on 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 3 에서는 말할 수 있는 to mē on, 다름에 참여한 결과로서의 to mē on 이 말(logos)이라는 것과 어떤 식으로 결합할 때에 거짓말을 만들어내는지 여부가 중심문제이고, 여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없는 것으로서의 to mē on 은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된다.

4) 전통 1 의 한계, 하나의 to mē on 과 세 가지 의미

이상의 내용으로 정리된 전통 1 의 입장은 『소피스트』가 여러 문제의 원인을 to on 의 용법과 의미를 혼동이라 진단하고 또한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그 to on 의 용법과 의미의 구분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 보인다. 우선 완전 용법 존재사 is 와 불완전 용법 계사 혹은 동일성 기호 is 의 구분은 대화편 내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바가 전혀 없다. 오히려 to on 은 그 자체의 본성을 지니고 여타의 것들과 구분되며 하나로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특히 257a). 또한 완전 용법 존재사 to on 과 그 부정으로서의 to mē on 을 불완전 용법의 경우와 구분짓기 위해서라면, 부재를 의미하는 'apeīnai(ἀπεῖναι)' 등의 표현과 비교함으로써 더욱 분명하게 서술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엘레아 손님은 불가능한 to mē on 을 to on 에 반대되는 것으로, 가능한 to on 은 '다른 것'과 관련하여 그렇게 불리는 것으로 구분한다(258d-9a). 여기에서 손님은 to on 자체의 의미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또한 존재유무를 논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화편 내에서 to on 의

양립 불가능한 속성을 바로 이 "크다"라고 서술된 주어에 대해 서술할 경우 그 말은 거짓이 된다. 보편 양화사의 도입과 관련하여 전통적 해석 내에서의 입장 차이는 이 장 4 절 2 항에서 좀 더 상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의미가 단일하고 연속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는 한, 완전 용법 존재사 to on 를 독립적으로 구분해내 다루는 해석은 수용하기 어렵다.

아크릴의 입장에서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유들의 결합을 논하는 부분에서 to on 이외의 것들이 to on 에 참여한 결과(255), 예를 들어 "운동은 to on 에 참여하기 때문에 운동이 있다/운동이다(esti)" 같은 문장은 다른 보충어 없이 완전 용법 is 로 서술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반론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255c-d 에서는 '그 자체로(auta kath' hauta)' 이야기되는 ta onta(to on 의 복수형)와 '다른 것에 관련하여(pros alla)' 이야기되는 ta onta 가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아크릴이 해석한 것처럼 완전용법과 불완전용법의 구분으로 이해하는 편이 자연스럽다는 반론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256e 에서 언급되는 바, 각각에 관련하여 ta onta 의 수가 많다거나, ta mē onta 의 수가 많다는 언급을 고려하면 위의 주장들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각각에 관련한 to on 이 to on 에 참여한 결과로서 완전 용법 존재사 to on 뿐이라면, 각각에 대해 to on 은 많을 수 없고 단지 하나뿐일 것이다. 운동이 같음에 참여하거나 같음이 정지에 참여하는 등의 결과들 역시 to on 으로 이해할 때에 각각에 대해 to on 이 많다는 점이 이해될 수 있다. 이는 각각에 대해 to mē on 이 많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유들의 결합을 다루는 부분에서 to on 그 자체와 다른 것도 to mē on 으로, to on 이외의 것들이 자기 자신 외의 것들과 다르다는 것 또한 to mē on 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전통 1 의 해석에서 비존재를 의미하는 to mē on 은 폐기된 것으로 선언된다(259a). 따라서 to on 그 자체와 다르다는 의미의 to mē on 도 각각이 자신 이외의 것들과 다르다는 의미의 to mē on 도 폐기되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완전 용법 존재사 to on 의 부정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to mē on 을 지금의 해석에 따라서는 구분하기 어렵다. to on 그 자체에 참여한 결과와 그 외의 것들에 참여한 결과가 모두 X is (F)이고, to on 과 다른 것으로서 구분된 결과와 또한 각기 자신 이외의 것들과 다른 것으로 구분된 결과가 X is not (F)인 한, 존재사 to on 의 의미를 to on 의 다른 의미들로부터 구분해내면서 이 대화편을 해석하기란 힘들어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to mē on 을 동일성 기호로서의 to on 에 대한 부정으로 이해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유들의 결합에서 보자면 운동이나 정지 등이 to on 자체와 다르고 to on 과의 그러한 다름에 참여함으로써 to mē on 으로 불리기에, to on 을 비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나아가 to mē on 이 '다름'에 참여한 결과이며, to on 외에도 운동과 다르다거나 정지와 다르다거나 '같음'과 다르다는 것이 각기 "ouk esti(is not, 즉 to mē on) 운동," "is not 정지" 등으로 서술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X is not F, G, etc. 등의 표현, to mē on(ouk esti) F, G, etc. 와 같은 것을 비동일성으로 해석하는 입장은 더욱 정당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먼저 이러한 해석은 동일성을 의미하는 to on 과 비동일성을 의미하는 to mē on 을, 마찬가지로 동일성을 의미하는 "같음(tauton)"과 비동일성을 의미하는 "다름(heteron)"으로부터 구분해낼 책임을 떠맡게 된다. 유들의 결합을 다시 보면, to on 자체에 참여한 결과는 esti(to on, is)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같음이나 다름에 참여하면 esti tauton(is the same), esti heteron(is the different) 등이 된다. 이것들은 각각에 대한 ta onta 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그러나 "같음"에 참여한 결과는 "is the same"만으로 표현되지 않고 "is the same with itself"로도 표현된다. 정지, 다름, to on 등에 참여할 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같음에 참여한 결과는 "is the same"에 그치는 한편 여타의 참여와 구분되는 방식으로 같음에 참여한 결과는 여기에 "with itself"가 추가되는 것으로 보이며, 후자는 명백히 주술 동일성을 서술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is 가 동일성기호로 사용된다면 이는 "is the same with itself"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to on 의 의미를 구분하고 그 중에서 동일성의 의미를 가지는 to on 을 같음과 동일한 것으로 설명하는 서술은 찾아볼 수 없다.

To mē on 과 다름 사이의 관계 또한 불분명하다. 257c-e 에서는 to mē on 이 다름의 일부라거나 to on 의 독립된 어떤 부분이 다른 어떤 부분에 대비된 다른 것이라는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또한 258c 와 e 에서도 to mē on 을 독립된 형상이면서 다름의 부분인 것으로 표현한다. to on 이 같음과 마찬가지로 동일성을 의미하고 to mē on 이 다름과 다름없이 비동일성을 의미한다면, 어째서 이것들을 상호 구분되고 독립된 것으로 다루고 표현하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to on 은 '그 자체에 관하여'와 '여타의 것들에 관하여'라는 두 형상 모두에 참여하는 반면 다름은 언제나 '다른 것에 관하여(pros heteron)'로 이야기된다는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의 서술은 이러한 해석을 더욱 견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같음은 위에서 보았듯 주어 그 자신과 관계해서만 이야기되며, 말하자면 '그 자체에 관한' 방식으로만 이야기되므로 두 형상 모두에 참여하는 to on 과 바로 이 점에서 구분될 것이다. 이는 다름이 '다른 것에 관해서'만 이야기된다는 점에서 to on 과 구분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의 구분이다. 그러나 대화편 내에서 같음은 이런 식으로 to on 과 구분되지 않는다. 또한 to mē on 이 비동일성을 의미할 경우, 이 to mē on 과 다름은 구분되지 않는다. to on 이 두 형상 모두에 참여한다면 두 경우 각각에 대해 부정이 성립할 것이고, 이에 따라 to mē on 역시 '그 자체에 관하여'서도 '여타의 것들에 관하여'서도 이야기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o mē on 이 다름과 구분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다름도 '다른 것에 관하여' 뿐만 아니라 '그 자체에 관하여'서도 이야기될 수 있게 되어 버린다. 이 경우 같음과 다름을 각기 to on 과 구분되는 독립된 형상들로 간주하기 어려워진다.

To mē on 을 비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의 더 큰 어려움은 세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to mē on 의 불가능성 문제에 대한 해법은 유들의 결합에서 제시되고, 그것은 to on 자체와 다르다거나 또는 자신 이외의 것들과 다르다는 등 '다르다'라는 의미에서의 to mē on 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즉 여기에서 가능한 것으로 밝혀지는 to mē on 은 그 의미가 비동일성인 것이다.

이 지점에서 1 장 2 절 3 항에서 소개하였던 소위 '재언급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자. 263b11-12 에서 손님은 "<거짓말은> 당신에 관해 ta onta 와 다른 것들(또는 "다른 것들을 onta 로," onta hetera)을 말한다." 라는 설명에 이어 "각각에 관한 onta 가 많고(polla eīnai), ouk onta 가 많다고 우리가 말했으니까"라고 부연한다. 이 부연내용은 256e5-6, "그래서 형상들의 각각에 관하여 to on 은 많고, to mē on 은 그 수가 무한하다." 라는 말과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각 유들이 자신 이외의 유들에 대한 다름에 참여한 결과로서 to mē on 으로 이야기된다는 고찰을 통해 도출되었던 것이다. 전통 1 의 해석뿐만 아니라 이후 살펴볼 전통 2 와 3 의 경우에도 유들의 결합에서 밝혀진

이와 같은 to mē on 이 동일성 기호 to on 의 부정으로서 비동일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다시 말해 전통적 해석의 입장에서 거짓말 분석에 사용되는 to mē on 은 유들의 결합에서 언급된 바로 그 to mē on, 비동일성을 의미하는 to mē on 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동일성을 의미하는 to mē on 만으로는 거짓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거짓말을 거짓말이도록 만드는 원인을 비동일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뿐더러, 설령 그러한 원인을 비동일성으로 설명해내더라도 긍정 서술이 거짓인 경우는 설명해낼지언정 부정 서술이 거짓인 경우를 설명하기는 어려워진다. 대화편에서 제시된 참말과 거짓말의 예시는 다음의 두 문장이다.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다.(T1)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다.(F1)

배중률에 따라 이로부터 다음의 두 문장을 도출할 수 있다.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지 않다.(F2)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지 않다.(T2)

이를 바탕으로 위에서 언급한 난점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자. 가정에 따라 테아이테토스에 관하여 날고 있다는 것은 거짓이다. 주어와 술어 사이의 비동일성을 기준으로 보면, "날고 있음"은 테아이테토스와 다르다. 그러나 "앉아 있음"도 그와 다르다. 따라서 주술 비동일성은 참이나 거짓을 설명하는 데에 불충분하다. 다음으로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날고 있음"은 그에 관한 "앉아 있음"과 다르다. 그러나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사람임"도 그에 관한 "앉아 있음"과 다르다. 주어에 대해 참인 술어에 대한 비동일성을 기준으로 참과 거짓을 나눌 경우 "테아이테토스는 사람이다"까지도 거짓 문장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어에 관한 참인 술어와의 비동일성으로도 거짓말을 설명하는 데에 불충분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어에 관한 "to on"에 보편양화사를 도입해 읽어야 한다는 제안이 등장한다. 아크릴만이 아니라 이어서 살펴볼 전통 2

입장을 대표하는 오웬의 경우에도 이러한 해석을 시도한다. 이 해석에 따라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다"라는 문장이 거짓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날고 있음은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모든' to on(그가 참여하는 모든 형상)과 다르다.

이 설명은 거짓말의 예시로 주어진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다"라는 문장이 왜 거짓인지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날고 있음"은 "앉아 있음"뿐만 아니라 "사람임"과도 다르며 "테아이테토스" 자신과도 다르다. 그러나 "사람임"은 "앉아 있음"과는 다르지만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사람임"과는 동일하다. 그러나 보편양화를 통한 이와 같은 설명도 여전히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지 않다." 라는 문장은 거짓이다. 그리고 유들의 결합 논의에 따라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음과의 다름에 참여한다. 앉아 있음은 테아이테토스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테아이테토스에 관해 "to mē on 앉아 있음(혹은 "앉아 있지 않음")"이라 말할 수 있다. 그는 앉아 있지 않은 것이다(He is not sitting.). 이는 전제에 모순이다. 그러나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모든 to on 에는 무수한 to mē on 이 포함된다. 이 무수한 to mē on 은 테아이테토스 자신 이외의 모든 것 각각에 대해 그것과 테아이테토스가 다르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to mē on 에는 앉아 있지 않음이 포함된다. 이는 다시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모든 to on 에 포함된다. 테아이테토스에 관하여 앉아 있지 않음은 그에 관한 to on 모두와 비동일하지 않고, 주어 자신에 관하여 비동일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모든 to on 중 하나로 서술되며, "테아이테토스는 to mē on 앉아 있음이다"라는 문장은 참인 것이다. 이에 따라 비동일성은 거짓의 충분조건이 되지 않는다. 이 문장과 구분되는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지 않다"라는 문장의 의미를 따로 밝혀준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테아이테토스가 앉아 있음과 다르더라도 그가 앉아 있지 않다는 것은 거짓이어야 한다. 둘 사이의 비동일성이 아닌 다른 의미에서 to mē on 앉아 있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통적 해석은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의 to mē on 을 비동일성으로 이해하며, 재언급의 문제로 인해 다른 부분을 통해서 to mē on 의 또 다른 의미를 읽어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테아이테토스가 앉아 있지 않다" 라는 말이 거짓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 더하여, 유들의 결합에서 to mē on 을 비동일성으로 이해하는 해석은 "테아이테토스가 날고

있지 않다"가 참인 이유 역시 만족스럽게 설명해내지 못한다. 테아이테토스가 실제로 날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나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음과 여전히 다르다. 이를 근거로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음이 아니라고, 즉 날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고 여전히 이는 참된 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지 않다." 가 참인 이유는 그 둘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테아이테토스가 날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원인과 무관하게 위 문장이 참이라면 우리는 참에 대한 원하는 설명을 얻지 못한 것이다.

요컨데 전통 1 의 입장은 우선 to on 의 구분되는 의미들 사이에 연속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존재사와 동일성 기호, 계사는 문장 내에서 용법과 의미가 명확히 구분되지만, 이 모두를 포함하는 to on 은 문헌 내에서 일관되게 단일한 형상으로 간주되고 위 세 의미를 명시적으로 구분하는 언급은 찾을 수 없다. 다음으로 전통1의 입장은 거짓말을 정의하는 데에 필요한 to mē on을 읽어내지 못한다. 해석 쟁점 1 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존재사 부정 to mē on 은 거짓말 분석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 2 에서 발견되는 동일성기호 부정으로서의 to mē on 으로는 거짓말의 정의를 거짓말 일반에 대한 만족스러운 정의로 재구성해내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밝혀진다. 주어에 관한 to on 에 보편양화사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시도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할 뿐더러 이 보편양화사에 해당하는 표현을 문헌 내에서 찾을 수 없기도 하다. to on 의 세 가지 의미들 사이에서, 그리고 유들의 결합에서의 to mē on 과 거짓말 정의에 필요한 to mē on 사이에서, 두 종류의 메우기 어려운 간극이 전통 1 의 해석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2. 전통 2. 불완전 용법과 축약<Owen>[7]

전통 2 의 입장은 전통 1 이 봉착하는 난관 중 to on 완전용법과 불완전용법 사이의 엄격한 구분이 야기하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시도한다. 존재사 to on 을 다른 의미의 to on 과 구분해내고 나면 둘 사이의 용법 차이와 의미 차이를 고려할 때 이 둘을 동일한 하나의 형상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그러나 『소피스트』 내에서 to on 을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것들로 구분하는 서술은 발견되지 않으며, 간접적으로 이와 같은 구분을 시사하는 듯 보이는 대목들 역시 그러한 구분을 하지 않는 방식의 대안적 해석이 가능하다. 존재사 to on 이 독립적으로 다루어진다는 해석을 피할 수 있다면 완전용법 존재사 to on 과 불완전 용법 to on 사이의 매개하기 어려운 간극을 설명해야 하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존재사 to on 을 독립시키는 해석과 부딪치는 것으로 보이는 문헌 상의 서술들 역시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1) 아무것도 아닌 to mē on

존재사 to on 을 독립시키는 해석은 이후의 to on 논의와의 간극을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여기에 더하여 오웬은 250e5-251a1 까지의 언급을 근거로 소위 "Parity Assumption(짝 가정)" 해석을 주장한다. 이 언급에 따르면 to on 이 밝혀지는 그 만큼 to mē on 도 함께 밝혀지며, 이 둘 중 한쪽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다른 쪽도 역시 해명되지 않는다. 논의의 일관성, 그리고 짝 가정을 고려하면서 존재사 to on 에 대한 부정으로서 to mē on 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해석을 검토하면, 바로 이 to mē on 이 폐기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존재사 부정 to mē on 이 폐기된다면, 짝 가정에 따라 존재사 to on 역시 폐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긍정 서술로서 존재사 is 만이 가능하고 이에

[7] G. E. L. Owen, ‘‘Plato on Not-Being,’’ in Plato 1, ed. G. Fine (Oxford, 1999)

대응되는 존재 부정 is not 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은 이 가정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존재사 to on 을 『소피스트』에서 문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또 다른 문헌상의 근거는 "not big(mē mega)" 표현이 등장하는 대목이다. 그에 따르면(423 쪽) 'to on'이 아닌 'not'이 문제시되고, 이 표현이 뒤에 오는 것의 반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not big 유비[8]를 통해 설명된다. "to mē on"에서 to on 이 문제되지 않듯 "not big"에서 big 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big"은 형용사로서 서술에 쓰이고, 이에 상응하여 분사 형태 to on 이 제시된 것이다. 이는 술어 "to be"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고자 한 것이고, 이 점을 형용사에 유비함으로써 강조하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not big"이 big 의 반대 small 만이 아니라 big 과 단지 다른 equal 도 의미한다는 점이 "to mē on"이 to on 의 반대 nothing 만이 아니라 서술부정도 의미한다는 사실을 유비하는 것이라 해석한다(426 쪽). to mē on 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입장이다.[9] 오웬은 짝가정에 근거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자면 존재사 긍정은 남는 반면 존재사 부정은 폐기되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 된다. 반면 아무것도 아닌 to mē on 은 구분 없이 아무것이나 다 되는 to on 과 함께 알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구체적인 어떤 의미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가능한 to mē on 과 불가능한 to on 이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자면 유들의 결합 이전에 문제시되었던 불가능한 to mē on 을 존재를 부정하는 의미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to mē on 을 비존재가 아닌 무규정의 것으로 간주하고도 to mē on 의 불가능성을 설명할 방법은 남아 있다. to mē on 불가능성 논의에서 손님과 테아이테토스는 수, 지시사, 관사, 이름 등 그야말로 모든 것이 to on 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렇기

---

[8] "Hoion"을 "예를 들어"로 번역할 수도 있고 "마치 ~처럼"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 오웬은 후자의 번역을 선택함으로써 to mē on 이 not big 에 유비된다는 해석을 취한다. 반면 전자의 번역을 취할 경우 not big 은 to mē on 의 한 사례로 간주될 것이다. 오웬과 대비되는 이러한 해석의 자세한 내용은 이후 장들에서 프레데와 브라운의 논의를 통해 확인될 것이다.

[9] 오웬, Bluck, Frede, Malcolm, Gosling, McDowell 등.

때문에 to on 이 아닌 to mē on 에 수도 이름도 적용시킬 수 없고 이런 to on 에 to mē on 이 적용될 수도 없다고 말한다. to on 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명명되고 서술될 수 있는 것들, 규정성을 지니는 것들 일체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to on 의 부정은 이 모든 것들이 아닌 것, 즉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기에 수도 이름도 "그것"도 될 수 없으며,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나 "말할 수 없다"라거나 "생각할 수 없다"라는 서술들 역시 그러한 성질을 지닌 것이라는 규정이므로, to mē on 에 대해 어떤 점에서 불가능하다는 식의 서술들도 모두 귀속시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to mē on 을 nothing 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2) 계사와 동일성기호 2

오웬의 해석에 대해 to on 이 "그 자체로(auta kath' hauta)"와 "다른 것에 대하여(pros alla)" 두 형상 모두에 참여한다는 언급과 관련하여 반박이 제기된다. 존재사와 계사로 to on 의 의미와 용법을 구분하는 입장에서 이 언급은 "그 자체로"가 to on 완전 용법 존재사를, "다른 것에 대하여"가 to on 불완전 용법 계사를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된다(441 쪽). 그러나 오웬은 유들의 결합에서 비동일성 to mē on 과 일상적 계사 to on 을 읽어낸 자신의 해석에 근거하여 이를 재반박한다(444-5 쪽). "그 자체로" 사용되는 to on 은 유들의 결합에서의 to mē on 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동일성 문장에 사용되는 동일성 기호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다른 것에 대하여" 사용되는 to on 은 참여관계를 통해 설명된 일상적 계사로 볼 수 있다. 동일성 기호 to on 은 어떤 주어에 대해서든 그 주어 "자체에 동일한 것"을, 즉 주어 자신을 보충어로 취하여 참인 문장을 구성한다. 반면 일상적 계사 to on 은 주어와 "다른 것"을 보충어로 삼아 상이한 주어와 보충어를 연결시킨다. 즉 존재사와 계사를 구분하는 입장의 해석과 달리, 오웬은 제시된 문헌상의 대목이 is 불완전 용법 내에서 동일성 기호와 일상적 계사라는 의미 혹은 기능상의 구분을 가리킨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는 늦게 배우는 자들의 입장을 해석하는 데에도 일관성을 부여한다. "a man is a man," "the good

is good"과 같은 형식의 문장들만 수용하고 "a man is good"과 같은 문장들을 부정하는 입장은, is 의 동일성 기호로서의 역할만을 받아들이고 일상적 계사로서의 쓰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계사의 부정과 거짓말 2

전통 1 과 마찬가지로, 비동일성을 의미하는 to mē on 을 통해 거짓말의 정의를 설명하는 문제에 대해 오웬은 주어에 관한 to on 에 보편양화사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448 쪽). 단순히 참과 다른 것이 아니라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모든' 참인 진술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경우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해석이다. 이는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to on 을 말하는 것이 참이고, 그에 대한 to on 과 다른 것으로서 to mē on 을 그에 관해 말할 경우 거짓이라는 정의에도 적용된다. 테아이테토스에 관하여 "앉아 있다"라는 것은 to on 으로 이야기된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테아이테토스에 관하여 "사람이다"라는 것 역시 to on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두 to on 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정의에 따르자면 둘 중 하나는 to on 과 다른 것이라는 점에서 to mē on 으로 간주되고 둘 중 한쪽을 말하는 것은 거짓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모든' to on 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식으로 정의를 고쳐 이해하면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4) 보충어 없는 to on 과 등장하지 않는 to mē on

이 해석은 『소피스트』에서 다루어지는 to on 이 모두 불완전 용법이며 완전 용법은 논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에 따르면 to on 은 to on something 의 생략된 형태로 이해될 수 있으며, to mē on 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는 to mē on 을 어떤 것이 아닌 것(to mē on something)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to mē on anything at all)으로 오해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해는 to mē on 을 to on 에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 이 노선의 주장이다. 그리고 그 근거를 not large 를 분석하는 대목에서 찾는다. 여기에서 "οἷον"이란 표현이 등장하고, 이것이 to mē on 과 not large 를 연결한다. 해당 표현은 just as 로도 for example 로도 번역 가능하다. 오웬은 just as 번역을 취하며, not large 가 large 의 반대인 small 만이 아닌 equall size 또한 의미하는 것 '처럼', to mē on 역시 to on 의 반대인 아무것도 아닌 것(to mē on anything at all)만이 아니라 단지 to on 과 다름인 어떤 것이 아닌 것(to mē on something) 역시 의미한다는 식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문헌상으로 to mē on 에 대해 '어떤 것이 아님'만 가능한 의미로 남고 '아무것도 아님'은 폐기된 반면, not large 의 경우 '작음'도 '같은 크기임'도 모두 가능한 의미로 허용된다는 점에서 유비가 깨어진다. "Οἷον"을 for example 로 번역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오웬의 주장에 반대한다.[10]

To on 이 to on something 의 생략된 형태라는 해석은 유들의 결합에서 to on 이외의 것들이 to on 에 참여한 결과를 설명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야기한다. 참여의 대상이 운동이나 정지, 같음, 다름 따위일 경우라면 X is F, G, etc. 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이것은 X is something 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X 가 어떤 특정한 것이다(혹은 특정한 것으로 있다)." 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이 to on 에 참여한 결과는 X is, X is (a) to on 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운동이 to on 에 참여한 결과와 정지가 to on 에 참여한 결과가 같다는 해석도 다르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Motion is to on, Rest is to on 이라면 결과는 같은 것으로 보이고, Motion is to on motion, Rest is to on at rest 라면 결과는 달라 보인다. 그러나 is 완전 용법 존재사가 대화편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해석에 따르자면 서로 다른 것들이 to on 에 참여한 결과가 is to on 으로 단일하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is being(to on) something 의 생략된 형태로 해석될 것이나, something 은 특정되지 않는다. Something 이 특정되는 경우는 to on 에 참여하는 경우가 아니라 to on 이외의 이러저러한 것들에 참여하는 각 경우이겠기에 말이다. 반면 to on 에 참여한

[10] 특히 Frede 와 Brown 모두 각기 이 부분을 자신의 해석에 중요하게 활용하면서 Owen 에 반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3 장과 4 장에서 다루어진다.

결과가 X is X, Y is Y 와 같은 식이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운동이 to on 에 참여하여 "운동이다(is motion)"라고 서술된다면, 같음이나 to on 등이 운동에 참여한 결과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대상이 다름에도 그 결과가 같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to on 이 그 자체 이외의 것들과 구분되는 한에서 to on 자체에만 참여한 결과는 여타의 것들에 참여한 결과와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난점들에도 불구하고, is 의 불완전 용법과 그 축약된 형태만이 다루어진다는 해석은 문헌 상으로는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완전 용법과 불완전 용법 사이의 엄격한 구분, 간극을 설명하거나 매개할 책임으로부터 다소간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보인다. to mē on 을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앞서의 해석들과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일이 가능한 to mē on 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문헌 내에서 일정수준까지 설명해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결국 이 해석 역시 앞서의 해석들과 마찬가지로 유들의 결합 논의를 분석하여 to mē on 을 비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거짓 진술 분석에서 요청되는 부정 진술의 to mē on 을 문헌 내에서 다시금 찾아내야 하고, 비동일성 to mē on 과 부정 진술 to mē on 각각이 필요한 서로 다른 대목에서 똑같은 하나의 to mē on 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헌의 논조에 맞추어, 두 to mē on 사이의 간극을 메워야 한다.

3. 전통 3. 필요하지만 찾을 수 없는 구분

Is 의 용법과 의미를 구분함으로써 『소피스트』를 이해하려는 시도들은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 보인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가 플라톤 자신의 혼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심을 갖는다. 이들은 파르메니데스로부터 가상의 소피스트에 이르기까지 to mē on 을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입장은 mē(not)에 의해 부정되는 to on 의 의미를 혼동함으로써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는 전통적 입장의 진단에 동의한다. 또한 to on 에 대한 여러 입장들이나 늦게 배우는 자들의 주장이 내포한 오류 역시 또 다른 의미에서 to on 의 의미

구분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는 점에서도 다른 전통적 입장들과 같은 주장을 편다. 그럼에도 전통 3 은 『소피스트』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to on 의 의미와 용법을 구분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되지 않고 있기에 적합하고 일관된 해법을 도출해낼 수 없다고 진단한다. 즉 이들은 플라톤이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1) 존재사와 계사의 구분은 없다.

Gosling(1973)은 우선 to mē on 의 불가능성이 to mē on 을 완전용법 존재사 is 에 대한 부정으로 이해될 때 성립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이러한 불가능성을 해소시키고 to mē on 을 사용 가능한 것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to on 의 존재사로서의 역할을 다른 의미들로부터 구분해내야 한다. To on 에 대한 참여 결과를 이러한 존재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유들의 결합 논의를 통해 플라톤은 이 참여의 결과로 각각의 유에 대해 to on 이 많다고 결론내린다. 이 to on 은 운동, 정지, 같음, 다름에 참여한 결과들 is 운동, is 정지 등등을 포함하므로, 존재사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

2) 계사와 동일성 기호, 또는 형용사와 추상명사

고슬링에 따르면 늦게 배우는 자들의 문제는 같은 것들만을 연결시키고 서로 다른 것들은 결합시키지 말라는 주장이며, 이는 동일성 기호 is 와 계사 is 를 혼동함으로써 내세우게 되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들의 입장을 논파하기 위해 필요한 구분을 문헌을 통해 재구성하기 어렵다. 비동일성을 표현하는 'is not'은 'partakes of otherness'로 설명되는 반면, 일상적 계사 부정은 이를 테면 'doesn't partake of'와 같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부정서술 'is not'을 설명하는 말에 다시 'not'이 포함되어 버린다. 'not'의 의미가 설명되지 않기에 비동일성과 계사 부정 사이의 구분은 실패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x is y"와 "x is not y"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애매성은 is 에서만이 아니라 y 에서도 찾을 수 있다. "change is the same"과 "change is not the same"의 경우 전자에서 "the same"은 형용사 역할을 하는 반면 후자에서는 추상명사로 기능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 경우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유들의 결합은 동일성기호 to on 과 일상계사 to on 이 아니라 "the same" 이라는 같은 표현의 형용사적 용법과 명사적 용법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해결책이 겨냥하는 문제는 to on 의 의미구분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이와 다른 종류의 해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플라톤의 기획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Bostock(1984) 역시 늦게 배우는 자들의 문제와 그에 앞선 to on 에 관한 문제들이 동일성 기호 to on 과 일상적 계사 to on 을 혼동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는 진단에 동의한다(95 쪽). 그러나 동일성 기호로 사용되는 경우의 to on 을 tauton 과 구분하고, 또한 동일성 기호로 사용되는 esti 를 "is same as"로 환원시키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플라톤은 동일성 기호 to on 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90-92 쪽).

늦게 배우는 자들의 문제와 to on 문제의 해법으로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동일성 기호 to on 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문제 역시 동일성 기호 to on 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 이 경우 플라톤의 기획을 실패한 것으로 보지 않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보스톡은 애매성이 to on 이 아니라 tauton 에 오는 경우, 또는 me/ouk(not)에 오는 경우 또한 가능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96-98 쪽).

애매성이 tauton 에 있는 경우는 일반화시켜 말하자면 같은 표현이 추상명사로 사용되는 경우와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 사이의 혼동이라 할 수 있다. X is not the same 에서 "the same"은 추상명사를 지시하는 반면 X is the same(as itself)에서 "the same"은 형용사이며, 따라서 X is/is not the same 이 둘 다 동시에 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스톡은 문제가 이와 같이 해결되는 것이었다면 플라톤은 관사를 추상명사 표현에만 사용하고 형용사 표현에 적용하지 않는 식으로 자신의 해결책을 더욱 분명하게, 또 간단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었을 것이라 지적한다(96 쪽). 그러나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tauton 만이 아니라 heteron 에 대해서도, to on 에도 마찬가지로 관사의 사용은 일관되지 않다.

애매성이 not 에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계사 to on 이 사용되는 문장에는 not 이 적용되지 않는 반면 동일성 기호 to on 이 사용되는 문장에만 not 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not 은 다름에 참여한 결과에만 등장하고 계사에 대한 부정으로서 등장하는 일이 없다. Not 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부정서술이 따로 등장하지도 않으므로, not 에서 애매성을 찾는 해석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보스톡의 평가이다(97-8 쪽).

보스톡은 유들의 결합 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이하 103 쪽 참조). (i) is 구분을 읽어낼 수 있는 대목들은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으므로 대화편의 중심 문제가 is 의미 구분이라는 주장의 결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 (ii) 'Change is and is not the same'에 대해 'is' 의미 구분은 제시되지 않으며, 'the same'의 애매성에 대해서도 논의되지 않는다. 플라톤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애매성을 잘못 짚었거나, 그러한 애매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iii) kath' hauto/pros allo 구분은 동일성/계사 구분보다 완전용법/불완전용법 구분으로 더 잘 이해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동일성 기호와 계사 구분을 읽어내기 어렵다. (iv) 설령 is 의 동일성 기호 의미와 계사 의미 사이의 애매성을 보았더라도 애매한 의미들 중 하나, 동일성 기호로서의 의미가 same 과 같다는 점은 의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Heteron 과 mē mega

보스톡은 직접 '재언급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다. 111-112 쪽에서 그는 263b11-12 가 256e5-6 을 가리킨다고 지적한다. 이는 앞서 전통 1 의 한계점에서 언급하였듯 비동일성 to mē on 으로 거짓말을 설명해야 하거나, 혹은 유들의 결합에서 찾을 수 없는, 거짓말을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또 다른 의미의 to mē on 을 문헌을 통해 재구성해내야 한다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to on 을 동일성 기호와 일상적 계사로 나누고, 이 둘 각각에 대해 서로 구분되는 두

가지 부정으로서 비동일성 to mē on 과 부정 서술 to mē on 또한 읽어내야 한다는 것으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스톡은 플라톤이 동일성기호 to on 과 계사 to on 둘 모두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통적 해석들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 둘은 to on 의 의미들 자체에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구분은 플라톤이 의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07 쪽에서 그는 플라톤에게서 'to kalon(the beautiful)'이 형상을 가리키는 명명법과 이 형상에 참여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일반화용법 둘 모두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운동이 정지한다는 것은 명명법에 따르면 참이다. 인식되는 것은 같은 것으로서 정지해 있어야 하고 운동이라는 형상은 인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화용법에서 이는 거짓이다. 운동하는 것들은 운동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정지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플라톤에 의한 설명은 본성상 운동하지 않는 것도 우연적으로 운동한다는 것이다.

유들의 결합 논의는 명명법 형상들의 관계이다. 형상들이 모두 자신 이외의 것들과 구분되기 때문이다. 일반화 용법이라면 형상들은 동일한 예화자를 가지므로 서로 다르지 않다(109 쪽). 모든 것은 to on 이고 모든 것은 (자기 자신과) 같음이며 또한 모든 것은 (자신 이외의 것들과) 다름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운동과 정지도 명명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to on 문제에서 일반화 용법으로 사용되던 운동과 정지가 유들의 결합에서 명명법으로 사용되므로 이 용법에는 일관성이 없다(110 쪽).

플라톤이 명명법과 일반화용법을 혼용하고 있기에 유들의 결합에서 명명법 부정으로서 이해된 to mē on 은 별다른 설명이나 예고 없이 플라톤에게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일반화 용법의 부정 to mē on 으로서도 사용되는 것이다.

보스톡은 mē mega(not large)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이 점을 설명한다. 명명법에 따라 보자면, 유들의 결합에서 mē(not)는 다름(heteron)에 참여한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mē mega 는 큼과의 다름에 참여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경우 둥글다는 것에 참여하여 둥근 것도 large 와 다른 것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mē mega 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둥근 것은 여전히 클

수도 있다. 크지 않은 것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름에의 참여 이상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113 쪽).

보스톡은 가능한 두 가지 추가 설명을 제시한다. 하나는 보편양화사를 도입해서 해당 구절을 이해하는 시도이다. "not large"는 어떤 것이 큼이 아니라는 말이고, 이는 X is not F 형태로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X 에 대한 모든 to on, X 가 참여하는 모든 형상들이 large 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전통 1 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논하였듯 보편양화사에 해당하는 표현을 문헌 내에서 찾을 수 없다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다른 가능한 해석은 "다름(heteron)"의 의미를 양립 불가능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mē mega"의 의미는 주어가 큼과 양립 불가능한 속성, 예를 들어 작음이나 같은 크기임 등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mega"가 명명법이 아닌 일반화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유들의 결합에서 명명법으로만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문제는 일반화 용법과 명명법의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은 독자이지 플라톤이 아니라는 점이다. 플라톤 자신은 이런 비약을 의식 못 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동일성 기호 to on 과 계사 to on 이 모두 사용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보스톡에 따르면(118 쪽) 플라톤이 동일성 is 를 사용하다가 계사 is 로 넘어가는 이유는 is 의미 구분을 의식하거나 문제 삼아서가 아니라 명명법과 일반화용법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자면 유들의 결합에서 명명법 부정 to mē on 과 mē mega 표현 논의에서 등장하는 일반화 용법 부정 to mē on 은 다른 것이고, 플라톤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구분을 혼동할 경우 to on 이 운동과 정지에 대해 (명명법으로서) 참여 가능하지만 동시에 그것들과 (일반화 용법에서) 구분된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mē mega 를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의 to mē on 과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왜 mē mega 의 의미가 같은 크기나 작음 등에 국한되어야 하는지 역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플라톤은 두 용법을 혼용하고 있으므로, 결국 보스톡에

따르면 플라톤은 문제의 원인이 되는 혼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문제에 대한 적합한 해결책을 내놓지도 못한 것이라는 해석이 타당하다.

4) 플라톤의 실패와 자비의 원리

전통 3 의 입장에 서는 해석자들은 그리스어 to on 이 영어 be 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여러 의미를 가진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그들은 『소피스트』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to on 의 이러한 서로 다른 의미들을 혼동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플라톤이 자신이 제기한 문제들의 실질적인 원인을 to on 의 다의성과 관련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to mē on 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야기되는 방식에 관련하여서 플라톤 자신이 존재사 to on 을 다른 의미의 to on 으로부터 구분해내는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 to on 에 직접 참여한 결과와 그 외의 형상들에 참여한 결과는 모두 ta onta 로 묶여서 취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to on 이 auta kath' hauta, pros alla 두 형상 모두에 참여한다는 언급은 다시금 존재사와 계사의 구분으로 이해하는 편이 쉽고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결국 플라톤이 to mē on 을 없는 것으로 이해했는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해했는지 확정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유들의 결합에서 to on 과 to mē on 은 각기 계사와 동일성 기호 두 가지 to on 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to on 과 to mē on 뒤에 오는 단어를 형용사와 추상명사로, 또는 일반화 용법 표현과 명명법 표현으로 구분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애매성을 to on 의 의미에 두든 그 뒤에 따르는 보충어에 두든 X is Y 와 X is not Y 둘 모두 동시에 참이 되는 이유도, 이 둘을 혼동할 경우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플라톤은 다름에 대한 참여와 그 외의 참여로 위 상황을 설명하고 이는 지금 제시되는 어느 가능성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명명법으로 표현된 두 형상이 서로에 대해 서술되기는 어렵다. 반면 일반화용법으로 표현된 것들은 특정 형상에 참여하여 그 형상으로 서술될 수 있다. 이 차이로 인해 전자에서는 동일성 기호 to on 이 부정되고 후자에서는

계사 to on 이 긍정적으로 서술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플라톤이 해당 문제는 to on 의 의미 구분 문제로 보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플라톤이 to on 의 동일성 기호 의미와 계사로서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에 대한 만족스러운 정의에 필요한 to mē on, 즉 계사에 대한 부정으로서의 부정서술을 의미하는 to mē on 을 따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게 된다. 유들의 결합에서 명명법으로 지시된 형상들 사이의 비동일성을 의미하는 to mē on 이 mē mega 논의에서는 mega 를 일반화 용법으로 취급하여 부정서술로 읽힐 가능성을 찾아볼 여지도 있겠으나, 이는 엄연한 비약이다. 플라톤은 이러한 비약을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재언급 문제를 고려하면 설령 플라톤이 이 둘 사이를 구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화 용법 부정을 의미하는 to mē on 은 거짓말을 논하는 부분의 해석에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그리스어 to on 이 영어 be 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구분되는 상이한 의미들과 용법들을 가진다는 전제, 그리고 『소피스트』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이 서로 다른 의미들의 혼동으로부터 야기된다는 진단, 여기에 더하여 유들의 결합에서 등장하는 to mē on 이 비동일성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결합하여 전통 3 은 플라톤의 기획이 전반적으로 실패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to on 이 일관되게 하나의 형상으로 간주되고 to mē on 역시 그러하다는 점, 유들의 결합에서 to on 과 같음이 구분되고 to mē on 은 다름의 부분으로서 다름 자체와 구분된다는 점, 다른 추가적인 설명 없이 기존까지 사용해온 to mē on 을 통해 거짓말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플라톤에 대한 전통 3 의 평가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는 의심을 가지게 된다. to on 은 be 동사와 달리 의미나 용법에 구분이 없을지도 모른다. 이 경우 『소피스트』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to on 의 의미 구분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유들의 결합에서 등장하는 to mē on 은 비동일성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또 다른 의미의 to mē on 이 거짓말 정의를 위해 필요한 바로 그러한 의미의 to mē on 일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만일 문헌 내에서 이와 같은 또 다른 논증을 재구성할 수 있다면, 자비의 원리에 입각해 전통 3 의 주장에 반대할 이유는 충분할 것으로도 보인다.

4. 두 가지 간극들

여기까지 정리한 전통적 입장들은 공통적으로 to on 이 영어 be 와 같은 방식으로 의미와 용법에서 구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 과정에서 상이한 용법과 의미 사이에 극명한 간극이 발생한다. 그러나 『소피스트』에서 일관되게 to on 과 to mē on 을 각기 단일한 형상으로서 다른 것들과 구분되며 고유한 본성을 지니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점이 이 간극을 수용할 수 없도록 만든다. 또한 전통적 입장들은 모두 유들의 결합에서 등장하는 to mē on 을 비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263b11-12 에서의 재언급은 거짓말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는 데에 유들의 결합에서 나오는 바로 이 to mē on 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자를 제약한다. 그러나 거짓말 일반에 대한 충분한 정의는 일상적 계사의 부정, 비동일성과 구분되는 부정서술 개념 없이는 도출될 수 없다. 비동일성과 부정서술 사이의 이러한 간극은 플라톤의 기획을 실패한 것으로 만들거나, 문헌 근거를 무시하는 지나치게 강한 해석을 취하도록 만든다. 전통적 해석들이 공통적으로 봉착하게 되는 이러한 두 가지 한계들 각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1) 한 동사의 세 의미

존재사, 계사, 동일성 기호 셋은 각기 엄격하게 구분되는 상이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to on 은 "각각을 하나로 간주하면서도 여러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유들의 결합에서 그 자체 하나로 간주되고 자기 자신의 본성을 지닌 유로 언급된다. 문헌에서 이 동사의 의미들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언급은 찾을 수 없다. kath' hauto / pros allo 두 형상 모두에 참여한다는 언급이 등장하지만 존재사/계사 구분은 앞서 고슬링의 지적대로 각각에 관한 여러 to on 안에서 부정되고 동일성기호 / 계사 구분은 보스톡이 비판하듯 kata 대신 pros 가 사용되어야 했다는 점, 그리고 to on 을 다름과 구분하기 위해 제시된 이 참여가 to on 을 같음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to on 이

tauton(is the same)으로 번역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언급을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유들의 결합에서 is 가 동일성 기호와 계사로 그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다는 해석 역시, 같은 부분을 추상명사와 형용사의 구분으로도, 또한 소위 '명명'과 '일반화'의 구분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to on 의 세 가지 의미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플라톤의 생각이었더라면, 처소격 등을 사용하거나 부재를 의미하는 동사를 예시로 삼아 존재사 to on 을 이와 동일시함으로써 구분해낼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보충어의 유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직접적인 언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동일성 기호는 같음에의 참여와 마찬가지이므로, 동일성 기호 to on 이 사실은 is the same 에 대한 참여였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유들의 결합에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 역시 보이지 않는다. 지나치게 엄격한 의미구분은 전체 문제를 파편화시키기도 한다. 파르메니데스의 문제는 존재사 구분 문제로 설명이 가능하였지만 to on 문제 및 늦게 배우는 자들의 문제는 하나와 여럿의 문제일 뿐 존재사를 통해 설명하기는 어렵다.

2) 동일성 기호 부정과 계사 부정

거짓말의 충분한 정의를 재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to mē on 을 읽어내기 위한 전통적 해석 내에서의 시도는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소위 옥스포드 해석으로, 주어에 관한 to on 에 보편양화를 도입하여 읽고자 하는 입장이다.[11] 이 경우 주어가 참여하는 모든 형상들, 따라서 주어에 대해 서술되는 모든 속성들이 주어에 관한 to on 으로 지시된다. 그리고 이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주어에 속하지 않는 속성을 해당 주어에 서술함으로써 거짓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우선 문헌상 찾아볼 수 없는 보편양화사를 근거 없이 추가해야 한다는 부담을 겪게 된다. 또한 주어가 참여하는 대상에는 어떤 것과의 다름 역시 포함된다. 이 다름은 앞서 유들의 결합에서 비동일성을 의미하는 to mē

[11] 아크릴, 오웬, 보스톡, Wiggins, Crivelli, Silverman, van Eck.

on 으로 해석되었다. 앉아 있는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음이 아니라 테아이테토스이기 때문에 날고 있음과 다르다. 이러한 의미에서 to mē on 날고 있음 같은 것은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to on 과 다른 것이라 말할 후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테아이테토스에게는 to mē on 날고 있지 않음이 속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상언어적 직관에 따르자면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음과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앉아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점에서 날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서의 to mē on 은 테아이테토스가 날고 있음과 다르다는 의미의 to mē on 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좀 더 나아가 테아이테토스의 앉아 있음, 그 앉아 있음이 날고 있음과 다르다는 설명이 아마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전히 테아이테토스의 사람임 또한 테아이테토스의 날고 있음과 다르다. 이러한 다름을 가지고도 테아이테토스가 날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지금 찾고 있는 앉아 있다는 그 점에서 날고 있지 않다고 말하게 되는 그러한 'to mē on 앉아 있음' 또한 아름답지 않음이나 정의롭지 않음, 크지 않음 등과 같이 to mē on 으로 간주되며, 이것들이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to on 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모든 to on 에는 그가 앉아 있기 때문에 날고 있지 않다는 to mē on 이 들어 있어야 하지만, 이를 설명할 to mē on 에 대한 설명은 이상의 해석 노선에서 문헌을 통해 읽어낼 수 없는 것이다.

거짓말 정의에 필요한 부정서술의 역할을 할 to mē on 을 읽어내려는 또 다른 시도는 heteron 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것이다. to mē on X 는 different(heteron) from X 로 이해된다. 이 때 different 를 양립불가능하다는 의미로[12] 읽을 경우 위에서 찾고자 하였던 의미의 to mē on, 테아이테토스가 앉아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야기되는 날고 있지 않음을 설명할 수 있다. 앉아 있다거나 서 있다거나 달리고 있다거나 날고 있다는 등의, 말하자면 동작 상태에 대한

[12] 고슬링, Keyt, Kostman 등. Kostman 은 양립 불가능성 '영역(range)' 이란 개념을 도입하고 Brown 은 이를 수용하여 더욱 구체화시킨다. 이러한 입장들은 긍정서술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며 범주오류를 통한 거짓의 사례는 플라톤이 논의하는 거짓말의 정의에 포함시키지 못한다. 이에 대해서는 4, 5 장에서 더욱 자세히 고찰하도록 한다.

다양한 술어들이 있다. 주어는 이 술어들 중 하나로 서술될 때, 이와 동시에 다른 그 어떤 술어들로도 서술될 수 없다. 앉아 있다는 상태와 그 외에 나열된 동작상태들은 한 주어에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 이는 크지 않음이 작은 것일 수도 같은 크기인 것일 수도 있다는 문헌 상의 서술에도 부합한다. 어떤 것이 일단 작다면, 다른 크기 속성인 큼이나 같은 크기임 등으로 동시에 서술될 수 없고 이것들은 배제된다. 이를 거짓말 정의에 적용하면, 테아이테토스는 다양한 것들에 참여하여 여러 술어들을 가진다. 이 술어들 중 앉아 있음이 테아이테토스에 관하여 참되게 서술된다. 다시 말해 테아이테토스에 관하여 앉아 있음이 to on 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앉아 있음과 양립할 수 없는 속성들이 배제된다. 이러한 속성들은 날고 있음, 뛰고 있음, 누워 있음 등등이다. 이것들은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to on, 지금 논의에서는 앉아 있음과 다른 것들이다. 테아이테토스가 날고 있다는 말은 테아이테토스에 관해 그에 관한 to on 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다른 것은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to on 과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제된다. 즉, 테아이테토스가 앉아 있기 때문에 그가 날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입장은 앞서 보편양화사를 도입하려는 시도와 유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앞서의 입장이 문헌 내에서 보편양화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면, 지금의 양립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단순한 비동일성으로부터 양립불가능성이 추가된 비동일성 혹은 양립불가능을 의미하는 비동일성으로의 전환에 대한 경고나 설명을 찾을 수 없다.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어떤 것과의 다름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외에 다른 설명 없이 to mē on 으로 이야기되고, 이후 mē mega 라는 표현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따로 양립 불가능성이 논의된 바는 없다. 오히려 이 둘 사이의 의미 차이는 분명하다. 여기에 더하여 "아름다움은 삼각형이다."와 같은 종류의 진술들이 거짓임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양립 불가능성 개념으로 heteron, mē on 을 설명하고자 하는 해석 노선의 고유한 한계로 지적된다(고슬링 등). "용기는 색을 가진다," "지혜는 짝수이다" 등의 서술들은 유의미하게 거짓인 문장들이지만, 용기가 '색'에 양립 불가능한 속성을 지니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짝수와 양립 불가능한 어떤 속성으로 서술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결국 플라톤의 거짓말에 대한 정의가 거짓 일반에 대한 것으로서 재구성될 수 없도록 만드는 해석이다.

두 입장 모두 문헌을 통해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이는 재언급의 문제와 함께 더욱 곤란한 문제로 대두된다. 손님은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의 to mē on 을 재언급하여 이로써 거짓말에 대한 정의를 설명한 것으로 자평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운동이 정지, 같음, 다름, to on 과 다르다는 데에 '모든 운동하는 것들'이나 '운동에 대해 to on 인 모든 것들' 등이 묘사되는 경우는 없고, 운동이 여타 유들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보편양화사는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여기에서 보편양화사가 도입된 to mē on 을 고려한다면 운동에 관한 모든 to on 에는 운동이 참여하는 유들이 포함될 것이므로, 운동이 같음과 다르다는 것도 다름과 다르다는 것도 모두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 버린다. 유들 사이의 구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보편양화사가 도입된 주어가 아닌 것이다. 이는 양립불가능성 해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운동과 정지가 다르다는 것은 이 둘을 그러한 성질을 가진 개체로 고려한다면 가능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운동이 같음과 다르다거나 다름과 다르다는 등의 이야기에는 적용시키기 어렵다. to on 이 그 자체의 본성상 운동도 정지도 아니듯, 운동도 그 자체의 본성상 정지도, to on 도, 같음이나 다름도 아니다. 그러나 이 본성이 여타의 본성과 양립 불가능하다는 식의 이야기는 다름에 대한 참여와 관련하여 언급되지 않는다. 결국 두 해석 모두 각자의 to mē on 이해를 통해 거짓말에 대한 만족할 만한 정의를 재구성하지 못할뿐더러, 문헌에서 재언급을 통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해석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III. Is 의 두 용법과 to mē on

전통적 해석들은 모두 to on 이 영어 being 과 마찬가지로 존재사, 계사, 동일성 기호라는 상이한 의미와 역할을 가지며 이것들이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전제한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구분에 실패하고 to on 의 서로 다른 의미들을 혼동함으로써 to mē on 이 불가능하다거나 이를 포함하는 모상이나 거짓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각각을 자신 이외의 것들과 구분되는 그 자체 하나로 보면서 동시에 자신 이외의 다른 여러 이름으로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여 to on 이 몇 개인지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말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유들의 결합에 관한 논의는, 플라톤 자신이 의식하였든 그렇지 못하였든, 결과적으로 동일성 기호로서의 to on 과 일상적 계사로서의 to on 이라는 서로 구분되는 의미를 가진 두 가지 to on 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상의 문제에 대한 이러한 진단과 또한 그 해결책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은 문헌 내에서 to on 도 to mē on 도 각기 단일한 형상으로서 고유한 본성을 지닌 것으로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불일치한다. 이 불일치는 전통적 해석이 to on 의 각 의미를 다루는 것으로 간주하는 대화편의 여러 부분들 사이에 단절을 가져오며, 대화편 전체에 대한 일관된 해석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문헌근거를 통해 정당화되기도 어려우며 문헌 내의 논증을 지나치게 약화시키기도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해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란 여러모로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Frede 는 to on 과 to mē on 을 일의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전통적 해석에 반기를 든다. 그가 주목하는 전통적 해석의 문제는 to on 불완전 용법에서 동일성 기호와 계사로의 구분이지만 이러한 비판의 주요 근거는 결국 플라톤이 being 을 단일한 형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being 을 단지 하나의 형상으로 생각하고 대화편 내내 not being is, 즉 (not being is) not being 이라고 말하는 경우와(258b11-c4) something is, 즉 (someting is) different from something 이라고 말하는 경우(263b11) 양쪽 모두에 이 단일한 형상이 포함되었던 것처럼 말한다. 우리가 저 두 경우 모두에 부여하고 있는 그것은 동일한 being(255d5)이다.(1992, 401-2 쪽)" 언제나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되는 heteron 과 달리 being(to on)은 그 자체로도, 여타의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되며 두 형상 모두에 참여한다(255d). Not being(to mē on)은 그 자신의 본성을 지니며 was and is not being 이다(25811b-c). 또한 많은 것들이 각각에 관하여 beings(onta)이고 많은 것들이 not beings(ouk onta)이기에, 거짓말은 너(주어)에 관한 something is different from something(ontōn onta hetera peri sou)을 말한다(263b). to mē on 을 그 자신의 본성에 따라 말할 때에도, 어떤 것과 다른 어떤 것을 말할 때에도, 두 방향 모두에 같은 to on 이 참여하며 또한 같은 to on 의 부정(to mē on)이 참여할 것이다. 참여의 두 경우 모두에서 to on 의 의미가 단일할 것이고 따라서 to mē on 의 의미 역시 둘이 아니라 하나일 것이다. 255d 의 두 형상에 참여하는 to on 을 존재사와 계사로 구분하든 동일성 기호와 계사로 구분하든 이는 두 형상을 하나로 보는 것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이 일단 적용되고 나면, 두 가지 구분되는 의미를 가지는 to on 의 부정으로서 to mē on 의 의미 역시 단일하기 어렵다. 앞서 정리한 해석의 첫 번째 쟁점인 불가능한 to mē on 의 해석 문제와 두 번째 쟁점인 유들의 결합에서 to on 과 to mē on 의 해석 문제에 관련하여 전통적 입장에서 시도되는 해석들, 그 뒤에 전제된 to on 의 의미 구분에 대한 프레데의 반박은 단적으로 말하자면 to on 이 하나라는 것이다.

프레데는 to on 이 하나라는 것에 더하여 to mē on 또한 하나라는 점 역시 강조한다. 해석의 세 번째 쟁점과 관련한 문제를 다시 정리해 보자. 유들의 결합에서는 예를 들어 운동이 정지와 다를 때 "운동은 정지이지 않다." 라고 이야기되고 이 경우 운동은 mē on 정지, 정지는 운동에 관한 to mē on 이라고 이야기된다. 일반화하여 말하자면 서로 다른 x 와 y 에 대해 크게 두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x 가 y 와의 다름에 참여하거나 y 가 x 와의 다름에 참여한다. 첫 번째 경우 x 는 mē on y 로, y 는 x 에 관한 to mē on 으로 이야기되고 두 번째 경우 y 는 mē on x 로, x 는 y 에 관한 to mē on 으로 이야기된다. 그런데 대화편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이어서 "not big"을 이야기하고 여기에서도 앞서와 마찬가지의 to mē on 이 포함되는 것처럼, 최소한 어떤 의미 변화가 있다는 예고나 암시 없이 서술을 이어 나아간다.

그러나 유들의 결합에서 이야기된 to mē on 과 "not big" 분석에서 이야기된 to mē on 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Not big"은 "small"일 수도

“same size”일 수도 있지만 그 외의 후보는 언급되지 않는다. 반면 유들의 결합에서 “not being rest,” “정지이지 않음”은 그 후보가 무한히 많은 것이다. 정지 자신을 제외하고 여타 모든 것은 “not being rest”라 불릴 수 있고 유들의 결합에서는 그렇게 불린다. “정지이지 않음”이 달리고 있음, 구르고 있음, 운동하고 있음 등에 한정될 이유는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는 찾을 수 없다.

전통적 해석은 유들의 결합에서의 to mē on 을 동일성 기호 to on 의 부정으로, 즉 단적인 비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반면 “not big” 분석에서의 to mē on 은 일상적 부정 서술로 간주될 만한 무언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후자의 to mē on 으로 진술 일반에서 부정 진술을, 그리고 같은 표현으로 이루어진 문장이 비동일성 문장으로서 참이면서 부정 서술로서 거짓이 되는 구분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거짓말이 주어에 관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라 정의하면서 손님은 유들의 결합에서 to mē on 에 대한 묘사를 그대로 재언급한다. 전통적 해석의 입장에서 보자면, 만일 유들의 결합에서의 to mē on 과 “not big” 분석에서의 to mē on 이 서로 다르므로, 손님의 언급에 따를 경우 후자의 to mē on 은 거짓말 논의에 활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두 to mē on 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not big”의 to mē on 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추가 설명이 이루어진 바 없고 의미 변화를 시사하는 묘사 또한 없으므로 여전히 유들의 결합에서 읽어낸 비동일성 to mē on 만이 남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곤란함은 정확히 플라톤이 운동의 not being 정지를 말하는 데에서 어떤 것의 not being big 으로 옮겨 가면서, 마치 두 경우 모두에 동일한 종류의 not being 이 들어있는 것처럼 진행한다는 것이다. ... 생략 ... 그는 not being 의 본성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단순 비동일성 사례와 일상적 부정 서술로 간주될 사례 양쪽 모두에 포함되리라 추정되는 하나의 본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로부터 분명한 점은 플라톤이 “...is not...” 혹은 “not being” 의 두 의미들을 구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리 없다는 것이다. 그는 “운동은 정지이지 않다” 와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지 않다” 두 경우 모두에 포함되는 “...is not...”의 단일한 의미가 있다고 상정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문제는 그가 이 의미를 어떻게 상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분명하다.(407-8 쪽.)”

프레데의 입장이 이와 같다면 프레데의 해석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목적들이 성취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우선 그도 다른 해석가들과 마찬가지로 해석의 세 가지 쟁점들 각각에 대한 자신의 답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그는 to mē on 과 to on 이 말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유와 각각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전개되어 나온 결과를 설명해내야 한다. 다음으로 이 문제들에 대한 해법으로서 유들의 결합이 to mē on 의 문제와 to on 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끝으로 거짓말에 포함된 to mē on 이 무엇이며 이를 통해 거짓말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문제는 프레데가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전통적 해석에 대해 제기하는 비판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통적 해석 일반의 두드러지는 약점은 각 쟁점에 대한 해석들 사이의 연속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 해석 노선은 to on 의 의미 구분을 통해 to mē on 의 불가능성에 대해, x is y 와 x is not y 둘 모두 동시에 참이라 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거짓말의 예시와 거짓말 일반에 대해 대화편 내에서 제시되는 설명의 정당화에 대해 선명하고 설득력 있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레데는 각 쟁점에 대해 이보다 나은, 적어도 이에 상응하는 설명력을 가진 해석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to on 의 의미 구분에 의존하지 않아야 하며, 각 쟁점에 대한 해석들 사이의 일관성과 연속성 역시 밝혀주어야 한다. 불가능한 to mē on 과 유들이 다름에 참여한 결과로서의 to mē on, 그리고 거짓말에 대한 설명에서 사용되는 to mē on 이 단일한 의미로 설명되어야 하고, 부정되었을 때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되는 to on 과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말할 수 없고 무엇이라 특정할 수도 없는 to on, 유들의 to on 에 대한 참여와 또한 유들 상호 참여를 통해 이야기되는 to on 에 대해, 나아가 말과 참인 말에 포함되는 to on 에 대해서도 일관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세 번째 쟁점의 가장 큰 난관인 재언급의 문제 역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프레데는 255c14-d7 에 대한 자신의 고유한 해석을 바탕으로 이상의 작업들을 수행해내고자 한다. 이 부분에서 그는 to on 의 의미는 단일하게 유지한 채 그 용법만을 구분하는 방법을 읽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to on 의 용법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그 부정인 to mē on 의 용법 역시 이에 따라 구분하며, 이는 곧 유들의 결합 논의에 대한 기존 해석에 반대하는 새로운

해석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not big(mē mega)"이란 표현을 검토하는 대목(257b3-c3) 과 "다른 것의 부분의 본성(특히 258d5-e3)"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더해 프레데는 to mē on 이 대화편에서 일관되게 비동일성과 구분되는 일상적 부정 서술(an ordinary negative predication)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리고 to mē on 을 비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대화편 전체의 일관된 해석은 물론 거짓말에 관련한 내용을 해석하는 데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to on 의 두 가지 용법에 대한 구분과 부정서술을 의미하는 to mē on 을 활용하여 진술 개념을 분석하는 작업을 거쳐 거짓말의 분석과 정의에 대한 해석을 내놓는 것으로 그의 작업이 마무리된다.

논의의 순서는 우선 그의 해석에 토대가 되는 255c14-d7 해석, to on 의 두 가지 용법 구분에 대해 이해해 보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다. 이어서 이러한 구분법을 통해 마련되는 유들의 결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검토할 것이다. "늦게 배우는 자들"의 입장과 이에 대한 반박으로서 유들의 결합 각각과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프레데의 해석 역시 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쟁점과 두 번째 쟁점에 대한 프레데의 대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to mē on 은 어떤 식으로 이해될 때에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x is y 와 x is not y 는 어떻게 둘 다 동시에 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는 to on 의 두 가지 용법 해석을 주요 근거로 삼은 해석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to mē on 에 대해서 유들의 결합에서 묘사된 내용과 "not big"이란 표현과 관련하여 제시된 설명, 그리고 "다름의 부분"이라는 세 가지 설명을 프레데의 해석이 어떻게 일관된 방식으로 해석해내는지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 프레데가 어떻게 to mē on 을 부정서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또한 검토할 것이다. 끝으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대화편 내에서 말에 대한 논의와 거짓말의 분석 및 정의를 프레데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확인하고, 그의 해석이 『소피스트』 연구에 대해 갖는 함의를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1. To on 의 두 용법과 하나의 의미

『소피스트』에서 to on 이 문제가 되는 맥락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자. 한 사람이 단 하나의 기술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그럼에도 소피스트는 저마다 서로 다른 앎을 가진 자들 각각을 상대로 자신이 실제로 논박을 해낸다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준다. 이것은 아마도 거짓 믿음을 심어주는 것일 터이다. 그런데 거짓말이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 없는 일을 지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소피스트는 거짓말이란 불가능하다고, 심지어 원본이 아닌 모상 같은 것조차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정의하려는 시도를 가로막는다. 거짓말이 그러하듯, 거짓 모상도 실제로 있는 사실과 다른 것, 존재하는 사실이 아닌 없는 것을 가리키려 하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고 진짜가 아닌 것이 동시에 어떤 무엇으로서 있기도 할 방법은 없다. 그리하여 소피스트는 자신의 기술이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정의로부터 달아난다.

손님과 테아이테토스는 이러한 난관에 직면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 혹은 전혀 없는 것이란 대체 무엇인지 고민한다. 그리고 나아가 사실이란 것, 있다는 것, 어떤 무엇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한 고민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은 수도 이름도 심지어 그런 '것'조차도 아닐 것이다. 반면 무엇인 것, 있는 것, 사실인 것은 무척이나 다양하게 이야기되어 왔다. 문제는 그 있는 것, 무엇인 바의 것, to on 은 그야말로 to on 이겠기에, 이 to on 과 구분되는 다른 것은 to on 아닌 것이 될 것이다. 만일 to on 이 뜨거운 것이라면 그것과 반대되는 차가운 것은 결코 to on 일 수 없을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to on 이 정지해 있는 것이라면 운동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린다. 그럼에도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운동 중이거나 아니면 정지해 있지, 그 둘 중 아무것도 아닐 수는 없다. 여기에 더해 소위 '늦게 배우는 자들'은 각각의 것을 그 자체로만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사람과 좋은 것은 서로 다르고 서로가 아니므로, 사람을 좋은 것이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to on 을 운동하는 것이나 정지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를 to on 이라고 말할 수도, (어떤 점에서) 사실인 것을 (또 다른 점에서) 거짓이기도 하다고도 무엇인 것이 또 다른 무엇이지는 않은 것이기도 하다는 식으로도 말할 수 없다. to on 과 to mē on 각각을 논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둘이 뒤섞인 모상과 거짓을

정의하기 위해서도, 하나를 여럿으로 또 여럿을 하나로 나누고 엮으며 말할 방법이 필요하다.

1) To mē on 문제와 to on 문제(1992, 399 쪽)

To on, 운동하는 것, 정지해 있는 것 사이의 문제는 243d-250c 까지, "to on"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논의들의 귀결로 등장한 역설이다. to on 을 둘 이상의 것으로 간주하는 입장(예를 들어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으로 보는 입장 등)과 오직 하나로만 보는 입장이 각기 자기논박적 상황에 봉착한다. to on 이 여럿이라면 그 여러 ta onta 중 어떤 것은 다른 것과 구분되고 to on 으로 간주되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은 to mē on 이 되어 버린다. to on 이 오직 하나라면 to on 이라는 것과 하나인 것이 서로 다르므로 이 말 자체가 이미 둘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 나아가 "하나"나 "to on"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과 구분되고 한쪽이 정말로 to on 과 하나인 것이라면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은 것, to mē on 이 되어 버린다. 그렇다면 그 하나인 것으로서의 to on 은 아예 호명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다른 한편 운동하는 것들만이 to on 이라는 입장과 정지해 있는 형상들만이 to on 이라는 입장이 검토된다. 이 두 입장 역시 자기논박에 빠지는데, 오직 운동하는 것들만 있다면 가만히 멈추어 있는 것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시하거나 서술하거나 사고할 고정된 대상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말하거나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그 대상이 움직이고 변화하여 떠나가 버리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오직 정지해 있는 것들만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무언가를 말하거나 생각할 수 없다. 어떤 것은 말해지거나 생각된 다음에는 말해진 것, 생각된 것이라는 변화를 겪는다. 대상들이 이러한 변화운동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역시 진술도 사유도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to on 을 하나라고만 할 수도 그렇다고 여럿으로만 볼 수도 없고, 오직 정지해 있기만 한 것으로도 언제나 운동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간주할 수 없다. 운동하는 것도 정지해 있는 것도 모두 to on 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이 둘과 구분되는 to on 그 자체가 따로 이야기될 수도 있어야 한다.

"사람"과 "좋은 것"에 관한 문제는 소위 "늦게 배우는 자들(opsimatheīs)"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다(251b). 진술은 단지 무언가를 그 이름으로 호명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명된 주어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것들을 서술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어에 대해 술어들이 결합한 진술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어와 술어 각각이 가리키는 대상들이 서로 결합하는 그러한 사태 역시 가능하다는 점을 또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좋은 것과 엮이고 좋은 것이 자기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과 결합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다음 진술에서 주어와 술어의 결합 관계를 다시 이해해야 한다. 역으로, to on 을 to on 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방식과 to on 을 운동하는 것으로 또는 정지해 있는 것으로 말하는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것들이 결합되고 분리되는 사태를 인식하거나 설명하는 일이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학자들은 앞서 보았듯 is 의 의미들을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완전용법 is 는 존재를 의미하고, 그것의 부정은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 된다. 어디에도 전혀 없는 것을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가리킬 수는 없으므로 그런 의미에서 to mē on 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불완전용법으로 사용되는 일상적 계사 to on 의 경우, 그것을 부정한다고 해서 주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지는 않는다. 완전용법 to on 의 부정은 비존재를 의미하기에 불가능하지만, 여전히 불완전용법 is 의 부정은 가능한 것으로 남는다. 이것이 to mēdamōs on 의 불가능성에 대해 be 동사의 의미구분을 통해 설명하는 하나의 입장이다. Be 동사의 의미 구분을 통한 또 다른 해석의 사례는 유들의 결합 논의에 대해 적용된다. to on 은 그 자체로는 to on 으로서 자기 자신과 동일하다. to on esti on(Being is being)이란 문장에서 is 는 주어와 보어의 동일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to on 이 운동한다거나 to on 이 정지해 있다는 식으로 다른 술어들을 to on 에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되는 is(Being is in motion, Being is at rest)는 앞서 동일성의 is 와 달리 일상적 계사로 사용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할 때의 is 와 사람을 좋은 것이라 말할 때의 is 또한 마찬가지로 전자는 동일성기호, 후자는 일상적계사로 구분될 수 있다. 같은 주어에 서로 다른 여러 술어들이 부여될 수 있고, 이제 하나는 여럿으로 서술되고 여러 술어들은

하나의 주어에 부여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정지는 다른 모든 것들이 그러하듯 당연하게도 to on 이다. to on 에 참여함으로써 to on 으로 서술되어 is(혹은 is being)라는 술어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정지는 to on 그 자체와 동일하지 않고 다르기에 to on 이 아닌 것이기도 하다. 즉 is not(is not being) 역시 술어로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앞서의 구분을 그대로 적용하여 "운동 is being"은 일상적 계사 is 를, "운동 is not being"은 동일성을 의미하는 동사 is 를 사용하고 있는 문장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하였듯 이러한 접근은 이 대화편의 해석에 두 개의 커다란 간극을 발생시킨다. 첫째로, to on 의 의미들 사이의 간극이 있다. 완전용법 존재사와 불완전용법 계사라는, 나아가 불완전용법 계사 내에서 동일성기호와 일상적 계사라는 의미들 사이에는 그 차이가 분명하다. 그러나 to on 의 여러 의미들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문헌 상의 언급은 찾기 어렵고 오히려 to on 을 단일한 형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술들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to on 은 본성상 운동하지도 정지해 있지도 않다"라거나 to on 과 같음이 다르고 to on 과 다름 역시 다르다는 등, 유들의 결합에서의 여러 언급들은 to on 은 여타의 것들과 구분되는 그 자체 고유한 본성을 지닌 하나의 유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to on 의 의미들이 전통적 해석이 주장하듯 그렇게 명백하게 구분되는 것이었다면, 더욱이 그러한 구분을 통해 제시된 문제가 결정적으로 해결되는 것이었다면, 이를 명시적으로 서술하지 않았을 이유가 플라톤에게 있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to mē on 의 불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존재사 to on 은 유들의 결합에서 다른 의미의 to on 과 구분되어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to on 에 직접 참여한 결과와 to on 이외의 유들이 서로 참여한 결과는 모두 각 형상에 관한 to on 으로 뭉뚱그려져 이야기된다. 이렇듯 하나로 이야기되는 to on 이 존재사와 계사라는 일치시키기 어려운 상이한 두 의미로 구분된다면, 그 둘을 어떻게 하나로 부를 수 있을지 짐작하기 어렵다.

두 번째 간극은 유들의 결합에서 설명된 to mē on 과 거짓말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to mē on 사이에서 발생한다. 주어와 동일하지 않은 술어를 주어에 대해 말하는 것만으로 거짓말이 되지도 않고, 동일한 주어에 대해 하나의 참인 술어와 동일하지 않은 또 다른 술어를 서술한다고 무조건 거짓말이 되지도 않는다. 주어와 동일하지 않은 것을 그 주어에 대해 서술하는 참인 문장이

가능함은 유들의 결합에서 이미 밝혀졌다. 운동은 같음에 참여하여 같은 것이라 이야기되지만 여전히 운동이 같음과 같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운동이 같음이지 않다고 얼마든지 참되게 이야기될 수 있다. 그렇다면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 참일 때, "테아이테토스가 앉아 있는 것이지 않다" 역시 참이라 말할 수 있다. 앉아 있음과 테아이테토스는 다르지만 테아이테토스가 앉아 있음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아이테토스가 앉아 있는 것이다"가 참인 한에서 "테아이테토스가 앉아 있는 것이지 않다"라는 말을 거짓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이 거짓인 문장은 주-술 비동일성을 통해서는 왜 거짓이 되는지를 설명할 수 없고, 이 문장은 같은 표현의 참인 문장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는 것이지 않다"와 구분되어야 한다.

동일 주어에 관한 술어들 사이의 비동일성 역시 거짓말을 제대로 설명해내기 어렵다. "테아이테토스가 앉아 있는 것이다"가 참말일 때, "테아이테토스가 앉아 있는 것이지 않다"는 앉아 있지 않음이, 테아이테토스에 서술될 때 참인 문장을 만드는 앉아 있음과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짓이라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도 앉아 있음과 다르다. 그렇다면 앞서의 같은 설명에 따라 테아이테토스에 관해 사람이라고 서술하는 경우에도 거짓 문장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이런 결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비동일성 to mē on 을 포함하는 참인 부정문과 구분되는, 같은 표현이지만 거짓이 되는 부정문에 포함되는 to mē on 의 의미가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2 장에서 이미 언급하였듯 전통적 해석은 거짓말에 필요한 to mē on 을 유들의 결합 논의 내에서 이끌어내지 못한다. 유들의 결합에서는 유들 서로 간의 다름 이외에 다른 의미를 가진 to mē on 이 언급된 바 없다. 전통적 해석에 따라 설령 유들의 결합에서 긍정문에 계사 to on 이, 부정문에 동일성 기호 부정 to mē on 이 나타나고 이 각각의 역으로서 계사 부정 to mē on 과 동일성 기호 긍정 to on 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재언급의 문제가 이러한 유추를 어렵게 만든다. "not big" 분석 부분은 단지 비동일성만을 나타내는 to mē on 이외에 또 다른 의미가 추가되어야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to mē on 을 언급하는 것으로 기대되지만, 거짓말 논의에서는 유들의 결합에서 비동일성을 통해 설명된 to mē on 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을 그대로 반복하고 이를 통해

거짓말에 to mē on 이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동일성 to mē on 을 유들의 결합에서, 그리고 또 다른 to mē on 을 "not big" 표현 논의에서 읽어내고 그 둘을 구분해 버리면 후자를 거짓말 논의에 개입시킬 수 없고,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연속된 것으로 보려 한다면 명시적으로 서술된 to mē on 의 의미는 유들의 결합 부분에서만 제시되므로 비동일성 이외의 의미를 가진 to mē on 은 문헌을 통해 이끌어낼 수 없다. 계사와 동일성 기호 구분으로 to mē on 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유들의 결합, "not big" 표현 분석, 거짓말 정의 세 부분이 모두에서 그 사이에 비약이라고 보아야 할 간극을 만들어내고야 만다.

2) Ta onta auta kath' hauta(is1)와 ta onta pros alla(is2)

프레데가 to on 에 관련한 문제들을 진단한 결과는 대략 다음과 같다. to on 이라 불리는 모든 것은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 운동하고 있으며 둘 다이거나 둘 다 아닐 수는 없다. 그러나 to on, what is being 그 자체의 본성만으로는 운동하고 있는 것이지도 정지해 있는 것이지도 않다. 그러나 운동하지도 정지해 있지도 않다면 그런 것은 to on 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사람을 "사람"이라고만 불러야 하고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만 불러야 하며, 이 둘이 서로 다르므로 사람을 "좋은 것"이라고 부르거나 하는 식으로 함께 엮어서는 안 된다는 소위 "늦게 배우는 자들"의 입장이 있다. 각각의 것이 각기 그 자체로만 이야기되어야 하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불릴 수 없다면, 사람을 좋은 것으로 말할 수도 없고 to on 을 운동하는 것으로도 정지해 있는 것으로도 말할 수 없다. (1992, 399-400 쪽 참조)

이러한 진단에 따라 to on 에 관한 여러 문제들, 그것을 몇 개로 불러야 하는지 혹은 그것을 무엇이라 말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문제들과 늦게 배우는 자들의 문제는 같은 종류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 각각을 그 자체로만 놓고 말하는 한에서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전부 분리시켜 놓는다면 이름과 지시대상도 결합할 수 없고 하나나 여럿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들이 생기거나 움직이지도

정지해 있지도 못하는 것들이 이야기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프레데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의 실마리를 255c14-d1 에서 찾아낸다.

> "손님: 하지만 나는 자네가 being 들 중(tōn ontōn) 어떤 것들은(ta men) 그 자체로(auta kath' hauta), 어떤 것들은(ta de) 그 밖의 것들에 대해서(pros alla) 언제나 말해진다는 데에(legesthai) 동의한다고 생각하네.
> 테아이테토스: 왜 아니겠습니까?
> 손님: 그런데 다른 것(to heteron)은 언제나 다른 것에 대해서(pros heteron) 그렇지. 안 그런가?"

프레데는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해석을 제안하고, 이를 자신의 논지 전체에 걸쳐 견지해 나아간다. 그가 주목하는 대목은 being 들이 그 자체로(auta kath' hauta)도 말해지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pros alla)도 말해진다는 부분이다. to on 을 Be 동사처럼 완전 용법 존재사와 불완전 용법 일상적 계사로 구분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라면 그 자체로 말해지는 경우를 완전용법 to on 에, 그 외의 것들에 대한 경우를 불완전용법 to on 에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해석하고자 할 것이다(Frede, 1967, 15 쪽 참조). 이는 앞서 지적한, 단일한 형상 to on 의 의미를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된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프레데는 플라톤이 형상 운동과 형상 정지를 구분하는 부분에서(254d 이하) 상이한 의미를 가진 술어들을 상이한 형상들에 할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to on 의 의미가 둘이라면 그 형상 역시 둘이어야 하리라고 지적한다(1967, 15 쪽). 따라서 그는 이 부분에서 to on 의 의미 구분을 읽어내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Ta men 절과 ta de 절 사이의 구분이 ta onta 의 두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적 해석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는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 우선 이러한 언급이 나오는 논의의 맥락이 다른 것(to heteron)을 being(to on)과 별개의 유(類, genos)로 구분하고자 시도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tōn ontōn(beings)," "ta men(some)," "ta de(the others)"가 술어들을 의미한다는 해석 또는 tōn ontōn 은

주어를 의미하고 ta men 과 ta de 는 술어들의 분류를 의미한다는 해석은 거부된다. 이 경우 다른 것 그 자신 또한 to on 이므로, to on 에 속하는 원소를 다른 것 자신의 원소로도 포함하게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어떤 술어들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술어들은 그 외의 것들에 대하여 서술된다거나("술어들 중 어떤 술어들은..., 반면 다른 술어들은...") 그렇게 분류되는 술어들이 주어들의 분류에 대응되어 할당된다거나("주어들에 대해 어떤 술어들은, 반면 다른 술어들은...") 하는 해석은, "다르다" 라는 술어가 항상 여타의 것들에 대해 서술된다거나 "다른 것"이라는 주어가 항상 여타의 것들에 대한 술어들을 갖는다는 식의 해석으로 이어진다. 이 경우 '여타의 것들에 대한 술어들'은 ta onta 에도 다른 것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단지 양쪽 모두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pros alla 에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to on 과 다른 것(heteron)을 구분하는 지금 맥락에서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다른 것과 being 사이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레데는 우선 "tōn ontōn," "ta men," "ta de" 를 대상 일반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tōn ontōn ... legesthai(beings ... are said)"에는 보어 "onta"를, "to heteron [legesthai]"에는 보어 "heteron" 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1967, 27 쪽). 다시 말해 다른 것과 to on 사이의 구분은 설령 둘 모두 각기 자신 외의 것에 대하여 이야기된다 하더라도 to on 은 "to on"이라고 부르는 경우로, 다른 것은 "다른 것(heteron)"이라고 부르는 경우로 나뉜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auta kath' hatua" 라는 표현은 그 자체에 관련한다는 의미로, "pros alla"와 "pros heteron"은 여타의 것에 관련한다는 의미로 새길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 자체에 관련하여' 이야기된다는 것과 '다른 것에 대하여' 이야기된다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반대'에 대한 논의를 인용한다. 운동과 정지는 그 자체로 서로 반대이지만, 운동하는 어떤 것과 정지해 있는 어떤 것은 운동과 정지의 저 그 자체 반대에 참여함으로써 서로 반대되는 것들로 이야기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번역을 통해 프레데는 to on 의 두 가지 용법을 확보한다.

1) "... is" 는 사물들에 대해 그 사물들 자체에 관련하여 진술된다.

2) "... is" 는 사물들에 대해 그 사물들과 다른 바의 것(what is the Different from them)에 관련하여 진술된다. (Frede, 1967, 27 쪽)

이렇게 정식화된 to on(is)의 두 용법을 편의상 is1 과 is2 로 명명하도록 하자. Is1 과 is2 사이의 구분은 주어와 술어가 각기 지시하는 대상들 사이의 실제 관계를 고려한 is 용법의 차이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단일하다. A is B 라는 문장의 의미는 B 가 being B 인 바로 그 방식으로 A 가 being B 라는 의미로 새길 수 있다. 여기에서 A 가 그 자체로, 자신의 본성에 따라 being B 인 것인 경우와 B 인 것에 대해 참여(metechein)와 같은 특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B 인 것인 경우가 나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자기술어화와 관련한 논쟁의 소지를 남긴다. 프레데는 자신의 1967 년 논문에서 "큰 것은 크다. ("das Große ist groß" τὸ μέγα μέγα),"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다. ("das Schöne ist schön" τὸ καλὸν καλόν)," "Not being 은 not being 이다. ("das Nichtseiende ist nicht seiend" τὸ μὴ ὄν ἔστι μὴ ὄν)" 등의 문장들(258d9-c5)을 is1 용법의 사례로 인용한다. 또한 1992 년 논문에서는 "The color is a color." 라는 문장을 is1 용법의 일례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런데 같은 논문에서 그는 "같은 것은 (자기 자신과) 같은 것이다. ("The same is the same(i.e., with itself))" 라는 문장을 is2 의 사례로 제시하며 같은 is2 의 사례로 "다른 것은 (자기 자신과) 같은 것이다.("The different is the same(i.e., with itself))"라는 문장을 내놓는다.

"The same is the same." 은 일견 is1 의 다른 사례들과 마찬가지 문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장은 마치 the same 이외의 것 중 하나인 the different 가 the same 을 술어로 가지는 방식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The same 이 the same 을 술어로 가질 수 있는 것처럼 is2 의 사례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The same is the same"은 두 경우로 생각해볼 수 있다.

a. 주어 the same 이 그 자체에 관련하여 the same 이다.(is1)

b. 주어 the same 이 자신 외의 다른 것에 관련하여 the same 이다.(is2)"

"The different is2 the same." 은 형상 the same 에 참여하지 않고 그 자체의 본성만 놓고 보자면 이와 같이 서술될 수 없다. 만일 이와 같은 is2 의 사례로 "The same is the same." 이란 문장이 제시된 것이라면, 여기의 주어 the same 은 the different 와 마찬가지로 참여를 통해 특정 성질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

"The F 는 F-ness 를 포함한 all F's 를 의미한다" 라는 프레데의 언급을 고려하면(1992, 411 쪽), 그리고 "The different is the same(with itself)." 이 참이라면, the different 는 "the same" 이라 불리는 것들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다시 이 the different 를 "the same"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경우 "the same" is2 the same 은 주어가 실제로 the different 를 지시하고 그것이 참여를 통해서만 is the same 으로 서술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문장이 된다. 유들의 결합 논의를 통해 모든 것이 각기 자기 자신과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음을 생각해 볼 때, 그야말로 모든 것 각각이 is2 the same 의 주어가 될 수 있고, 이 모든 경우를 예화하는 모든 문장들을 "The same is2 the same"이라 표현할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형식의 is2 문장에서 형상 the same 자체도 주어일 수 있는지 여부이다. The different 가 "the same"으로 불리게 되는 방식대로 바로 그 이름으로 형상 the same 을 "the same"이라 부를 수 있다면, 이렇게 명명된 "the same"은 '모두' is2 the same 으로 서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당연하게도 the same 은 그 자체로 본성상 the same 이므로, The same is1/is2 the same 이 모두 가능하다.

The different, the big, 무엇이든 모든 것이 is2 the same 이라 말해질 수 있다. 자기 자신과 다른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들 모두가 각기 the same 인 것인 한에서, the same 인 것은 그 측면에서 그 자체로 the same 이다. 일단 "The same" 이라는 이름을 얻고 난 다음, the same 인 그런 성질을 가진 것으로, what is the same 으로 고려되는 한에서는 모든 the same 은 is1 the same 이다. 주어 "the same"을 그 자체에 관련하여, 그것의 본성을 기준으로, 그것의 본질이나 정의의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그것은 is1 the same 이다. 그러나 같은 주어를 자체의 본성이라는 측면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The color(white) is a color." 라는 예문을 다시 보자. 이는 "The color(white) is white."

와 함께 is1 의 사례로 제시되었다.[13] "The color" 는 색이라는 성질을 가진 것들을 가리키고, 그 중에는 소크라테스도 포함된다. 물론 소크라테스가 본성상 그 자체로 색이거나 흴 수는 없다. 그러나 그를 포함해 "the color white" 라는 이름을 얻은 것들은 바로 그런 성질을 지닌 것으로 규정된 측면에 한해서, "the color white" 라는 이름만 놓고 보자면 그 자체로 색이고 희다. 반면 그 이름을 얻게 되는 과정을 고려할 때, 참여관계를 통해 "The color"라는 이름을 제공해주는 어떤 것과 관련된 측면에서, "The color white is2 white"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추론을 정당화할 프레데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언급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형상 the same 에 참여하여 the different 는 자기 자신과 같다. 형상 the same 도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과 같다는 성질을 지닌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The same is the same"에 is2 가 사용된다는 것이 쉽사리 이해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s1 과 is2 의 구분 기준은 전자가 그 자체에 관련하여 본성상 서술되는 반면 후자는 자신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하여 서술된다는 것이다. The same 이외의 것들은 the same 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과 '같은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형상 the same 은 바로 자기 자신이 그 '같은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The different 가 항상 다른 것과 관련하여서 이야기된다는 점도 유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The different is1 the different 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위의 구분에 따른 정의상 the different 그 자체에 관련하여서 진술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being 과 the different 를 구분하는 맥락에서 프레데가 각각의 보어를 추가하였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Being 을 being 이라고 말할 때와 different 를 different 라고 말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the different" 라는 것을 being (something, 즉 different)으로 불리는 측면과 what is different 로 불리는 측면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The different 는 항상 the different from the others 일 수밖에 없다. 자신 이외의 어떤 무언가와 다른 것이지 아무런 비교대상 없이 다를 수는 없다. 그러나 Being something 의 한 사례로서 being different 에 대해, 그런 종류의 being 으로 불리게 되는 방식을

[13] 괄호는 본 필자가 맥락을 고려하여 삽입하였다.

문제 삼을 경우 여전히 is1 과 is2 의 두 용법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the same 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the same”이라 불리는 것은 being something, 즉 being the same 으로 불릴 때 그 자체에 관하여 서술되어 the same is1 the same 이라고 이야기될 것이다. 또한 what is the same 으로 불리는 경우, 그것은 다른 것들이 “the same”이라 불리는 것과 같은 측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the same”이라 불린다.

여기에서는 일단 이어지는 프레데의 해석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까지만 그의 is 구분법을 해명하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하자. 이후의 장에서 그의 해석이 받아온 비판을 확인한 후, 변론과 재반박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논의를 조금 더 진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프레데는 is 가 의미의 차이 없이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말한다. (1967, 32-33 쪽.)

> “"... is ..." 의 상이한 두 가지 용법은 형상(der Form) X 와 개별자(den einzelnen) X 에 대해서 진술할 때 성립하지만, "... is" 는 여전히 두 경우 모두에서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더욱이 형상 X 에 대해 진술되느냐 개별자 X 에 대해 진술되느냐에 따라서 "... is x" 가 상이한 의미를 지닌다고 가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두 경우 모두에서 동일한 형상 X 가 "x" 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단지 한 경우에서 그 자체에 대해 진술되고 (Aristoteles, peri ideōn fr. 3; Ross, S. 123, 9-11), 다른 경우에는 또 다른 무언가에 대해 진술될 따름이다.... 중략 ...
>
> "... is x" 가 상이한 의미들에 대한 논의 없이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
> 1. 형상의 본질을 서술하기 위해(um das Wesen der Form anzugeben),
> 2. 한 개별자 X 의 속성을 서술하기 위해(um die Eigenschaft eines einzelnen X anzugeben)”

2. 유들의 결합과 다른 것의 부분

Is 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는 것은 우선 하나와 여럿의 관계 문제에 해법을 마련해준다. to on 과 운동하는 것, 정지해 있는 것 사이의 관계에서 to on 은 is1 being(esti to on)이고 또한 동시에 정지해 있는 것(is2 at rest)이자 운동하는 것(is2 in motion)이기도 하다. to on 은 그 자체에 관련하여 본성상 to on 이고 그런 식으로는 운동하는 것도 정지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자신과 다른 것인 운동하는 것에 참여해서 운동하는 것이 되고, 정지해 있는 것에 참여하여 정지해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운동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것인 to on 에 참여해서 to on 이고(is2) 동시에 본성상 그 자체로 운동하는 것이다(is1). 정지해 있는 것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이 구분은 나아가 "늦게 배우는 자들"이 진술(a statement, logos)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를 푸는 실마리도 되어준다. 어떤 것을 단지 그것 자체로만 말해야 한다는 오해는, 진술이 무언가를 명명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명한 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서술하는 데에까지 나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명명된 것에 서술되는 것들이 결부된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것에 그것 자체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엮일 수 있는 방식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 방법이 바로 is 의 두 용법을 구분하는 것이다. 지금의 is 구분을 통해 말하자면, 늦게 배우는 자들은 오직 is1 용법만을 인정하고 is2 용법을 부정하거나 이 구분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to on 이 그 자체로 운동하는 것이지도 정지해 있는 것이지도 않다면, to on 과 다른 것들인 운동하는 것과 정지해 있는 것은 둘 다 to mē on 이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o mē on 은 진술도 사유도 지시조차 거부하는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와 동시에 운동하는 것도, 정지해 있는 것도 모두 각기 to on 이 아닐 수 없어 보인다. to on 과 다른 것, to on 이 아닌 것을 어떻게 동시에 to on 으로 부를 수 있는지 설명되어야 한다. 더구나 운동하는 것과 정지해 있는 것은 서로 지극히 반대되는 것으로 보이며, 전적으로 다른 것으로만 보인다. 정반대인 이 둘 모두가 어떻게 같은 하나의 이름 to on 으로 불릴 수 있는지도 설명이 필요하다. to on 과 to mē on, 운동하는 것과 정지해 있는 것, 서로 다른 것들은 어떻게 서로 결합되고, 또 결합되어 한 묶음으로

보이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서로 다른 것들이 분리되는지 알아야 한다. to on 을 to on 이라고만 말하고 사람을 사람이라고만 말하며 좋은 것을 오직 좋은 것으로만 말해서는, 어떤 것을 또 다른 것과 엮어 말하지 않고서는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한 일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과정이 바로 유들의 결합을 논의하는 과정이다.

254d4-257a6 까지, 손님과 테아이테토스는 위의 문제를 검토하고 그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x is/is not y 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음을 보이게 되고, 가능한 의미의 to mē on 이 무슨 의미인지 보여주게 된다. 263b11-12 의 언급에 따르자면, 두 사람이 여기에서 발견한 to mē on 은 그대로 이후 거짓말에 대한 분석과 정의에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소피스트』 해석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의 노선을 따르는 학자들 간에 오랜 동안 이 부분은 치열한 논쟁의 장이 되어오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프레데는 자신의 is1/is2 구분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해당 부분을 해석하며, 이 과정에서 여타의 해석들이 지니는 난점이 무엇이고 또 자신의 해석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필요한 부분의 설명을 보완하며 프레데의 해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상세한 내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간략히 그 대강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그 자체에 관하여(auta kath' hauta)" to on 과 "다른 것에 대하여(pros alla)" to on 을 존재사와 계사의 구분으로 보든, 동일성 기호와 계사의 구분으로 보든 이러한 구분의 문헌 근거를 대화편 내에서 찾기도 또한 어렵다. 이 점에서 해석의 첫 번째 쟁점인 불가능한 to mē on 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전통 2 의 입장이 비교적 안전한 길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전통적 입장의 어느 갈래에서든 문헌과의 불일치 문제를 피하기 어렵고, to on 의 상이한 두 의미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설명을 그러한 해석들 내에서 찾기도 또한 어렵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유들의 결합에 대해 프레데가 제안하는 해석은 is2 긍정문과 not being1 부정문의 구분을 통해 해당 내용을 이해하자는 것이다. 운동은 자신 이외의 것에 관련하여(참여를 통해) 같음이고 다름이다. 운동은 같음이 본성상 그 자체로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같은 것(being the same)이다. 이런 의미에서 운동은 같음과의 다름에 참여하여 같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되고, 프레데의 이러한 해석을 적용하여 표현해 보자면 "the motion is2 the different from being1 the same"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시 대화편의 설명에 따라 "the motion is2 not being1 the same" 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 주동사 "is2"는 운동이 다름에 참여한다는 점을 표현하고, "being1"은 같음이 본성상 같음 자신이라는 것을 표현하며, "not"은 본성상 같음인 것과 다른 방식으로 주어가 being 이라 이야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프레데는 유들의 결합 논의와 "not big(mē mega)" 표현 분석 두 부분에서 읽어낼 수 있는 to mē on 의 의미가 단일하고 연속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들의 결합 논의에 그치지 않고 "not big" 표현 분석이 추가되는지를 의미의 차이가 아닌 용법의 차이를 통해 설명하고자 시도한다. 유들의 결합에서 to mē on 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된다. 우선 to on 이외의 유들이 to on 과의 다름에 참여한 결과가 to mē on 이고, 다음으로 서로 다른 유들이 서로에 대한 다름에 참여한 결과가 to mē on 으로 이야기된다. "x is not y"에서 x 는 to mē on y 로, y 는 x 에 관한(peri x) to mē on 으로 이야기되는 것이다. 이는 프레데의 is 구분에 따르자면 the different from being1 something 를 말하고 있다. 반면 "not big"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the different from being1, 2 mega 이다. 본성상 그 자체에 관련하여 being the big 인 big-ness 와 다를 뿐만 아니라(is not being1), 참여를 통해 다른 것과 관련하여 being the big 인 것들과도 다르며(is not being2) 결국 the big 이라 불리는 것과 다르다(is not being1,2).

1) 유들의 결합(tōn genōn koinōneīn)

254d4-255e6 에서 손님과 테아이테토스는 다섯 가지 매우 중요한 유들(megista genē)을 선별해낸다. 각각은 to on, 운동하는 것(hē kinēsis), 정지해 있는 것(hē stasis), 같은 것(to tauton), 다른 것(to heteron)이다. 이것들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이 다섯 가지 유들 사이의 결합과 분리를 다루는 255e8-257a6 까지의 내용이 유들의 결합 논의라 할 수 있다. 이 논의에서 to on 과 운동, 정지가 서로 어떻게 결합하고 또 각기 구분되는지 밝혀지고, "x is y" 와 "x is not y"라는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두 문장이 어떤 의미에서 양립가능한지 또한 밝혀지며, 이로써 앞선 부분에서 문제시된 to mē on 의 불가능성 문제 역시 해결된다. 이 부분에서 긍정문에 사용된 일상적 계사 is 와 부정문에 사용된 동일성 기호 is 의 구분을 읽어낸 기존 해석들에 대비하여 프레데의 is1/is2 구분이 여기에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읽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이 해석 역시 다른 해석들과 마찬가지로 유들의 결합과 분리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to mē on 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프레데의 해석은 기존해석들이 to mē on 의 불가능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완전용법 is 와 불완전용법 is 의 의미 사이에 만들어낸 간극, 또 x is y/is not y 의 양립가능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용법의 일상적 계사 is 와 동일성 기호 is 의 두 의미 사이에 만들어낸 간극을 어떤 식으로든 극복해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존 해석들과 마찬가지로 일관성 있는 독해를 이끌어내는 데에 실패할 것이다.

유들의 결합 논의는 운동하는 것이 정지해 있는 것, 같은 것, 다른 것, to on 각각과 결합되고 또 분리되는 방식을 순서대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순서대로 K(hē **k**inēsis), S(hē **s**tasis), T(to **t**auton), H(to **h**eteron), O(to **o**n)라 표기하기로 한다.)

(1) K 와 S(a 255e11-15, b 256b6-c3)

a1- K 는 S 와 다른 것이다(H from S),

a2- 그래서 K 는 S 이지 않다.

b1- 만일 K 가 S 에 참여한다면

b2- K 는 S 일 것이다.

(2) K 와 O(256a1-2)

a1- K 의 O 에 대한 참여 때문에(dia to metexein toū ontos),

a2- K 이다/K 는 있다.

(3) K 와 T(a3-b5)

a1- K 는 T 와 다른 것(H from T)이다,

a2- 그래서 K 는 T 이지 않다.

b1- 모든 것의 T 에 대한 참여 때문에(254d14-255a2 참조),

b2- K 는 자기 자신과 T 이다(같은 것이다).

(4) K 와 H(c4-d7)

a1- K 가 T 와 S 둘 모두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K 는 H 와 다른 것이다(H from H).

a2- 그래서 K 는 H 이고 H 이지 않다.

(5) K 와 O, not O(to mē on)(d8-12)

a1- K 는 다른 네 유들과 다른 것이다. 그리고 유들은 다섯이다.(255d9-e7 참조).

a2- 그래서 K 는 O 와 다른 것이다(H from O).

a3- 그래서 K 는 O 이며 O 이지 않다.

여기까지 도출되는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결론들을 우선 살펴보자. 1b 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지만[14], 전체에 걸쳐 K is something/K is not something

[14] K 와 S 는 전적으로 반대되는 것으로서 결합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는 듯이 보인다. 여러 차례 등장하는 "우리는 유들에 대해 일부는 서로 섞이려 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동의하였다" 라는 언급이 이 논란과 관련되어 있다. 서로 섞이는 유들과 그렇지 않은 유들이 구분되며, K 와 S 는 후자에 속하므로 이 둘은 서로 결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문장이 반사실적 과거 형식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그러나 신족과 거인족의 투쟁(gigantomachia, 246a4 이하)에서 서술된 바, 인식의 대상은 정지해 있어야만 하며 유 혹은 형상으로 취급되는 K 역시 이에 따라 정지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S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K 가 능동적 운동(to poieīn)과 수동적 운동(to paschein)을 포함하는 변화 일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유들과 결합 및 분리의 관계를 맺고 또한 인식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S 가 K 와 전혀 결합하지 않는다는 결론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블라스토스(1970), 보스톡(1984) 등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K 가 형상의 측면에서, 블라스토스의 용어에 따르자면 '바울식 서술'로 그리고 보스톡의 용어에 따르자면 '명명법'으로 지시된 K 로서 다른 형상들과 마찬가지로 정지해 있음으로써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형식의 결론이 반복되어 제시되고 있다. 1 에서 K is S/K is not S 가, 2 와 5 를 통해 K is O/K is not O 가, 3 에서 K is T/K is not T 가, 4 에서 K is H/K is not H 가 제시된다. 운동이 자신 이외의 것들로부터 구분되는 동시에 그것들로 서술되거나 그렇게 불릴 수도 있다는 이 결론은 늦게 배우는 자들의 입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도 to on, 운동, 정지 세 유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x is y 와 x is not y 는 명백히 모순되어 보이고, 어떻게 이 모순이 해소되어 두 문장이 모두 참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1b, 2a, 3b 는 참여 또는 공유의 관계(metechein, metalambanein)로 is 를 설명한다. K 는 S, O, T, H 각각에 참여하여 is S, O, T, H 로 서술된다. 운동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정지한 것이거나 being 이거나 자기 자신과 같은 것이거나 여타의 것들과 다른 것이 된다. 반면 1a, 3a, 4a, 5a 의 경우 H 를 통해 is not 을 설명한다. K 는 S 와 다른 것에 참여하여 S 와 다른 것이 된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O 와 다른 것, T 와 다른 것, H 와 다른 것이 되고, 이것들과 다르기에 이것들 아닌 것이 된다. 운동하는 것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고, being 인 것도 같은 것도 다른 것도 모두 아니다. Is 와 is not 은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의 경우 유들 사이의 참여관계를, 후자의 경우 자신 이외의 유들과의 H 에 대한 참여관계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란 설명이다.

1a, 3a, 4a, 5a 가 보여주는 바 is not 의 사례들은 단순히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to on 과 다른 것이다. S, T H 와 다른 것임은 모두 is H 의 사례로서 4a 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각은 자신 이외의 것들 모두와 다르기에 to on 과의 다름 역시 성립한다. to mē on 이 to on 과 다른 것이라는 내용을 가진다는 점에서 지금의 to mē on 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S 는 다른 형상들이 인식과정을 통해 운동하는 것으로 여겨지듯 그렇게 운동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정지해 있는 것'이나 '운동하는 것'이라는 서술은 보스톡이 '일반화 용법'으로 구분하는 K, S 이다. 두 사람 모두 "K is S," "S is K"가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지만, 『소피스트』 내에서 이를 위한 명명법과 일반화 용법의 구분, 혹은 일반적 서술과 바울식 서술 사이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플라톤의 기획이 이 부분에서 실패한 것이라 주장한다.

일반화하여 말하자면 임의의 x 는 y, z 따위와 다른 것이라는 점에서 is not y, z, etc 이다. 그러나 동시에 y, z 따위에 참여한다는 측면을 통해 is y, z, etc. 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운동은 to on 과 다르다는 점에서는 is not the being 이지만 동시에 to on 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is the being 이기도 한 것이다. 사람은 좋은 것과 다르지만 좋은 것에 참여함으로써 "the man is the good" 일 수 있고, 그럼에도 여전히 그 둘은 다르므로 "the man is not the good" 역시 가능한 것이다.

프레데 이전까지의 해석 노선에서 이 논의는 is 의 의미들 사이의 구분과 관련된다. 유들의 결합은 x is y/x is not y 두 문장을 is 의 의미들을 구분함으로써 양립시킬 수 있는 것이라 간주된다. x is y 형식의 문장은 x 가 y 에 참여한 결과 y 인 것이라는 표현이다. 반면 x is not y 는 x 가 y 와 동일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긍정문에서 is 는 일상적 계사로 사용된 것이고 부정문에서는 동일성기호로 사용된 것이다. 운동이나 정지가 to on 이 아니라고 말할 때 부정되는 것은 동일성기호 is 이고, 사람을 사람이라고만 말해야 한다고 할 때 늦게 배우는 자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is 또한 동일성기호 is 하나뿐이다. 모든 것은 각기 자기 자신하고만 같고, 자신 이외의 모든 것과는 다르며 자신 이외의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K is being 은 일상적 계사가 사용될 경우 아무 문제도 없는 문장이다. 마찬가지로 the man is the good 에서도 일상적 계사가 사용된다면, the man 과 the good 이 다르다는 것은 이 문장의 참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동시에 동일성기호 is 를 부정함으로써 k is not to on 이라 말할 수 있고, 이로써 운동과 to on 을 서로 구분할 수 있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the man is not the good 이란 표현을 통해 the man 과 the good 을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 노선에서 to on 이외의 것들이 being 에 직접 참여한 결과가 is 완전용법 존재사의 사례라는 주장이 있어왔다. 1, 3, 4 와 달리 2 에서는 보어를 임의로 추가하지 않고서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도 보어를 추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해석에 따르면 2 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서 긍정문의 is 는 불완전용법 일상적 계사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모두 보어를 대동한다. 그러나 2 에서는 그러한 보어가 없으며, 따라서 여기에서 긍정문의 is 는 보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용법 is 이고, 그 의미는 존재사라는 것이다. to on 에 참여한 결과로서의 "... is"와 to on 이외의 것들에 참여한 결과로서 "... is

something" 사이에 구분이 없다면 유들의 결합에서 to on 의 역할이 부수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To on 에 대한 직접참여와 관련한 이러한 해석에 근거하여 237b10 이하에서 제기된 to mē on 의 불가능성은 일부 학자들에게 비존재의 문제로 간주되었다. 이 불가능한 to mē on 은 완전용법 존재사 to on 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며, 어디에도 전혀 없는 것을 생각하거나 말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는 해석이다. 물론 to mē on 을 존재의 부정, 비존재로 이해함으로써 to mē on 이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손쉬운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할 만하다. 또한 맥락상 생략된 보어를 찾아 보충하기 어려운 is 의 용례들이 등장하는 바, 이를 완전용법의 사례로 따로 취급하는 방식이 문헌의 독해를 용이하게 해준다는 점도 납득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용법과 의미 모두에서 이러한 완전용법 존재사 is 는 이후 논의되는 불완전용법의 계사나 동일성기호 is 와 지나치게 이질적이다. 더욱이 being 을 자기 자신과 같고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고유한 술어를 할당 받은 하나의 유로 취급하고 있는 대화편의 서술에 비추어볼 때 존재사 의미의 이러한 독립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유들의 결합 논의에 대한 프레데의 해석은 is 의 의미를 단일하게 이해하면서 to on 에 직접 참여한 결과로서의 술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전히 잘 설명해낼 수 있다. 모든 유들은 각기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지니며, 따라서 임의의 유 x 에 대해 being the x 라고 말할 수 있다. to on 을 본질이나 정의의 기술을 포함한 서술 일반에 사용되는 동사로 간주할 경우, to on 에 참여하지 않고 어떤 무엇이라 생각되거나 말해질 수는 없다. 또한 앞서 to on 의 두 용법에 대한 구분에 따라, 이러한 참여가 주어 자체에 관련한 것인 경우와 주어 외의 다른 무언가에 관련한 경우로 구분된다. 유들의 결합에서 예를 들어 보자. The same 은 to on 에 참여하여 "The same is (being)." 이라 서술된다. 생략된 보어 something 을 the same 이라 가정하면, (1) "the same is1/is2 (being) the same."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한편 The different 역시 마찬가지로 (2) "the different is1/is2 (being) the different." 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 the same 이 the different 에, 또 the different 가 the same 에 참여할 수 있다. 그 결과 (3) "the same is the diffrent," (4) "the different is the same"이란 문장들도

가능하다. (1)과 (4), (2)와 (3)은 각 쌍이 같은 술어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과 (4)는 is2 일 경우에만 참인 문장들이고, to on 에 참여한 결과로는 (3)과 (4) 같은 is2 서술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로써 형상 x 가 to on 에 참여한 경우와 다른 것이 형상 x 에 참여한 경우의 차이가 드러난다. 그리고 동시에 being 에 참여한 결과로서의 동사 is 와 to on 이외의 형상에 참여한 결과로서의 동사 is 사이에 연속성 역시 확인된다. 따라서 완전용법 존재사 is 를 따로 떼어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러한 입장에서 프레데는 플라톤에게 있어서 is 가 언제나 is something 이었음을 강변한다(1992, 409-410 쪽). 그는 이에 따라 불가능한 to mē on 을 존재사 부정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not being anything at all 로 간주할 수 있다(1996, 409 쪽 참조).[15] 존재사 to on 이 따로 구분되어 논의된다는 문헌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존재사 to on 의 부정만이 독립적으로 문제시된다는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반면 참여를 통해 이야기되는 to on 의 사례들은 주어의 본성에 따른 서술과 그 주어가 참여하는 형상들을 통한 서술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묘사되며, 이 서술 전반에 대한 부정을 이로부터 유추해볼 수 있다. to mē on 을 하나라거나 여럿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으며 말할 수 없거나 생각할 수 없거나 가리킬 수 없다는 등의 서술마저 할 수 없다고 할 때, 부정되고 있는 것은 to on anything at all, 무엇이든 규정되어 서술될 수 있는 어떤 내용들 전부이다.

완전용법과 불완전용법 is 구분에 대한 프레데의 반박에 이어 불완전용법에서 동일성기호와 일상계사 is 사이의 구분에 대한 그의 입장을 살펴보자. 프레데는 is1/is2 용법 구분을 통해 동일성기호와 일상적 계사 사이의 의미구분을 부정한다. 임의의 x 는 to on 에 참여하여 to on(being) x 라 불리는데, to on 은 is1 과 is2 로 나뉜다. to on 이 운동하는 것에 참여하면 to on 은 운동한다. to on 이 운동하는 한 to on 은 운동하는 것으로서 있다. 운동하는 것으로서 있는 것에 참여한 to on 은 is2 의 방식으로 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to on 인 것들은 to on

[15] 오웬 역시 이런 식으로 to mē on 의 불가능성을 설명한다(본 논문 2 장 참조). 브라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를 함의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본 논문 4 장 참조).

자체를 포함하여 그것이 to on 이라는 바로 그 형상적 측면에서 그 자체로 to on 이라 서술된다. 일단 to on 인 것으로 명명되고 그러한 to on 인 것으로서의 본성에 대해 기술한다면 is1 being 인 것이다. 운동, 정지, to on 은 각기 is1 운동, 정지, to on 이다. 기존 해석에서 완전용법의 사례로 해석한 2a1 은 프레데에게 있어서 is1 의 사례로 볼 수 있다. K is being (something), 다시 말해 K is being (something that is K)라는 의미이다.

주의할 점은 is1 용법의 to on 이 동일성을 조건으로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늦게 배우는 자들의 주장에서 "the human"은 그것과는 다른 것인 "the good"으로 서술될 수 없다. 프레데가 보기에 이는 is1 용법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나 is1 용법의 정의에 따라, "the human is1 the animal"이 가능하다. "The color is1 white"가 참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The human"과 "the animal"은 서로 다르고 구분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human"과 "the good" 사이의 관계와 달리 그 자체로 이야기되는 관계인 것이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장 1 절 2 항 참조) "the same is the same(i.e., with itself)" 라는 문장은 "the different is the same(i.e., with itself)" 라는 문장과 마찬가지로 is2 가 사용된 사례이고, 그럼에도 주술동일성을 갖추고 있다. 결국 동일성은 is1 용법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며(Frede, 1992, 402 쪽.) 동일성 문장과 is1 문장은 서로 다르다. Is 의 동일성 의미를 구분해내지 않고도 프레데의 구분법을 통해 to on 과 여타 형상들 간의 관계 문제, 늦게 배우는 자들의 역설, 이 문제들의 해법으로 제시된 유들의 결합 논의에 대해 충분한 설명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세 가지 to mē on 과 hoion mē mega

to on 과의 다름에 참여하는 모든 형상은 to mē on 으로 불린다. 여기에 더하여 x is not y 에서 x 는 to mē on y, y 는 x 에 관한 to mē on 으로 이야기된다. 그리고 mē mega 에 대한 논의가 나온다. hoion 을 "for example"로 번역하면 mē mega 는 to mē on 의 사례가 된다. 그런데 이 to mē on 은 to on 과의 다름과도, 서로 다른 x 와 y 사이에서 이야기되는 to mē on 과도 다르다.

여기에서 to mē on 은 "the different from to on(to heteron tou ontos)"을 의미하며, to on 의 용법이 둘인데 유들의 결합에서 나오는 것은 "the different from to on1 something," mē mega 에서 나오는 것은 "the different from to on2 something"으로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The x(What is x)는 본성상 to on x 인 것과 참여를 통해 to on x 인 것 모두를 가리킨다. 따라서 본성상 to on x 인 것과 다른 경우와 참여를 통해 to on x 인 것과 다른 경우가 구분될 수 있다. 프레데의 to on 구분을 통해 보자면 유들의 결합에서는 그 자체에 관하여(auta kath' hauta) to on something 인 것이, "not big" 논의에서는 다른 것들에 관하여(pros alla) to on something 인 것이 이야기된 것이다.

동일성 기호 is 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비동일성을 의미하는 is not 역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프레데가 is1 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주술 동일성을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동일성 기호 is 가 사용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면 이제 프레데에게 있어서 to mē on 이 어떻게 부정서술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유들의 결합에서 도출된, to mē on 에 관련된 결론들을 되짚어 보자. 프레데(1992, 403-6 쪽)는 유들의 결합을 통해 도출되는 to mē on 의 종류들을 나열한다.

a) 형상 to on 과 다른 것, to on 자체 이외의 모든 것은 to mē on 이다.
b) A is not B 에서 A 는 to mē on B 이다.
c) A is not B 에서 B 는 A 에 대해(peri) to mē on 인 것이다.

우선 a)는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to on 이외의 것들은 to on 과 다르므로 to on 이 아니다. 따라서 to on 이외의 것들은 모두 not to on 이다. 반면 b) 그리고 c)의 경우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양자 모두의 문헌근거가 되는 결정적인 구절은 256e6-7 이다.

"손님: 그래서 형상들 각각에 대해(peri) to on 은 많고, to mē on 은 그 수가 무한하다."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to on 은 to on 에 참여한 결과로, to mē on 은 to on 과 다른 것(the different from the being)에 참여한 결과로 언급되었다. 우선 "형상 각각에 대해(peri hekaston tōn eidōn)"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to on 과의 참여관계만을 생각하면 그 참여한 각각이 to on 이 된다는 결론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형상이 to on 과 다른 것에 참여하여 to on 과 다른 것이 됨으로써 to mē on 이 된다는 것도 보았다. 문제는 이 두 경우 모두 주어가 to on 이 되고 또 to mē on 이 되는 것이지, 주어에 대해 다른 무엇이 to on 이나 to mē on 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모든 것은 무언가 내용을 가지고 존재하는 한 모두 to on 에 참여할 것이므로 to on 의 수가 많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어렵지 않다. to mē on 또한 to on 그 자체를 제외한 모든 것이 그렇게 불릴 것이기에, "무한하다"라는 표현을 강조로 받아들인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주어 각각에 대해서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본절 1 항의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자면, K is (O)에서 K 에 대해 to on 인 것은 O 정도를 추정해볼 수 있을 뿐이다. K is not O 의 경우, 이는 K is H(the different from O)이고 따라서 H 를 K 에 대한 to mē on 의 후보로 생각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유들의 결합 논의와 위에 인용한 구절을 일관되게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선 is (O)만이 아니라 is T, is H 등을 to on 에 포함해 보면 그 수를 조금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다. K 는 적어도 세 개의 to on 이 된다. 이제 X is (to on) 만이 아니라 X is (to on) F, G, H, etc. 가 to on 의 후보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의 수와 각 주어에 대해 보어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의 수 사이의 모든 경우의 수만큼 to on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to mē on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면, 단순히 to on 과 다른 것만이 아니라 각각이 자기 자신 이외의 것들과 다른 하나하나의 모든 경우가 to mē on 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로써 우선 to on 과 to mē on 의 수가 많다는 점은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프레데가 말하는 b) 경우의 to mē on 또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to on 자체와 다른 것에 더하여, to on F, G, H, etc. 각각과 다른 모든 경우가 to mē on 에 포함된다. 그러나 여전히 주어 자리에 오는 것이

몇 가지의 to on 으로, 또 몇 가지의 to mē on 으로 헤아려지는지만을 고려한 것일 뿐이다.

프레데는 256d11-12 를 인용하며 c)에 해당하는 표현법이 등장한다고 간주한다(1992, 403 쪽).

> "손님: 그래서 운동하는 것에도(epi) 또 모든 유들에 따라서도(kata) to mē on 은 필연적이라네."

이 구절에 대해 프레데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플라톤은 a is F 가 참이라면 "F(or: *F*-ness) is in the case of a"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1992, 403 쪽)" To on 과 다른 모든 것들이 to mē on 인 것과 같은 방식으로, K 는 to on 과 다르기 때문에 to mē on 이다. 이로부터 "K is 'to mē on'(a is F)"이 참이라면, "'to mē on' is in the case of K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to on 이외의 모든 유들에 대해 마찬가지로 to mē on is in the case of it 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통해 형상 각각에 '대해' being 그리고 to mē on 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다. 지금의 인용문에서 "epi + Genitive" 그리고 "kata + Accusative" 두 표현은 문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구절의 "peri + Genitive"와 혼용될 수 있고 실제로 『소피스트』 에서도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형상 x 에 대해 x is y 가 참일 경우, "y is in the case of x" 라고 말할 수 있고 이를 다시 "y is peri x" 라 바꾸어 표현 가능하다. 이제 x 에 y 가 is 라고 표현되었음이 보이고, 여기에서의 y 를 x 에 대해 to on 이라 말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to mē on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x is not y 라면 "y is not peri x"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 경우 y 는 x 에 대해 to mē on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헌에 근거한 일관된 해석의 관점에서 위 해석을 거부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의 세 경우 모두를 to mē on 으로 간주하는 해석은 동의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프레데가 해석에 특별히 공을 들이는 구절은 257b3-258c5, "not big"이란 표현을 검토하는 대목이다. 257b3-c3 에서 손님은 "mē on"을 말할 때 to on 의 반대가 아니라 단지 그와 다르다는 것만을 말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not big" 라는 표현을 분석한다. 이 표현으로 big 과 다른 것인 the equal 에 비해 big 의 반대인 the

small 이 조금도 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not big 분석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쟁이 있다. 해당 문장을 확인해 보자.

> "손님: 우리가 "mē on" 이란 말을 할 때, 우리는 to on 의 반대인 무언가가 아니라 단지 그와 다른 것만을 말하는 것 같다네.
> 테아이테토스: 어떻게요?
> 손님: Hoīon(Οἷον) 우리가 "not big" 같은 것을 말할 경우, 그 때 자네에게 우리가 그 말로 the equal 보다 the small 을 뭔가 조금이라도 더 의미하는 걸로 보이는가?"

여기에서 밑줄 친 "hoīon"의 번역에 따라 해석의 방향이 크게 갈릴 수 있다. 사전적 정의에 따라 이 부사는 as, just as 등을 의미하기도 as for instance, as for example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오웬 등은 as 해석을 취한다. 이 경우 "hoīon" 은 "마치 이처럼 말일세." 정도로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Not big 이 큰 것의 반대인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단지 큰 것과 다른 것인 같은 크기인 것을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to mē on 도 to on 의 반대가 아닌 단지 to on 과 다른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 이 번역에 따르자면 해당 구절은 to on 의 반대가 유들의 결합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문제시되었던 아무런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이를 테면 "to mēdmōs on" 같은 것인 반면, 지금 논하고 있는 to mē on 은 그와 달리 to on 과 다를 뿐 운동하는 것이거나 정지하는 것이나 그런 식으로 자신의 본성을 가진 이 역시 to on 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맥락으로 해석된다.[16] to mē on 이 to on 의 반대가 아닌 to on 과 단지 다른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유비로 not big 분석을 이해한다면 이 논의가 추가된 이유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레데는 이와 달리 "hoīon"을 for example, for instance 로 번역하고자 한다. 이 경우 not big 은 to mē on 의 사례 중 하나로 포함된다. 그러나 앞서 to on 과 다른 것, x is diffrent from y 에서 x 의 to mē on y, 다시 이러한 y 의 to mē on in

[16] 오웬의 해당 인용문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4 장에서 브라운의 비판과 함께 더욱 자세히 다루어진다.

the case of x 는 모두 특정한 유인 주어와 to on 또는 한 유와 다른 유 사이의 다름으로부터 도출된 to mē on 이다. 반면 not big 은 big 과의 다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이 not big 이 무엇에 관하여 to mē on 이라 이야기되는지를 특정할 것이 언급되지 않는다. 즉 "not big"은 유들의 결합에서 이야기되었던 to mē on 의 세 경우와 달리, big 과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는 표현인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제시된 not being 의 사례들과 지금의 not big 사이에는 모종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선 세 사례 모두 말하자면 형상들 사이의 서로 다름을 근거로 하여 도출된 to mē on 이다. K 는 S, T, H, O 모두와 각기 다르기에 K is not S, T, H, O 는 참이다. 이와 같은 to mē on 을 통해서는 K 의 not S 와 O 의 not S 사이에 의미 차이가 없다. K 든 O 이든 H 이든 T 이든, S 그 자체 이외의 모든 것은 S 와 다르다는 점에서 S 가 아니다. 그러나 흐르고 있는 강이나 날고 있는 새 역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강이나 새는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앞서 K, O, H, T 가 그러했듯 마찬가지로 "...is not S." 라고 서술될 수 있지만, "T is not S"와 "the flying bird is not S"가 같은 사태를 서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The river is not S"는 "the river is running"의 다른 표현일 수 있고, "the bird is not S"는 "the bird is flying"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문장이 강이 형상 S 와 다르다거나 새가 형상 S 와 다르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설령 강이 얼어붙어 정지해 있거나 새가 죽어서 굳어 버린 상황에서도 형상 S 와 다르다는 의미에서는 여전히 "the river is not S," "the bird is not S"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강이 흐르고 있다는 이유에서, 그리고 새가 날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것들에 관하여 이야기된 to mē on S 는 언 강이나 죽은 새에 관하여서는 더 이상 이야기되지 않을 것이다.

"X is not big"을 다시 검토해 보자. Not big 의 의미로 제시된 것은 the small, the equal 이다. Not big 이 small 이나 equal 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는 방금 예시한 날고 있는 새나 흐르고 있는 강의 경우와 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히 형상 big 과의 차이만을 논하려 했다면 small, equal 등으로 의미가 한정될 이유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프레데는 이러한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플라톤은 not being 인 것, 예를 들어 not big 인 것에 관하여, 마치 이것이 최소한, 성질 bigness 와 다른 것임으로써가 아니라, 그 성질을 지니지

못함으로써, big 이지 못한 것의 경우를 포괄한 것처럼 말하기 시작한다(1992, 407 쪽)." Not big 은 어떤 것이 big 이란 성질을 지니지 못한 경우 그러한 성질의 결여를 통해 그 어떤 것을 the big 이 아닌 것이라 말하는 표현이다. 이는 비동일성진술이 아니라 일상적인 부정 서술이라는 것이다.

형상들 사이의 비동일성을 말하는 듯한 앞의 세 가지 to mē on 과 지금 부정서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not big 으로 예시된 to mē on 사이에는 의미에 차이가 있다. 이 차이를 비동일성으로부터 부정서술로의 비약으로 보거나 두 to mē on 을 혼동이라 해석할 경우(Bostock. Frede 1992, 407 쪽 참조) 플라톤의 논증을 지나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욱이 플라톤은 K 의 to mē on S 와 무언가의 to mē on big 을 같은 종류의 to mē on 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같은 쪽. 258b9 이하 참조.). 그렇다고 not big 예시를 통해 부정서술이 논의되고 있음을 부정하면 거짓말의 분석에 필수불가결한 도구를 상실하게 되어 버린다. 그러나 프레데의 해석에 따르면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도 not big 예시에서도 동일한 to mē on, 부정 서술을 포함하는 to mē on 이 일관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앞서 세 가지 to mē on 과 지금 논의하는 mē on e.g.) not big 사이에서 의미의 차이 없이 이루어지는 구분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1992, 408-409 쪽에서 프레데는 "The small is not the big"이란 예문에 is1/is2 구분을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a) The small is different from <u>what is big</u>.
b) This is different from <u>what is big</u>.

a)는 밑줄 친 구에서 is1, b)는 밑줄 친 구에서 is2 가 사용된 문장으로 구분 가능하다. "The small"이든 "This"이든 "the different"로 호명되지 않은 주어에 대해 is1 different 가 적용될 수 없음은 앞서 보았던 바이다. 두 문장 모두 주동사 is 는 is2 를 사용하고 있다. 차이는 "what is big"에서 is 의 용법이 주어와 관련하여 보여주는 것뿐이다. 문장 a)에서 "The small"로 호명된 것은 그것이 작은 것인 한에서 바로 그 측면에서 what is big 과 비교되고 있다. "작다"는 성질을 기준으로 삼아 대상 삼은 이 주어는 어떤 것을 그것이 크다는 점에서

"큰 것"이라고 부르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한 대상을 특정한 성질로 대표하여 지시하고 있다. 본 절 2 항에서 확인하였듯, 특정 성질 F, G, H 따위를 통해 명명되는 것들은 각기 is1 F, G, H 따위로 서술될 수 있다. The small 은 그런 식으로 명명된 주어이다. 반면, b)에서 주어 "이것"은 명명되거나 지시되는 과정에서 특정 성질로 대표되고 있지 않다. 이 주어는 실재로 이러저러한 성질을 지닐 수도 있고, 그 중 어느 한 성질로서 존재할 수도 있으며, 또 어떤 것들과는 다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라 호명된 한에서 형상이나 유, 성질의 측면은 강조된 바 없고 성질 big 과 대비될 만한 특정 성질이 대두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b)에서 what is big 은 is2 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big 의 의미는 혼동될 이유가 없다. Is 의 용법이 구분되는 것뿐 big 은 일관되게 what is big 을 의미하고 있을 뿐이다. 크다는 성질을 지닌 것도 자기 자신이 그러한 성질인 것도 the big 으로 불릴 때엔 그 성질로 대표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러한 성질을 지닌 것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difference 나 ... is not ...의 의미 역시 혼동될 이유가 없다. 모든 것이 각기 자신 이외의 것들에 대해 다르다는 의미에서 단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그러한 다름 안에서 to on 이라는 측면에 국한한 부분으로서 to mē on 과 구분될 수 있다. What is big 에서 is 의 용법은 주어가 명명되는 방식에 따라 구분되고, 그럼에도 "... is different from what is big"이란 서술부의 의미에는 차이가 없다.

3) Heteron 의 부분인 to mē on

단순한 다름은 비동일성을 의미한다. 반면 다름의 부분인 to mē on 은 to on x 인 것들과의 다름을 의미한다. 이는 to mē on 으로 이야기되고, to on 의 두 가지 용법에 따라 두 측면에서 to on x 와의 다름이 드러난다. 다름의 부분들 중 to on 에 대비된 다름이 to mē on 이므로, to on 의 두 용법에 따른 두 경우의 다름이 이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to on 의 의미는 단일하게 유지되므로, to mē on 의 용법상 구분은 의미 구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To mē on 은 to on1 과도 다르고 to on2 와도 다르다. 따라서 big-ness 와도 이에 참여하는 big 들과도 다르다. 이렇게 what is big 과 다른 것은 big 이라 불리는 것들 모두와 다르고 따라서 단적으로 big 과 다른 것으로부터 구분된다. big 그 자체를 제외한 모든 것은 big 과 다르다. 그러나 큰 산이 not big 이라 불리는 것과 작은 산이 not big 이라 불리는 것이 구분될 수 있다. 큰 산은 (본성상이 아니라 참여를 통해 큰 것으로 불리므로) not being1 big 이지만 (큰 것으로 불린다는 그 점에서는) being2 big 이기도 하다. 반면 작은 산은 not being1 big 이자 not being2 big 인 것이다. mē mega 의 후보에서 big-ness 뿐만 아니라 something that is big 도 배제되는 것이다.

이러한 to mē on 은 to on x 가 "to on y 와 다름(heteron tou ontos y)"에 참여한 결과이며 여기에 아무것도 아닌 to mē on 은 개입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to mē on 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to mē on mega, to mē on kalon 등은 to on 못지 않게 to on 이다. 이것으로 to mē on 또한 형상이며 나름의 본성을 지닌 것으로 밝혀진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이미 the different 와 to mē on 사이의 차이를 확인한 바 있다. 우선 the different 는 언제나 다른 무언가와 관련하여 the different 라고 이야기된다. 즉, the different from the others 인 것이다. 반면에 to on 은 그 자체로도 다른 것과 관련하여서도 to on 이라 이야기되며, 이에 따라 to mē on 역시 마찬가지로 두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방금 보았듯 to mē on 은 특정 성질이 아니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특정 성질을 지니지 못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표현인 반면, the different 는 어떤 무엇이 아니라는 것, 다르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 the different 와 to mē on 사이에는 모종의 관계가 있다. 그 관계를 파악할 실마리는 257c7-258e3, the different 를 지식에 유비하고 the different 의 부분을 언급하는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 손님은 the different 가 the knowledge 와 마찬가지로 of something 의 형태로 여러 부분들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말에 대한 지식, 수에 대한 지식, 법에 대한 지식 등이 서로 구분되면서도 모두 지식의 부분들인 것처럼, the difference 에도 그런 식으로 여러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not being 을 difference 와 동일시하지 않고, difference 의 특정 형상이나 부류, "the

different 의 부분"과 동일시한다(프레데, 1992, 408 쪽)." Difference 의 부분으로서 이러한 to mē on 에 대해 프레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1992, 409 쪽).

> "not being 이라는 것은 단지 특정 방식으로 is 인 것으로부터 구분되어 나온 어떤 것임, 이런 방식으로 being 인 것과 다른 어떤 것임이다. (To be not being just is to be something that is set off from what is in a certain way, something that is different from what is being in this way.)"[17]

이제 to on 이외의 것들은 to on 이 being(to on)인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being 인 것들인 한에서 to mē on 이다. 여기에서 to on 은 항상 to on something 임을 유념해야 한다. 임의의 형상 x 에 대해 그 이외의 것들 y, z 따위는 x 가 what is x 인 바로 그 방식으로 to on y, to on z 인 것이 아니기에, 그 점에서 to mē on x 이다. Not big 은 what is big 인 것들이 something that is big 이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는 방식으로 what is 인 것들과 구분되는, 이 what is big 인 것들과 다른 것들을 서술한다. 소크라테스는 그 자체로 인간이지는 않고 인간 그 자체와 구분될 수 있으며 인간 자체와는 다른 무엇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를 두고 그가 인간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여기에서 to mē on the human 은 to on different from the human 과 의미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to mē on 은 다른 것 그 자체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의 일부분이다. 단순히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to on(being) something 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때 to on 은 후술되는 성질을 지니는 어떤 것이라 말할 수 있다. to mē on 은 what is F, G, etc. F 따위의 성질을 지니는 것에 대해, 바로 그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존재한다는 측면에서의 다름, 그 해당 성질을 지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그(플라톤)는 만일 X 와 Y 가 동일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X is not Y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X 와 Y 의 동일성을 부정하고

[17] 밑줄은 필자가 임의로 추가한 것이다.

있는 것이 아니라, not being 을 X 에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함에 틀림없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는 small thing 에 대해 it is not big 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똑같은 not being 을 그것에 부여하는 것이라 간주함에 틀림없다. 즉 그것에 대해 it is not, 다시 말해 it is not big 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1992, 408 쪽)"

"x is not y" 라는 말로써 의미하는 바는 x 와 y 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문장에서 관심사는 x 에게 to mē on y 가 부여된다는 것, x 에 대해 y 가 하나의 to mē on 이라는 것이다. "x is not big" 역시 마찬가지이다. to mē on big 이 주어 x 에 부여되고, the big 은 X 에 대해 to mē on 인 것으로 간주된다. 두 경우 모두 x 는 is not 이하의 것에 대해 그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not big 예문에서 무엇이 big 이 아니라는 것 대해 내용에 추가적인 한정이 가해진다. 단지 x 가 그 자체로 본성상 y 이지 않은 것이라는 설명만으로는 not big 이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된 것이 아니다. Big-ness 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not big 일 수 있지만 작은 조각상, 같은 크기의 그림자 따위에 대해 그런 것들이 크지 않다고 말할 때, 단지 큰 것이 아니기만 한 데에 그치지 않고 크다는 성질을 지니지 않고 있다는 점, 크다는 성질을 지녀 큰 것이라 불리는 그런 것들과 다르다는 의미가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x is not y" 형식의 문장들을 비동일성만을 의미하는 문장으로 보는 한, not big 예문까지 일관되게 연속적으로 to mē on 에 대한 단일한 논의라 간주할 길은 막혀 버린다. 더욱이 not big 예문을 통해 확인되는 to mē on 이 지닌 부정서술의 의미는 일종의 비약 없이는 유들의 결합에서 비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된 to mē on 과 연결될 수 없다. "플라톤은 x 가, 형상 Y 와 이 형상에 참여하는 Y 로 간주되는 모든 것인, Y 와 다르다면 X 를 be not Y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 is not ..." 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1992, 411-412 쪽)" 형상 y 가 being y 인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x 가 being x 일 때, x is1 not y 이다. x 가 이 형상 y 에 참여하는 어떤 것, 그리하여 y 라는 성질을 지니기에 y 라 불리는 어떤 것과 다를 경우, x is2 not y 이다. 단순히 다르다는 의미에서 to on something 의 방식이 다르다는 데에로, 다시 여기에서 본성상 그 자체로 to on something 의 방식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특정 성질을 지니는지 여부에 따라 to on

something 의 방식에 차이가 난다는 의미로 to mē on 이 구체화되었고, 마지막 단계에서 부정서술이 드러난다는 프레데의 해석은 to mē on 에 대한 일관된 독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명한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이 해석이 비동일성과는 구분되는 부정서술 일반을 확보해낸다는 바로 그 점이다. 대화편에서 여기까지의 논의는 곧장 말에 대한 분석, 그리고 거짓말에 대한 분석과 정의로 이어진다. 앞서 전통적 해석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았듯, 이후의 논의는 부정서술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춘 논증으로 재구성하는 일이 불가능에 가깝다.

서로 마주 놓인 다른 것의 본성의 부분과 to on 의 부분의 대비는 to on 자체 못지않게 to on 이고(258a11-b1), 그렇게 다름의 부분으로 이야기되는 to mē on 은 확실하게 자신의 본성을 지닌 것이며(258b11), 손님과 테아이테토스는 바로 그 to mē on 의 형상을 밝혀냈다(258d5-6). 말하자면 부정적 성질을 술어로 가지는 형상이 제시된 것이다. 큰 것이 크고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듯, 크지 않은 것이 크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름답지 않으며, 그렇게 to mē on 도 같은 식으로 to mē on 이고 수 많은 형상들 중 하나의 형상이다(258b11-c4). Not big 은 big-ness 와 big 에 참여하여 big 이라 불리는 것 모두를 포함한 the big 에 대비되는 것들이다. 이것은 difference 의 부분 중 to on big 에 대비된 것이며, difference 도 to on big 도 모두 to on 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992, 409 쪽에서 프레데는 not beautiful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고, to mē on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Not being 은 being 만큼 실재하고 따라서 그 고유한 본성이 있다(같은 곳)."

3. 거짓말의 정의

프레데는 is 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한다. 첫 번째 용법은 어떤 것을 그 자체에 관련하여 서술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용법은 여타의 것들에 관련하여 서술하는 것이다. 이 구분을 통해 그는 어떤 것을 자신 이외의 여러 다른 이름들로도 말할 수 있는 방식을 설명한다. 운동하는 것은 운동하는 것으로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being 이라고도, (자기 자신과) 같은 것이라고도,

(정지해 있는 것 따위와) 다른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 자체에 관련해서 운동하는 것은 운동하는 것이고 to on 이라고는 할 수 없다. 반면 운동하는 것 이외의 것인 to on 에 관련하여, 이 to on 에 참여한 것으로서 운동하는 것이 to on 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로부터, 운동하는 것은 to on 이자 to on 이 아니라고(K-inesis is/is not being) 말하면서, is1 not being 과 is2 being 으로 is 의 용법을 구분하여 이 두 문장이 동시에 양립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러한 유들의 결합에서 확인되는 x is not y 형식의 문장은 to on 과 다른 것, to on something 과 다른 것을 to mē on 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어지는 not big 예시로 설명되는 to mē on 은 단순히 다른 것만이 아니라, not 뒤에 오는 성질을 지니지 못한다는 점까지 서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로 다른 듯이 보이는 이 to mē on 들은 to on 의 의미가 동일하지만 그 용법은 구분된다는 프레데의 해석을 통해 단일한 to mē on 으로 이해된다. Is 의 용법 구분에 따라 to mē on 역시 두 경우로 구분된다. 그리고 플라톤에게 to on 은 항상 to on something 이고 to mē on 역시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무엇인 것이 아닌 것이다. to mē on1 something 은 to on 과 to on 이외의 유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유들 사이에서 확인된 to mē on 이다. 다른 한편 not big 예시는 to mē on2 something 을 보여주고 있다. 운동하는 것(K)이 정지해 있는 것(S-tasis)이 아니라는 말은 K 는 본성상 그 자체로 S 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small, equal 등으로 대체 가능한 not big 은 이를 술어로 가지는 주어가 그 자체로 big-ness 이지 않다는 데에서 더 나아가, 작거나 같은 크기라는 점에서 크다는 성질을 지니지 못하였다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not big 과 같은 not F 형식의 표현에서 F 는 F-ness 형상을 포함하여 이 형상에 참여해 F 라 불리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이 점에서 not F 는 to mē on1 F 와 to mē on2 F 를 의미에 있어서 구분하지 않는 표현이고, to on 의 구분은 주어와 술어의 관계를 고려할 때에 용법상으로만 이루어진다.

to mē on F 의 의미는 F 가 to on 인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to on something 이라는 것으로 단일하고, to mē on 은 단일한 형상으로서 고유한 본성을 지닌다. to on F 는 특정한 방식으로 F 인 것이고, to mē on F 는 저 F 가 to on 인 방식에 대해 그 방식과 달리 to on something 이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difference 와 다르다. 모든 것은 각기 자기 자신과만 동일하고 자신 이외의 모든 것과 다르다. to mē on 은 이러한 무조건적인 다름이 아니라 to on 의 측면에 국한한 다름을 말하는 것이고, the difference 의 부분들 중 to on 의 부분에 마주세워진 부분이다. 단적인 다름과 구분되는 to mē on, not big 예시를 통해 함의되는 부정서술을 포함하는 to mē on 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to on (something)이 아닌 것일 뿐이고 그 특정 to on 에 대비되는 또 다른 어떤(something else) to on 이다. 그래서 to mēdamōs on(nothing at all)이란 것은 없다.

To on 그 자체가 아닌 것, x is not y 에서 x 의 to mē on y, y 의 x 에 관한 to mē on 임, not F 형식으로 표현되는 to mē on 은 특정 방식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에 대해 바로 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단일한 의미를 유지한다. 이 안에서 특정 성질F가 아니라는 것과 특정 성질 F 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이 to mē on F(F 인 것이 아니다)로 같기 때문에, 고유한 본성을 지닌 단일한 형상 to mē on 이 비동일성과 구분되는 부정서술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부정서술 to mē on 은 기존 학자들이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읽어내는 비동일성 to mē on 은 해내지 못하는 작업을 해낼 수 있다. 그 자체의 의미를 단일하게 유지하면서 거짓말의 분석과 정의를 성취해내는 데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거짓말의 분석과 정의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문제의 해결에 프레데가 해석해낸 to mē on 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특히 기존 해석들이 공통적으로 부딪치는 한계와 관련하여 프레데의 to mē on 을 통해 그 문제가 어떻게 이해되고 또한 해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이 부분의 검토는 동시에 『소피스트』에 대한 프레데의 해석이 어느 정도의 일관성, 내적 정합성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평가가 되기도 할 것이다.

1) Logos 분석과 진리치의 자리

프레데의 해석에 비추어 보자면 늦게 배우는 자들의 문제나 신족과 거인족 혹은 형상의 친구들과 오직 움직이는 것들만을 인정하는 자들 각자가 당착하게

되는 역설들은 모두 1) is 의 용법이 두 가지로 구분되며 이를 통해 어떤 하나가 여러 다른 것들과 함께 엮일 수 있다는 점을 몰랐기에, 2) to mē on 이 to on 의 완전한 반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성질을 결여하여 not 이하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임을 몰랐기에 발생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말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말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이들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측면도 있다(1992, 400 쪽 참조).

프레데는 또 다른 대화편 『에우튀데모스』에서 제기되는 거짓 진술의 불가능성에 대한 논증을 언급한다. 거짓 진술은 그 진술이 말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런데 진술이란 무언가를 말하는 것인 반면, 거짓 진술은 something that is not 을 말하는 것이다. Something 을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 진술이 아니고, something that is not 을 말한다면 그런 것은 말할 수 없기에 아예 진술조차 아니다. 따라서 거짓 진술은 불가능하다(1992, 412 쪽 참조). 그리고 다시 상호 모순되는 진술이 불가능하다는 안티스테네스의 입장을 소개한다. 이에 따르면 모든 것은 각기 고유한 진술(logos)을 지닌다. 한 대상에 대한 진술 a 가 있고, 이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 b 가 있다고 하자. 만일 둘 중 한 진술이 문제가 되는 대상에 대한 진술이라면, 모든 대상은 각기 고유한 진술과 대응하므로, 다른 한 진술은 지금 문제가 되는 같은 대상에 대한 것이 아닐 것이다. 이 경우 남은 진술은 전혀 다른 대상에 대응하는 진술이거나, 아니면 대상을 갖지 못하기에 아예 진술조차 못 되는 것일 터이다(414 쪽). 이 역시 한쪽 진술이 참이라면, 남은 진술은 전혀 다른 대상을 말하는 참인 진술이거나, 아니면 진술이 아닐 것이다. 이는 반박 불가능성 논증으로 이어진다. 한 사람 A 가 다른 사람 B 를 반박하여 말한다는 것은 같은 대상을 두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같은 대상을 말하고 있다면 그들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대상마다 각각의 진술은 고유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남은 가능성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해 각기 서로 무관한 참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거나, 한 사람은 무언가에 대해 말하고 있는 반면 다른 쪽은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같은 것을 두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즉 한 쪽은 참인 말을 하고 다른 쪽은 거짓인 말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 대상을 두고 한 사람이 참을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거짓말을 논박하는 일도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대상에 대해 하나의 참인 말이 있을 때, 바로 이 동일한 대상에 대해 거짓인 말은 있을 수 없다. 대상 A 에 대한 참말은 이 A 에 고유한 진술이고, 그 외의 진술은 A 에 대한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바로 그것으로만 말해야 하고 그 외의 다른 것들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늦게 배우는 자들의 입장은 저 '모든 것이 각기 고유한 진술을 지닌다'는 입장을 연상시킨다. Being 은 멈추어 있는 것이기만 해야 하고 그 멈추어 있는 것이 또한 움직이는 것이기도 할 수는 없다거나, 혹은 그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자들, 그리고 이 두 입장 모두를 거부할 수도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 없는 난관에 부딪친 손님과 테아이테토스의 상황 역시 각 대상은 그에 대응하는 각각의 고유한 진술을 지닌다는 전제에 따라 상호에 모순이나 반박하는 진술이 불가능하다는 위의 입장으로 묘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 불가능성, 반박 불가능성은 참인 진술과 모순되고 참인 진술에 의해 반박될 그러한 거짓 진술 같은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짓 불가능성의 역설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18] 프레데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으로 진술(logos)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시도된다고 본다.

---

[18] 1992, 416-7 에서 프레데는 추가적인 반박이 가능함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재반박을 제시한다. 설령 각각의 사물을 명명하고 이에 대해 여러 다른 동사들을 결합시켜 다양한 진술들이 가능하더라도, 여전히 진술들 사이의 모순이 불가능하다거나 거짓 진술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건강하다"와 "소크라테스는 아프다"라는 두 진술의 경우, 전자는 '건강한 소크라테스'에 대한 진술이고 후자는 '아픈 소크라테스'에 대한 진술이기에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한 진술이며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두 진술이 상호 모순되거나 한쪽이 거짓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레데가 보기에, 『소피스트』에서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다"와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다"가 둘 다 테아이테토스에 대한, 그에게 속하는 진술로 간주되고 있고, 이름을 통해 지시되는 주어와 동사를 통해 지시되는 행위 등의 것을 구분하는 지금의 손님 입장을 이해한다면 위와 같은 반박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극단적인 상대주의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관찰자와 관찰대상 각각에 대해 특정시점 t 에 특정공간 s 에서 특정 성질들 F, G, H 따위를 예화하는 무수한 S1, S2 등등과 x1, x2 등등을 구분할 경우가 고려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거짓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가능하겠으나, 이는 결국 거짓이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어떤 상황에서 가능하다는 주장과 반박관계도, 모순관계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To mē on 이 아무것도 전혀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단계에서, 거짓말이 to mē on 을 말하더라도 이 점으로 인해 거짓말이 불가능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이미 밝혀졌다. 그러나 여전히 어떻게 한 대상에 대해 참으로 그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말하는 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 문제의 해법은 진술이 최소한 두 부분, 이름(onoma)과 동사(rhēma)를 지닌다는 분석을 통해 제시된다(262d 이하). 단지 이름만 나열하여 "사자 사슴 말"이라고 하거나 동사만 열거하여 "걷는다 달린다 눕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이 말이 되진 않는다(262b5-c7 참조). 진술은 단지 무언가를 명명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명된 것을 주어로 삼아 바로 이 주어에 대해 어떤 것들을 이어서 말하는 것이다. 이름이 진술에서 주어를 명명하여 상정하고, 동사는 바로 이 주어에 대해 이어서 무언가 말한다. 모든 진술은 진술이기 위해 최소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 혹은 아예 없는 것을 언급하거나 지시할 수는 없으므로 애초에 진술이기 위해 to on something 을 주어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다. 이 부분에서 거짓말이 불가능하다는 역설에 대해 반박이 이루어진다. 몇몇 입장에 따라 거짓말이 nothing 을 말하는 것이라거나, 대상마다 고유한 단 하나의 진술만이 할당되어 있다거나 한다는 주장은 진술이 주부와 술부의 결합으로 성립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각기 그에 대해 여러 to on 들과 to mē on 들을 지닌다는 점을 앞서 확인하였으므로, 같은 대상을 두고 서로 다른 말을 하거나, 그러한 말들을 가지고 서로 반박을 한다거나, 이 말들 중 어떤 것들은 참이고 또 다른 것들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한 주어에 대해 참인 술어가 또 다른 주어에 대해 거짓일 수 있으며, 특정 주어에 대해 거짓인 술어가 그 외의 주어에 대해 참일 수도 있다. 진술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은 참말과 거짓말의 구분, 거짓말이 무엇이냐는 논의의 쟁점이 진술에서도 특히 주어가 아니라 술어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진리치는 진술의 성질일 뿐(262e9 poion) 진술 성립의 조건이 아니다.

2) 거짓말의 정의와 두 가지 보편양화

이름과 진술의 결합이 진술의 최소 조건이라는 분석은 거짓말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263b3-4) 보여주었다. 또한 진술의 진리치가 진술이 주어로 삼는 것과 진술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름을 통해 명명되어 특정된 주어에 관련하여, 이 주어에 대해 동사가 서술하는 내용에 관련된 문제임이 밝혀졌다. 이제 구체적으로 진술의 참은 무엇이고 또 진술의 거짓은 무엇인지 해명되어야 한다. 거짓말이 무엇이고 참말이 무엇인지 정의되어야, 비로소 거짓말을 지어내 거짓 믿음을 심어주는 자로서 소피스트가 무엇인지를 정의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손님은 테아이테토스를 주어로 삼아 참인 진술과 거짓 진술의 예를 든다. 참인 진술은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다(Theaitētos kathētai. 263a2)." 이다. 거짓 진술은 "테아이테토스, 지금 내가 대화하고 있는 자는, 날고 있다.(Theaitētos, hōi nūn egō dialegomai, petetai. 263a9)" 라는 문장이다. 이어서 그는 이 두 문장 중 참인 진술에 대해 설명한다.

> "그것들 중 참인 쪽은 자네에 대해(peri soū) ta onta 를 hōs estin(that they are)라고 말한다네. (263b4-5)"

1992, 417-8 쪽에서, 프레데는 이 설명이 참인 진술 일반을 정식화하려는 맥락에서 언급된 것이라면 ta onta 는 긍정과 부정 모두를 포괄하는 술어들로 이해해야 하리라 주장한다. 그리고 이어서 hōs 는 that, ta onta 와 estin 은 peri soū 가 한정수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경우 ta onta 는 단순히 긍정적인 진술들만이 아니라 부정 진술에 해당하는 not F 형태도 포함해야 한다. to mē on 역시 to on 못지않게 to on 이므로,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to on 에도 to mē on 과 to on 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프레데는 여기에서 복수표현에 관련한 문제를 지적한다.

참인 진술 일반에 대하여 그 진술들은 those things that are 에 대해 that they are 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와 같이 개별 진술에 대해 논하는 경우, 엄밀히 말해서 그 진술은 단지 things that are 중 하나에 대해 that it is 라고

말할 뿐이고, 플라톤이 취급하듯 things that are 에 대해 that they are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1992, 420 쪽)

그러나 이어서 그는 특정된 주어에 관련하여 things that are 전체 집합을 가리키지 않고서는 참인 진술에 대해 일반적 정의를 적절한 방식으로 제시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이는 거짓 진술을 정의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는, "... is not ..."의 용법을 제대로 규정하기 위해서도 보편양화사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부합하기도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420 쪽 참조).

그러나 여전히 문헌 내에서 보편양화사로 환원시킬 만한 직접적인 표현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프레데가 not F 표현을 해석하는 방식이 간접적으로 보편양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맥락을 마련해줄 수 있다. Not big 이 big-ness 와 이 형상에 참여하는 것을 모두 아울러 whatever is big 과의 다름을 의미하였다면, 같은 방식으로 특정 주어에 관하여 whatever is 인 것과 다른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프레데는 반복적으로 "Whatever is with reference to Theaetetus(419, 421 쪽)," "whatever is with reference to this subject(421 쪽)"라는 표현을 언급하고, 이를 통해 거짓을 설명하고자 한다. 『소피스트』에서 진술은 주어를 특정한 후 바로 이 주어에 관하여 계속하여 무언가를 서술하는 것으로서 비로소 진술이 되고 이것이 진술의 성립을 위한 최소조건으로 이야기된다. 제시된 주어에 관하여 what is 인 것은 무조건적인 to on 이 아니라 이 주어가 참여하는 것들로 한정될 것이다. to on 은 항상 to on something 이며, 이 something 은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것에 참여함으로써 이야기되는 to on 이다. 따라서 to on 은 서술되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가리키지 않고 to on 뒤에 오는 특정한 어떤 이름을 가리킨다. 다만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전체를 빠짐없이 가리키는 것이다. to on big 은 big-ness 와 이에 참여하여 big 이라 불리는 것 양쪽 모두를 가리키며, to mē on big 은 이 to on big 에 의해 지시되는 일단의 부류 전체에 대비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big 과 not big 은 프레데에 의해 whatever is big 과 something that is different from whatever is big 으로 설명된다. 이제 "big"의 자리에 "with reference to the given subject"를 가져와 보자. Whatever is with reference to the given subject 가 지시하는 일련의 것들이 한정될 것이다. "Being with reference to the given subject"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being something 과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지금 주어진 이 주어에 관하여 "Being with reference to the given subject"는 그에 관한 to on 이고 그에 관하여 서술될 때 참인 진술을 형성하는 것이다. 반면 이와 대비된 "to mē on whatever is with reference to the given subject"라는 것은 바로 이 주어에 관하여 서술될 때 참인 진술 '모두'와 다른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to mē on something 을 통해 거짓말에 관련한 세 번째 해석 쟁점은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된다. 우선 거짓 문장에 대한 플라톤의 설명을 검토해 보자.

> "그래서 거짓인 쪽은 ta onta 와 다른 것들을 (말하지.) (263b7)"
> "그래서 그것은 ta mē onat 를 that (they are) onta 라고 말하네. (263b9)"
> "그런데 ta onta 이긴 하지만 자네에 관한 다른 것들을 ta onta 라고 (말하지).[19] (263b11)"

이제 거짓말은 주어진 주어에 대하여, 그 주어에 관한 whatever is 와 다른 것을 바로 그 주어에 대한 what is 로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주어에 관한 to mē on 을 그 주어에 관한 to on 이라 말하는 것이다. 모든 것 각각에 대해 그러하듯,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to on 은 많고 to mē on 은 무수히 많다(256e6-7 참조). 이 수많은 to on 과 to mē on 은 모두 "what is with reference to Theaetetus"이다. 테아이테토스에 관하여, 그에 한정하여 to on 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고, 그 안에 긍정서술도 부정서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to on 을 그에 관해 to on 이라 말하는 것은 참이다. 반면,

---

[19] 사본 βTW 는 ὄντως. 이에 따르면 번역은 "(not beings 를) 너에 대해 정말로 beings 인 다른 것들이라고 말한다." 정도가 될 것이다. Cornarius 가 이를 ὄντων으로 고칠 것을 제안하고, 프레데는 이를 수용하며, 나아가 <τῶν ὄντων>을 추가하는 편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주장한다(1992, 421 쪽). OCT 신판(1995) 역시 Cornarius 의 제안을 따르며, Apparatus 에서 Robinson 의 이름으로 ἕτερα 뒤에 <τῶν ὄντων>이 추가될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로빈슨의 보충을 참고하여 프레데의 주장에 따라 번역할 경우, "beings 이기는 하지만(Genitive Absolute) 너에 대한 beings 와 다른 것들을 beings 라고 말한다."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to on'과 다른 것, 이러한 to on 이 아닌 것을 바로 이 테아이테토스에 관하여 to on 으로 말하는 경우 그것은 거짓이다.

앞서 보았듯 거짓말의 정의와 관련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크게 보아 두 가지이다. 첫째로, 거짓말은 주어와 다른 무언가를 서술하는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테아이테토스와 앉아 있음이 서로 다를 때, 유들의 결합 논의에 따르자면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는 것이)지 않다"라는 말은 참이 된다. 그러나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는 것이)다"가 참인 한에서, 위 문장은 거짓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테아이테토스와 날고 있음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는 것이)다."는 거짓이다. 그러나 이 문장이 유들의 결합 논의에 비추어 거짓이라면,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는 것이)지 않다"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참이라 이야기되어야 한다.

이는 프레데의 is 구분을 통해 보자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Not sitting 은 "앉아 있는 것"이라 불리는 모든 것에 대해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to on 임을 말한다. 테아이테토스는 본성상 그 자체에 관하여서 앉아 있는 것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관련하여서도, 참여 관계를 통해 앉아 있는 것으로 불리는 것들과도 다르다. 프레데가 해석하는 to mē on 에는 형상적 측면에서 앉아 있는 것이지 않다는 것과 참여를 통해 앉아 있는 것으로 불리지 않는다는 것이 모두 포함되어 이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테아이테토스 is2 sitting"이 참이라면 "테아이테토스 is not being sitting"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테아이테토스 is2 being flying"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설명이다. 테아이테토스는 not being flying 에 참여하고, 이는 테아이테토스가 날고 있다고 불리는 것 일체와 다르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다"는 거짓이다.[20]

---

[20] Crivelli(2012, 238-9 쪽)는 주석 58 에서 프레데가 "날고 있음"을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모든 to on 과 다른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옥스포드 해석에 포함된다고 적고 있다. 반면 자신의 입장으로 테아이테토스가 날고 있는 모든 것과 다르다는 해석을 제시한다. 그러나 프레데의 to mē on 이해와 거짓말 논의에서 진술 일반이 문제시된다는 언급을 고려하면 크리벨리의 입장 역시 프레데의 해석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to mē on something 의 의미는 "something"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의 다름으로 이해되며,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진술 일반이 문제시될 경우 이 진술에는 부정문이 포함될 것이다. 이 부정문은 테아이테토스가 참여하는 부정적

거짓말과 to mē on 에 관련된 두 번째 문제는 같은 주어에 관하여 서로 다른 술어들 사이의 그 다름으로 거짓이 잘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테아이테토스에 관하여 앉아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일 때, 날고 있는 것이라고 그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참인 것과 다른 것을 말하므로 거짓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 놓고 보자면 그에 관하여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람이 앉아 있는 것과 같지 않고 다르기에 이 역시 거짓말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whatever is with reference to Theaetetus”라는 이름으로 앉아 있는 것, 사람인 것, 그리스인인 것에 더하여 날고 있지 않은 것, 멧돼지이지 않은 것, 테아이테토스에 관하여 서술될 때 참인 진술을 만드는 것들 모두가 지칭된다. 이 안에 속하는 to on 들 사이의 서로 다름은 그것들 사이에서 to mē on 으로 이야기될 수 있지만, 이는 거짓말이 참인 말에 대비되어 말하는 것으로서의 to mē on 과 다르다. 날고 있음은 to mē on whatever is with reference to Theaetetus 이며, 사람이지 않음, 남자이지 않음 등등도 마찬가지로 to mē on whatever is with reference to Theaetetus 를 통해 지칭되는 모든 것들에 포함될 것이다.

진술이 주어에 한정하여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라는 분석에 더하여 not F 가 whatever is F 와의 다름을 의미한다는 해석을 통해 프레데는 거짓말과 관련하여 두 가지 보편양화를 도입하는 것이다. 테아이테토스는 단지 날고 있는 것 그 자체와 다를 뿐만 아니라 "날고 있는 것"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다르고, 그래서 테아이테토스가 날고 있는 것이 거짓이다. 마찬가지로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는 것 그 자체와 다르지만, 앉아 있는 모든 것과 다르지 않고 단지 본성상으로만 그러한 것과 다르기에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는 것이)지 않다"는 거짓이다. 여기에서 보편양화는 테아이테토스에 관하여 서술될 때 거짓 진술을 만드는 것에 대해 부여되며, 이는 보편양화를 직접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의미를 지닌 to on 이 "auta kath’ hauta," "pros alla"라는 "두 형상

형상을 통해 도출될 것이고, 여기에는 not flying 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는 “날고 있음” 그 자체가 아니기도 하고 날고 있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not flying 은 크리벨리의 해석과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 점에서 프레데는 옥스포드 해석과 구분되어야 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모두에 참여한다"라는 대화편의 언급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유도된 것이다. 다른 한편 "날고 있는 것"은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것"과 본성상 다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참여 관계를 통해 그렇게 불리는 것 모두와도 다른 것이다. 반면 "앉아 있는 것," "사람인 것" 등은 적어도 is2 방식으로는 마찬가지로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것"이다. 이 경우에 보편양화는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것"에 함의되고, 이는 직접 제시되지 않는 보편양화사를 임의로 추가하여 해석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 Heteron 과 to mē on 의 구분

To mē on 에 대한 해석에 더하여 logos 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거짓말이 가능함은 물론 거짓말의 정의가 무엇인지까지 해명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피스트』 264 이후로는, 처음 to mē on 이 문제로 대두되었던 모상제작술의 분할로 되돌아가 그대로 진행하여 소피스트에 대한 규정에 이를 때까지 to mē on 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은 없다. 그러나 263b11-12 의 언급은 이 대화편에 대한 일관된 해석을 시도하는 이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문제를 던져주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는 언급을 다시 살펴보자

> "손님: 왜냐하면 우리는 각각에 관한 things that are 가 많고, things that are not 이 많다고 어디선가 말했으니 말일세."

여기에서 동사는 과거시제로 사용되었고 '어디선가(pou)'란 256e 또는 259b 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프레데가 지적하듯 x 와 y 가 다를 경우 x is not y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맥락이었다(1992, 422 쪽). 프레데는 멕도웰과 보스톡을 예로 들어, 해당 부분에서 to mē on 의 의미를 비동일성으로 이해하는 입장은 위의 인용문을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1992, 422 쪽.) 그러나 프레데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재언급을 이해할 수 있다. to mē on 의 예시로 not big 이 제시되었고, 이 not big 이란 표현을 분석함으로써 to mē on 이 비동일성 문장과 구분되는 일상적 부정서술의

의미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Not big 을 사례로 갖고 또한 단일한 형상으로서 고유한 본성을 지니고 그에 상응하는 술어를 갖는 그러한 to mē on 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부정서술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Not big 에 대한 논의는 이 점을 구체화시키면서 difference 와 그 일부인 to mē on 의 차이를 밝혀주는 대목이고, 그 이전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도 이미 to mē on 은 비동일성의 의미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자면 거짓말의 분석과 정의를 논하는 과정에서 유들의 결합 논의를 통해 설명된 to mē on 을 다시 불러내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는 서로 다른 종류의 to mē on 들을 혼동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의 분석과 정의에 실패한 것도 아니며, 허상과 거짓과 소피스트의 기술을 일관되게 설명해낼 수 있는 한 가지 사유방식을 성공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프레데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지점은 우선 is 의 용법은 구분되지만 의미는 단일하다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되는가 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x 와 y 에 대해, x 가 y 에 참여한다면 x is2 y 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문장은 참이다. 그러나 x is1 y 는 거짓이고 x is1 not y 가 참이다. Is1 과 is2 의 의미가 단일하고 y 가 y-ness 와 y 에 참여한 것 일반을 모두 포함하여 y 라고 불리는 것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역시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면, is1 y 와 is2 y 가 같은 주어에 대해 서로 다른 진리치를 가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The same is the same, the different is the different 는 두 문장 모두 is1 으로도 is2 로도 이해될 수 있다. 프레데는 이러한 구분이 용법상의 구분일 뿐이라 말하지만, 주어가 특정 성질이라는 서술과 그러한 성질을 지닌다는 서술에는 여전히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본질에 대한 서술이나 정의의 기술, 그리고 자기술어화와 관련한 여러 논쟁들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다음으로 문헌을 통한 지지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첫 번째는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to mē on 이 이미 부정서술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프레데는 다른 여러 구절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당 부분이 부정서술을 논하고 있다는 주장을 정당화하고자 하지만, 직관적으로 x 와 y 가 다를 경우 x is not y 라고 말한다는 것을 주어와 보어 사이의 비동일성에 대한 논의 이외의 다른 논의로 본다는 것은 어색하게 느껴진다. to mē on 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해당 부분을 비동일성 논의로

간주할 여지가 있다면, 굳이 프레데의 과격한 해석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는 반론이 가능할 것이다.

문헌에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보편양화사의 도입이다. 해석의 방향은 차치하더라도 문헌에 보편양화사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일관되게 보편양화사만이 보충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존재양화사가 요청되는 경우도 있다. 양화사의 도입 없이 거짓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해당 부분을 해석할 수 있다면 이 편이 비교적 온건하게 문헌에 밀착된 해석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프레데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전통적 해석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극복을 시도하면서도, 위에서 언급한 프레데 해석의 난점들을 피해가는 또 다른 입장으로서 브라운의 해석을 소개하고자 한다. 브라운의 해석이 프레데의 해석에 비하여 전통 해석의 한계를 충분히 극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프레데에 대한 비판이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하게 될 것이다. 브라운의 해석이 『소피스트』 해석사에서 논의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에 실마리를 주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다시금 전통적인 문제들로 회귀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건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해석이 그 이끄는 방향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설득력을 보여주는지 여부일 것이다.

IV. 온건한 비동일성 해석. Brown 의 입장

브라운은 프레데와 마찬가지로 소위 '전통적 해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입장들이 공통적으로 be 동사의 의미구분을 통해 『소피스트』의 문제와 해법에 접근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진단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비동일성 to mē on 만으로는 부정서술을 필요로 하는 거짓말의 분석과 정의에 적절한 설명을 제시할 수 없음에도 동의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브라운은 크게 세 가지 새로운 해석을 제안한다.

우선 be 동사에 대해 기존 해석들이 취하는 엄격한 구문론적, 의미론적 구분으로부터 상호 연속적이고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구분으로의 이행을 제안한다. 이는 be 동사로 번역되는 고전 그리스어 eīnai 를 teaching 과 teaching Franch 의 구분에 유비하여 이해하자는 제안이다. 이러한 유비를 통해 불가능한 to mē on 의 의미가 비존재인지 혹은 무규정성인지와 관련한 해석 쟁점에서 양쪽 입장 모두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to on 의 완전 용법과 불완전 용법 사이에 전통적 해석이 두는 엄격한 구분을 약화시키고 둘 사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브라운의 주장이다.

다음으로 동일성 기호 is 와 일상적 계사 is 사이의 구분 문제를 피하기 위해, 유들의 결합 논의가 is 의 의미구분이 아닌 보어 혹은 이를 포함한 문장 유형의 구분에 대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안된다. 서로 다른 X 와 Y 에 대해 X is/is not Y 는 Y 가 실체를 가리키는 추상명사인지 아니면 서술에 사용되는 형용사인지에 따라 구분된다는 것이다. 계사로서 is 의 역할과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오는지 아니면 형용사가 오는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 동일성을 문제 삼는 문장으로, 후자의 경우 주어에 대한 서술을 문제 삼는 문장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해석은 유들의 결합 논의를 불완전 용법 to on 자체의 의미를 구분하는 맥락에서 벗어나 to on 을 단일하게 이해하고 있는 플라톤의 입장에 더욱 가까운 해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해석은 해석의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to on 이 그 자체 하나로 구분되면서도 여타의 다양한 이름들로 이야기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 설명해주며, to on 에 관련한 문제들과 늦게 배우는 자들의 역설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으로서의 혼동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혀줄 수 있다.

끝으로 to mē on 에서 거짓말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의미를 이끌어내기 위해 양립불가능한 속성들의 영역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Not big 예시는 not big 의 의미를 small 과 equal 로 설명하며, big, small, equal 등은 모두 함께 크기나 규모를 묘사하는 성질들의 영역에 속해 있다. 이 영역에서 특정한 한 성질은 여타의 성질들과 양립 불가능하다. 크면서 작을 수도, 작으면서 같을 수도 없다. 이러한 영역에서 특정한 한 성질을 지니는 주어는 이와 동시에 해당 영역의 '다른' 양립 불가능한 성질들을 지닐 수 없다. 테아이테토스가 날고 있다는 문장이 거짓인 이유는, 날고 있다는 성질이 말하자면 운동에 속하는 양립 불가능한 성질들의 영역에 속한 것임과 동시에, 바로 이 영역에 속하는 앉아 있다는 성질을 지금 여기의 테아이테토스가 실제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테아이테토스의 대화하고 있다는 성질은 침묵하고 있다는 성질과는 양립 불가능하지만,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앉아 있다는 성질과는 양립 가능하다. 한 성질이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다른' 성질들과 양립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to mē on 은 일관되게 다르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각 성질이 속한 영역이 구분되기에 참인 술어들 사이의 차이는 참인 진술과 거짓 진술 사이의 차이와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유들의 결합 논의를 to on 이나 to mē on 의 의미 구분이 아닌 다른 목표를 가진 논의로 간주하는 앞서의 해석과 더불어, 거짓말 분석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재언급 문제를 비교적 온건한 방식으로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거짓말 정의에 활용되는 to mē on 의 의미는 not big 예시를 통해 밝혀진 not 의 의미인 양립 불가능한 속성들의 영역 내에서의 '다름'을 통해 확보되고, 재언급이 유들의 결합 논의를 가리키는 이유는 이와 별개로 to mē on 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to mē on 의 두 의미가 엄격하게 구분되고 거짓말에 필요한 to mē on 의 의미는 not big 분석에서만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재언급은 이와 동떨어진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의 to mē on 을 가리킨다는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상의 제안들은 완전용법 존재사 to on 을 독립시키는 구분에 반대하고, 긍정문에서 계사 to on 과 부정문에서 비동일성 to mē on 을 구분하여 밝히는 일이 유들의 결합에서 논의의 쟁점이 아니라고 간주하며, 거짓말 설명에 필요한

to mē on 은 다른 것(heteron)과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의 일부분이라 주장하는 프레데의 해석과 각각의 쟁점에서 결론을 공유하는 듯이 보인다. 프레데와 브라운 두 사람의 전통적 해석에 대한 공통된 비판이 함의하는 바, 『소피스트』 해석의 중심 문제가 재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시사된다. 이 장에서는 전통적 입장의 공통된 한계를 야기하는 그 공유되고 있는 전제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프레데와 브라운의 극복 방식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면서, 기존 해석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가 어떤 점에서 『소피스트』 해석에 부적절한 것이었는지를 간략히 지적할 것이다. 전통적 해석과 이에 대해 반발하는 브라운과 프레데의 입장의 대비는 이러한 문제를 드러냄과 동시에 『소피스트』 해석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할 하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프레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장에서는 브라운의 주요 주장들을 소개하고 이러한 해석이 전통적 해석의 한계를 유효하게 극복하고 있는지 평가하면서, 이와 동시에 프레데의 입장과 구분되는 주요한 차이점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Esti 완전 용법과 불완전 용법의 연속성(Brown, 1986)

1986, 49-50 쪽에서 브라운은 『소피스트』의 해석에 있어서 그 안에서 플라톤이 eīnai, to be 동사의 상이한 용례들을 구분하고 있는지 여부가 기존 해석사의 쟁점이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 문제 내에서 'to be'의 완전 용법과 불완전 용법의 구분 문제를 다룰 것이라 말하고, 통상 완전 용법은 'exists' 를 의미하는 'is'에, 불완전 용법은 서술의 'is', 계사 'is'에 결부되어 왔음을 언급한다.

앞서 전통적 해석의 갈래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언급하였듯, 브라운은 이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다시 크게 셋으로 구분한다.[21]

[21] Brown 1986, 49−50 쪽.

(1) to be 의 완전 용법과 불완전 용법 사이의 구분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있고, 이 구분이 대화편 내에서 제기되는 철학적 문제들의 해결에 필요하다.

(2) to be 의 구분이 중요한 지점에서 완전 용법과 불완전 용법 양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구분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지만, 이 대화편이 그 언급을 결여하고 있다.

(3) 이 대화편이 해당 구분에 대한 언급을 결여하고 있지만, 그러한 구분은 이 대화편의 철학적 문제들과는 맞지 않으므로 이러한 결여가 문제되지 않는다.

각 입장을 대표하는 학자들과 그들 각자의 논증은 앞서 검토한 바 있다. 세 입장 모두 존재를 의미하는 완전 용법 is 와 서술적 계사로 사용되는 불완전 용법 is 사이의 엄격한 구분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공통된다. (2)와 (3)은 해당 구분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한다. 반면 대화편 내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해법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is 완전 용법과 불완전 용법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1)과 (2)는 동의하지만 (3)은 이를 거부한다. 어느 경우든 전통적 해석은 모두 is 의 완전 용법과 불완전 용법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그리고 대화편에 명시되었든 그렇지 않든 그리스어 to on 에도 이와 같은 구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브라운은 to be 완전 용법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위 세 입장이 공유하고 있는 to be 완전 용법과 불완전 용법 사이의 엄격한 구분을 완화시키고 둘 사이의 연속성을 마련하고자 시도한다. 이와 동시에 (3)의 입장이 배제하지만 문헌상으로는 부정하기 어려운, 『소피스트』 내에서 to on 완전 용법의 의미와 역할을 되살리고자 한다.

전통적 해석들이 주장하듯 esti(is), eīnai(to be), to on(the being)이 그러한 엄격한 의미 구분을 허용하는 것이고 『소피스트』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이러한 구분의 실패로 인한 것이며 따라서 이 문제들을 to on 의 의미 구분을 통해 일소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문헌상 명시적으로 이러한 구분을 언급하거나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to on 을 the same 이나 the rest 처럼 고유한 본성을 지닌 별개의 형상으로 간주하고 다른 형상들처럼 고유한 술어를 따로 마련해주었다는 점 역시 플라톤이 is 의 의미를 구분하고 있다는 해석을 꺼림칙하게 여기도록 만든다. 앞서 보았듯 프레데는 이런 이유로 to on 의 의미를 구분하는 『소피스트』 해석에 반대하고, to on 의 의미가 이 대화편 안에서 내내 단일하게 견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브라운은 프레데에 비하면 온건하다 할 만한 입장에서 전통적 해석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시도한다. 브라운은 대화편 내에서 to on 의 완전용법과 불완전용법이 구분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보어가 생략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채로 주어와 to on 만으로 의미를 지니는 완성된 문장이 등장한다. 물론 보어가 등장하는 to on 문장도 등장하며, 간혹 보어가 있지만 생략된 형태로 제시되는 to on 문장도 보인다. 문제는 전통적 해석에서 to on 완전용법의 의미와 불완전용법의 의미 사이에 두는 구분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연속성을 찾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단적으로 과격하게 구분의 폐기를 주장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완전용법 존재사적 의미와 불완전용법 계사적 의미를 연속적인 것으로 이해할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

1) 새로운 is 완전 용법(C2 해석)

브라운은 전통적 해석들이 공통적으로 is 완전 용법을 보어를 지니지 않으며 보어를 허용하지도 않는 용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 이와 달리 명시적 보어든 생략된 보어든 보어가 없지만 보어를 허용하기는 하는 완전 용법이 있으며, 보어를 허용하는 완전 용법이 더욱 선호될 만한 것이라 주장한다(1986, 53 쪽. 전통적 해석의 완전 용법을 "C(Complete)1," 브라운이 선호하는 완전 용법을 "C2"로 구분하고 있다. 편의상 이 글에서도 이후 C1 과 C2 로 표기하도록

한다.). 이어서 브라운은 C1 과 C2 의 차이를 grow 동사와 teach 동사의 비교를 통해 유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22]

1a Jane is growing tomatoes.
1b Jane is growing.
2a Jane is teaching French.
2b Jane is teaching.

1a 와 1b 두 문장에서 동사 grow 의 의미는 명확히 구분된다. 전자는 주어가 성장한다는 의미인 반면 후자는 주어가 목적어를 성장시킨다는 의미이다. 더욱이 앞의 문장에서 동사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목적어를 추가할 수는 없다. 주어와 자동사로 완성된 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은 없다. 반대로 1a 에서 동사의 의미를 유지한 채 목적어를 지우면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 목적어를 허용하지 않는 동사와 목적어가 필수적인 동사 사이의 거리는 지극히 먼 것으로 보인다. 즉 1 에서 두 'is growing'의 차이는 전통적 해석에서 C1 과 불완전 용법 사이의 차이와 같이 연속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C1 이해에 따르면 "X is." 는 'X exists.' 를 의미하고 이 의미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같은 문장에 보어를 추가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X is Y." 는 'X is predicated by Y.' 를 의미하며 보어 Y 없이는 해당 문장이 의미를 가진 것으로 완성될 수 없다.

반면 2a 와 2b 두 문장에서 'is teaching' 사이의 관계는 조금 더 가깝다. 두 문장 모두에서 'is teaching'은 '가르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2b 는 Jane 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2a 는 프랑스어라는 특정한 분야를 가르친다는 점을 알려준다. 2b 는 그 자체로 완성된 문장이며 완결된 의미를 지니지만, 보어가 추가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문장은 아니다. 문장성분의 보충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이것이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 2a 역시 목적어가 생략될 경우 의미의 구체성은 줄어들지언정 그러한 생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b 에 아무런 보어를 추가하지 않고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보어는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분명 완전 용법으로 볼 수 있다.

[22] 1986, 54 쪽.

Grow 의 구분이 아니라 teach 의 구분과 같은 방식으로 is 의 용법과 의미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X is 와 X is Y 는 전자의 경우 X 가 존재한다는 것을, 후자의 경우 X 가 Y 라는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의 문장에 Y 를 추가하여, X 가 Y 라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존재한다는 식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뒤의 문장에서 Y 를 생략하더라도, X 가 something 으로서 존재한다는 의미는 여전히 남는다.

C2 해석이 to on 완전 용법과 불완전 용법 사이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소피스트』에서 to on 완전 용법이 독립적으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3)의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반론이 될 수 없다. (1)과 (2)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특히 유들의 결합에서 to on 이외의 형상들이 형상 to on 에 직접 참여한 결과는 존재를 의미하는 to on 완전 용법의 사례로 간주된다. 그러나 (3)은 259a6-8 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반박한다.

> …τὸ μὲν ἕτερον μετασχὸν τοῦ ὄντος <u>ἔστι(is)</u> μὲν διὰ ταύτην τὴν μέθεξιν, οὐ μὴν ἐκεῖνό γε οὗ μετεσχεν ἀλλ᾽ ἕτερον
> …다른 것(to heteron)은 to on 에 참여하여 이 참여로 is 인데, 그것이 참여하는 저것(to on)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is heteron)

앞 절의 주동사 'esti'는 다른 것(heteron)이 to on 에 참여한 결과이다(metaschon toū ontos esti men dia tautēn tēn methexin). 그러나 이러한 'esti'는 뒤의 절에 등장하는 보어 'heteron'을 필요로 한다. C1 을 전제하는 한, 이렇듯 보어가 보충되는 'esti'는 완전 용법으로 볼 수 없고 불완전 용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C2 해석에 따르면 앞절의 'esti'와 뒤의 절에서 생략된 'esti'를 각기 전자는 완전 용법, 후자는 불완전 용법으로 여전히 구분할 수 있다. 브라운은 비교 가능한 예문으로 "My sister is still teaching, but not French these days, only Spanish." 라는 문장을 제시하고 있다(56 쪽). 나의 누이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이든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2) C2 와 불가능한 to mē on

앞서 인용한 예시는 to mē on 과 관련하여 전통적 해석의 완전 용법 이해인 C1 과 이에 대비되는 불완전 용법 사이의 구분을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해당 문장의 뒤의 절에는 "My sister is not teaching French." 라는 문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나의 누이는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는 앞의 절에서 is teaching 을 부정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앞의 절에서 'is teaching'이 부정된 문장 "My sister is not teaching"은 teaching something 을 모두 부정하는 의미가 된다. 반면 "My sister is not teaching French"는 "My sister is teaching Spanish"와 양립 가능하며, 여전히 "My sister is teaching"을 함의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to mē on 은 C2 인 경우와 불완전 용법 인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불완전 용법 to mē on 은 to mē on something, to mē on F, G, H 등으로 이해될 것이다. 반면 "만일 우리가 to mē on 을 C2 esti 의 부정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을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that which isn't anything at all)'*과* '비-존재' *양자 모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60 쪽). C1 을 전제하는 경우를 이 둘 중 어느 한쪽으로만 간주해야 한다. 불가능한 to mē on 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규정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도 사유, 진술, 지시 불가능한 것이다.

3) C2 와 불완전 용법 사이의 연속성

C2 해석은 to on 에 직접 참여한 결과가 다른 보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to on 완전 용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자연스러운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플라톤의 주된 관심이 to on 의 용법들 중 존재사 용법을 독립시키는 데에 있지 않다는, 이 역시 자연스러운 독해 또한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다.

브라운은 플라톤이 to on 완전 용법과 불완전 용법의 엄격한 구분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하 1986, 63-64 쪽 참조.) 이에 따르면, to on 에 대한 여러 입장들을 검토하는 부분에서, 다원론으로 간주되는 입장이나

일원론으로 생각되는 입장, 운동하는 것만을 인정하는 입장은 모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장하는 to on 완전 용법에 관련한 주장들로 볼 수 있다. 반면 소위 '형상의 친구들'은 지각되고 변화하는 것들을 생성에 관련시키고, ousia 는 오직 형상들에게만 허락한다. 즉 이 경우에는 앞서와 달리 무엇이 있는지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진짜로(real)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해 플라톤은 곤란해하지 않는다. 플라톤이 C2 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변화는 불가능한 것도 놀라운 것도 아닐 것이다. 또한 늦게 배우는 자들의 입장이 소개되는 부분에서 존재를 의미하는 to on 완전 용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C2 와 불완전 용법 사이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문제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C1 을 전제하고 to on 의 완전 용법과 불완전 용법 사이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전통적 해석은 이상의 이행을 쉽사리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to on 에 대한 참여 결과로서 동사 esti, '형상의 친구들' 이외의 to on 에 대한 입장들 등 to on 완전 용법을 전적으로 배제하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서술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브라운은 C2 해석을 주창함으로써 전통적 해석들이 to on 의 완전 용법과 불완전 용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공통된 한계를 적시해내고, 이를 극복할 대안 역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to mē on 이 보어 없이 다뤄지고 있다는 문헌 근거와 관련하여 이것이 완전 용법 to on 의 부정이라는 점을 수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완전 용법 to on 의 부정이 단지 존재를 부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체의 규정성 또한 부정한다는 점에서, 없는 것인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서 불가능한 to mē on 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서 이해된 to mē on 은 특정한 어떤 것임을 의미하거나 그러한 구체적인 무언가가 아님을 의미하는, 보어를 갖는 to on 과 to mē on 에 대해 연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이야기될 수 있다. 2 장에서 살펴본 바 전통 1 의 입장은 불가능한 to mē on 이 묘사되는 문법적 특징과 관련하여 해석의 강점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to mē on 자체에도 또 그것을 서술하는 데에 사용되는 표현들을 to on 으로 명명하는 과정에서도 직접 등장하는 보어는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뿐더러 전후맥락을 고려하더라도 보충해 넣을 생략된 보어를 찾을 수도 없는 듯하다. 이를 to on 완전 용법과 그 부정으로 이해하는 입장에 비해 불완전 용법으로

해석하려는 쪽에서는 생략된 보어와 관련한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전통 1 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to mē on, 그리고 이를 서술하는 데에 필요하지만 이 to mē on 과 결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였던 수, 지시어, 관사 등이 to on 이라고 이야기되는 경우에서 보어가 없다는 점에 대해 그것들이 완전 용법 존재사 to on 과 그 부정이라는 설명 이외에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다른 한 편 전통 2 의 입장에서 특히 강조되는 바, 완전 용법 존재사 to on 이 불완전 용법과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해석은 존재사와 계사(및 동일성 기호) 사이의 문법적으로도 의미에 있어서도 드러나는 엄격하고 매개하기 어려운 간극에 대한 설명 책임으로부터 전통 1 에 비해 자유롭다는 장점을 지닌다. 브라운은 존재사와 계사 구분에 관련한 이러한 두 전통적 입장 모두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이 두 입장 모두가 전제하는 to on 완전 용법과 불완전 용법 사이의 엄격한 의미구분이 가져오는 간극이나 비약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이것이 브라운의 C2 해석이 첫 번째 해석 쟁점과 관련하여 보여주는 강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to on 의 불완전 용법 내에서 상이한 의미들이 구분되고 있다는, 특히 동일성의 esti 와 일상적 계사 esti 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기존 해석에 대해 브라운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2. 비동일성 to mē on 과 비동일성 문장

1986, 68 쪽에서 브라운은 프레데와 달리 255c-d 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해석의 입장을 취한다. to on 은 불완전 용법이 **C2 완전 용법**을 함축하고 **C2 완전 용법이** 보어를 추가로 받아 불완전 용법이 될 수 있는 동사이다. 255c-d 에서 to on 이 그 자체로 이야기되는 경우는 C2 to on 을, 다른 것들과 관련하여, 즉 보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불완전 용법 to on 을 가리킨다. 반면 다른 것은 항상 무엇과 다르다는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비교대상이 보충되어야 한다. 즉 보충어가 항상 필요한 것으로서 보충어 없이도 사용될 수 있는 to on 과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된 C2 to on 과 불완전 용법 to on 은 유들의 결합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to on 에 직접 참여한 결과는 C2 esti 이다. 반면 예를 들어 운동하는 것(K)이 같은 것(T)이나 다른 것(H)에 참여할 경우, K esti(is) T, K esti H 등으로 표현되며 이 경우의 esti 는 보어를 가지고 있는 불완전 용법이다. 그런데 K 는 T 와도 다르고 H 와도 다르다. T 와 다르다는 것에 참여하여 K 는 K ouk esti(is not) T 로, 다시 H 와 다르다는 점에서 K ouk esti H 로도 표현되고, 같은 식으로 to on(O)과 다르기 때문에 K ouk esti to on 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K esti x/ouk esti x 가 동시에 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esti x 라고 말할 때와 ouk esti x 라고 말할 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 차이를 전통적 해석은 불완전 용법 to on 의 두 의미 사이의 차이로 이해한다.

불완전 용법 to on 의 두 의미를 구분함으로써 전통적 해석은 K esti x 가 참이 되는 경우는 esti 가 서술의 의미로, 일상적 계사로서 사용된 것이라 설명하게 된다. 반면 이러한 입장에서 K ouk esti x 가 참이 되는 경우는 esti 가 동일성 기호로 사용된 것이다 이해된다. 늦게 배우는 자들이 사람을 "사람"이라고만,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만 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람은 좋은 것이다." 와 같은 말을 금지하는 이유는 그들이 동일성 기호 esti 만을 받아들이고 계사로서의 esti 를 이로부터 구분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일성 기호 esti 로 말하자면 '사람'과 '좋은 것'은 서로 다르므로 "사람은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이는 참이다. 그러나 동시에 계사 esti 를 사용하여 "사람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 유들의 결합 논의는 바로 이러한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is 의 의미 구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2 장에서 살펴본 입장들의 구분에 따라, 이러한 구분이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리기도 하지만, 전통적 해석들은 K esti x/K ouk esti x 두 문장이 동시에 참일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동일성 기호 esti 와 계사 esti 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브라운은 이와 같은 to on 의 의미 구분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요청된다는 점에 반대한다. 그리고 to on 의 구분 대신 "동일성 문장"을 서술문장으로부터 구분해낸다는 해석을 제안한다.(2008, 440-441 쪽)

1) 늦게 배우는 자들의 문제와 문장유형의 구분

브라운은 우선 늦게 배우는 자들의 입장을 재해석한다(442 쪽 참조). 이에 따르면 그들의 입장은 하나를 여럿으로 만드는 모든 언급을 부정하는 것이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든, "그 사람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든 늦게 배우는 자들은 하나(사람)를 여럿(사람, 좋은 것)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늦게 배우는 자들은 동일성 is 와 계사 is 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구 전체 – 특히 "is" 뒤에 오는 것의 역할에 대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442 쪽)"이다. "늦게 배우는 자들은 오로지 동일성 문장들만을 허용하고, 그들의 오류는 서술, 혹은 "참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443 쪽)." 늦게 배우는 자들은 어떤 것을 그 자체로만 말해야 하고, 서로 다른 것들을 섞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설령 문장에 to on 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말은 달린다." 같은 문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443 쪽 참조)

서로 다른 것들이 함께 엮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유들의 결합 논의는 이에 따라 is 의 의미를 구분하는 과정이 아니라 어구나 문장의 유형을 구분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255e-256e 의 내용을 브라운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Group 1.

	1a. K 는 S 와 다른 것이다.	(255e10)
그래서	1b. K 는 S 이지 않다.	(e14)
그러나	1c. 그러나 K 이다/K 는 있다.	(256a1)
왜냐하면	1d. K 는 O 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a1)

Group 2.

	2a. K 는 T(Tauton, the same)와 다른 것이다.	(256a3)
그래서	2b. K 는 T 이지 않다.	(a5)
그러나	2c. K 는 T 이다.	(a7)
왜냐하면	2d. K 는 T 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a7, b1)

Group 3.

3a. K 는 H 와 다른 것이다. (256c5)

그래서 3b. K 는 H 이지 않다 (c8)

그러나 3c. K 는 H 이다. (c8)

["왜냐하면 K 는 H 에 참여하기 때문이다"는 문헌에 없다]

Group 4.

4a. K 는 O 와 다른 것이다. (d5)

그래서 4b. K 는 O 이지 않다. (d8)

그러나 4c. K 는 O 이다. (d8-9)

왜냐하면 4d. K 는 O 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d9)

2-4 는 공통된 패턴을 가진다.

a. K 는 L 과 다른 것이다.

그래서 b. K 는 L 이지 않다. (a 에 따라, K 와 L 사이의 동일성 부정)

그러나 c. K 는 L 이다. (d 에서의 문장 전환이 보여주듯, L 이 K 에 대해 서술된다.)

왜냐하면 d. K 는 L 에 참여하기 때문이다."[23]

K is not L 과 K is L 은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둘 모두 각기 참이다. 그리고 프레데의 입장을 예외로 하면, K is not L 은 K 와 L 사이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문장이며, K is L 은 K 에 L 을 서술하거나 귀속시키는 문장이다(2008, 445 쪽). 기존 학자들은 b 와 c 가 모순되어 보이는 이유를 is 의 애매성에서 찾는다. 위 사례들에서 b 의 is 는 동일성 기호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c 의 is 는 서술적 계사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a 는 b 의 is 를 'different from'이란 표현을 통해 동일성 기호로 설명해 주는 것이고, d 는 c 의 is 를 'shares in'이란 표현을 통해 서술적 계사로 구분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브라운은 위 논의에서의 애매성이 is 에만 있는 것은 아님을 지적한다(이하

[23] 2008, 444 쪽. 브라운의 영어 번역어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원문은 각각 K-change, S-stability, H-different, O-being 이다. 원문에서 관사는 표기되기도, 생략되기도 한다. 주로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 관사가 표기되지만 이 역시 엄격히 지켜지고 있지는 않으며, 브라운의 해석을 받아들여 추상명사로 사용되는 경우와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를 구분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47 쪽 참조). 보어의 경우에도 b 와 c 사이에 의미의 애매성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2b "Change is the same"과 2c "Change is not the same"에서 두 "the same" 사이에 차이가 있다. 2b 에서 "the same"은 형상 Sameness 로서 추상 명사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2c 에서 "the same"은 형용사로 사용되고 있다. 3b/c, 4b/c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브라운은 "blue"라는 표현을 통해 이 차이를 예시한다.

S1. The sky is blue.
S2. The color of the sky is blue.

여기에서 "blue"는 2 에서 "the same"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S1 에서는 2b 처럼 형용사로 사용되어 주어에 대해 서술되고 있는 반면, S2 에서는 2c 에서와 같이 명사로 사용되어 주어와 동일한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해석 쟁점과 관련하여 전통적 해석은 불완전 용법 to on 의 동일성 의미와 계사로서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 문제라고 진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여전히 단일한 to on 의 엄격히 구분되는 상이한 두 가지 의미를 논함으로써 그 둘 사이의 연속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반면 애매성을 술어에 혹은 주어와 술어의 관계에 위치시키는 브라운의 해석은 전통적 해석이 직면하는 간극 혹은 비약의 문제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전통 3 의 입장에 서는 학자들은 브라운과 마찬가지로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애매성의 위치가 반드시 to on 에만 위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특히 보스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 애매성은 to on 에 오는 것이라는 진단을 견지한다. 브라운의 입장에서 이러한 입장에 반드시 동의해야 할 이유는 찾기 어려워 보인다. 형용사와 추상명사 사이의 불분명한 구분이나, 주어와 술어 사이의 대칭적 관계와 비대칭적 관계 사이의 애매성도 to on 에 관련한 여러 입장들이 드러내는 역설들과 늦게 배우는 자들의 역설이 어떤 혼동에 근거하여 발생하는지 잘 설명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유들의 결합이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다. 또한 to mē on 의 상이한 의미들을 구분하지

않으면서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to mē on 을 유들의 결합을 통해 어떻게 가능한 것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지 또한 보여줄 수 있다. to on 에 대한 여러 입장들은 to on 문장들에서 주어와 술어의 대칭적 관계와 비대칭적 관계를 구분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늦게 배우는 자들은 대칭적 관계문장만을 고려하여 주어와 술어가 상이할 경우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술어가 형용사인 경우, 혹은 문장에서 술어가 주어에 비대칭적으로 결합되거나 귀속되는 경우 서로 다른 것들이 to on 을 통해 결합될 수 있다. 반면 술어가 추상명사인 경우 또는 주술 결합이 대칭적일 경우 둘 사이의 관계는 부정되며 여기에서 to on 이 부정되면서 가능한 to mē on 이 밝혀지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to on 과 to mē on 이 불완전 용법에서 서로 다른 여러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는 to on 의 의미 구분을 통해 유들의 결합 논의를 해석하고자 하였던 기존 입장들이 처한 난점을 적절히 회피하는 해석으로 보인다.

2) to mē on 이 아닌 비동일성 문장

유들의 결합에서 보여주는 것은 is 의 구분이 아니라 술어자리에 오는 유사표현의 의미구분이다. 이는 is 서술 문장이 명사를 보어로 가지는 경우와 형용사를 보어로 가지는 경우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Is 는 여전히 주어와 보어를 연결하고 있을 뿐이지만, 보어가 명사일 경우 해당 문장은 동일성을 문제 삼는 것이 되는 반면, 보어가 형용사라면 주어에 속성을 귀속시키는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혹은 보어에 한정하여 구분 기준을 세울 것 없이, different 관계로 설명되는 동일성 문장 유형이 있는 반면, shares in 관계로 설명되는 서술 문장 유형이 있다는 식으로 문장 전체의 의미 유형을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는 대칭적 결합이 이루어지는 반면, 후자는 주어에 속성을 서술하는 방식의 비대칭적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브라운은 b 유형의 문장들이 주술 비동일성이 아니라 본성상 혹은 그 자체로 이야기되는 관계의 부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프레데의 주장에

반대한다. 비판의 요지는 간단하다. 250c6-7 에서[24] 프레데의 "is1 not" 사례에 해당할 표현이 보인다. 즉 to on 은 본성상 운동도 정지도 아니다. 프레데의 주장대로 b 유형 문장들이 "is1 not" 의 사례들이라면 이 "본성상 ... 아니다." 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했으리란 것이 브라운의 비판이다. 그러나 플라톤은 유들의 결합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2008, 450 쪽)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to on 의 의미 구분은 중심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둘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등장하는 "... is not ..." 표현은 difference 와 관련되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 to mē on 을 말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 나아가 고유한 본성을 지니는 형상으로 간주하게 되며, 나아가 이 형상 to mē on 을 통해 거짓말을 정의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보았듯 프레데는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여 거짓말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비동일성과 구분되는 일상적 부정 서술을 함의할 수 있는 to mē on 이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이미 다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표현상의 문제를 제외하면 브라운의 비판은 우선 b 유형 문장들을 주술 비동일성 이외의 의미로 읽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후 살펴볼 바와 같이 to mē on 을 비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도 프레데의 해석에 못지않게 거짓말 분석에 대해 설명력을 지니는 not big 해석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의 to mē on 과 거짓말 분석에 필요한 to mē on 사이의 불일치, 이로부터 이어지는 일관된 해석을 가로막는 일종의 비약에 대해 브라운의 해석이 어떤 식의 극복을 보여주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이를 확인한 이후에야 브라운의 해석이 프레데의 해석에 비해 더욱 선호할 만한 것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

[24] "그 자체의 본성에 따라 being 은 정지해 있지도 움직이지도 않는다(*Κατὰ τὴν αὐτοῦ φύσιν ἄρα τὸ ὄν οὔτε ἕστηκεν οὔτε κινεῖται*)."

3. 거짓말과 양립불가능한 속성들의 영역

진술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 브라운은 프레데의 해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진술의 핵심은 그것이 단순한 명명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한 부분이 주어를 확정하고, 다른 부분이 그 주어에 관하여 무언가를 이어서 진술한다. 주어를 명명하는 부분이 '이름'이고 이 주어에 대해 이어서 서술하는 부분이 '동사'이다. 단어의 하위분류로 이름인 것들과 동사인 것들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진술의 최소 단위가 이름과 동사의 결합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프레데의 지적에 또한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일종의 결합물로 이해하는 분석을 통해, 진술을 복합적인 것이 아닌 단순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생기는 전통적인 역설들(모순 불가능, 반박 불가능, 거짓 불가능 등등)이 해결된다는 점에서도 브라운은 프레데와 의견을 같이 한다.(452-4 쪽 참조)

1) 거짓말의 정의와 다름의 의미

브라운이 전통적 해석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프레데의 입장에도 반대하는 지점은 진술의 구조 분석이 아니라 거짓말의 정의에서 to mē on 의 역할 혹은 의미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다. 진술이 주어를 명명하고 바로 그 주어에 대해 이어서 말하는 것임을 합의한 뒤, 손님은 "테아이테토스가 앉아 있다"와 "테아이테토스가 날고 있다" 둘 모두 진술이라는 것에 대해 테아이테토스의 동의를 얻어낸다. 그리고 한쪽 진술의 참과 다른 진술의 거짓을 설명하는데, 거짓에 대한 설명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이 두 설명을 브라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거짓 진술에 대한 첫 번째 최종 정식화. (A) 참인 진술은 너에 대해 things that are 를 that they are 라고 말한다. 반면 (B) 거짓 진술은 things that are 와 다른 것들을 말한다. 즉, (C) 거짓 진술은 things that are not 을 that they are 라고 말한다. ...(중략)... (D) (하지만 거짓 진술은) things that are,

그러나 너에 대해 (what is 와) 다른 것들(are different)을 말한다.(2008, 453-4 쪽, 263a-c)

거짓 진술에 대한 두 번째 정식화. (거짓 진술은 너에 대해)[25] 다른 것들이 같다고[26], not beings 가 beings 라고 이야기된다.(2008, 457 쪽. 263d)

다른 학자들도 지적하는 바, 여기에서 "things that are(τὰ ὄντα)"라는 복수 표현이 문제가 된다.(2008, 454 쪽.) 이 정식화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참인 진술 "테아이테토스가 앉아 있다"와 거짓인 진술 "테아이테토스가 날고 있다"이다. 이 두 진술 모두 테아이테토스에 대해 각기 한 가지 것을("앉아 있다," "날고 있다") 말하고 있고, 복수의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에 따라 (B)의 복수 표현들을 단수형태로 대체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B^s) 거짓 진술은 what is 와 다른 어떤 것을 말한다.

브라운은 여기에서 몇 가지 가정을 통해 문제를 제시한다(이하 455 쪽 참조). 테아이테토스가 앉아서 대화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테아이테토스는 대화하고 있다"라는 진술을 가정해 보자. 이 진술은 테아이테토스에 대한 what is, 즉 앉아 있다는 것과는 다른 어떤 것을 테아이테토스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B^s)에 따르면 "테아이테토스는 대화하고 있다"라는 진술은 거짓이 된다. 그러나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하고 있기도 하다.

말하자면, (B)를 설명 대상인 예시된 문장들에 맞추어 단수표현으로 이해할 때 거짓말에 대해 만족스러운 설명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주어를 가지는 서로 다른 여러 참인 진술들을 모두 참이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다.

---

[25] 괄호 안은 맥락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필자가 보완해 넣은 부분이다.

[26] 원문은 "hōs ta auta," 브라운의 영역은 "to be the same"이다. 해당 절의 복수 표현이 영역을 통해서는 전달되지 않았다.

2) 양립 불가능성 영역 해석

브라운은 기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두 가지 방식을 소개한다.(455 쪽)

> Reading 1, The Oxford Interpretation. 거짓 진술 "테아이테토스는 난다"는 테아이테토스에 관하여, 그에 관한 everything that is 와 다른 어떤 것을 말한다.
> Reading 2, The incompatibility interpretation. 거짓 진술 "테아이테토스는 난다"는 테아이테토스에 관하여, 그에 관한 what is *와 양립 불가능한* 어떤 것을 말한다.

두 독해 각각 나름대로 위의 문제를 해결한다. 옥스포드 해석의 경우, 위의 가정에서 테아이테토스에 관하여 앉아 있다는 것도 대화하고 있다는 것도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everything that is, 그에 관한 모든 사실들 중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둘 다 참이다. 반면 날고 있다는 것은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모든 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이 모든 것들과 다르다는 점에서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양립 불가능성 해석의 경우, 위의 가정에서 난다는 것은 앉아 있다는 것과 양립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화하고 있다는 것은 앉아 있다는 것과 단지 다를 뿐, 양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다" 라는 진술은 거짓이지만, "테아이테토스는 대화하고 있다" 라는 진술은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다"와 함께 참인 진술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러나 양립 불가능성 해석은 문헌을 통해 뒷받침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브라운에 의해 비판받는다. 2 의 해석은 "different"로 번역된 "heteron"의 의미를 "incompatible"로 변경시킨다. 그러나 플라톤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이런 비약을 저질렀다는 해석은 가능하다면 피해야만 할 것이라는 게 브라운의 주장이다(2008, 456 쪽 참조).

브라운은 양립 불가능성 해석을 보완한 제 3 의 입장을 취하고 이 입장을 "양립 불가능성 영역 해석(the incompatibility range interpretation)"이라

명명한다(2008, 456 쪽). 브라운은 이 해석을 257b1-c3, not big 표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설명한다(2008, 456-7 쪽 참조). 여기에서의 설명에 따르면 not large(or not big)는 large 의 반대인 small 만이 아니라 단지 large 와 다를 뿐인 equal 역시 의미한다. 여기에서 large, small, equal 은 모두 크기(size)의 영역에 속한다. 예를 들어 테아이테토스가 소크라테스와 같은 크기라고 해 보자. 이와 동시에 테아이테토스가 소크라테스보다 크거나 소크라테스보다 작을 수는 없다. 이러한 사례는 다양하게 생각해볼 수 있다. 어떤 옷이 희면서 동시에 검을 수도, 희면서 동시에 파란 것일 수도 없다. 이 경우에는 말하자면 색의 영역에서, 양립 불가능한 색들 중 어떤 한 색이 부여되면 다른 색들이 양립하여 부여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앞서 프레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not big 을 to mē on 의 사례로 이해한다. 그러나 not big 논의와 유들의 결합 논의 사이에 연속성이 없다고 본다는 점에서는 프레데와 의견을 달리 하고 전통적 입장의 문제의식을 공유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브라운은 유들의 결합에서 to mē on 과 not big 분석에서의 to mē on 을 일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재언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유들의 결합에서 to mē on 의 구체적인 의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의를 약화시키는 방식의 전략을 통해 재언급 문제를 완화시킨다. 유들의 결합은 to mē on 의 구체적인 의미를 확정하여 거짓말 설명에 필요한 개념적 도구를 마련하는 작업이 아니라, to mē on 이 불가능하다는 소피스트의 반론에 대한 재반박으로서 그것이 말할 수 있는 것이며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와 더불어 유들의 결합 논의는 늦게 배우는 자들이 혼동하는 것이 추상명사와 형용사의 구분 혹은 주어와 술어의 대칭적 결합과 비대칭적 결합 사이의 구분과 관련된 것이리라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고 이에 대해 해당 구분을 참여와 다름에의 참여라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제시해준다. 이에 따라 to on 이 본성상 운동하지도 정지하지도 않는 것임에도 그것을 운동한다거나 정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고, 어떤 것을 다른 것들과 구분되면서도 그 다른 것들로도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해주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to mē on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유들 사이의 서로 다름을 이야기해주는 것이라는 설명이 확보되고, 이는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불가능한 to mē on 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되살려내게 되는 것이다. 다만

그것만으로 거짓말 안에서 to mē on 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to mē on 을 이해했을 때 거짓말이 거짓이라 이야기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얻을 수 없을 뿐이다.

거짓말 분석에서 유들의 결합 논의를 통해 나온 to mē on 을 재언급하는 것의 의미는 to mē on 이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환기시켜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반박 불가능의 역설, 거짓 불가능의 역설 등 당대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여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다뤄지지 않은 to mē on 의 구체적인 의미는 not big 표현 분석에 이르러서야 등장하고, 이는 브라운의 해석에 따르면 양립 불가능한 속성들의 영역 내에서 그 속성들 사이의 다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다름 역시 다름이라는 바로 그 점에서 여전히 유들의 결합에서와 논의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설령 유들의 결합 논의와 not big 논의 두 곳에서 서로 다른 to mē on 이 이야기되고 있고 이 둘이 구분되며 후자가 거짓말 설명에 실질적 기여를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이러한 거짓말 설명에 필요한 to mē on 이 아닌 더 앞서의 불가능성을 극복한 것뿐인 to mē on 이 정작 거짓말을 설명하는 논의의 과정에서 재언급되었다 하더라도, 양립 불가능한 속성들의 영역 내에서의 다름이라는 의미의 to mē on 역시 문헌 밖에서 들여온 맥락 없는 개념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양립 불가능성 영역의 도입은, 앞서 양립 불가능성 해석과 달리 “heteron”의 의미를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 여전히 small 도 equal 도 large 와 ‘다르다.’ 다만 양립 불가능성 영역 내에서 다르기 때문에, 둘 중 어느 쪽이든 large 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3) 보편 양화사와 양립 불가능 영역

브라운은 거짓말 논의에 대한 옥스포드 해석에 대해 양화사의 임의적인 도입을 문제 삼는다. 첫 번째 정식화에서 보편 양화사에 직접 대응하는 표현을 찾을 수 없고, 두 번째 정식화에서는 양화사를 일관되게 도입시킬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456 쪽 참조) 브라운은 두 번째 정식화와 관련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두 번째 정식화 역시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다"라는 거짓 진술의 한 사례를 지시하고 있으므로, 브라운은 이를 단수표현으로 수정하여 번역할 수 있다. "어떤 다른 것이 같은 것으로 이야기되고, something that is not 이 something that is 로 이야기된다." 이를 다시 옥스포드 해석에 맞게 해석하면 "[everything that is 와] 다른 것이 [something that is 와] 같은 것으로 이야기된다." 라고 읽어야 할 것이다. 옥스포드 해석은 거짓말의 정의에 포함된 "다르다"라는 표현을 'different from everything that is'로 보고 있고, 그러나 두 번째 정식화에서 이 "(너에 대한) 모든 것과 다른 것"을 "(너에 대한) 모든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고 읽는 것은 불가능한 독해로 보인다. 앞서의 가정을 통해 예시를 들어 보자. "테아이테토스는 난다" 라는 문장은 거짓 진술이다. 일관되게 보편 양화사를 추가한 두 번째 정식화에 따르면, 이 진술은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모든 사실들과 다른 것인 '난다'라는 것을,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모든 사실들과 같은 것으로 말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옥스포드 해석을 지지하는 입장에서조차 받아들이지 못할 결론이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름의 비교대상에는 보편 양화사를, 반면 같음의 비교대상에는 존재 양화사를 추가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브라운은 두 번째 정식화의 형식을 "The false one says x to be x" 와 같이 보고 동일한 x 가 목적절의 주부에서는 everything 에 비교된 것으로, 반면 술부에서는 something 과 비교된 것으로 취급하는 일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모든 것과 다른 "날고 있다"를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모든 것과 같은 "날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프레데의 해석 역시 difference 를 이해하기 위해 from everything 을 삽입하여 읽고자 하므로, 이는 프레데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브라운의 해석은 옥스포드 해석처럼 문헌 상에서 찾을 수 없는 양화사를 새로이 도입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 정식화와 관련하여 양립 불가능성 영역 해석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B^s)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다" 라는) 거짓 진술은 what is("앉아 있다")와 다른 것("날고 있다")을 말한다. 여기에서 날고 있다는 것은 앉아 있다는 것과 함께 굳이 말하자면 운동 상태 속성들의

영역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것이 앉아 있다면, 그것은 앉아 있는 한 동시에 뛰거나 눕거나 할 수 없고, 물론 앉아 있는 동시에 날 수도 없다. 이 과정에서 보편 양화사를 도입하지 않고도 '날고 있다,' '뛰고 있다' 따위가 테아이테토스에 대해 참인 '앉아 있다'와 다른 것들로서 양립 불가능한 속성들의 영역에서 배제된다. 이와 더불어 '대화하고 있다'는 저 운동의 상태들이 속한 영역과는 별개의 영역에 속한 것들로서, 테아이테토스의 앉아 있음을 배제하지는 않고, '침묵하고 있다'거나 '비명을 지르고 있다' 따위의, '대화하고 있다'가 속해 있는 또 다른 양립 불가능성 영역 내의 다른 것들을 배제한다. 브라운의 해석은 두 번째 정식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편양화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너에 대해 what is 와] 다른 어떤 것이 [너에 대해 what is 와] 같다고 이야기된다.(458 쪽)" 브라운이 추가한 부분에 '특정한 양립 불가능성 영역에서'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충 역시 앞뒤 모두에 일관되게 적용시킬 수 있다.

4. 재설정되는 해석의 쟁점

2 장에서 살펴보았듯 전통적 해석은 공통적으로 그리스어 to on 을 영어 be 동사와 마찬가지로 서로 구분되는 여러 의미와 용법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로부터 프레데와 브라운이 지적하듯 단일한 형상으로 간주되는 to on 이나 to mē on 의 상이한 의미들 사이에 간극을 만들어내고, 플라톤이 이 사이에서 비약을 저지르거나 혹은 혼동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것이 전통적 해석들이 공유하는 한계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전제 자체를 다르게 가져가야만 한다. to on 에 상호 엄격하게 구분되는 상이한 의미들은 없으며 그것은 일의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to on 의 부정인 to mē on 역시 단일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연속성 있게 해석되어야 한다. 『소피스트』 해석에 관한 이와 같은 문제 진단을 공유하면서도, 프레데와 브라운은 여전히 해석의 어떤 지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만일 전통적 해석 일반의 한계가 명확하고 그 약점이 발생하는

원인 또한 분명하다면, 이 단계에서 『소피스트』 해석의 중심문제에 대해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여전히 『소피스트』 해석의 주요 쟁점들은 앞서 1 장에서 정리하였던 바와 달라지지 않는다. to mē on 을 어떻게 오해할 경우 그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되어 버리는지, 그러한 오해의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x is y 와 x is not y 가 동시에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임의의 x 가 x 그 자체로서 여타의 것들과 구분되면서도 y, z 등의 다른 여러 이름들로도 이야기될 수 있게 되는지 설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to mē on 을 말하는 것으로서 규정되는 거짓말이 거짓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to mē on 에 대한 해석이 제시되어야 한다. 물론 전통적 해석들은 저마다 이러한 쟁점 각각에 대해 나름의 설득력을 갖춘 답변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더 이상 개별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이 파편화되어 일관성이나 정합성을 갖추지 못한 채로 제시되는 해석은 문헌을 통해서 뒷받침될 수 없다는 점 역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문헌에 근거하면서 그 안에서 재구성해낸 논증에 일관성을 확보하는 해석이 가능함을 프레데와 브라운이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해석의 세 가지 쟁점들에 대한 답변들은 각각의 문제에 대한 해결에 더하여 세 답변 사이의 일관성 또한 요구 받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소피스트』 해석에 있어서 일관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세 쟁점 중에서도 특히 세 번째 쟁점, 그리고 그 안에서 문헌 상 가장 큰 곤란을 야기하는 재언급의 문제는 이전까지 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 역시 수용해야 한다. 대화편의 논의 맥락을 고려하면 소피스트를 정의하고자 하는 것이 본래 대화의 목표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를 좌절시킨 것은 그가 보여주는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정의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으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가 거짓말을 하는 자임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짓말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소피스트가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만능의 모습을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그에 대한 정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화편의 결론은 소피스트를 정의한다는 기획이 실패에 그치지 않았음을 천명하고 있다.

중간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거짓말의 문제가 핵심에 위치한다. 거짓말이 말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to mē on, 이 to mē on 이 부정하는 to on 이 중간 부분

전반에 걸쳐 문제의 원인으로 대두된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역시 to on 과 다른 유들의 관계, to mē on 과 이것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제시된다. 이러한 논의들은 궁극적으로는 거짓말이 어떻게 가능하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데에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논지의 전개를 단절시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 바로 재언급의 문제이다.

유들의 결합은 서로 다른 것들이 그 다르다는 점을 통해 서로에 대해 to mē on 으로 이야기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to mē on 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임을 밝혀낸다. 그러나 어떤 것이 자신 이외의 것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거짓말이 왜 거짓인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들의 결합에서 저 가능한 to mē on 을 근거로 모든 것 각각에 관하여 to mē on 이 많다고 이야기되고 거짓말 분석에 이르러서는 각각에 관하여 to mē on 이 많기 때문에, 거짓말이 주어에 관하여 to mē on 을 말하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는 식으로 유들의 결합에서의 to mē on 이 재언급된다. 주어와 다른 것을 그 주어에 관하여 말하는 것만으로도, 주어에 관하여 서술될 때 참인 진술이 되는 술어와 다른 술어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경우든 그것은 거짓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유들의 결합에서 이야기된 to mē on 이 거짓말 분석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면 유들의 결합 논의와 이 내용이 해법으로서 제시되는 그에 앞선 to on 과 to mē on 에 관한 여러 문제들의 논의는 대화편 내에서 자리를 잃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한편 거짓말을 설명하기 위한 to mē on 의 추가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듯한 대목은 유들의 결합, 특히 재언급되는 부분 이후에야 등장하는 not big 표현 분석 부분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to mē on 의 의미에 변화가 있다는 예고나 암시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후로도 to mē on 은 단일한 형상처럼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난점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의미를 가진 to mē on 을 해당부분에서 읽어내더라도, 여전히 거짓말 분석에서의 재언급은 바로 이 not big 분석 부분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 이 지점에서 프레데는 유들의 결합 논의와 not big 표현 분석 부분 사이의 일관성을 읽어내는 방식의 해석을 시도하고, 브라운은 유들의 결합 논의와 not big 표현 분석이 각기 거짓말 논의에 기여하는 바를 구분한 채로 재언급의 의미를 약화시킴으로써 간극이나 비약의 문제 또한 완화시키고자 시도한다.

결국 『소피스트』 해석의 중심문제는 거짓말을 설명할 수 있는 to mē on 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문제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to mē on 을 해석해내는 과정에서 재언급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일관된 해석 여부가 『소피스트』 전체 이해의 관건이 되며, 이는 더 이상 to on 과 to mē on 에 관하여 영어 be 동사의 의미 및 용법 구분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직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해석의 입장들 각각도 나름대로 거짓말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입장들은 공통적으로 거짓말 논의에 대한 해석과 중간 부분의 다른 문제들에 대한 해석 사이에 메우기 어려운 간극을 남겨놓는다. 유들의 결합 논의와 not big 표현 분석이 거짓말 정의에 기여하여야 하며, 유들의 결합 논의를 해법으로 하는 to mē on 불가능성의 문제와 to on 에 관련한 여러 입장들이 봉착하게 되는 역설들, 늦게 배우는 자들의 입장 등도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거짓말 정의의 문제에 결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 전체에서 to on 과 to mē on 의 의미가 일의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프레데와 브라운 두 사람 공히 이러한 방향으로 『소피스트』 해석 논란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킨 것이라 생각된다. 전통적 해석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두 사람은 문제의식을 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통적 입장들을 극복한 이후에도 남겨지는 해석 문제가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두 사람 사이의 입장 차이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중심으로 새로이 설정된 해석 쟁점을 둘러싼 갈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브라운의 비판들에 맞서 프레데는 자신의 해석을 충분히 변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두 학자 사이의 논쟁이 『소피스트』 해석의 쟁점을 재설정함에 있어서 전통적 입장에 대한 비판을 통해 드러내는 지점 이외에 추가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석 쟁점에 추가되는 이러한 내용을 기준으로 다음 장에서는 브라운의 해석보다 프레데의 해석이 선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기존 해석에 대한 두 사람의 비판이 특히 to on 과 to mē on 각각에 대한 해석의 일관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내세우게 된다면, 두 사람 사이의 논쟁을 통해서는 중간 부분 해석의 확장 가능성이 또 하나의 결정적인 평가 기준으로 대두된다고 볼 수 있다. 비동일성과 구분되는 일상적 부정 서술의 확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프레데는 이러한 일상적 부정 서술을 확보해야 하고 문헌 내에서 읽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브라운은 이러한 해석 목표가 선입견으로 작용하여 대화편에 대한 올바른 독해를 가로막는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논증 외적인 평가기준을 통해 두 해석을 검토하기에 앞서, 각 논증 자체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브라운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프레데의 해석에 대해 제기하는 비판들이 무엇인지를 간략히 정리하고 넘어가기로 하자.

우선 브라운은 is 완전 용법과 불완전 용법의 구분을 기존 해석들보다 약화시키기는 하지만 완전히 배제시키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구분을 통해 to on 에 대해 직접 참여한 결과로 서술되는 to on 과 다른 형상들에 참여한 결과로서의 to on F 를 각기 설명하면서도, 이 둘 사이의 연속성 역시 설명한다. 완전용법 존재사 is 논의를 대화편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프레데의 입장에서 브라운의 해석은 일종의 반론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음으로 브라운은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특히 X is Y, X is not Y 가 둘 모두 참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부정문의 의미를 주어와 보어 사이의 비동일성으로 이해한다. 유들의 결합 논의가 is 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 프레데와 브라운 모두 동의하지만, 이 부분의 X is not Y 문장을(혹은 여기에서의 not being 을) 비동일성으로 보는 한 대화편의 일관된 해석은 불가능하다는 프레데의 입장은 여기에서 브라운과 크게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브라운은 not F 표현이 different from <u>everything that is F</u> 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그리고 거짓말 정의에서도 이와 같은 보편양화사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나 프레데는 is 의 용법을 구분하면서도 의미가 단일하며 일관된다는 논증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being F 가 F-ness 와 이 형상에 참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것의 부정인 not (being) F 도 마찬가지로 everything that is F 와 관련된 is 서술이라 본다.

진술에 대한 이해, not big 논의의 역할, not being 이 다름의 부분이라는 말의 의미 등에서 브라운은 많은 부분 프레데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 세 가지 지점에서는 반대되는 입장을 보여준다. 각 비판이 유효한 논거와 논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대안으로 제시된 브라운의 해석이 『소피스트』와 관련하여 프레데의 해석보다 나은 일관성과 설명력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V. 온건한 해석과 확장 가능한 해석

전통적 해석은 to on 을 영어 be 동사와 마찬가지로 존재사, 계사, 동일성 기호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을 통해 불가능한 to mē on 은 존재사를 부정한 결과로 해석하여 어디에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하거나 생각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는 서로 다른 유들이 결합함으로써 임의의 x 가 자신 이외의 것 y 에 참여한 결과로 x is y, x 가 y 와의 다름에 참여한 결과로 x is not y 가 동시에 참이라는 대화편의 서술을 전자는 계사 is 가 활용된 경우로 후자는 동일성 기호 is 가 부정된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끝으로 동일성 기호의 부정으로 이해된 to mē on 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짓문장이 거짓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to mē on 을 유들의 결합 논의가 아닌 not big 표현 분석에서 이끌어내고자 시도하고, 또한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보편양화사를 통해 거짓 일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재구성해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재언급 문제에 가로막혀 이러한 시도는 좌절되었다. 재언급의 문제는 결국 대화편 내에서 to mē on 의 의미에 변화가 일어나거나 다양한 의미 사이에 애매성이 존재한다는 해석과는 반대로 to on 도 to mē on 도 각기 시종일관 일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해석의 세 가지 쟁점 각각에 대해서 to on 의 의미 구분은 선명하고 간단한 해법이 되어준다. 그러나 문헌 내에서는 to on 이나 to mē on 의 의미 구분이 언급되지 않는다. 모상과 거짓의 문제로부터 to mē on 의 불가능성과 to on 에 관련한 여러 역설들을 거쳐 유들의 결합과 진술 분석, 그리고 거짓에 대한 설명에 이르기까지 to on 과 to mē on 각각에 대한 일관된 이해가 전제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전체 내용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의미 구분을 통한 해석은 이러한 통일성을 포착해내지 못한다. 따라서 결정적으로 재언급의 문제에 가로막히는 전통적 해석은, 중간 부분 내용 전반에 걸쳐서도 그 내용을 파편화시키고 단일한 주제와 맥락 안에 각 쟁점들을 정합적으로 결합시켜 위치시키는 일에 실패하는 것이다.

프레데와 브라운은 공히 전통적 해석이 to on 의 의미 혼동을 문제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역시 to on 의 의미 구분에서 찾고자 하였다는 점을 비판하고 나선다. to on 의 여러 의미들 사이의 엄격한 구분을

전제하는 한, 각기 고유한 본성을 지닌 형상으로 간주되고 여타의 형상들로부터 구분되며 상이한 의미를 구분하는 방식의 설명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to on 과 to mē on 에 대해 문헌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는 해석을 내놓기란 어려운 일이다. 대화편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문제들은 바로 이러한 to on 과 to mē on 에 대한 이해와 결부되어 발생하기에 결국 to on 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중간 부분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귀결되고야 만다. 문헌에서 주어지는 바 to on 과 to mē on 이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다면 해석 역시 이에 따라 to on 과 to mē on 을 일관된 방식으로 해석해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전제 하에서 대화편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해결을 요하는 실질적으로 문제로, 이에 대한 해결책 역시 겨냥하는 문제에 적합하고 유효한 것으로서 최대한 정당화될 수 있는 방식의 논증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to on 의 의미구분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프레데도 to on 의 의미 구분을 약화시키거나 to on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 애매성을 찾고자 하는 브라운도 전통적 입장에 대한 이상의 비판과 그 결과로서 『소피스트』 중간 부분 해석에 요구되는 상기의 조건에 동의할 것이다. 기존의 해석들이 중간 부분의 개별 문제들에 대한 각개격파에 주력하면서 의도치 않게 도외시한 해석의 일관성은 이제 해당 대화편의 해석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재조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소피스트』 해석 과정에서 핵심개념의 이해와 논증의 재구성 모두에 일관성이 강력하게 요구된다는 점에 동의하더라도, 여전히 프레데와 브라운은 서로 다른 해석을 제안하며 상호에 대해 직간접적인 다양한 비판을 내놓는다. 이 장에서는 전통적 입장과 차별화함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해석을 제시하는 두 학자의 서로 다른 입장을 대비시키면서 두 해석이 무엇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지를 묘사해 보고자 한다. 중간 부분 내용에 대한 일관된 해석에 추가로 요구되어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 밝혀진다면 이는 향후 『소피스트』를 스스로 검토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새로이 등장하여 다시금 서로 경쟁하는 다양한 연구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유용한 시금석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거칠게 정리하자면 브라운은 충실성의 원리(Principle of Faithfulness)에 입각하여 최대한 문헌에 가까운 방식으로 『소피스트』를 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적 해석들과 여기에 더해 프레데의 해석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일 수 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소피스트』에서 비동일성과 구분되는 일상적 부정서술 개념이 문제의 핵심이라 진단하고, 대다수는 바로 이 일상적 부정서술 개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당 문헌을 해석해내고자 시도한다(2011, 270 쪽). 그러나 브라운이 보기에 이들은 이 과정에서 문헌에 직접 표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사되거나 함축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가정들, 전제들을 동원하여 플라톤의 논증을 재구성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문헌에 명시된 내용들을 왜곡하지 않고 최대한 온존하는 방식에 따르는 해석은, 비록 문제의 완벽한 해결이나 핵심개념의 완전한 정의를 성취하지는 못할지라도 충분히 유의미한 문제제기와 극복의 시도를 재구성해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의 주된 공격지점은 유들의 결합에서 비동일성이 아닌 다른 의미의 to mē on 해석, 보편양화사가 도입된 거짓말 해석 등이다.

반면 프레데는 유들의 결합에서의 to mē on 을 비동일성으로 이해하는 한 기존의 해석들이 가망 없는 길로 나아간다고 비판한다. 그 뒤에 이어지는 거짓말 분석의 작업을 성공적인 것으로 해석해낼 수 없고, 이 성공을 위해 필요한 부정서술을 급조해낸다 한들 이를 유들의 결합을 포함한 이전 논의와 일관된 방식으로 읽어낼 방법도 없다. 물론 프레데나 다른 모든 학자들 역시 브라운이 중시하는 충실성의 원리를 간과하거나 소홀히 하려는 의도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비의 원리와 균형을 이루는 한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것이며, 이 조화가 무너진다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맞은 편 끝에는 만신창이의 허수아비만이 남게 되어 버릴 것이다. 형상이 각기 고유한 본성을 지니며 서로 구분된다는 전제는 지켜지지 못하고, to on 과 to mē on 은 여러 의미들로 균열되며, 손님과 테아이테토스는 서로 다른 것들을 혼동하고 뒤섞으면서 비약을 일삼다 논의를 마치고, 여전히 불가능한 거짓말로 잡을 수 없는 소피스트를 붙잡으려던 노력은 실패로 끝이 나고야 만다.

브라운의 비판에 대한 프레데의 가능한 반박은 자신의 해석 또한 문헌을 통해 뒷받침될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반면 브라운에 대한 프레데의 비판은 플라톤의 생각을 지나치게 약화시키고 가능한 보완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점들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두 해석이 명시적으로 대립하는 지점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 다루고자 한다. 첫 번째 대척점은 esti 완전 용법과 관련된다. 두 번째 갈등은 유들의 결합에서 to

mē on 의 비동일성 의미를 두고 벌어진다. 끝으로 거짓말의 정의와 관련하여 보편양화사가 도입된 to mē on 해석이 문제가 된다. 세 문제 각각에 대해 브라운의 비판을 정리하면서 이에 대해 프레데의 입장에서 가능한 반론들을 재구성해 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브라운의 해석이 지니는 한계들을 지적하고, 이 문제들을 프레데의 해석이 어느 정도까지 극복할 수 있는지를 검토 및 평가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장에서 이끌어내고자 하는 결론은 건전한 상식에 호소하는 브라운의 입장이 비교적 널리 수용되고 지지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적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통적 해석들이 보여준 개별 문제에 대한 해결력을 높이 평가하고 일부 입장을 개선 및 보완하는 방식으로 계승하면서, 브라운은 결국 자신이 비판하였던 전통적 입장들이 공유하는 한계를 그 자신도 일정 부분 함께 받아들이고 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프레데와 브라운의 입장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해석의 확장 가능성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심대한 결격사유가 된다.

1. esti 완전용법과 ti esti

브라운이 esti 완전용법을 논의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전통적 해석에서 완전용법 존재사와 불완전 용법 계사 혹은 동일성 기호 둘 사이의 구분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일관된 해석을 가로막는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C2 해석은 esti 의 완전용법과 불완전용법 사이의 구분에 연속성을 마련해주기 위해 도입되었던 것이다. 완전용법이 비록 보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더라도 보어의 보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또한 불완전용법이나 그 생략된 형태의 esti 문장에는 완전용법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완결된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만 그 존재하는 것이 무엇으로서 존재하는지 추가적으로 진술될 수 있다. 또한 어떤 무엇이라고 진술되는 것은 또한 그러한 것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기도 하다. C2 용법과 불완전용법은 구문론적으로 보어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고 또한 의미론적으로도 전자의 경우 존재사로, 후자의 경우 일상적 계사로 구분되지만, 구분되는 두 의미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는 것이다.

1) Charles H. Kahn, *The Verb 'be' in Ancient Greek*(2003)

브라운은 칸의 연구(2003, 특히 i-xxxii 참조)를 수용하여 esti 의 여러 의미들이 서술을 중심으로 통합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간주한다. 그리스어 esti 의 완전용법에서 존재의미는 특정된 주어에 대한 서술부 혹은 관계절의 생략을 고려해야 하며, "이 존재는 특정 속성에 대한 특정 종류의 주어의 존재를 의미한다. 반면 서술로부터 단절된 일반화된, 형이상학적인 존재 개념은 조회할 아무런 고정된 의미론적 틀도 없이, 따라서 규정된 의미도 없이 제멋대로 표류할 위험에 처해 있다.(Kahn, 2003, xxxii)"

『소피스트』에서 오직 불완전 용법의 생략된 형태만이 취급된다는 오웬도, 플라톤에게 to on 은 언제나 to on something 이라고 주장하는 프레데도 브라운과 칸의 esti 이해에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대 그리스어에서 esti 의 완전용법이 아무런 규정성도 없는 단적이고 추상적인 현존을 의미하는 것으로 독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에 이들 모두가 동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프레데의 "to on something"은 something 을 대체할 특수하게 규정된 술어들이 일반화되고 추상된, 일종의 축약형태의 to on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축약된 to on 과 브라운 및 칸의 서술을 중심으로 의미의 연속성을 유지한 채 구분되는 존재사 to on 사이의 간극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2) metechein tou ontos

브라운은 그리스어 esti 에서 존재를 의미하는 완전용법을 엄격하게 구분해내려는 시도에 반대하고, 또한 esti 의 여러 의미들 사이에 연속성을 부여하면서 특히 그 서술적 기능을 일종의 의미망에 있어서 중심에 자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가 존재사로서의 esti 를 『소피스트』 해석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이유는 특히 to on 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의 결과에 대한 문헌상의 서술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브라운 자신이 도입한 C2 해석이나 칸의 연구는 모두 esti 완전용법이 불완전용법과 구분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완전 용법은 보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 보어 없이도 이 동사가 포함된 문장이 무리없이 이해되는 용법인 반면, 불완전 용법에서는 문장의 의미가 완성되기 위해 보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보어가 명시되지 않고 문맥을 통해 보충되지도 않으며 보어 없이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해되는 문장은 따로 완전용법이 사용된 문장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문헌에 명시된 표현이 완전용법에 해당하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설명하면서도 불완전용법과의 의미에 있어서의 연속성을 유지시켜줄 수 있다면, 굳이 보이지 않는 보어를 찾아내야 하는 부담을 자처할 이유는 없다.

프레데로서는 브라운이 C2 해석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to on 의 의미들 사이의 연속성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프레데는 플라톤에게 "to on"이 언제나 "to on something"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브라운에게 불완전 용법 "to on F"에서 F 가 생략되고 일반화된 형태는 "to on something"이고, C2 용법 "to on"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보충 가능한, 특정되지 않은 보어는 "something"이며, 바로 이 "something"이 두 용법 사이의 의미에서의 연속성을 설명해준다. 문제는 이 "something"이 고려되지 않는 완전 용법의 경우이다. 브라운에게 esti C2 용법에서 보어의 보충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이 경우 그 의미는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되지만, 프레데는 보어 없는 완전용법 존재사 esti 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문헌상 특정한 보어는 물론 불특정한 보어 something 조차 포함되지 않을 듯한, 완전 용법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등장한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to on 에 대한 직접 참여의 결과들이다. 이러한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a. 254d10 To on 은 양쪽(운동과 정지)에 섞이는 것이다. 아마도 둘 다 esti 이니까.
b. 256a1 To on 에의 그 참여로 인해 (운동은) esti 이다.

c. 256d8-9 그래서 확실히 운동은 실제로 ouk on 그리고 on esti 아니겠는가, 만일 정말로 to on 에 참여한다면?

앞의 두 사례는 확실히 보어를 보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 번째 사례에서는 to on 에 직접 참여한 결과를 마찬가지로 설명하고 있으나, 계사 is(esti) 이외에 보어 being(on) 또한 등장한다. 즉 앞의 두 경우 역시 생략된 보어 to on 을 보충할 여지는 남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to on 을 보충하더라도 여전히 그 의미는 불분명하다. 보어 to on 역시 자신의 보어를 보충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완전용법으로 간주되어야 할 듯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55c14-d1 에서 이야기된 "그 자체에 관련하여(auta kath' hauta) to on"과 "다른 것들에 관련하여(pros alla) to on"에 대한 프레데의 해석은 이러한 to on 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이해를 제공한다.

그는 "to on"이라고 불리는 경우를 "그 자체에 관련하여(is1)" 불리는 경우와 "다른 것들에 관련하여(is2)" 불리는 경우로 구분한다. 그리고 존재사 is 를 자신의 이러한 is 구분과 관련하여 분석한다(1967, 41-50 쪽). 존재사 is 는 프레데의 is 구분과 관련하여 세 가지 경우로 이해될 수 있다. (1) is1 완전용법, (2) is2 완전용법, (3) is2 불완전용법의 생략된 형태.

(1) 우선 is1 완전용법에 대한 설명은 서술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본질이나 개념을 통해 설명된다. (이하 44-7 쪽 참조.)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을 삼각형이라거나 사각형이라고 서술할 수 있으려면, 삼각형이나 사각형에 해당하는 정의나 본질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것들을 좋은 것들이라고 말하고 그것들이 좋은 것들로서 있으려면, 이보다 먼저 좋음의 형상, 본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 본질, 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어로 올 때, 이에 대한 is1 완전용법은 해당 주어가 그런 역할이나 기능을 가진 것이라 서술해주는 것이다. "X is1."은 X 에 대하여, 그것이 어떤 것들이 X 에 참여할 때 그것들을 "... is X"라고 서술할 본이나 기술이라고 말한다.

(2) Is2 완전용법과 존재사 is 의 관계는 "x is different from F" 와의 유비를 통해 설명된다. 제시된 문장에는 "x is the different"가 함축되어 있다. 참여관계를 통해 설명하자면, x 는 the different from F 에 참여하고 이 참여에는 the different 에 대한 참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x is the F" 문장에는 "x is

something"이 함축되어 있다. 달리 말하면, x 가 (to on) F 에 참여할 때 여기에 x 가 to on (something)에 참여하는 사태가 포함되어 있다. 즉 "a is." 는 "a is b"의 부분이다.

(3) Is2 불완전 용법과 관련하여, 보어가 생략되어 있고 is 가 존재사로 보이는 문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프레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물들은 예를 들어 정지에 참여함으로써 to on 으로 불릴 수 있다. 이는 문장에서 „x is at rest"로 표현되고, to on 으로 불린다는 것은 „is something" 이라고 표현된다는 의미이다. 다시, „x is at rest"가 참이라면, x 는 to on at rest, to on the rest 라고 불릴 수 있고 그렇게 불리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the rest"는 정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to on at rest 라 불리는 것들을 가리킬 수 있다. 이제 „the rest is2."를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지해 있는 것들은 단순히 to on something 이라서가 아니라, to on at rest 이기 때문에, 정지해 있다는 그 방식을 통해서 to on 으로 불리기 때문에도 is 라고 서술될 수 있다. 따라서 „the rest is2."에는 생략된 보어 at rest 가 있는 것이다. Is2 완전용법이 어떤 것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to on 에 대한 참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면, is2 불완전용법은 to on 으로 분류되는 방식 중에는 to on 이외의 것들에 참여함으로써 우회적으로 to on 에 속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세 가지 경우 중 to on 에 대한 직접 참여의 결과는 (1)과 (2)를 통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1') 운동이 to on 에 참여함으로써, „the motion is1."에서 주어 „운동"은 운동하는 것들을 운동한다고 서술할 때 그러한 서술의 의미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형상, 그러한 서술의 표준이나 본이 되는 어떤 것이라고 서술된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운동"이 정지해 있는 것들이나 자기 자신과 같은 것들을 정지해 있다거나, 같다거나, 그런 식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아니고, 오직 그 자신의 본성에 한하여서만 ‚운동'이라는 본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자체에 관련하여 바로 그 본성에 따라서 본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므로 이것은 프레데의 is 구분에서 첫 번째 용법에 해당한다. 본문에서 인용한 사례들 중 a 와 b 가 이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2') 주어 그 자체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주어 외의 다른 것과의 관련 하에서 to on 이라 불리는 경우도 있다. 다시 운동을 예로 들어, 운동은 같음에 참여하여 „the motion is the

same with itself."라고 서술된다. 또한 다름에 참여하여 „the motion is the different from all the others"라고도 서술된다. 이 두 경우와 유사하게, „the motion is the being"이 서술될 수 있다. 그런데 „... is the same," „... is the different" 등은 어떤 것이 to on something 으로 불리는 사례들이다. to on 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가 그 자체에 관련하여서가 아니라 여타의 것에 관련하여 to on 으로 불리는 경우는, 이렇게 to on F, to on G 등으로 불리는 일을 경유하여 bieng 으로 불릴 때라고 말할 수 있다. „The motion is2." 라는 문장은 „the motioin is something"에서 „something"이 생략된 것이고 이는 „the motion is to on (something)"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Is2 용법으로 서술되는 to on 에 대한 직접 참여의 결과는 „to on something"에서 „something"이 가리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본문에서 인용한 사례 중 c 는 이런 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2)와 (3)의 설명에서 확인되듯, 그리고 앞서 이미 언급하였듯, 프레데의 is 완전용법에 대한 해석은 브라운과 칸의 입장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to on 에 대한 직접참여의 방법을 (1')과 (2')로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to on 에 참여하여 is 로 서술되는 경우와 to on 이외의 것들에 참여하여 is 로 서술되는 경우 사이의 연속성과 구분점을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술의 표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서술들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두 과정 사이에 공통된 성질이 서술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이 255c14-d1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문헌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나 문헌에 근거한 이해라는 측면에서도 프레데의 해석이 비교우위를 점한다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to on 에 대한 직접 참여를 해석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프레데와 브라운의 각 입장은 조화될 수 있다.

3) 255c-d, kath' hauta / pros alla

프레데의 입장에서 esti 의 중심의미가 서술이라는 브라운의 주장은 충분히 수용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프레데가 자신의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는 255c-d 에 대한 이해에서 브라운은 그와 입장을 달리한다(1986, 68-9 쪽). 브라운에 따르면 이 부분은 esti 완전 용법과 불완전 용법을 구분하고, esti(to on)가 두 용법 모두를 가진다는 점에서 한 가지 용법만 지니는 heteron 과 구분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69 쪽). 반면 브라운에 의해 프레데의 해석은 오웬의 해석과 함께 묶여 esti 불완전 용법 내에서의 구분으로 이해하는 같은 입장으로 취급되고, 추가적인 반박 논증 없이 부정된다(68 쪽). 역으로 프레데는 해당 부분에서 esti 완전 용법과 불완전 용법의 구분을 읽어내려는 시도 일반을 적극적으로 비판한다. 존재사 esti 와 계사 esti 두 의미 사이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브라운의 해석은 일정 부분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몇몇 비판으로부터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다.

프레데는 우선 "pros alla"의 방식으로 이야기되는 계사 esti 가 이후 유들의 결합에서 유들 사이의 참여관계를 통해 설명된다는 점을 통해 해당 부분이 to on 완전 용법과 불완전 용법의 구분이라는 해석에 대한 비판을 구성한다. 그의 비판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a is b"는 a 가 자신과 다른 어떤 형상 b 에 참여해서 나온 결과이다. 달리 말해 "is b"는 형상 b 에 대한 a 의 참여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 "b 에 대한 참여"는 a 와 서로 다른 것이고 구분된다. 또한 "b 에 대한 참여"는 b 자체와도 다른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a 에 대해 "is b"라고 서술되기 위해서는 a 가 다시 이 "b 에 대한 참여"라는 형상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주어 a 가 자신과 다른 어떤 형상 F(이 경우 "is b")에 참여한 결과는 "is F" 형태로 서술되므로, "a is 'is b'"가 된다. 이러한 서술은 다시 주어 a 가 자신과 다른 대상인 참여관계 "is 'is b'"에 참여해야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참여를 고려하면 다시 그 결과는 "a is 'is "is b""가 된다. 결국 이러한 참여에 대한 참여가 끊임없이 이어져 "is b"가 가리키는 대상은 아무것도 없게 되어 버린다. (1967, 15 쪽 참조) 물론 브라운은 유들의 결합에서 x is y, x is not y 형식의 문장들에서 의미의 차이는 is 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보어가 형용사인 경우와 추상명사인 경우를 구분함으로써, 그리고 주어가 추상명사와 이루는 관계를 가리키는 문장유형과 형용사로 서술되는 관계를 맺는 문장유형을 구분함으로써도 설명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불완전 용법 is 가 사용된 모든 문장에서 is 가 반드시 "참여"를 의미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주어와 술어를 연결해주는, 소위 일상적 계사의 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반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255c14-15 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러한 반론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 사실이다. 또한 참여를 통해 "x is y" 형식의 문장들이 설명되고 있다는 점 역시 사실이다. 예를 들어, 어떤 형상이 운동이나 정지에 참여하는 경우 이 결과는 굳이 is 를 통해 표현하지 않더라도 "x 는 운동하고 있다(kineitai)," "x 는 정지해 있다(histētai)" 처럼 동사를 통해 서술될 수 있다. 즉, "is"를 참여를 통해 설명하지 않고 동일성 문장과 서술 문장을 구분할 가능성은 열려 있었던 것이며, 플라톤이 이러한 방식을 택하지 않고 참여라는 용어로 is 서술문장을 설명한 이유를 설명할 부담은 여전히 남는다.

그러나 프레데는 255c14-15 를 is 완전용법 존재사와 is 불완전용법 계사의 구분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보았듯 그는 해당 부분을 to on 들이 to on 이라 불리는 방식의 구분으로 보고 있기에 "is F"가 F 에 대한 참여로서 F 자체와 구분되는 것이라 할 이유가 없다. 모든 것이 to on something 이고, F 역시 to on F 이며, 이 to on F 에 참여한 결과가 is(즉, to on) F 로 그대로 묘사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비판에 이어서 프레데는 to on 완전 용법과 불완전 용법 사이의 구분에 대해 세 가지 비판을 추가로 제시했다(1967, 16 쪽 참조). 그 비판들은 다음과 같다.

(1) 완전용법과 불완전용법 구분은 heteron 이 완전용법으로 사용되기에 부적절하다.
(2) 보어가 없는 is 는 아무런 대상도 아니다.
(3) Red, dog 등 보어가 필요없는 술어와 달리 bigger than 등은 보어가 있어야 의미가 완성된다. Is 의 의미가 그런 식으로 구분된다 하더라도, is 의 의미가 하나라면 어느 경우에는 보어가 없이도 이해되다 다른 경우에 안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와 (3)에 대한 브라운의 방어는 바로 앞 항을 통해 충분히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보어가 없는 is 는 브라운에게 있어서 보어의 보충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완전용법이 아니라, 그의 C2 용법으로 설명될 것이다.

그것은 is something 이긴 할 것이나, 보어 "something"은 완전 용법 is 문장에서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아무 내용도 없이 존재하기만 하는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기는 할 것이나 어쨌든 그것이 있다는 그 점이 전달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말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기존 구분에 비해 덜 엄격한 것이고 완전용법과 불완전용법, 존재사와 계사의 사이에는 연속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red 와 bigger than 처럼 보어를 보충할 수 없는 술어와 보어가 반드시 필요한 술어 사이의 구분이 아니라, to teach 와 to teach something 과 같이 is 의 두 경우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브라운의 입장이다.

문제는 (1)과 관련하여 브라운이 자신의 입장을 방어할 수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브라운의 입장에서 다름(heteron) 완전용법은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55c14-d7 의 맥락은 프레데가 누차 강조하듯 to on 과 같음(tauton)을 별개의 두 가지 것들로 구분하는 것이다. 또한 255d3-7 에서 가정되는 바를 고려하면, to on 이 참여하는 형상 "여타의 것에 관하여(pros allo)"와 다름이 참여하는 "다른 것에 관하여(pros heteron)"는 같은 것이다. 따라서, "다른 것에 관하여 to on"이 보어를 필요로 하는 is, "... is <u>something</u>"에 대한 설명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다른 것에 관하여 다름" 역시 보충어를 필요로 하는 different, 즉 "... different <u>from something</u>"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야 한다. 이 구분은 완전 용법과 불완전 용법을 통해 이해하자면 to on 이 보충어 없이 완전 용법으로도 사용되고 보충어를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도 사용되는 반면, 다름(heteron)은 항상 보충어를 필요로 하고 보충어 없이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to on 과 다름이 구분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256b4, c7, 256d1-2 에서 다름은 "from something"에 해당하는 보충어 없이, 말하자면 완전용법으로 사용된다. 아마 같음의 경우에도 같다는 것이 무엇과 같다는 의미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와 마찬가지로 보충어(예를 들어 "with itself" 혹은 "as itself" 등)를 필요로 할 것이나, 256a10, 12 에서 tauton 역시 완전용법으로 사용된다. 완전 용법과 불완전 용법의 구분이 보충어의 유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to on 은 두 용법 모두를 가지는 반면 다름이나 같음은 그 둘 중 어느 한쪽 방식으로만 이야기된다는 것이 to on 과 다른 두 유들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면, 바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to on 은 다름이나 같음과 구분되지 않고 세 유들 모두 두 용법 모두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게 되는 것이다.

브라운의 입장에서 형용사와 명사의 구분을 통해 재반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어가 없는 다름이 술어로 등장할 경우 이것은 추상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다름이 형용사로 사용될 경우에 한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미심쩍다. to on 은 명사로 to on x 도 되고 동사로 is x 도 되는 반면, 어째서 different 와 difference 는 구분되어 사용되어야만 하는지, 그 근거를 문헌상에서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프레데의 경우 다름 완전용법으로 보이는 문장은 is1 문장으로 이해 가능하다. "The different is1."라는 문장은, 다름에 참여하는 것들을 "x is2 different." 즉 "x is different from something."이라고 말할 때, 이런 말의 표준이 되는 것이 is1 문장의 주어라는 점을 말해주는 문장이다. "The different is1." 은 "The different is1 what is different"이고, 이는 주어와 보어가 동일하다는 것, "The different is the same, i.e. with itself." 와는 다른 의미이다. 다른 한편 "The different is2 different." 는 "to on 들 중 ... 어떤 것들이 여타의 것들에 관련하여(pros alla)" 이야기되는 사례로도 "The differernt 가 다른 것에 관련하여(heteron pros heteron)" 이야기되는 사례로도 설명된다. 우선 is 의 pros alla 용법, 프레데의 구분대로 is2 용법으로 이해할 때 이 문장은 주어 The being different(to on heteron)가 자신 이외의 것, 형상 다름에 참여해서 그러한 이름으로 불린 경우를 서술하고 있다. 즉 여기에서 "다른 것에 관련하여" 는 주어 이외의 것인 형상 다름에 관련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다시, "What is different" 로 불리는 것은 언제나 자신 이외의 것과 관련하여 그렇게 다르다고 불리고, 그 비교대상이 "다른 것에 관하여"로 표현되기도 한다. 3 장 1 절 2 항에서 설명하였듯 프레데가 "... is F" 유형의 문장에서 is 용법을 구분하는 기준은 주어의 어떤 측면이 서술되고 있는가에 달려있고, 그에 따라 is2 용법에서 "다른 것에 관하여"의 의미와 바로 그 is2 동사가 사용된 문장에서 다름과 관련한 "다른 것에 관하여"의 의미는 구분될 수 있다. 다르다고 이야기되는 것이 왜 그렇게 불리는지에 대해서, "다른 것에 관하여 to on"은 그 다르다고 불리는 것이 본성상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 이외의 어떤 것에

참여하여 그렇게 불린다는 점을 이야기해준다. 그리고 "다른 것에 관하여 다름"에 따라 설명하자면, 다르다고 이야기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과 다른지, 그 비교대상이 늘 함께 이야기된다. 이 두 경우는 다르다는 것이 to on 의 일종으로서 설명되는 방식과 '다르다'라는 바로 그 측면에서 서술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2. 비동일성과 "is1 not"

프레데는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x is not y" 형식의 문장들을 비동일성 문장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여기에서 확인된 to mē on 을 통해 이후 거짓말의 가능성을 밝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정의하려는 작업을 가망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강조한다(1996, 408 쪽). 앞서 보았듯 그에게 to on 의 의미는 단일해야만 하며 이러한 to on 의 부정이란 측면에서 to mē on 역시 존재사, 비동일성, 부정서술 등 서로 구분되는 여러 의미들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거짓말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전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259a-b 에서는 다시금 유들의 결합에서 to on 과 다른 것으로서 설명된 to mē on 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이 이후로 to mē on 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나 새로운 설명은 제시되지 않고, 진술에 대한 분석과 거짓말 분석으로 대화가 넘어간다. 그러나 진술 일반에는 이미 긍정 서술과 부정 서술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어떤 것이 작거나 같은 크기라는 의미에서 "크지 않다"라고 서술될 때, 이것을 단지 "큼(big-ness)과 다르다"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단순히 주어와 술어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만으로 문장의 거짓이 설명되지는 않는다. 또한 특정한 참인 술어 하나와 다르다는 것만으로 한 진술이 거짓이 되는 것도 아니다. 프레데의 입장에서 보자면 특정 주어에 대한 거짓말은 그 주어에 대한 참인 말 일반에 대비되어야 하고, 그 참인 진술 일반이 온전히 규정되기 위해 참인 부정서술이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거짓 진술은 이 참인 서술 일반에 대비되어 "참이 아니다"라고 서술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참이 아니다"라는 말이 단순히 참 자체와 다르다거나 특정한 참인

명제 하나와 다르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거짓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특별히 언급되는 일 없이 진술 분석과 거짓말 분석이 이루어지고 분할이 재개되어 소피스트에 대한 정의에 이르러 대화편은 막을 내린다.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to mē on 이 비동일성만을 의미했다면, 진술과 거짓 진술의 분석에 이르러 플라톤은 비동일성에서 부정서술로 비약을 했거나, 혹은 그 두 개념을 혼동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혹은 부정서술 개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의 진술 분석이나 거짓 진술 분석을 전혀 만족스럽지 못한 작업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프레데는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다루어지는 to mē on 을 부정서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바로 이 부분에서 to mē on 을 비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브라운은 이 부분에서 부정 서술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발견되어야만 한다는 선입견을 문제 삼는다(2011, 270 쪽). 앞서 보았듯 그는 해당 부분이 문장유형이나 문장성분의 기능이나 역할을 구분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보어가 추상명사인 is 문장은 주어와 보어의 동일성을 문제 삼는 반면, 보어가 형용사인 is 문장은 주어에 대해 보어를 서술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2008, 448-9 쪽). 이 해석도 프레데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늦게 배우는 자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들이 혼동하고 있는 지점 역시 설명해낸다. 그들은 동일성 문장 유형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들 사이의 서술관계를 인정하지 못하지만, 그 둘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되는 것이다. 또한 이 해석은 기존 해석들이 동일성기호 is 와 일상적 계사 is 를 나눔으로써 봉착하게 되는 문제 역시 적절하게 회피한다. 브라운에 따르면 "x is y," "x is not y" 두 문장에서 애매성은 "is"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y 에서도 보이고 x 와 y 사이의 관계에서도 찾을 수 있으므로(2008, 446-7 쪽), 굳이 is 의 의미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이 구절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이후 진술과 거짓 진술에 대한 분석에 필요한 그런 종류의 to mē on 을 "not big" 표현을 분석하는 대목에서 읽어내고, 유들의 결합 논의의 역할은 늦게 배우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to mē on 의 가능성을 밝히는 것까지로 제한하여 해석한다. 그리고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x is not y" 유형의 문장들을 비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려는 프레데의 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비판은 유들의 결합 논의에 대한 브라운 자신의 해석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그 해석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같은 표현의 서로 다른 역할, 보어가 추상명사로 이해되어야 하는 문장과 같은 표현의 보어가 형용사로 이해되어야 하는 문장 사이의 구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절에서는 우선 브라운의 보어 구분 혹은 문장 유형 구분에 대해 프레데의 입장에서 가능한 비판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브라운이 프레데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프레데의 입장이 충분히 공정하게 고려되었는지를 재검토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브라운의 해석은 득보다 실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근거한 브라운의 비판이 프레데에게 결정적이거나 불가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1) 추상명사와 형용사의 구분

4 장 2 절 1 항에서 보았듯 브라운은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보어가 추상명사의 기능을 하는지 아니면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동일성을 문제 삼는 경우와 서술관계를 표현하는 경우가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추상명사의 경우 단어 앞에 관사를 추가하고 형용사의 경우에는 관사를 배제하여 둘 사이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x is y"와 "x is not y"에서 y를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하여 표현할 경우 두 문장 사이의 모순이 효과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문법적으로 그러한 일이 허용되기도 하므로 플라톤이 의도적으로 관사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순을 성립시키는 애매성을 영어문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예시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 "But where there is the same form(as in the pair "the sky is blue" and "the color of the sky is blue"), we have to assume a different function (once as an adjective, once naming the color blue)."[27]

[27] 2008, 447-8 쪽.

그러나 브라운이 예시하는 두 문장을 프레데 입장에서 형용사와 추상명사 사이의 구분 없이 여전히 설명할 수 있다. “the sky is blue”는 is2, “the color of the sky is blue”는 is1 으로 구분 가능하다. 두 문장 모두에서 “... is blue.” 라는 서술의 의미는 ‘파란 것이다’로 동일하기 이해될 수 있다. The blue-ness 와 여기에 참여하는 것들 모두를 what is blue 로 볼 수 있다. 두 문장 사이에서 차이는 주어를 바라보는 관점, 혹은 주어에서 주목되는 측면에 있다. 하늘은 그 자체의 본성 혹은 정의상 “파란 색인 것”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란 색인 것에 참여해서야 비로소 파란 색인 것이 된다. 반면 “파란 색인 것”으로 명명된 한에서 하늘은 what is blue color 로 간주되고 파란 색이라는 그 측면이 주어를 대표하고 있기에, 표현의 차이에서도 알 수 있듯 주어가 “the sky”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의 “the color (blue)”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 경우 파란 색인 것은 그 자체 본성상 파란 것이고 또한 색인 것이기도 하다.

이어서 브라운은 블라스토스와 보스톡의 반박을 인용한다(2008, 448 쪽). 그들에 따르면 tauton, heteron, to on 각각이 포함된 모순문장 쌍에서 이 이름 각각은 저마다 동일한 형상을 지시함으로써 의미가 고정되기 때문에, 이 이름들이 여러 의미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각각의 형상에는 각기 고유한 술어가 할당된다는 프레데의 입장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이러한 반론에 대해 브라운은 추상명사와 형용사 두 표현을 구분해 유들의 결합을 재구성하더라도, 여전히 한편은 참여를 통해, 다른 한편은 “the difference from”에 대한 참여를 통해 구분되어 설명될 수 있다고 재반박한다. 즉, “x is y”와 “x is not y” 두 문장에서 y 가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키더라도 논의의 맥락이 바뀌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만일 브라운의 생각대로 “x is y”와 “x is not y”가 모순되어 보이는 이유가 y 의 형용사로서의 쓰임과 추상명사로서의 쓰임을 혼동하기 때문이라면, 왜 이 두 문장이 동시에 참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참여”와 “다름”을 통해 설명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모순되어 보이는 지점을 명백하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다면, 이 표현을 다시금 적절하게 구분해주는 것만으로도 의미의 혼동이 해소될 것이다. 예를 들어 꽃이 아름답다거나 옷이 아름답다고 말할 때에는 꽃이나 옷이 아름다움 그 자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움 그 자체”와 “아름답다”라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이후 진술 분석에서의 논의를 빌려와

"이름"과 "동사"를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꽃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아름답다"는 동사이고, "꽃은 아름다움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아름다움"은 이름이라고 구분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도 늦게 배우는 자들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현의 역할이나 의미를 구분함으로써가 아니라, "참여"와 "다름"이라는 별도의 개념을 동원하여 "x is y"와 "x is not y"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했다는 것은, 애초에 이 논의가 그러한 구분을 의도한 것이 아니리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만든다. 더욱이 여전히 참여의 목적어와 다름의 비교대상이 동일하지 않다면 단지 표현이 같다는 것만으로 철학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할 가치가 있는 역설이나 모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유들의 결합 논의의 맥락을 고려하면 "다름"이라는 말이 도입되는 이유는 어느 정도 분명해 보인다. 앞서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서의 to mē on 이 아닌, 이야기되거나 생각될 수 있는 to mē on 이 바로 이 "다름"을 통해 설명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참여"는 그 대상이 to on 일 때만이 아니라 to on 이외의 다른 유들일 경우에까지 설명을 위해 적용되는 개념이고, 이러한 참여의 결과들은 다 함께 to on 으로 간주된다. 결국 "참여"와 "다름"이 모두 is, 그리고 is not 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유들의 결합 논의가 is 가 아니라 보어 혹은 문장 전체의 애매성을 문제 삼는다는 브라운의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프레데는 기존 해석들이 is 의 의미를 구분하면서 부딪치는 문제를 피하면서도 여전히 이 논의에서 중심문제를 is 와 관련한 것으로 설명한다. 브라운이 인정하듯, 주어를 그 자체에 관련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와 다른 것에 관련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늦게 배우는 자들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to on 을 그 자체로 놓고 이야기하자면 그것이 본성상 운동한다거나 정지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그것이 인식 가능한 것으로서 고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또한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정지해 있어야 한다. 또한 인식작용을 받아들여 인식된 것으로 변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운동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자체 내에서 찾을 수 없는 술어를 통해 서술되어야 하고, 이는 참여를 통해 자신 이외의 것과

관련하여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의 같음이나 자신 이외의 것들과의 다름 역시 모든 형상에 필연적이고 동일한 조건일 것이므로, 그러나 역시나 to on 그 자체에는 같다거나 다르다는 등의 술어가 할당되어 있지 않기에, 다른 것에 관련한 방식으로 이야기될 필요가 있다. to on 을 그 자체로만 놓고 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늦게 배우는 자들은 인간을 주어로 삼아 이야기하면서 인간 외의 것을 결부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그 자체로 두 발 달린 동물이고 또 인간일 수도 있겠으나, 인간 그 자체를 어떤 식으로 살펴보더라도 거기에서 '좋다'라는 형상이나 술어를 발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이 좋음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러한 참여의 관점에서 인간에게 '좋다'라는 술어를 결부시킬 수 있다. to on 이 본성상 운동이나 정지 등 여타의 형상들과 구분되면서도 참여를 통해 이러한 다른 형상들을 통해 서술될 수 있다는 구분은 늦게 배우는 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더불어 앞서 검토된 to on 에 대한 여러 입장들 각각이 봉착하는 역설 또한 해결한다. 그 자체에 관련한 to on 을 is1 용법으로, 다른 것에 관련한 to on 을 is2 용법으로 구분하면서 프레데는 유들의 결합 논의와 그 이전까지 제기되는 문제들 사이의 관계를 충분히 잘 설명해낼 수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is 의 두 가지 용법 구분은 기존 해석들이 시도하는 is 의 의미 구분과 다른 방식의 구분으로서 단일한 형상에 상이한 두 술어를 할당해야 한다는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to on F 는 what is F 를 의미하며 이는 다시 F-ness 와 이 형상 F-ness 에 참여하는 것들을 모두 포함하여 F 라고 불리는 것들 일반을 가리킨다. 주어를 그 자체에 관련하여 논하느냐 아니면 주어 외의 것에 관련하여 논하느냐 하는 이를 테면 관점이나 측면이 구분되고 술어 is F 의 의미는 단일하게 유지된다. "F is F"라는 문장은 그것의 형상적 측면, 본성, F 그 자체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 경우 is1 용법으로 이해될 것이고 반면에 F 이외의 G, H 등이 F 에 참여하여 서술되는 방식과 마찬가지 의미로, 말하자면 속성 F 를 가진다는 측면을 전달하고자 할 경우 is2 용법으로 이해될 것이다.

일견 프레데의 이러한 구분은 브라운의 보어 역할 구분 혹은 문장 유형 구분과 유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어와 보어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는지, 콘포드와 아크릴 사이의 논쟁을 고려해 말하자면 대칭적으로 결합하는지 아니면 비대칭적으로 결합하는지의 구분이 브라운의 구분을 통해 다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프레데의 구분도 주술관계가 본성이나 형상

차원에서의 결합인지 아니면 주어에 보어가 지시하는 속성을 부여하는 방식의 결합인지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is 의 용법이나 의미 구분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브라운의 입장, 그리고 그의 해석을 통해 결국 술부의 보어가 의미상 구분되고, 결과적으로 is F 형식의 문장이 의미에 있어서 구분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프레데의 구분과의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프레데는 술어, 서술하는 동사와 보어에 관련하여서는 구분을 시도하지 않고 그 의미를 단일하게 유지하고자 한다. 이는 이어서 보게 될 to mē on 의 해석 문제와 관련하여 유들의 결합 논의와 거짓말 분석 논의 사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레데가 의존하는 핵심적인 논거 중 하나가 된다.

2) to mē on 과 비동일성의 관계

브라운은 2008, 450 쪽에서 프레데의 해석이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등장하는 부정문 사례들을 동일성의 부정으로 보지 않고 "in itself predication"의 부정으로 보고자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 프레데 자신도 누차 강조하고 있는 바이다. Is1 이 주술 동일성을 의미하지 않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부정 역시 동일성의 부정, 즉 비동일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프레데 입장에서 is1 부정은 비동일성과 양립 가능하다. 그는 언급된 is not 문장들에서 비동일성이 절대로 함의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렇게 수반되는 비동일성이 논의의 주제가 아니라는 것뿐이다.

예를 들어 보자. 인간은 그 자체로 인간이고 또한 동물이며 두 발 달린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체와 같다"고 말할 때와 "인간은 인간이다"라고 말할 때 두 문장의 의미는 구분된다. 후자는 인간이 동물이라는 것, 두 발 달린 것이라는 것 등등이 인간에 대해 설명하려는 내용과 연속되는 내용, 인간의 본질이나 정의를 인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반면 "인간은 그 자체와 같다"라고 할 때 이 진술에는 인간의 정의나 본질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그 문장은 "그 자신"이라는 말로 마침 주어가 지시하는 것, 즉 '인간'이라는 동일한 것을 가리키게 되고 is1 진술의 일부가 이런 식으로 주술 동일성 관계와 함께 성립하게 된다. Is1 용법은 확실히

주술동일성을 필요조건으로도 충분조건으로도 가지지 않고 이로부터 독립적이다. 하지만 이 둘이 상호 배타적이거나 양립 불가능한 것 역시 아니다.

오히려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다름(heteron)에 대한 참여를 통해 설명되는 to mē on 이 비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할 경우, to on 과 같음(tauton)도 구분할 수 없고 to mē on 과 다름도 구분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 그러나 254d-255e 까지의 논의를 통해 같음과 to on, 다름과 to on 은 별개의 것들로 서로 구분된다. 따라서 그 자체에 관련한 같음과 to on, 다름과 다른 것에 관련한 to on 도 구분될 것이다. to on, 같음, 다름 셋의 외연은 같다. 모든 것은 to on 이고, 자기 자신과 같지 않은 것은 없으며, 자신 이외의 것들과 다르지 않은 것 역시 없다. to on 인 모든 것은 다른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은 항상 다른 것과 관련하여 이야기되지만 모든 다른 것들이 또한 to on 이기도 하기에 to on 이라는 이 점에서는 그 자체에 관련하여서도 이야기될 수 있고, 그렇다면 모든 다른 것이 그 자체에 관련하여 이야기될 수도 있게 되어 버린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to on 이면서 또한 (자기 자신과)같은 것이기도 하며, 따라서 같은 것이 다른 것에 관련하여 이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항상 다른 것에 관련하여 말해진다는 측면은 다른 것이든 다른 것에 관련한 to on 인 것이든 마찬가지이고 이 점에서 to on 과 다름이 구분되지는 않는다. 그 자체와 관련하여 이야기된다는 것 역시 그것이 to on 으로 불리든 같은 것으로 불리든 마찬가지이다. 이제 to on 의 부정이 비동일성이라면 to on 은 동일성으로 이해될 것이고, 이 동일성을 의미하는 to on 과 같음은 구분되지 않으며, 둘 다 마찬가지로 그 자체에 관련한 방식으로만 서술된다. 동일성 to on 을 부정한 to mē on 은 비동일성을 의미하므로 다름과 구분되지 않으며 그 자체와 다른 것, 다르다는 비교의 대상을 항상 필요로 하므로 둘 다 다른 것에 관련한 방식으로만 서술된다. 따라서 to on 을 동일성기호로 이해하거나 to mē on 이 비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구분의 실패로 이어진다.

같음도 다름도 to on 과 독립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각각의 유들이어야 한다. 이러한 구분을 위해 프레데는 to on 이 to on 으로 불리는 경우와 다름이 다름으로 불리는 경우로 위의 구분에 내용을 추가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to on 은 to on 의 본성이 따로 있고 다름의 본성은 to on 의 본성과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 둘 각각에 각기 고유한 서로 다른 술어가 할당된다. 다름만이 아니라

같음 역시 to on 과 구분되는 것이고, 따라서 마찬가지로 to on 과는 다른 술어를 할당 받는다. 다시, "인간은 두 발 달린 동물이다"라는 말은 인간이 두 발 달린 동물과 동일하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이 아니다. 그렇다고 "인간은 두 발 달린 동물과 다르다"라는 말이 "인간은 두 발 달린 동물이 아니다"라는 문장과 같은 의미인 것도 아니다. 브라운은 앞서 보았듯 to mē on 을 양립 불가능성 영역 해석을 통해 이해하고, 이를 단순한 다름이 아니라 to on 에 대비된 다름의 일부로 이해함으로써 to on 과 다름을 구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to mē on 과 다름을 동일시하는 해석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to on 과 동일성 역시 같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항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규명된 to mē on 은 다름과 동일시된다. 또한 이 점이 유들의 결합 논의와 이어지는 not big 예시를 통한 to mē on 분석 사이에 일종의 비약을 만들어낸다.

3. 부정서술의 보편양화와 양립 불가능성 영역

완전 용법 esti 의 해석 문제나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to me on 의 비동일성 의미와 관련한 문제에서 프레데에 대한 브라운의 비판은 프레데의 입장을 해석하기에 따라 양립이나 조화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비판 논증 자체가 결정적이거나 충분히 상세하게 전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255c14-15 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서 브라운의 해석을 받아들일 경우 to on 과 다름 사이의 구분이 선명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비동일성 문장과 서술 문자의 구분이라는 해석 제안 역시 마찬가지로 to on 과 다름의 구분을 불분명하게 만든다는 문제점을 드러내 보인다. 반면 "not big" 분석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브라운은 자신의 양립 불가능성 영역 해석을 옹호하면서 경쟁하는 다른 해석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에 나선다. 특히 그가 옥스포드 해석으로 분류하는 해석의 노선이(2008, 455 쪽) "not big" 분석을 통해 to mē on 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보편양화를 도입한다는 점은 브라운의 집중적인 공격의 표적이 된다. 그의 비판은 대화편 내에서 제시되는 참인 진술과 거짓 진술의 정의들에 대해 보편양화를 도입하는 해석은 일관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2008, 455-458 쪽), 그리고 not F 형식으로 표현되는 to mē on 의 사례들에 대한 서술로부터 보편양화를 읽어낼 수 없다는 것(2011, 274-284 쪽)이다. 두 번째 비판은 세분하면 "not big"을 분석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에 관련된 비판과 다름을 앎(episteme)에 유비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에 관련된 비판으로 나뉜다. 이 과정에서 브라운은 프레데의 입장을 독립적으로 고려하여 비판하기 보다는 옥스퍼드 해석에 포함시켜서, 그리고 보스톡의 입장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절에서는 브라운의 이러한 비판들이 프레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우선 "not big" 분석에 대한 프레데의 해석을 다시 요약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브라운의 비판을 검토한 뒤, 프레데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가능한 재반박을 구성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다름과 앎 유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두 사람의 입장을 비교하여 검토할 것이다. 끝으로 거짓말의 정의와 관련하여 프레데의 해석이 브라운의 지적만큼 작위적이거나 문헌으로부터 괴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일 것이다. 프레데의 해석은 is 의 의미가 아닌 용법만을 따로 구분하는 해석을 통해 is F 식의 서술이 단일한 의미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게끔 만들고, 이 과정에서 보편양화의 도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is F 의 부정 is not F 도 자연스럽게 보편양화가 도입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문헌에 "panta"와 같이 명시적으로 보편양화를 의미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이를 추론해낼 근거들까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 Not big 과 small, equal

앞서 보았듯 브라운은 not big 표현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양립 불가능성 영역이라는 개념을통해 to mē on 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내놓는다. "Not big"이란 말은 big 의 반대인 "small"만이 아니라 단지 big 과 다를 따름인 "equal" 역시 가리키며, 이는 yellow 따위가 big 과 다르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운동이 to on 과 다르다거나 same 과 다르다거나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에서 not big 이 big 과 다르다면,

여기에서 small 이나 equal 이 언급될 필요는 없다. 브라운에 따르면 이 구절은 big 에 대한 부정이 big 과 더불어 big 과 양립 불가능한 속성들, 이를 테면 크기를 의미하는 속성들까지 포함되는 모종의 영역을 전제하고 있다. 이 영역 내에서 하나의 속성이 취해지면, 동시에 이 속성과 양립 불가능한 속성들의 영역 내의 모든 다른 속성들은 배제된다. 어떤 것이 작다면 그것은 클 수도 같은 크기일 수도 없다. 반면 어떤 것이 크지 않다면, 그것은 같은 크기이거나 작거나 하는 식으로, 크다는 것 이외의 이와 양립 불가능한 다른 속성들 중 하나인 한에서 크지 않은 것이다. 257b6-7, not big 표현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은 257b11-c3 까지의 이어지는 서술에도 부합한다는 것이 브라운의 입장이다. 반면 그가 보기에 소위 옥스포드 해석, 부정 표현(not F 따위)에 보편양화를 도입하는 해석은 바로 이 부분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비판이다. 문제가 되는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257b10-c1).

> "뒤따르는 이름들의 앞에 놓인 "mē"나 "ou"는
> 그 <u>이름들과 다른 어떤 것(tōn allōn ti tōn onomatōn)</u>을,
> 혹은 차라리 부정 뒤에 언급되는 이름들이 그것들에 할당될
> 그런 <u>사물들과 다른 어떤 것</u>(tōn allōn ti tōn pragmatōn)을 의미한다는
> 것을..."

브라운은 특히 "다른 것들 중 무언가(tōn allōn ti)" 라는 표현 때문에 확장 해석(옥스포드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한다.[28] 옥스포드 해석은 not F 형식의 표현을 "x 가 F 인 모든 것과 다르다(x is different from *everything that is F*)."와 같이 해석한다. 그러나 브라운은 "다른 것들 중 무언가"가 not F 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F 와 다른 것들 중에서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011, 278-9 쪽. 이탤릭체는 브라운의 강조). 그러나 이것이 옥스포드

[28] Bostock(1984)이 마찬가지의 지적을 하고 있다(113 쪽). 여기에서 보스톡은 이 입장에 서는 학자로 D. Wiggins 를 지목한다. "not large" 에 포함되는 것이 a small thing, a equal thing 에 더하여 large 와 다른 '모든 것' 을 포함한다는 해석이다.

해석에 대해, 특히 프레데의 해석에 대해 결정적인 비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

프레데가 "not F" 표현에 보편양화사를 도입하게 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추적해 보자. 그는 우선 유들의 결합 논의를 통해 to mē on 으로 분류되는 세 가지 경우들을 정리한다. 첫 번째는 형상 to on 과의 다름에 참여한 결과이다. 이는 "... is not(ouk esti)" 또는 "... is not being(ouk on esti)" 라고 표현된다. 두 번째는 to on 이외의 여타 형상들과의 다름에 참여한 결과이다. "... is not at rest(...ou stasis estin)" "... is not the same(... ou tauton estin)" 등이 그 사례이다. "X is not Y"에 대해, X 를 to mē on Y 라고 부를 수 있고 이를 to mē on 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이다. to on 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그것은 자신 이외의 것들이 **is 인 만큼** is not 이다(to on, hosaper esti ta alla, kata tosaūta ouk estin). 세 번째는 "X is not Y"에 대해, Y 를 X 에 대한 to mē on 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형상들 각각에 관하여 to mē on 은 무수하다"라는 표현으로 일반화된다. to on 이외의 것들에 따라 to on 은 to mē on F, to mē on G, to mē on H 등등인 동시에, 이 to on 에 대하여 F, G, H 는 각기 to mē on 인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to mē on 의 사례들은 모두 주어 X 와 술어 Y 가 서로 다를 때 이를 "X is not Y"로 표현함으로써 제공되는 예시들이다. 그런데 257a 까지의 이러한 논의에 이어서 바로 손님은 "mē on"이 to on 의 반대가 아닌 단지 다른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한다(257b3-7). 그리고 그 예시로 "not big(mē mega)"을 예로 들어 설명을 진행한다. 이 표현이 앞서의 to mē on 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big"과 다른 것을 가리키기만 한다면, "not big"이 "small"이나 "equal"을 의미한다는 설명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의 to mē on 설명에 따라서도 "small"과 "equal"은 "big"과 다른 것이긴 하다. 그러나 이는 "red"나 "bird," "to on," "same"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다르다는 의미가 된다. 이렇듯 앞서의 to mē on 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다름"을 설명하고자 하였다면 굳이 "not big"을 분석할 이유도, 그 의미를 "small"이나 "equal"로 설명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프레데는 이 차이를 is1 과 is2 의 용법 구분으로 설명한다. 앞서 세 가지 to mē on 은 is1 not Y 에 대한 설명이다. to on 이 그 자체로 그것의 본성상 운동하거나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듯, 운동은 그 자체로 정지이지 않고 그 자체로 to on 이지도 않다. 그러나 예를 들어 "a small thing is not big"은 small-ness 와 big-ness 의 서로 다름 혹은

small-ness 가 본성상 big 으로 불리는 것과 다르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is not big"이 "... is small"이나 "... is equal"로 이해될 수 있으려면, big-ness 와 다른 것이 아니라 big 이라는 성질을 지니지 못한다는 의미로 "not big"이 이해되어야 한다.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는 것과도 다르고 날고 있는 것과도 다르다. 하지만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고 날고 있지는 않다. 이 때 날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단순히 테아이테토스가 날고 있는 것과 단적으로 다르다는 것만이 아니라, 앉아 있거나 달리고 있거나 하여 날고 있다는 성질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큰 강이나 큰 산은 큼 그 자체와 다를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크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큰 산이 크다는 것에 대비되는 의미에서, 작은 언덕은 크지 않다고 이야기될 수 있다. 큰 산은 그 자체로 본성상 큰 것이 아니라(is1 not big) 큼 자체에 참여하여 비로소 크다(is2 big). 즉 "small"이나 "equal"로 이해될 수 있는 "not big"은 이러한 참여에 대한 부정, 다시 말해 is1 의 부정이 아닌 is2 의 부정을 설명해주는 사례인 것이다.

그러나 to mē on 이 기존과 다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거나 새로운 의미가 추가된다거나 하는 아무런 예고나 경고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반대로, 프레데가 지적하듯 257b3 에서는 "it seems(hōs eoiken)"라는 표현을 통해 이전까지의 to mē on 과 이 표현 이후 다루어지는 to mē on 이 같은 것이라는 암시마저 준다(1996, 405 쪽). 이전까지 형상들 사이의 다름을 근거로 "x is not y"를 설명하고 이어서 "보이기로는, 우리가 "not being(mē on)"을 말할 때, to on 의 반대인 뭔가가 아니라 단지 다른 것을 말하는 것 같다.(257b3-4)" 라고 말하는 것은, 확실히 전과 다른 새로운 to mē on 이 아닌 동일한 to mē on 을 논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프레데의 입장에서 "...is not F"는 F-ness 와 이 형상에 참여하는 것들 모두를 아우르는 "what is F"와 다르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이 점에서 to mē on 의 의미는 단일하고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도 지금 "not big" 표현과 관련한 논의에서도 똑 같은 to mē on 이 다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주어가 이 F 인 것들과 어떤 식으로 대비되는지에 대해서 is 의 용법을 구분할 수 있다. 주어 자체에 관련하여 그 형상적 측면에서 what is F 와 다르다는 것은 주어가 자신 이외의 것에 대한 참여 관계를 고려하여 what is F 와 다르다는 것과 구분되는 것이다. 이 차이를

설명하면서 또한 not F 를 단일한 의미로 이해하기 위해 F 가 F 인 모든 것들, 정확히 말하자면 F-ness 와 이 형상에 참여하여 F 가 되는 것들 모두를 포함해야 하고, 이 둘 모두 "F"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란 점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다. 형상과의 다름과 특정 성질을 지니는 것과 다름이 구분될 경우, to mē on 의 의미를 단일하게 볼 수 없다. 따라서 "F"가 추상명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와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명확히 구분된다면 257b 이하의 내용을 일종의 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플라톤이 『소피스트』에서 관사가 붙은 형용사 중성 단수 표현부터 관사와 함께 축약된 형태, 이 축약된 형태에 관사가 추가된 형태, 관사가 없는 형태를 혼용한다는 점도 형용사와 추상명사의 구분이라는 해석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29] "다름(heteron)," "같음(tauton)," "큼(mega)" 등의 표현이 그 이름으로 지시되는 형상과 역시 그 이름으로 지시되는, 해당 형상에 참여하는 것 사이의 구분 없이 사용된다면,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적어도 일종의 대표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유들의 결합에서 논의되는 to mē on 과 "not big" 예시를 통해 설명되는 to mē on 을 일관되게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동시에 이 둘 사이의 구분을 유의미하게 논할 수 있기 위해 보편양화가 도입된 to mē on 이해가 필요하고, 이는 앞서 언급한 몇 가지 문헌 상의 근거들을 통해서 뒷받침되는 해석이기도 한 것이다.

브라운의 양립 불가능성 영역 해석은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의 to mē on 과 not big 예시를 통해 설명되는 to mē on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적절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다"라는 거짓 진술의 예로 제시된 문장이 거짓인 이유를 to mē on 의 의미와 관련시켜 비교적 만족스럽게 설명해낼 수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의 to mē on 과 not big 으로 예시되는 to mē on 사이의 연속성을 설명하기에 브라운의 해석은 부적절하다. 설령 브라운의 입장을

[29] 예를 들어 heteron 의 경우 "heteron(254d14)," "thateron(254e3)," "to thateron(255c9)," "to heteron(255d1)" 등. to on, to tauton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각기 다른 표현의 의미나 역할을 구분할 만한 규칙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유들의 결합 논의가 is 혹은 is not 의 의미를 문제 삼지 않고 보어의 품사 문제 혹은 문장의 유형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이해하더라도, 여전히 이 과정에서 다름을 통한 to mē on 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제시되고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not big"에 대한 브라운 식의 설명은 "small"이나 "equal"이 "big"과 양립 불가능한 속성들이고, 이러한 속성들이 속한 모종의 영역에서 하나의 성질이 선택되면 이와 양립 불가능한 성질들은 배제된다는 것이다.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운동이 나머지 네 가지 유들, 정지, 같음, 다름, to on 이 아니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이다. 앞서의 사례가 크기나 규모에 관련된 영역을 상정한다면,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는 굳이 말하자면 실체의 영역을 상정하여, 어떤 것이 운동이라는 실체로 규정되는 한에서는 실체 영역에 속한 다른 이름들이 배제되고 이것들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식의 설명도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적용되려면 작은 것이 작은 것인 한에서 큰 것일 수 없는 것처럼, 운동은 운동인 한에서 운동 이외의 것이 아니라는 식의 서술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된 양립 불가능한 실체들의 영역과 not big 을 통해 설명되는 양립 불가능한 속성들의 영역은 여전히 상당히 상이한 영역으로 보인다. "big"에 대비되는 속성들의 범위는 크기나 규모에 해당하는 것들의 집합으로 한정되는 반면, 유들의 결합에서의 "to mē on"은 대비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이 무제한적으로 포함된다. 주어 그 자체를 제외한 모든 것이 to mē on 이고, "운동과 다른 것"은 "정지와 다른 것"과 그 점에서 아무런 차이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본문을 통해 찾을 수도 없고 또한 그러한 설명을 재구성해내기도 어려워 보인다. 브라운이 양립 불가능성 '영역' 해석을 내세우면서 비판한 양립 불가능성 해석의 경우, 그 비판의 지점은 "양립 불가능성"이란 개념이 문헌을 통해 발견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브라운의 해석이 과연 이 비판으로부터 얼만큼이나 자유로운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양립 불가능한 속성들의 영역이 설정되는 방식은 대비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크게 차이게 날 수밖에 없음에도, 이러한 영역들 사이의 구분 기준은 대화편 내에서 설명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프레데는 to on 이 "그 자체에 관련하여"와 "다른 것에 관련하여" 두 형상 모두에 참여한다는 문헌 상의 언급을 통해 자신의

해석을 정당화한다. 브라운의 비판과 반대로, 오히려 문헌을 통해 정당화되기 어려운 해석은 브라운 자신의 해석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2) 다름과 앎

브라운이 보편양화를 도입한 to mē on 해석에 반대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또 다른 대목은 257d11-13 이다. 여기에서는 "not beautiful(mē kalon)"을 "아름다움의 본성과 다른 것(heteron estin ē toū kaloū physeōs)"이라 설명하고 있다. 브라운은 바로 이 표현이 보편양화 해석을 반대할 근거라고 주장한다(2011, 279-284 쪽 참조). "아름다움의 본성과 다른 것"을 "아름다운 모든 것들 것들과 다른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프레데의 입장에서, not F 는 F-ness 와 이에 참여하는 것들 모두와 다른 것이다. 그래서 to mē on beautiful 은 to mē on1 beautiful 역시 함의한다. 이러한 한에서 not beautiful 은 그러한 것의 본성과도 다르고, 굳이 말하자면 그 성질 자체와도 다른 것이다. What is F 는 F 로 불리는 것들 모두에 공통된 이름이다. 이 이름은 F 형상 자체든 이것에 참여하는 것들이든 그것들이 F 라는 점에 주목할 뿐, 다른 구별점들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 F 의 본성과 다르다는 말을 개별자가 아니라 형상과만 다르다는 의미로 볼 이유가 없다. F 의 본성은 is1 F 인 것을 가리킬 것이나, 주어가 이 F 의 본성과 맺는 관계는 주어를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주어 역시 what is F 라면, 그것은 F 인 한에서라면 그 자체로 F 의 본성과 같을 것이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이 F 에 참여해서 F 로 불릴 경우에도, 이것들은 is2 의 방식으로 F 의 본성을 통해 서술될 것이다. Not F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작은 것이 크지 않다는 것은 큼 형상 자체와 다르기도 하고 크다는 성질을 지니지 못한 것이기도 하다.

브라운 입장에서 추함 등의 것은 아름다움과 함께 속하는 어떤 영역에 아름다움과 양립 불가능하게 속해 있을 것이므로, not beautiful 은 아름다움의 본성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이 논의의 맥락을 부정적 형상들이 도입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2011, 282-4 쪽). 다름의 본성(hē thaterou physis)이 앎(epistēmē)에 유비되는 이 논의에서, 지식의 부분들이 다양한 기술들, 다양한

지식들로 이야기되듯 다름도 그렇게 여러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브라운의 예를 인용하자면(281 쪽 도표 참조), 신발의 제작에 관련하여 제화술, 도형과 관련하여 기하학, 수와 관련하여 산술학이 각기 지식의 부분이듯, 아름다움에 대비된 다름의 부분은 not beautiful, 큼에 대비된 부분은 not large 이고 이것들이 다름의 여러 부분들을 이룬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식이 그 자체로 형상이고, 그 대상들 역시 형상들일 것이므로, 이 둘이 결합한 지식의 부분들 역시 형상인 것처럼, 다름과 그 부분에 대비되는 것 양자 모두 형상일 때 다름의 부분들인 not F 같은 것들 역시 형상이라는 것이 이 논의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라는 것이 브라운의 해석이다(282-3 쪽). 그런데 지식의 경우, 예를 들어 기하학은 도형 일반의 공통된 특징과 그것들이 종속되는 규칙들에 대한 앎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 도형들 사이의 비교나 각각의 길이나 각의 크기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할 등등에 대한 앎들 역시 포함할 것이다. 굳이 말하자면 도형 그 자체, 도형이라는 것의 형상과 함께 개별적인 도형들에도 관계하리라는 이야기이다. 반면 브라운의 해석에 따를 경우 not beautiful 은 형상 the beautiful 에 대비될 뿐, 구체적인 아름다운 것들 개개와의 대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프레데의 경우 F 와 다른 것은 F 의 형상과도 다르거니와 F 인 것들 모두와 다르기도 하다.

앞서 가정한 브라운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이라면, 그는 not F 에 대해 그것이 실체의 영역에서 F 와 양립 불가능한 것인지 속성의 영역에서 그러한 것인지 구분해주거나 혹은 이 둘이 함께 묶일 수 있는 또 다른 설명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운은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to mē on 이 주어와 추상명사 사이의 비동일성 또는 주어와 술어의 대칭적 관계에서의 비동일성을 나타내는 유형의 문장에서의 그 비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한다. 여기에서 to on 이나 to mē on 의 상이한 의미들 사이에서 애매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유들의 결합 논의는 추상명사와 형용사의 구분 혹은 주술 대칭적 관계를 서술하는 문장유형과 비대칭적, 서술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유형 사이의 구분에 애매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 거짓말을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to mē on 의 의미는 not big 표현 분석에서 비로소 제시되며, 브라운에 따르면 이것이 양립 불가능한 속성들의 영역 내에서 그 속성들 사이의 비동일성, 다름이다. 문제는 유들의 결합에서 not the same 도 not

big 과 같은 표현도 모두 마찬가지로 to mē on 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헌 상의 서술이다. 브라운이 not beautiful 을 형상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유들의 결합에서와 not big 표현 분석에서 일관되게 이야기되는 to mē on 이라고 말하거나 혹은 둘 중 어느 한 경우의 to mē on 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후자라면 not beautiful, not just 같은 형상들이 유들의 결합에서와 같이 실체와 실체, 혹은 주어와 추상명사 사이의 비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beautiful 이나 just 가 각기 속할 속성들의 어떤 영역 내에서 그 각 영역 내의 다른 속성과의 비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가능한 다른 길은 유들의 결합에서 이야기되는 비동일성과 속성들의 영역 내에서의 비동일성을 단일한 to mē on 으로 일관되게 설명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브라운은 유들의 결합의 to mē on 과 not big 표현 분석에서의 to mē on 을 구분함으로써 재언급의 문제를 피해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3) 거짓말의 정의

앞 장에서 브라운이 다룬 거짓말의 두 가지 정의를 다시 보도록 하자.

> 거짓 진술 정식화 1. (A) 참인 진술은 너에 대해 things that are 를 that they are 라고 말한다. 반면 (B) 거짓 진술은 things that are 와 다른 것들을 말한다. 즉, (C) 거짓 진술은 things that are not 을 that they are 라고 말한다. ...(중략)... (D) (하지만 거짓 진술은) things that are, 그러나 너에 대해 (what is 와) 다른 것들(are different)을 말한다.(2008, 453-4 쪽, 263a-c)
> 거짓 진술 정식화 2. (거짓 진술은 너에 대해) 다른 것들이 같다고, ta mē onta 가 onta 라고 이야기된다.(2008, 457 쪽. 263d)

이를 중심으로 브라운이 옥스포드 해석에 대해 제기한 비판을 다시 언급하자면, 첫 번째 정식화에서 보편 양화사에 직접 대응하는 표현을 찾을 수

없고, 두 번째 정식화에서는 양화사를 일관되게 도입시킬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2008, 456 쪽 참조)

거짓 진술의 사례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다"는 두 번째 정식화로 잘 설명되지 않는다. 이 문장은 "날고 있다"라는 한 가지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날고 있다"는 옥스포드 해석에 따르자면 테아이테토스에 관하여 ta onta 인 모든 것들과 다른 것이다. 그러나 정식화 2.가 이 다른 것 하나를, 보편양화를 일관되게 적용하여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모든 것들과" 같다고 서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어떤 것과" 같다고 서술한다고 간주하면, 이번에는 똑 같은 "날고 있다"의 비교대상이 한 번은 모든 것들이었다가 또 다른 경우에는 한 가지 것이 되는 식으로 일관성을 잃게 된다.

그러나 브라운은 복수표현 ta onta 를 예시된 문장에 근거하여 단수로 간주하면서 자신이 비판하는 상대와 마찬가지로 문헌과 어긋나는 해석을 제안하는 것으로 보인다. ta onta 에 보편 양화사가 없다는 것만큼 그것이 단수가 아닌 복수로 표현되었다는 것도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앞서 3 장에서 설명하였듯 프레데는 문헌에 명기되지 않은 보편양화사를 직접 추가해 넣어야 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시도하지 않는다. 모든 진술이 최소한 두 가지 조건, 주어를 특정해야 하고 바로 이 주어에 관하여 무언가를 이어서 서술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프레데는 여기에 auta kath' hauta to on 과 pros alla to on 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결부시킨다. 두 형상 모두에 참여하는 단일한 to on something 은 달리 말해 whatever is something, "something"으로 이름 불리는 것이다. 특정된 주어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to on 은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것"이라는 조건 없이 불특정의 to on 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to on"이 to on somethin 으로 이해된다면, 이를 다시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whatever is with reference to Theaetetus 로 이해할 수 있다.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것"으로 불리는 to on 은 참여를 통해 그렇게 불리는 것과 본성상 그러한 것을 모두 포괄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것"은 일종의 일반 명사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보편양화사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람은 동물이다" 또는 "사과는 과일이다" 같은 문장에서 주어가 개체를 가리키고 사람 일반, '모든' 사과를 가리키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프레데의 해석을 수용할

수 있다면 비교대상의 일관성이 깨진다는 브라운의 비판 역시 재반박이 가능할 것이다. "같은 것" "다른 것"으로 테아이테토스에 관하여 말하는 것과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같은 것"을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다른 것"으로 말하는 것은 서로 다르며, "ta onta"를 "ta mē onta"라고 테아이테토스에 관하여 말하는 것도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ta onta"를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ta mē onta"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다.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to on"은 whatever is with reference to Theaetetus 를 의미하고, 이와 다른 것은 what is not whatever is with reference to Theaetetus 가 된다.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to on 안에는 그가 참여하는 온갖 ta onta 가 들어 있을 것이다. 그것들 중 어느 특정한 to on 과의 다름이 거짓말이 거짓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음은 재차 이야기한 바이다.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to on 과 같은 것은 마찬가지로 whatever is with referernce to Theaetetus 이다. 그리고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또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거짓말은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to on '모두'와 다른 것을 그 '모든'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to on 과 같은 것으로 말하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날고 있다" 라는 것은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to on 일체와 구분되며, 그렇기에 모든 to mē on whatever is with reference to Theaetetus 와 마찬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거짓말의 두 번째 정식화에서 양화사 도입의 일관성은 깨지지 않는다.

오히려 브라운의 해석은 문헌 상에 명기된 복수표현을, 물론 마찬가지로 문헌 상에 제시되어 있는 예시를 근거로 삼고 있기는 하나, 임의로 단수표현으로 수정해서 이해하게 된다. 브라운의 해석에 따르자면 "날고 있다"라는 것은 "앉아 있다"와 양립 불가능한 영역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쪽이 참이면 다른 쪽은 거짓이 된다. 그러나 "날고 있다"는 "앉아 있다"뿐만 아니라 "뛰고 있다," "누워 있다" 등등 복수의 것들과 다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예를 들어 "죽어 있다" 역시 테아이테토스에 관하여 서술될 경우 거짓 문장이 나올 테지만, 그것은 "살아 있다" 하나와 대비될 뿐이다. 만일 브라운이 강조하듯 문헌에 제시된 거짓말과 참말의 예문을 중심으로 복수표현 "ta onta"를 "to on"으로 다시 새겨야 한다면, 그리고 플라톤이 여기에서 속성 사이에 일대 일로 이야기되는 서로 다름만을 고려하고 있었다면, 복수의 속성들과 다른 것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날고 있다" 말고도 "죽어 있다" 같은 예문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플라톤이 굳이 여기에서 "ta onta"

또는 “mē onta”와 같은 복수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도 말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지나치게 세세한 지적일 수는 있으나, 복수표현에서 보편양화로의 이행을 문헌 상의 근거 미비를 이유로 지적하는 브라운의 입장을 생각하면, 복수표현에서 단수표현으로의 이행이 같은 기준에서 얼만큼 정당화될 수 있는지 되묻는 것이 무리한 요구는 아닐 것이다.

브라운이 보편양화를 도입하는 대신 자신의 양립 불가능성 영역 해석을 통해 거짓말의 정의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는 보편양화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피해갈 수 있는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 그 자신이 재차 인정하듯(2008, 458 쪽, 2011, 278 쪽), 그의 해석은 부정서술에 대한 충분한 정의를 제시하는 데에 실패한다. “virtue is square”는 거짓 명제로서 유의미한 진술이다. 그러나 이 문장의 주어 “virtue”는 술어 “square”와 양립 불가능한 속성을 지님으로써 이와 같이 서술되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제시되는 “x is not y” 유형의 문장들과 마찬가지로, 주어와 술어의 비동일성을 통한 설명이 가능하기는 할 것이나, 덕이 네모와 동일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덕이 네모지지 않다는, 일종의 성질에 대한 부정서술로도 이 문장은 이해 가능하다. 후자의 의미는 브라운의 입장에서는 설명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 “square”와 양립 불가능성 영역에 함께 속하는 다른 성질들은 “square”와 마찬가지로 “virtue”에 대해 긍정적으로 서술되어 참이 될 수 없다. “virtue”는 애초에, 굳이 말하자면 “도형” 혹은 “형태”들의 영역 전체와 무관하다. 반면 프레데의 해석은 이 문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언급된 두 측면 모두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virtue is not square”는 is 의 두 용법에 따라 두 경우로 구분해 이해할 수 있다. 덕이 그 자체로 자기 자신과 관련하여 네모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와(is1 not) 덕이 네모에 참여하는 것들이 네모진 것들인 그러한 방식으로 네모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is2 not)는 모두 “what is square”와 다르다는 표현에 포함되며, 의미의 차이는 주어를 그 자체의 관점에서 형상적 측면으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자신 이외의 것들에 대한 참여관계를 통해 서술하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다. 여전히, 술어 “is not square”의 의미는 “is different from what is square”로 동일하다.

브라운의 해석은 not big 등으로 표현되는 to mē on 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고,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다”라는 문장이 왜 거짓인지 설명할 수 있지만,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부터 시작하여 거짓말 분석에 이르기까지 to mē on 에 대한 일관된 이해를 제시하는 데에는 실패한다. 그리고 또한 그의 해석은 거짓말에 대한 충분한 정의, 더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정의에 필요한 것으로 부정서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는 데에도 실패한다. 반면에 프레데의 해석은 단일한 to mē on 을 일관되게 부정서술을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부정서술에 대한 만족스러운 정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거짓 진술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의를 『소피스트』 내에서 재구성할 수 있게 해준다.

4. 해석의 일관성과 확장 가능성

브라운과 프레데는 소위 전통적 해석에 대해 일정 정도 비판적 시각을 공유한다. 기존의 해석은 개별적인 해석의 문제들에 있어서는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는 데에 성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논의의 연속성을 파악할 수 없는 해석에 이르게 되고, 결국 파편화된 해석들로부터 통합되고 일관된 해석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to on 의 의미들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이에 따라 그 부정인 to mē on 의 의미들 역시 구분함으로써, to mē on 이 불가능하다는 오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늦게 배우는 자들이 혼동하는 것은 무엇인지, “x is y”와 “x is not y”는 어떻게 둘 모두 참이라 할 수 있는지,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 답을 얻어내는 대가로 to on 에 대한 단일한 이해를 놓치게 되고, 결국 to on, to mē on, 유들의 결합과 분리 등의 다양한 주제들이 어떻게 정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파악할 실마리를 놓치고 만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견지할 때에, 늦게 배우는 자들의 문제와 유들의 결합 논의 그리고 거짓말의 분석을 관통하는 연속성을 갖춘 이해를 추구하게 되고, 프레데는 이러한 과정에서 가능한 하나의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브라운은 기존 해석들의 단편적인 해석을 극복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해석에 유기적 연결을 시도해야 할 장면에서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한다. 유들의 결합 논의, “not big” 표현에 대한 분석, “다름”과 “앎”의 유비, 거짓말에 대해 제시된 두 가지 정의들, 『소피스트』의 해석을 둘러싸고 벌어져온 논쟁들에서 결정적인 난관으로 제시되어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브라운의 해석은

상식적인, 그런 점에서 건전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존 해석들이 대화편의 문제들을 분절시킴으로써 마주하게 되었던 문제들과 같은 종류의 문제들을 브라운의 해석 또한 맞닥뜨리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늦게 배우는 자들의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서 유들의 결합 논의를 이해하면서도 is 의 의미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구분하였던 전통 해석의 문제점 역시 극복하기 위해 브라운이 선택한 방법은 해당 부분의 논의를 to on 혹은 to mē on 의 의미로부터 독립된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었다. 운동이 to on 과 다르다는 것, 그러나 to on 에 참여하여 esti on 이라 이야기된다는 것을 설명하기에 그것이 한편에서는 다름, 즉 비동일성을, 다른 한편에서는 일상적 서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용이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바로 이어지는 not big 표현 분석과의 연속성을 찾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결국 이는 다시 거짓말의 분석에 앞서 유들의 결합 논의를 다시금 언급하는 지점에서, 이러한 재언급이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거짓말을 분석하기 위해, 그보다 앞서 참이나 거짓을 성질로 갖는 진술이란 것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부정서술 개념은 유들의 결합에서 to mē on 을 비동일성으로 해석하는 일을 통해 배제되었고, 부정서술과 유사한 역할을 해줄 양립 불가능성 영역 해석은 not big 표현 분석과 유들의 결합 논의를 단절시킨 결과 이 재언급을 통해 거짓말의 분석으로 이끌어올 수 없게 되었다. 그는 프레데의 말을 인용하여 "우리가 거짓 진술에 대해 고민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경우들을 플라톤이 재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상할 만한 일이다(2008, 273 쪽, 프레데 1996, 411 쪽)"라고 결론내린다. 그러나 이 "이상함"은 브라운에게 더욱 크게 느껴질 종류의 것이다. 프레데로서는 재언급되는 to mē on 과 not big 표현을 통해 확장된 의미의 to mē on 이 단일한 의미로 이해된다는 해석을 제시한 반면, 브라운의 해석에서는 이러한 연결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브라운의 양립 불가능성 영역 해석은, 바로 그러한 영역에서의 '다름'으로 to mē on 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비동일성, 즉 '다름'으로 이해되는 to mē on 사이의 연속성을 전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양립 불가능성 영역에서의 다름이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의 다름에 이미 함의되어 있다는 식의 연결은 시도하고 있지 않고 그러한 이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브라운의 양립 불가능성 영역 해석은 비동일성 문장과 구분되는 일상적 부정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부정할 경우 그 외의 영역에서 거짓말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거짓말 분석에서의 논의가 긍정문 형식의 거짓말만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제한을 통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브라운 자신이 시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양립 불가능성 영역 해석으로 설명되지 않는 거짓말의 사례로서 "덕은 동그랗다" 와 같은 거짓 문장은 덕이 형태와 양립 불가능한 속성들이 속하는 영역, 이를 테면 실체 영역에서 형태와는 다른 어떤 것에 참여하고 있다는 방식으로 그 문장이 거짓임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체 영역에서의 결합은 일견 유들의 결합에서 이야기된 것과 같은 방식의 결합으로 보인다. to on 은 본성상 운동하지도 정지하지도 않는다. 이 말을 브라운의 양립 불가능성 영역 해석과 관련시켜, 그것이 실체 차원에서 to on 이외의 것에 참여하지 않고, 운동도 정지도 양립할 수 없는 to on 그 자체에만 결부되어 있다는 방식의 설명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브라운 자신의 해석에 따라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는 양립 불가능성 영역 내에서의 다름이 이야기되지 않고, 이러한 개념을 이끌어낼 서술을 찾아볼 수 없다. 브라운은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비동일성 문장 혹은 비동일성이 이야기되는 주어와 추상명사 사이의 관계를 읽어낼 뿐 여기에서 거짓말에 필요한 의미를 지닌 to mē on 을 독해해내지 않고 있다. 브라운 자신의 이러한 제한에 따라 브라운의 거짓 설명은 문헌에 근거하여 추가적으로 보완될 길을 잃는다.

브라운이 『소피스트』의 중간 부분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논의들에 대한 해석의 일관성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또한 이 과정에서 부정서술 개념을 확보해내려는 시도를 일종의 선입견에 입각한 억지스러운 독해로 간주하여 거부함으로써, 그의 해석은 대화편을 통해 거짓말의 불완전한 정의를 재구성해내는 데에 그치게 된다. 반면 그가 선입견이 개입한 과도한 해석의 하나로 비판한 프레데의 해석은 오히려 몇몇 부분에서는 브라운의 해석보다 『소피스트』의 언급들을 더욱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문헌을 통한 정당화를 기준으로 보자면 브라운의 비판과는 달리 프레데의 해석이 딱히 결정적인 약점을 지닌다고 보긴 어렵다.

전통적 해석 일반이 개별 문제에 대한 답변들을 마련하는 데에 골몰함으로써 내용의 통일성을 잃고, 결국 해석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여 해석의 쟁점

각각에 대한 주장의 정당성까지도 지키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 앞서의 결론이었다. 브라운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계에 부딪치는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불가능한 것으로서의 to mē on 에 대해, 그리고 to on 에 관한 여러 입장과 늦게 배우는 자들의 역설에 관하여,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되는 유들의 결합은 그 이후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not big 표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양립 불가능성 영역과 관련하여 해석되는 to mē on 은 거짓말에 대한 설명에는 활용되지만 그 이전 논의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유들의 결합 논의와 not big 표현과 거짓말에 관한 논의를 서로 분리시킨 것은 재언급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고려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 평가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중간 부분 논의를 중간 부분에 한정시킨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또 반대로 해석을 중간 부분 논의에 국한시켰기에 브라운의 해석이 수용할 만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점점 더 중간 부분 논의를 대화편의 다른 부분들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중간 부분 해석이 대화편 전체에까지 확장되어 적용될 필요가 없다는 숨은 전제가 중간 부분 자체의 해석에서의 일관성을 포기한다는 선택에 일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to on 과 to mē on 의 일의적 해석을 중시한 프레데는 to on 과 to mē on 이 포함된 여러 다양한 사태와 문장을 중간 부분 해석에 기초하여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준다.

『소피스트』는 to on 과 to mē on, 그리고 거짓말을 논의하는 부분만으로 이루어진 대화편이 아니다. 도입부에서는 진정한 철학자가 다른 사람들의 무지로 인해 정치가로도, 소피스트로도 여겨지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어서 이 세 이름이 각기 하나씩 서로 다른 세 부류를 가리킨다는 손님의 단언으로부터, 소피스트란 무엇인지 따로 정의될 수 있다는 전망 아래에서 이 정의를 찾기 위한 분할이 시도된다. 분할을 거듭하며 소피스트는 사냥꾼, 장사꾼, 영혼의 정화자 등 다종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손님과 테아이테토스는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소피스트의 진정한 모습일 수는 없으리라는 문제에 이르게 된다. 온갖 기술에 대해 아는 자를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오직 한 가지 기술로 모든 일 각각의 전문가일 수는 없겠기에, 소피스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 추정된다. 그는 원본이 아닌 어떤 모상을, 말을 통해 만들어내 그러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그들에게 거짓 믿음을 심어주는 자로 짐작된다. 그러나 원본이 아닌 모상, 참이 아닌 거짓 등은 실제로 있는 것, 사실인 바의 것, to on 에 대해 그것과 다르고 그것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to mē on 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to mē on 은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가리킬 수조차 없으므로, 이와 뒤섞여 이는 모상도 거짓도 역시나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소피스트들의 예상되는 반론이다. 이러한 반론에 가로막혀 두 사람의 대화는 to on 과 to mē on, 그리고 거짓말에 대한 어렵고도 무거운 논의로 옮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철학자가 소피스트라는 인상, 철학자가 정치가라는 믿음, 이러한 말이나 생각은 참인가 혹은 거짓인가? 철학자가 소피스트라고 말하는 것은 소피스트가 사냥꾼이라거나, 소피스트가 장사꾼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가? 철학자에게 소피스트나 정치가는, 그리고 소피스트에게 장사꾼이나 영혼의 정화자라는 것은 원본에 대한 모상인가? 원본의 비율을 고스란히 따르는 모상과 원본의 비율을 왜곡시켜 모방하지만 원본에 더 가까워 보이는 모상, 둘 중 어느 쪽이 원본에 더욱 닮아 있는 것인가? 그 두 모상이 하나는 참인 모상이고 하나는 거짓인 모상이라 말할 수는 없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이름과 동사가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진술, 서로 다른 것들이 결합하고 분리되는 방식(유들의 결합을 다루는 앎, 변증술) 등을 통해 더욱 정돈되고 이해가능한 종류의 문제들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서술과 거짓말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to mē on 개념은 원본과 모상의 관계, 실제와 현상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효한 분석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추상명사와 형용사의 구분, 양립 불가능성 영역에서의 속성들 사이의 다름, 이러한 해석들은 지금 열거한 문제들에 접근하는 데에는 활용하기 어렵고 거리가 먼 것들로 여겨진다. 프레데의 is 용법 구분은 철학자를 그 자체로 서술할 경우와 여타의 것들에 관련하여 서술할 경우를 구분하면서, 철학자와 정치가 그리고 소피스트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본과 모상의 관계도, 정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어찌 되었든 소피스트에 대해 일부 현실적으로 서술되기도 하는 앞선 분할들이 소피스트와 갖는 관계 또한, 브라운의 해석보다는 프레데의 해석을 통해 추가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운의 입장에서 프레데의 해석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세 가지 문제는 이상의 논의를 고려하면 프레데의 해석에 결정적인 공격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신뢰성의 원리에 비추어 보자면 브라운과 프레데의 해석은 그 우열이 크게 갈리지 않을 것임을 앞서의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문헌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자비의 원리는 최대한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플라톤에게 비약이나 혼동의 책임을 돌리지 않고 일관되고 정합적인 논증, 사고의 체계를 재구성해줄 수 있다면 이러한 방향으로의 해석을 미리 조심하고 자제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여러 논의들을 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소피스트』의 중간 부분에 대한 정합적 해석이 재구성된다면, 이 해석에 근거하여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대화편의 남은 부분들에 대한 해석으로 나아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일일 것이기도 하다. 전통적 해석들이 공통적으로 파편화된 문제들에 천착하면서 난관에 봉착하였다면, 이 문제를 극복하면서 다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태도로 회귀할 이유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이 대화편을 통해 드러나는 플라톤의 논증을, 평가에 앞서 먼저 재구성하기 위한 목적 아래에서 그러한 한계를 지키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 점에서 브라운의 지적은 일반적으로 타당한 지적일 것이다. 그러나 문헌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전력을 기울여야 할 방향은 가능한 한 정당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논증을 재구성하는 일일 것이다. 해석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전통적 해석 일반을 잘못된 접근이라 평가할 수 있다면, 브라운의 입장은 일관성과 확장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서 또한 거부할 이유가 생기는 해석이다.

오늘날의 상식에 비추어 전통적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은 문제 진단과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대와 지역 및 문화의 차이를 고려하여, 그리고 특히 언어의 차이를 통해 영어 be 동사의 의미 구분이 그리스어 to on 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칸과 브라운이 상세하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문헌에 근거한 프레데와 브라운의 비판에 따라 전통적 해석은 더 이상 『소피스트』를 이해하는 유효한 접근방식으로 통용되기 어렵다는 점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견 별개의 문제들로 구분될 것으로 보이는 중간 부분의 세 가지 해석 쟁점들을 이해하는 데에 이 쟁점들 사이의 연속성, 이것들에 대한 전체 해석의 일관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브라운의 해석은 to mē on 불가능성 문제를 전통적 해석이 제안하는 to on 완전 용법의 부정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선택하면서도 to on 완전 용법과 불완전 용법 사이의 엄격한 구분이 야기하는 비약의 문제를 해결해낸다. to on 의 완전 용법과 불완전 용법은 의미상의 연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또한 두 번째 해석 쟁점과 관련하여서도 브라운은 to on 에 관련하여 제기되는 역설들, 특히 to on 과 운동 그리고 정지 사이의 분리와 결합 모두가 필요하다는 역설에 대해, 그리고 늦게 배우는 자들의 혼동에 대해 다시금 전통적 해석들 내에서 제안된 해법을 차용해 온다. 이러한 문제들은 to on 의 의미보다도 추상명사와 형용사의 구분이나 혹은 대칭적 결합 명제와 비대칭적 서술 명제 사이의 구분에 실패하였기에 발생한 것이고, 유들의 결합이 바로 이러한 구분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고슬링이나 보스톡은 이것이 플라톤이 의도한 바였을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to on 에 관련한 역설들이나 유들의 결합에서 x is y 와 x is not y 가 동시에 참일 수 있는 이유는 to on 의 의미 구분과 관련되었으므로 플라톤은 문제의 진단과 해결에 실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브라운으로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to on 이나 to mē on 의 의미 구분과 무관하게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 이유는 브라운이 유들의 결합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짓말에 필요한 to mē on 의 의미를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Not big"이란 말이 big 이외의 아무것이나 제한 없이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작음이나 같은 크기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묘사되는 이유는 다름에 참여한 결과가 사실은 단순한 다름이 아니라 부정어 뒤에 오는 것과 양립 불가능한 속성들의 영역 내에서의 다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정 영역 내에서의 다름은 테아이테토스가 앉아 있음에 참여하고 있기에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다"가 참이고 그가 앉아 있는 것인 한 이와 양립 불가능한 영역에 속해 있는 날고 있다, 뛰고 있다, 누워 있다 등등이 테아이테토스에 관하여 참되게 서술될 수 없기 때문에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다"가 거짓이라는 설명을 가능하게 해준다.

엘레아 손님은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다"가 테아이테토스에 관하여 to mē on 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모든 것 각각에 관하여 to on 이 많고 to mē on 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부연한다. 그러나 "모든 것 각가에 관하여" 많다고

이야기되는 to mē on 은 유들의 결합에서 (브라운에 따르면) 주어와 추상명사 사이의 결합이 부정되었을 때, 즉 그것들이 대칭적으로 서로 다를 때 결과로 제시된 to mē on 이다. 이는 not big 표현을 통해 브라운이 읽어내는 to mē on 에 정확히 부합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거짓말 설명에 필요한 to mē on 의 구체적인 의미를 유들의 결합에서 찾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브라운의 생각이다. 유들의 결합에서 밝혀진 것은 to mē on 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그 점뿐이고, 그것의 정확한 의미는 not big 표현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짓말 설명에서 문제의 재언급은 to mē on 이 불가능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뿐이라는 이야기이다.

유들의 결합이 to on 과 to mē on 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논의로 읽혀야만 한다면 이러한 우회로는 마련될 수 없다. 그러나 유들의 결합이 to on 과 to mē on 이 아닌 문장의 유형 혹은 같은 표현이 추상명사로 쓰이는 경우와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의 구분과 관련된 것이라면 재언급 문제에 묶여 거짓말 설명에 사용되는 to mē on 의 의미를 유들의 결합 내에서만 찾아야 할 필요는 없게 된다. 더욱이 그곳에서 이야기된 to mē on 에 대한 설명 "다름에 대한 참여"는 "양립 불가능한 속성 내에서" 여전히 "다름"으로 연속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브라운의 해석은 지극히 온건하고 상식적인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입장의 강점이라 할 만한 선명한 문제 분석에 더하여 해석을 곤란하게 만드는 지점들에 대한 적절한 처리 역시 돋보이며, 문헌 근거로부터 결정적으로 어긋난다고 할 만한 지점을 지적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x is not y 를 x 가 y 와의 다름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야기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유들의 결합 논의에서 "is not"의 의미를 비동일성 이외의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은, 여기에서의 to mē on 을 '다름'의 부분, 비동일성으로 이해하면서도 유들의 결합 논의 내에서 to mē on 에 추가적인 해석을 가하지 않는 브라운의 해법을 선호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지점이다.

그러나 프레데가 지적하듯 이는 같음과 to on, 다름과 to mē on 을 구분되지 않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게 만든다. 또한 거짓말 논의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문제로 대두될 이유가 없는 to mē on 의 언급 가능성을 재차 강조하는 것으로

재언급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더 나아가 양립 불가능한 속성들의 영역 내에서의 다름이란 to mē on 에 대한 해석은 거짓 일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재구성해내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덕은 네모다"와 같은 문장은 유의미하게 거짓이지만 덕은 네모와 양립 불가능한 어떤 속성에 참여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들의 결합에 따라 테아이테토스와 앉아 있음은 서로 다르고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음과의 다름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다면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지 않다"라는 말은 유들의 결합에 따라서는 참이다. 그러나 브라운은 유들의 결합에서 to mē on 의 의미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거짓말 논의에서 사용되는 to mē on 을 양립 불가능 속성 영역에서의 다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지 않다"는 "앉아 있지 않음"과 양립 불가능한 "앉아 있음"에 테아이테토스가 참여하는 한에서 거짓이어야 한다.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지 않다"가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가 구분되어야 한다. 거짓말에 필요한 to mē on 의 의미로 유들의 결합에서의 to mē on 을 설명할 수는 없고, 유들의 결합 to mē on 은 to mē on 의 가능성을 밝히는 데에 기여할 뿐 거짓말 설명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면, 이렇게 보는 한에서 브라운은 같은 부정문이 참이면서 거짓이기도 하다는 점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다. 이 역시 양립 불가능한 속성에 참여하는 바 없는 부정문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물론 플라톤의 to mē on 에 대한 설명, 그리고 거짓에 대한 설명이 이 정도 논의에 그친다는 방식으로 브라운은 제기되는 비판들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적어도 대화편의 중간 부분에 한하여서는 문헌 상의 내용을 빠짐없이 설명해낸 것이라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명시적으로 거짓말 '일반'에 대한 충분한 정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언급이 등장하는 것 또한 아니기에, 브라운이 거짓말 일반에 대한 설명을 자신의 입장에서 재구성해내면서 발생하는 난점들도 그의 해석에 대한 치명적인 반론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프레데의 해석이 보여주듯 유들의 결합 논의가 거짓말 설명에 기여하는 방식의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이 양쪽 모두에 활용되는 to mē on 은 "양립 불가능한 속성들의 영역 내에서"라는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그 활용폭이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 분할을 통해 도출되는 정의와 분할을 통해 도출된

정의는 아닌 어떤 서술들, 원본의 비율을 따르는 상과 그렇지 않은 상, 소피스트가 모든 자를 논박할 수 있는 자로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모방들, 이러한 것들 사이의 구분과 각각에 대한 설명에 단일한 의미를 지니면서도 두 가지 용법으로 구분되는 to on 과 이러한 to on 의 부정인 to mē on 이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적어도 거짓의 주어진 예시에 맞추어 이해된 브라운의 to mē on 에 비하자면 더 넓다고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그것은 유들의 결합 논의에조차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 것이다. 중간 부분에 관련한 해석의 논쟁은 이제 해석 자체의 내적 일관성에 더하여 중간 부분이 대화편의 일부인 한에서 대화편 전체로의 확장 가능성 여부를 놓고 다시금 평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유들의 결합 논의, 또 그러한 논의가 해법으로 제시되는 to mē on 과 to on 에 관한 문제들, 이것들이 거짓말에 대한 설명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하더라도, 브라운의 말대로 to mē on 이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한 것이라는 증명 자체는 나름이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 논의 이전까지의 중간 부분 논의는 거짓말 논의에 기여하지 않고, 중간 부분 논의 전체는 소피스트의 분할과 정의 논의에 다시금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방식으로 해석이 진행된다면, 왜 이러한 이야기들이 한 편의 대화편 내에 모여 있는지, 그리고 전면에 내세워진 대화의 목표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은 논의들에 그렇게나 많은 분량이 할애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확장 가능성이 없는 해석을 전제한 이후에 위의 물음들에 답을 하기란 그다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대화편 전체로 일관성 있는 확장 적용이 가능한 종류의 해석이라면, 해석을 넓혀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위와 같은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5. 확장의 가능한 방향들

프레데의 to on 용법구분은 사물의 본래적 측면과 상대적 측면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소피스트』에서는 더욱 다양한 측면들을 구분할 실마리가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주 중요한 유들은, 최소한 그 중에서 to on, 같음, 다름은 분명히 (운동과 정지는 gigantomachia 논의를 인식차원에

국한하여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존재론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사유되거나 진술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필연적으로 서술된다. 그러나 the same is1 the same 과 the same is2 different from all the others 가 둘 모두 필연적이라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프레데의 해석에 따라 전자는 주어 자체에 관련하여, 후자는 주어 외의 다른 것에 관련하여 이야기되는 것으로 구분된다. 다른 한편, Theaetetus is sitting 은 앞서와 같은 필연성을 찾아볼 수 없는 서술이다. 그는 당장에 일어서거나 아예 누울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예시된 문장은 그 즉시 거짓이 될 것이다. 물론 그렇더라도 이는 "Theaetetus, who is talking with ES, is flying." 과 달리 테아이테토스에 관한 참인 진술이다. 참인 진술들 사이에서도 주어에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술어와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그리고 분리될 가능성이 있는 술어가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더욱이 이는 자기술어화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The motion is the motion 은 is1 의 관점에서도 is2 의 관점에서도 필연적으로 참이다. 그러나 그 차이는 분명하다. Is2 the motion 은 the motion 이외의 주어들에 대해서도 참인 진술이 될 수 있다. 반면 is1 the motion 은 오직 the motion 을 주어로 삼는 경우에만 참이다.

이는 거짓 진술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 The motion is1 the rest 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을 결합시키는 진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다. Theaetetus is flying 이 테아이테토스가 참여하는 인간이라는 형상과 이 거짓진술이 결부시키고 있는 the fly 사이의 양립 불가능성을 논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거짓 진술의 또 다른 사례를 쉽게 재구성할 수 있다. Theaetetus is walking 은 Theaetetus is sitting 이 참인 한 거짓일 것이다. 그러나 테아이테토스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순간 이 진술은 참이 될 수 있다. 테아이테토스가 걷지 못할 이유를 생각하기도 어렵다. The virtue is square 또한 거짓이지만, 이 거짓 진술은 운동이 정지라거나 뜨거운 것이 차가운 것이라는 정도로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한편 테아이테토스가 걸을 수 있듯 그렇게 덕이 언젠가 사각이 될 수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

분할의 과정을 통해 모상제작자를 논하는 부분에서, 모상은 본래의 비율을 따른 것과 그 비율을 왜곡시킨 것으로 구분된다. 또한, 대형의 조각은 원본의

비율을 따르더라도 원본과 다르게 보이는 반면, 윗부분을 크게 만들고 아랫부분은 작게 만들어 원본과 다른 비율로 만들면 다시금 보는 입장에서는 이 조각이 원본과 닮아 보이게 된다는 서술도 있다. 말은 이름과 동사로 이루어지고 이름은 사물을 동사는 그것의 행동이나 상태를 가리킨다는 입장을 고려하면, 말 역시 모상들처럼 원본을 모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말이 주어와 그 주어에 대한 사실들을 그대로 모방한다면, 그것은 원본의 비율을 따른 것일 터이다. 그러나 원본과 크기가 다를 수도, 비율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이를 받아들이는 관점에 따라 실제와 달리 거짓이지만 참이라 여겨질 수도, 참이더라도 거짓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전통적 해석이 소위 중간 부분 논의를 다루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문제들의 해결에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그 부분들을 일관되게 하나의 통합된 논의로 이해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실패하였다고 한다면,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브라운의 해석이 더 넓은 범위에서 마찬가지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의 해석은 to on, to mē on, 거짓말이라는 세 주제를 결합하고 연속성을 유지한 채로 해석하는 데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해석이 분할의 방법을 적용하며 진행된 전후의 논의들과 관련하여 일관된 해석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다시 더 큰 범위에서, 시민들에게 거짓말로 설득하여 그들의 역할구분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국가』의 철학자나, 소크라테스에 의해 소피스트로 평가받은 『향연』의 디오티마에 대해, 덕의 교사를 자처하는 대표적인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나 대중연설가로 명성을 떨치지만 소크라테스의 논의에 따르자면 기술로서의 앎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고르기아스에 대해, 이들 모두가 거짓말과 관련하고 있으면서도 또 저마다 각기 나머지 사람들과 구분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대해 어떠한 대답이 프레데의 『소피스트』 해석 노선에서 가능할 것인지 되묻게 만든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플라톤의 모든 대화편을 통일된 체계 속에 우겨넣고자 하는 억지스러운 요구일 위험도 다분하다. 그러나 설령 플라톤 사상의 단계별 발전이라는 그림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변화의 양상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같은 주제에 대한 비교 가능한 입장들을 확인하는 작업은 여전히 유의미할 것이다. 더욱이 대화편 속 사건의 시간순서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접근은 더욱이 요청되는 것으로 보인다. 『소피스트』에서 등장인물들이 모이게 된 까닭은

『테아이테토스』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들이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테아이테토스』에서 앎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던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의 문제는 『소피스트』에서 소피스트의 기술을 정의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다. 한편 두 대화편 사이에 소크라테스는 바실레우스 관아에 들렀음을 『에우튀프론』을 통해 알 수 있다. 그의 용무는 멜레토스의 고발과 관련된 것이었고, 이 고발은 이어서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을 거쳐 소크라테스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고발의 내용은 "폴리스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라는 것이었으며, 이는 당대에 흔히 소피스트들을 묘사하는 데 쓰인 표현들이었다. 『소피스트』의 서두에서 제시된 물음에 대해 이어지는 대화로서 엘레아 손님이 정치가란 무엇인지를 추적하는 『정치가』는 역시나 『소피스트』의 전후에서 다루어진 분할의 방법을 더욱 심도 있게 고찰하는 대화편이다. 『소피스트』에서 매우 중요한 유들로 손꼽히는 같음과 다름은 『파르메니데스』에서 소크라테스가 겪는 훈련의 핵심문제가 되고, 또한 『티마이오스』에서는 to on 과 함께 이 세 가지 유들이 세계와 시간을 구성하는 원료와 같이 묘사된다. 물론 같은 것, 다른 것, to on 의 외연이 그야말로 모든 것에 해당하기에 단순히 이 유들이 언급되었다는 것만으로 『소피스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지극히 보편적인 유들을 그러한 것들로서 검토하고 논의하는 대화편이 『소피스트』인 것도 사실이다.

프레데의 해석이 이러한 확장 가능한 해석의 방향에 부합하는 유일한 『소피스트』 중간 부분의 해석이라 단언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의 해석이 여타의 해석들에 비하여 보여주는 장점들은 이후 『소피스트』 해석 논쟁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충분한 이유를 가진다. 대화편 내에 제기되는 각각의 문제는 개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편적으로 구성되고 제시되는 것이 아니다. 플라톤은 문제의 핵심이 되는 개념들을 충분히 일관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논의의 맥락 안에서 저마다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세부적인 주제들을 배치해 놓았다. 그리하여 역으로 전체 맥락의 일관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개별 문제들에 대한 만족스러운 진단과 해법을 문헌 내에서 읽어낼 수 없다. 그것이 전통적 해석들이 공유하는 한계를 통해, 그리고 프레데의 해석에 견주어 브라운의

해석이 보여주는 단점들을 통해 시사되는 바인 것이다. 중간 부분 논의의 중심에 to on 과 to mē on 에 대한 이해의 문제가 가로 놓여 있고, 중간 부분 해석은 우선 일관되고 단일하게 사용되는 to on 과 to mē on 에 대해 마찬가지로 일관성을 갖춘 해석이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중간 부분 해석은 바깥 부분 논의들에 적용 가능하도록, 그 확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류의 해석이 되어야 한다. 이 조건에 부합할 때 또 다른 해석이 『소피스트』 해석을 둘러싼 논쟁들 사이에서 비로소 경쟁 가능한 해석으로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본 논문의 1 장에서는 『소피스트』의 전체 주제가 소피스트를 정의하는 일이며 이 정의를 위해 모상과 거짓을 먼저 설명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모상과 거짓을 설명하기 위해 다시금 이보다 먼저 to on 과 to mē on 이 무엇인지 밝혀야만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소피스트』의 중간 부분 논의는 바로 이 to on 과 to mē on 그리고 거짓을 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화편 전체에 대한 이해를 위해 앞서서 그리고 가장 집중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대다수 『소피스트』 해석이 중간 부분 논의에 편중되어 다른 부분들을 도외시하고 편협한 해석을 시도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한 간접적인 반론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1 장에는 해당 대화편에 대한 이상의 요약 정리를 바탕으로 중간 부분의 내용에서 적극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고 서로 다른 해석들이 경쟁하는 세 가지 쟁점을 지적하였다. 첫 번째 해석 쟁점은 to mē on 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만드는 to mē on 에 대한 이해가 어떤 것이냐는 것이었다. 두 번째 쟁점은 그 안에서 문제와 해법의 두 측면으로 구분되어 설명되었다. to on 을 그것 자체만으로도 다른 이름들로도 이야기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며 to on 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그것 자체만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도 말하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또한 무엇인지 해명하는 일이 두 번째 해석 쟁점에서 문제에 관련된 측면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서 유들이 서로 참여하고 또 서로에 대한 다름에 참여하기도 하여 to on 으로도 to mē on 으로도 이야기된다는 유들의 결합 논의가 무엇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일이 두 번째 쟁점에서 해법에 관련된 측면이다. 해법은 제시된 문제를 겨냥한 것이고 문제는 제시된 해법을 통해 해결되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으므로, 이 두 측면에 대한 각각의 해석은 서로 일관되고 정합적이어야 한다. 세 번째 해석 쟁점은 앞서의 논의에서 설명된 to mē on 과 관련하여, to mē on 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짓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되고 정의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세 가지 쟁점을 두고 오랜 시간 다양한 해석들이 상호 비판하고 영향을 주고 받으며 경쟁해 오는 중이다.

2 장에서는 앞서 정리한 해석의 세 가지 쟁점들을 "전통적 해석"이라 분류되는 입장들이 어떠한 해석을 내놓는지를 살펴보았다. 전통 1 의 경우 우선 to mē on 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를 그것이 완전용법 존재사 to on 에 대한 부정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라 해석하였다. 반면 전통 2 는 이러한 완전 용법 to on 과 불완전 용법 to on 사이의 구분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두 의미 사이를 연속성 있게 이해하기 어려운 반면, 문헌상으로는 완전 용법 존재사 to on 을 따로 독립시켜 다루는 묘사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해석에 반대하였다. 그리고 전통 2 는 to mē on 이 불완전 용법 to on 의 불특정 보어가 생략된 형태를 부정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해되더라도 존재사를 부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전통 3 은 존재사 to on 이 독립적으로 다뤄지는 문헌 상의 서술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자체로' 이야기되는 to on 과 '다른 것에 관하여' 이야기되는 to on 의 구분은 전통 2 가 주장하듯 동일성 기호와 계사의 의미 구분으로 보기 보다는 존재사와 계사의 문법적인 구분으로 보는 편이 더욱 자연스럽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to mē on 을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문제가 존재사와 계사의 구분에 기인한 것이지만 플라톤 자신이 이를 선명하게 인식하거나 명확히 구분하여 서술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 쟁점으로 to on 에 관련된 여러 역설들을 전통 1 과 전통 2 는 to on 불완전 용법의 동일성 기호로서의 의미와 일상적 계사로서의 의미를 혼동하였기 때문에 제기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서로 다른 것들은 계사로 연결될 수 있지만, 이러한 계사를 동일성 기호로 혼동할 경우에 운동이나 정지가 to on 이 아니라거나 to on 이 하나도 여럿도 아니라는 등의 역설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전통 1 과 2 의 이러한 해석에 따라서, to on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유들의 결합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었다. 여기에서 서로 다른 유들의 상호 참여를 통해 이야기되는 to on 은 일상적 계사로 해석하여야 하고, 한편 서로에 대한 다름에 참여한 결과로 이야기되는 to mē on 은 동일성 기호 to on 의 부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통 1 은 to on 에 to on 이외의 유들이 직접 참여한 결과로 제시되는 "x is(esti)." 문장들을 여전히 완전 용법 존재사 to on 이 활용된 문장으로 보고자 하였다. 반면 전통 2 는 같은

종류의 문장들을 불특정 주어 “something”이 생략된 불완전 용법 계사 to on 이 활용된 문장으로 해석하였다. 전통 3 은 유들의 결합 논의가 불완전 용법 to on 의 동일성 기호로서의 의미와 일상적 계사로서의 의미 사이의 구분 문제를 통해 해석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전통 3 은 플라톤 자신이 이를 의식하는 데에는 실패하였고 바로 이러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지도 못하였다는 비관론적인 입장을 제시하였다. 전통 3 에 따르면 to on 에 관련한 역설들은 보어 자리에 오는 동일한 표현이 추상명사로도 형용사로도 사용될 수 있는 그리스어의 특징적인 애매성이 문제의 원인이라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애매성은 to on 의 애매성에 비해 실질적인 문제의 원인은 아니지만, 플라톤은 to on 의 애매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보어 표현의 추상명사로서의 쓰임과 형용사로서의 쓰임을 혼동하는 문제를 다룸으로써 잘못된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것이 전통 3 의 해석이다.

이 세 입장은 모두 거짓말을 정의하기 위해 비동일성을 의미하는 to mē on 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와 구분되는 일상적 서술의 부정에 해당하는 또 다른 의미의 to mē on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존재사와 계사, 동일성 기호라는 영어 be 동사 구분을 to on 에 적용하여 해석하면서 to on 의 이러한 서로 다른 의미들을 엄격하게 구분한 전통적 해석 모두는 계사 부정과 완전히 구분되는 존재사 부정이나 동일성 기호 부정의 to mē on 으로부터, 거짓말에 필요한 to mē on 을 이끌어내는 데에 실패하였다. 그리고 to on 과 to mē on 을 각기 단일한 형상으로서 고유한 본성을 지닌 것으로 일관되게 취급하는 문헌상의 서술에 비추어 문헌을 통해 정당화되기 어려운 해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전통적 해석은 결국 to on 의 의미들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to mē on 의 의미들을 구분함으로써 중간 부분 논의들을 파편화시켜 이해하였고 이 사이에 생겨난 간극들을 플라톤이 혼동하거나 비약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3 장에서는 전통적 해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대안적 해석의 한 입장으로서 프레데의 해석을 고찰하였다. 그는 to on 의 의미를 단일하게 이해하면서 단지 그 용법에 있어서 주어의 형상적 측면을 서술할 경우에 그 자체에 관련하여 본성상 to on 이라 이야기되는 경우와 주어가 자신 이외의 것들에 참여함으로써 여타의 것들에 관련하여 to on 이라 이야기되는 경우가 구분된다는 해석을 바탕으로 해석의 세 가지 쟁점 각각에 대한 자신의

해석들을 제시하였다. to on 은 그것이 본질이나 정의를 서술하는 경우든 주어에 속성을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서술하는 경우든 기본적으로 서술적 계사이며 이에 대한 부정 to mē on 역시 마찬가지로 서술적 계사의 부정이며 일상적인 부정 서술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이 프레데 해석의 핵심이다. 프레데는 전통적 해석이 to on 의 한 가지 의미로 간주하였던 동일성은 to on 과 별개의 형상으로 구분되는 같음(tauton)의 의미로서 to on 에 속하지 않으며 to mē on 의 의미로 이야기되었던 비동일성 역시 to on 의 부정이 아니라 다름(heteron)에만 속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소피스트』에서는 이렇듯 일관되게 긍정 서술을 의미하는 to on 과 부정 서술을 의미하는 to mē on 만이 사용되고 있으며, to mē on 의 불가능성 문제도 to on 에 관련한 역설도 모두 to on 의 의미가 아니라 저 두 용법을 혼동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유들의 결합은 바로 이 용법 구분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참여를 통해 이야기되는 to on 은 다른 것에 관련하여 이야기되는 to on 을, 반면 다름에의 참여를 통해 이야기되는 to on 은 본성상 그 자체에 관련하여 이야기되는 to on 의 부정을 서로 구분해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프레데에 따르면 용법이 두 가지로 구분되더라도 여전히 to on 의 의미는 단일하며, 그것은 what is something 을 의미할 따름이다. 예를 들어 what is big 이라 불리는 것은 본성상 그 자체로 큰 것으로서 큼의 형상일 수도 있고 이 큼이라는 형상에 참여하여 큰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구분은 주어가 본성상 그렇게 불리는 경우든 참여를 통해 명명되는 경우든 다 같이 "큰 것(to on mega)"이라고 불린다는 점에서 의미에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유들의 결합에서 설명되는 to mē on 은 단순한 다름이 아니라 이러한 to on something 과의 다름이고, to on 에 대비된 다름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어떤 것이 to mē on 이라고 할 때 그것은 본성상 무엇인 바의 것과 다르거나 참여를 통해 무엇인 바의 것과 다를 것이다. 후자의 경우 그 '무엇인 바의 것'은 특정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고, 이것과 다른 방식으로 어떤 무엇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to mē on something 이다. 이는 어떤 성질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서 해당 성질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과 구분되며, 굳이 말하자면 다름 그 자체에 참여하는 것과 구분되는 "참여하지 않음"에 해당할 만한 의미를 포함하는 to mē on 이다. 본성상으로 또는 참여를 통해 what is something 인 것에 대해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what is something else 라고 이야기되는

것으로서 to mē on 은 유들의 결합에서 형상들의 본성상 서로 다름을 말할 때에도, 거짓말에서 주어에 관한 참인 to on 과 다른 것을 말할 때에도 일관된 의미로 사용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프레데는 to on 의미 구분으로부터 전통적 해석 일반이 피할 수 없었던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

4 장에서는 전통적 해석과 극단적으로 결별하는 프레데에 비하여 온건하고 우호적인 방식으로 전통적 해석을 극복하고자 하는 브라운의 해석을 검토하였다. 브라운은 문헌 상 보어가 명시되지 않고 또한 전후 문맥을 통해 보충되지도 않는 to on 이 포함된 문장들을 to on 완전 용법 존재사로 이해하는 전통적 해석을 수용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완전 용법 to on 이 불완전 용법 to on 과 연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완전 용법 to on 은 불완전 용법 to on something 으로 보충어를 추가하는 일이 허용되고 불완전 용법 to on someting 은 그 안에 완전 용법 to on 을 함축하며, 그리스어 to on 은 그 서술적 계사로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존재사, 진리사, 기타 다양한 의미들이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완전 용법 존재사 to on 으로 볼 때 이해하기 쉬운 to on 의 용례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불가능한 to mē on 에 대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해석인 비존재 해석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러한 해석에서 출발해 to on 불완전 용법과의 엄격한 의미 구분으로 인해 해석상의 간극이나 비약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통적 입장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다른 한편 브라운은 두 번째 해석 쟁점과 관련하여 to on 에 관한 역설들과 늦게 배우는 자들의 역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유들의 결합 논의가 다루는 애매성과 구분이 to on 의 의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표현의 형용사로서의 의미와 추상명사로서의 의미 사이의 문제, 혹은 주술 대칭관계에서 동일성을 의미하는 문장과 주술 비대칭관계에서 주어에 술어가 지시하는 속성을 귀속시키는 서술을 의미하는 문장 사이의 문제에 관련되었다고 해석한다. 전통적 해석들과 마찬가지로 브라운이 유들의 결합 논의가 비동일성을 의미하는 to mē on 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이와 구분되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to mē on 이 요청되는 거짓말에 대한 설명 부분에 대해 유들의 결합 논의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일관된 해석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난관에 빠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들의 결합 논의를 to on 과 to mē on 에 대한 논의가 아닌 다른 논의로 해석함으로써, 거짓말 설명에 필요한

to mē on 을 유들의 결합 논의가 아닌 다른 부분, “not big” 표현을 분석하는 부분이나 “not beautiful,” “not just”를 논하는 부분에서 따로 마련하여 전통적 해석이 직면하였던 간극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브라운은, 전통적 해석 내의 비관적 입장들에서 플라톤이 to on 과 to mē on 의 애매성을 포착해야 했으나 이 일에 실패하였다는 해석의 근거로 제시되었던 to mē on 의 또 다른 의미, “양립 불가능한 속성들의 영역 내에서의 다름”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해석된 to mē on 은 거짓말과 참말 각각의 예시로 문헌 상에 등장하는 “테아이테토스는 날고 있다”와 “테아이테토스는 앉아 있다” 각각이 왜 거짓이고 참인지, 그리고 그 두 문장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적절하게 설명해낼 수 있게 해주었다.

프레데와 브라운 두 사람의 해석은 전통적 해석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소피스트』 해석이 충족시켜야 할 하나의 기준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이는 곧 이 대화편 내에서 to on 의 의미는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중간 부분에서 다뤄지는 각각의 문제들은 상호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이 시사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간과하거나 상실한 채로 개별 문제의 해결에만 천착할 경우, 결국 전통적 해석 일반이 봉착하였던 간극과 비약의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점이 3 장과 4 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4 장의 소결론으로서 제시된 본 논문의 주장이다. 세 가지 해석 쟁점 각각의 해결에 천착하여 이에 유효한 방법으로서 to on 을 영어 be 동사와 같이 해석하고, 이를 전제한 이후 『소피스트』 중간 부분 논의에 대한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전통적 해석은 가망이 희박한 탐구의 경로로 스스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한 기존 『소피스트』 해석사의 지형도는 재고되어야 하며, 새롭게 재설정되어야 함을 프레데와 브라운의 해석이 보여준 것이다. to on 과 to mē on 각각에 대한 일관된 이해, 그리고 중간 부분의 세 가지 쟁점들 전체에 대한 다시금 일관된 이해가 중심 과제로 정립된 이후의 새로운 해석의 지형도가 마련되었을 때, 비로소 『소피스트』 전체에 대한 이해를 놓고 경쟁하는 해석들에 대한 유효하고 정당한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다른 해석들의 도움을 받고 또 그 해석들을 극복하면서 독자 각자의 고유한 해석을 마련하려는 시도 역시 가능해질 것이다.

5 장에서는 중간 부분 논의의 내적 일관성이라는 기준에 더하여, 브라운과 프레데의 서로 다른 두 해석을 대비시키면서 『소피스트』 해석에 요구되어야 할 또 다른 기준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고찰은 특히 해석의 세 번째 쟁점, 거짓말에 대한 설명과 재언급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프레데는 브라운의 비판에 맞서 자신의 해석을 옹호하고 견지할 수 있음을 밝혔고, 반면 프레데가 이전 해석들에 대해 가하였던 비판은 그 이후에 등장한 브라운의 해석에도 여전히 유효하였다는 점을 보였다. 프레데 해석이 브라운 해석에 비해 갖는 상대적 우위는 결국 to on 과 to mē on 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이 등장하는 유들의 결합 논의를 앞으로는 to mē on 의 불가능성과 to on 에 관련한 역설들을 향해, 뒤로는 거짓말에 대한 설명을 향해 일관된 방식으로 확장시켜 적용하고자 하는 더 큰 전망의 유무로 인해 생겨났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나아가 중간 부분 논의에 대한 정합적이고 일관된 해석이 다른 바깥 부분 논의에까지 확장될 수 있어야 하며, 역으로 그러한 확장된 적용을 고려하였을 때에 브라운의 해석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피할 수 있으리라는 점 역시 두 사람의 해석을 비교 평가하여 보이고자 하였던 또 하나의 결론이었다.

to mē on 과 to on 은 같은 정도로 어려우며 한쪽이 밝혀지는 그만큼 다른 쪽도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어진 해법은 유들의 결합 논의이다. to on 과 to mē on 의 문제와 이에 대한 해법은 모두 to mē on 과 to on 이 뒤섞인 모상과 그것들이 말 안에서 결합되어 있는 거짓이 가능한 것임을, 그리고 그것들이 무엇이며 어떠한지를 밝히기 위한 과정 중에 논의된 것이다. to on 과 to mē on 의 논의가 목표로 하였던 일종의 중간 결론으로서의 거짓말에 대한 논의는, 단지 예시된 참인 문장과 거짓인 문장 각각이 왜 참이고 왜 거짓인지만을 밝히고자 하였다면 이 논의가 소피스트 정의에 기여하는 바는 알 수 없게 되어 버린다. 또한 두 예시를 통해 주어지는 거짓말에 대한 설명은 말과 생각이 동류이며 믿음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 인상은 믿음이 감각을 통해 나온 것이라는 규정을 통해 단지 말에서만이 아니라 생각과 믿음 그리고 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이 역시 플라톤이 거짓말에 대한 설명을 일반화시키고자 의도하였다고 볼 근거일 것이다. 더욱이 이 거짓인 말이나 믿음은 소피스트가 모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논박을 해내는 것처럼 보인다는 현상에 대한 가능한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이 활동 전체로서 소피스트가 모든 일에 지혜로운 자로 보인다는 것도, 그가 실제로 앎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야에서 바로 그러한 특정한 앎을 가진 자를 상대로 논박을 해낼 때 소피스트 자신이 내세우는 앎으로 보이는 어떤 것도, 이 모두에 거짓이 적용되고 이것들이 거짓인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중간 부분 논의 해석은 바깥 부분 논의 해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단지 소피스트가 거짓말을 하는 자로 또 거짓 믿음을 심어주는 자로 추정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들 중 그에게 참되게 서술될 수 있는 활동들과 그에 관해 서술될 때 거짓이라 해야 할 활동들을 구분하고, 다시 그를 정의하는 데에 필수적인 모습들과 그렇지 않고 단지 우연하게 결부되는 모습들을 구분할 수 있기 위해서도, 중간 부분 논의가 다루고 있는 to on 과 to mē on 그리고 거짓(-말, 생각, 믿음, 인상)의 의미 규명은 핵심 문제로서 해결되어야만 한다.

『소피스트』 내에서 다뤄진 여러 문제들 각각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난해하고도 중대한 문제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님도 분명하다. 그러나 본 논문의 결론은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해결책들이 정합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하나의 해석으로서 제시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최소한 대화편 전체에 대한 완결된 해석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킨 『소피스트』 해석은 이 안에서 다뤄진 각각의 문제를 다룬 또 다른 대화편들의 해석으로, 거기에서 다시 플라톤 철학의 전체 체계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조망으로, 그리고 플라톤과 그 이전 철학자들 사이에서 전개된 철학의 흐름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어진 오늘날까지의 철학의 맥락에 대한 더 넓은 해석으로 진행하기 위한 예비적이지만 또한 필수적인 사전 연구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피스트』라는 하나의 대화편에 대한 해석은 이러한 더 넓은 범위 안에서 해당 해석의 위치와 역할을 고려하였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소피스트』라는 하나의 대화편, 그 안에서도 중간 부분에 한정된 논의를 두고 지나치게 과하고 무리한 요구를 결론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엘레아 손님은 이렇게 말한다. 철학자는 아이들이 바라는 그런 식으로 "양쪽 모두 다"라고 말해야만 한다고, to on 과 to mē on 둘

모두 같은 정도로 어려움에 참여하기에, 둘 중 한 쪽이 더 흐릿한 것으로 드러나든 더욱 분명한 것으로 드러나든, 다른 쪽도 그러하리라는 희망이 있다고. 또한 그는 말한다.

> "조금만이라도 앞을 향하여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용기를 내야만 한다. 이런 일들에 낙담하는 자, 그런 일들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거나 도리어 뒤로 물러서기까지 하는 자가 다른 일들에서 무엇을 해낼 수 있겠는가? 속담이 말하듯, 여간해서는 '그런 자는 결코 도시를 장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말하는 방벽을 넘어섰으니 우리에게 가장 큰 성벽을 우리가 장악한 셈이고, 이제 다른 일들은 보다 쉽고 작은 것이다. (261b4-c4)"

참고문헌

전헌상, 「『소피스트』에서 있지 않음과 거짓 진술」, 『서양고전학연구』 51. 2013, 5-37 쪽.

플라톤 『소피스테스』, 김태경 옮김, 한길사, 2000.

『소피스트』, 이창우 옮김, 정암학당 플라톤 전집, 이제이북스, 2011.

Ackrill, J. L. 1955, ‘ΣΥΜΠΛΟΚΗ ΕΙΔΩΝ’ in Ackrill (1997), 72–9.

1957 ‘Plato and the Copula: Sophist 251–259’ in Ackrill (1997), 80–92.

1997, *Essays on Plato and Aristotle*, Oxford.

Bluck, R. S. 1963, *Plato’s* Sophist*: A Commentary*, ed. by G. C. Neal, Manchester 1975.

Bostock, D. 1984, ‘Plato on “Is Not” (Sophist 254–9)’, OSAP 2: 89–119.

Brown, L. 1986, ‘Being in the Sophist: A Syntactical Enquiry’ in Fine (1999), 455–78.

1994, ‘The Verb “To Be” in Greek Philosophy: Some Remarks’ in Everson (1994), 212–36.

2008, ‘The Sophist on Statements, Predication, and Falsehood’ in Fine (2008), 437–62.

2011, ‘Negation and Not–Being: Dark Matter in the *Sophist*’ in Patterson (2013)

Cornford, F. M. 1935, *Plato’s Theory of Knowledge: The* Theaetetus *and the* Sophist *of Plato Translated with a Running Commentary*, London and New York.

Crivelli, P. 2012, *Plato’s Account of Falsehood: A Study of the* Sophist

Eck, J. van 1995, ‘Falsity without Negative Predication: On *Sophistes* 255e–263d’, Phronesis 40: 20–47.

1997, ‘A Note on Sophist 257b9–c3’, Mnemosyne 50: 75–7.

2000, ‘Plato’s Logical Insights: On *Sophist* 254d–257a’

2002, ‘Not–Being and Difference: On Plato’s *Sophist*, 256d5–258e3’, OSAP 23: 63–84.

Everson, S. (ed.) 1994, *Language*, Cambridge.
Fine, G. (ed.) 1999, *Plato I: Metaphysics and Epistemology*, Oxford.
(ed.) 2008, *The Oxford Handbook of Plato*, Oxford.
Frede, M. 1967, *Prädikation und Existenzaussage: Platons Gebrauch von '... ist ...' und '... ist nicht ...' im* Sophistes, Göttinen.
1992, 'Plato's Sophist on False Statements' in Kraut (1992), 397–424.
Gosling, J. C. B. 1973, *Plato*, London.
Kahn, C. H. 2003, *The Verb 'Be' In Ancient Greek*, Hackett.
2009, *Essays on Being*, Oxford.
Keyt, D. 1973, 'Plato on Falsity: *Sophist* 263b' in Lee et al. (1973), 285–305.
Klein, J. 1977, *Plato's Trilogy:* Theaetetus*, the* Sophist *and the* Stateman, Chicago and London.
Kostman, J. P. 1973, 'False Logos and Not–Being in Plato's *Sophist*', JHPh 27: 343–63.
Kraut, R. (ed.) 1992, *The Cambridge Companion to Plato*, Cambridge.
Kühner, R. and Gerth, B. 1892–1904, *Ausführliche Grammatik der griechischen Sprache*, 3rd edn, Hanover and Leipzig.
Lee, E. N. 1972, 'Plato on Negation and Not–Being in the *Sophist*', PR 81: 267–304.
Lee, E. N., Mourelatos, A. P. D., and Rorty, R. M. (eds.) 1973, *Exegesis and Argument: Studies in Greek Philosophy Presented to Gregory Vlastos*, Assen.
Liddle, H. G., Scott, R., Jones et al. 1996, *A Greek–English Lexicon*, 9th edn., Clarendon.
Malcolm, J. 1967, 'Plato's Analysis of τὸ ὄν and τὸ μὴ ὄν in the Sophist', Phronesis 12: 130–46.
1985, 'On What Is Not in any Way in the Sophist', CQ n.s. 35: 521–3.
McDowell, J. 1982, 'Falsehood and Not–Being in Plato's Sophist' in Schofield and Craven Nussbaum (1982), 115–34.
Moravcsik, J. M. E. (ed.) 1973, *Patterns in Plato's Thought*, Dordrecht.

Notomi, N. 1999, *The Unity of Plato's Sophist: Between the Sophist and the Philosopher*, Cambridge.
Owen, G. E. L. 1957, 'A Proof in the περὶ ἰδεῶν', JHS 77: 103-11.
1971, 'Plato on Not-Being' in Vlastos (1971), 223-67.
Patterson, R. et al (eds.) 2013, *Presocratics and Plato*, Parmenides Pub.
Pelletier, F. J. 1975, '"Incompatibility" in Plato's Sophist', Dialogue 14: 143-6.
Plato, *Platonis Opera*, 1 Vols., Oxford, E.A. Duke, W. F. Hicken, W. S. M. Nicoll, D. B. Robinson, J. C. G. Strachan (eds.), Oxford, 1995.
Rosen, S. 1983, *Plato's* Sophist*: The Drama of Original and Image*, New Haven and London.
Ross, D. 1951, *Plato's Theory of Ideas*, Oxford.
Ryle, G. 1966, *Plato's Progress*, Cambridge.
Schofield, M. and Craven Nussbaum, M. (eds.) 1982, *Language and Logos: Studies in Ancient Greek Philosophy Presented to G. E. L. Owen*, Cambridge.
Silverman, A. 2002, *The Dialectic of Essence: A Study of Plato's Metaphysics*, Princeton.
Smyth, H. W. 1920, *Greek Grammar*, rev. by G. M. Messing, Cambridge, MA 1956.
Stenzel, J. 1940, *Plato's Method of Dialectic*, trans. and ed. by D. J. Allan, 2nd edn, New York.
Vlastos, G. 1970, 'An Ambiguity in the Sophist' in Vlastos (1981), 270-322.
1981, *Platonic Studies*, 2nd edn, Princeton.
Vlastos, G. (ed.) 1971, *Plato: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I, Garden City.
White, N. P. (trans.) 1993, *Plato: Sophist*, Indianapolis and Cambridge, MA.
Wiggins, D. 1971, 'Sentence Meaning, Negation, and Plato's Problem of Non-Being' in Vlastos (1971), 268-303.

Abstract

Negative Predication and Non-Identity in Plato's *Sophist*

— On the Consistency and Scalability of Interpretation —

Byun Ji yun
Western Philoso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I summarize the main discussion of Plato's dialogue the *Sophist*, focusing on *to on* (being), *to mē on* (not being) and falsehood. In this process, I try to show that the positions classified as 'traditional interpretation' fail to attempt to interpret the main contents of the dialogue by classifying the meaning of 'on' into existence, copular, and identity.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s lose the coherence of the interpretation by distinguishing between the usage and meaning of the *on*, and especially regard *to mē on* as the non-identity, making the explanation in the dialogue about falsehood incomplete. The alternative interpretation of each of Frede and Brown shows this point well and shows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Sophist* is possible in a different way.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s contrast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se two, this paper will argue that it is essential in the *Sophist* study that a consistent interpretation of *to on*, *to mē on*.

Next, this paper argues that Frede shows a better explanation of the *Sophist* than Brown's moderate interpretation which improves and supplments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s. Brown, who shares the understanding what *to mē on* means with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can not provide enough explanation for the falsehood in the dialogue just like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This interpretation also discourages the possibility of extending the discussion of the combination of the kinds to the discussion of *to on* and *to mē on* in the dialogue. On the other hand, Frede argues that *to mē on* should be understood as an ordinary negative

predication rather than non-identity, thereby providing a sufficient explanation of the falsehood and a consistent understanding of *to mē on* that is capable to expand. Through this comparative evaluation of two interpretations, this paper argues that a consistent understanding of *to on* and *to mē on* should be extended to interpret other parts of the dialogue that do not directly examine the concept.

As a conclusion, it should be reconsidered and discarded that the syntactic and semantic distinction of "be" which the most of studies have premised on the *Sophist*. Rather, the meaning of *to on* must be interpreted consistantly throughout the *Sophist*. Also, *to mē on* should not be understood as non-identities in the combination of kinds. The interpretation of *to mē on* as ordinary negative predication can ensure consistency and scalability. The map of established interpretations of the *Sophist* is no longer valid. A consistent interpretation of *to on* from which identity is distinguished and of *to mē on* from which non-identity is necessary, and this interpretation should be extended to the whole the *Sophist* and further to the whole of Plato's philosophical system. In addition, considering such scalability, common limitations of past interpretations can be avoided in advance.

Keywords : Plato, Sophist, Negative Predication, Non-Identity, to mē on.
Student Number : 2011-20059